수요일은 1080 누르고 福 짓는날!
전국어디서나 일반전화·휴대폰으로 1080 누르면 '관음손'이 됩니다
나눔의 손잡기 기금모금
ARS:060-700-1080
우리이웃

현대불교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제주도 · 중국전문 성지순례 여행사
(주)행복만선
Tel. 02)720-8489

www.buddhanews.com ☎구독신청 02)737-0090·대표 02) 737-8881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8년 (서기 2004년) 7월 7일(음력5월 20일) 수요일 (주간) 제481호

서울시장 '망언'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

불교계 · 우리당 · 네티즌 거센 항의
이 시장측 "해명 · 사과 계획없다"



이명박 서울시장이 행사에서 '수도서울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내용의 봉헌서를 낭독하고 있다. 아래는 봉헌서 내용. 사진은 기독교TV촬영

이명박 서울시장이 최근 한 기독교 행사에서 '수도 서울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내용의 봉헌서를 낭독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7월 2일 기독교TV(CTS) 등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5월 30~31일 이틀간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청년 · 학생 연합기도회'에 참석, '서울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서'를 통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도시이며, 서울의 시민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서울의 교회와 기독인들은 수도 서울을 지키는 영적 파수꾼임을 선포한다"며 "서울의 회복과 부흥을 꿈꾸고 기도하는 서울 기독 청년들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수도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라고 말했다.

서울 소망교회 장로인 이 시장은 '서울의 부흥을 꿈꾸는 청년연합'이 주최해 1만여명이 참석한 이 행사에서 서울시 공식 휘장이 새겨져 있는 '서울특별시장 이명박 장로 외 서울의 부흥을 꿈꾸며 기도하는 서울 기독 청년 일동'이라고 적시된 봉헌서를 낭독해, 개인 자격이 아닌 서울특별시장 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의 부흥을 꿈꾸는 청년연합'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과 후년에 이어 17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2007년에도 전국적인 규모로 이와 같은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져, 기독교 측에서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시장 비서실 측은 "특별히 할 말이 없다. 현재(2일)까지 해명이나 사과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불교계와 네티즌들은 물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까지, 이 시장이 개인자격이 아닌 서울특별시장 자격으로 참석해 '봉헌' 운운한 것은 공직자로서 적절치 못한 처신이라며 일제히 비난했다.

조계종과 태고종은 2일 "서울시장이라는 신분을 가진 공인으로서 적절치 못한 발언과 행동"이라며 "인기를 좇는 정치인의 행태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2면으로 이어짐

〈서울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서〉

흐르는 역사 속에서 서울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도시이며,
서울의 시민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서울의 교회와 기독인들은
수도 서울을 지키는 영적 파수꾼임을 선포하며,
서울의 회복과 부흥을 꿈꾸고 기도하는
서울 기독 청년들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수도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2004년 5월 31일
서울특별시장 이명박 장로 외
서울의 부흥을 꿈꾸며 기도하는
서울 기독청년 일동

승가교육제도 개선 '시동'

조계종 승가교육개선추진위 발족 … 위원장 종범 스님

조계종이 승가교육제도 개혁을 본격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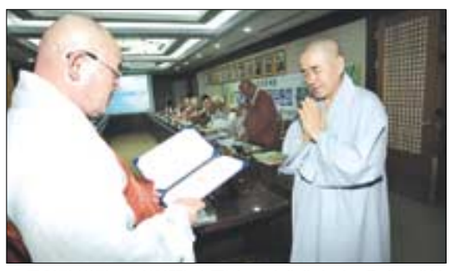
조계종 승가교육제도개선추진위원회(위원장 종범 · 이하 승개추)는 7월 1일 발족식을 갖고 위원장에 종범 스님(중앙승가대 총장)을 선출하고 제도개선분과 위원장에 지안 스님(승가대학원장), 법령개선분과 위원장에 영배 스님(종회 교육분과위원장)을 임명하는 등 교육관계 인사 19명으로 구성된 추진위원단을 확정했다.

승개추는 승가교육 중 기초(행자)교육, 기본교육, 전문(특수)교육 분야의 제도개선안 마련과 법령개정, 시행방안 수립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종단 산하의 특별위원회다. 운영일정은 오는 8월 대토론회를 시작으로 실무위원회의, 분과위 회의, 추진위회의, 워크숍, 공청회 등을 거쳐 2005년 6월 경 중앙종회에 종법개정안 제출을 끝으로 역할을 마치는 한시적 성격의 조직이다.

조계종은 지금까지 행자교육원의 실제 교육기간이 20일 남짓 밖에 되지 않아 기초교육 부실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으며, 강원, 중앙승가대, 동국대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기본교육제도가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아 강원 교육을 마치고도 학위취득을 위해 동국대나 중앙승가대로 다시 진학하는 사례가 빈발했다. 실제로 중앙승가대의 재학생 절반이 구족계 수지자로 기본교육기관이라는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또 타종교와 비교해 현행 기본교육 4년 만으로 스님이 되는 것이 현실적인가 하는데 대한 문제제기도 끊이지 않았다.

이날 발족식에서 법장 스님은 "이번 승개추 출범은 1994년 교육원 출범 이후 10년차를 맞는 현행 승가교육체계에 대한 종단 내부의 문제의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종단의 미래를 책임질 도제 양성의 근간이 되는 승가교육체계 개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계종은 2002년 법장 스님의 총무원장 취임이후 '선교육 후득도' 체계를 기본으로 하는 승가교육제도 개선을 주요 종책 과제로 정하고 1년 이상 행자 생활과 4년 정규대학(중앙승가대), 2년 대학원(강원)과정 등 7년 이상의 의무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총무원장 법장 스님(왼쪽)이 종범 스님에게 승가교육제도개선추진위 위원 임명장을 주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청와대 앞 단식시위 지율 스님

천성산 지킴이 지율 스님이 6월 26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이번 단식 농성의 목적은 천성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재실시와 그 기간 동안의 공사 중단. 지율 스님은 "터널 진입로 공사가 90% 이상 끝나 곧 터널이 뚫릴 위기 상황"이라며 "자연 보존에 대한 의식이 바뀌는 그날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北 · 中 고구려 유적 세계유산에

세계유산위, 인류 보편적 가치 인정

고구려 유적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중국 쓰저우(蘇州)에서 열리고 있는 유네스코 제28차 세계유산위원회(6.28~7.7)는 7월 1일 북한과 중국이 각각 신청한 '고구려 고분군'과 '고구려 수도, 귀족과 왕족의 무덤'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결정했다. 이번에 등재 결정된 유적은 북한의 평양, 평안남도 남포 등 5개 지역 고분 63기와 벽화고분 16기와 중국에 있는 오녀산성, 국내성, 환도산성, 태왕릉과 광개토대왕비, 장군총 등 고구려 초기 도읍터와 무덤 등이다.

세계유산위원회는 고구려 유적에 담긴 △인류의 탁월한 창조성 △동아시아 역사 발전단계를 보여주는 대표적 가치 △벽화의 미적 우수성 △독특한 건축구조 △인간과 자연의 조화 등을 높이 평가했다.

이번 등재로 고구려 유적이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음은 물론, 유적에 대한 접근이 한층 용이해져 국내외 고구려사 연구가 활기를 띠게 될 전망이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세계여성불자대회 성료
이라크 평화 결의문 채택

제8차 세계여성불자대회(공동대회장 명성 · 쏘모)가 7월 2일 성료됐다. 중앙승가대에서 열린 이번대회에는 30개국 13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가했으며, 참가자들은 마지막날 이라크 전쟁의 평화적 해결에 참여 할 것 등을 결의하는 8개항의 선언문을 채택했다. 관련기사 9 · 10면

조용수 기자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씨 취임



노무현 대통령은 6월 30일 새 문화관광부 장관에 열린우리당 정동채 의원(54 · 사진)을 임명했다. 정 장관은 언론인 출신의 3선 의원으로 1950년 전남 화순 출생, 경희대 국문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템플대 신문 대학원을 수료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현대불교 안전하고 편리한 구독신청
전화 한통화로 해결하십시오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 · 자동이체 신청 ●
직통 (02)737-0090 대표 737-8881

'할'



그림 · 조태호

덕해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불교 최고의 경전 화엄경!
80권本 화엄경의 완역판 드디어 재간행!

無比스님 완역 한글 화엄경

전 조계종 교육원장 무비(無比)큰스님께서 완역한
『한글 화엄경』(12권)이 품절된지
10년만에 드디어 재간되었습니다!

3만명의 불자가
이미 『한글 화엄경』을 모셨습니다!



무비스님 완역 『한글 화엄경』에 대한 언론의 격찬!

- 대승불교의 최고의 경전인 華嚴經이 無比스님(前법어사 講主)에 의해 한글로 完譯됐다. 도서출판 민족사가 최근 펴낸 『한글 화엄경』(전12권)은 善財동자의 구도과정을 그린 入法界品을 비롯해 80권本 화엄경 전 40品을 모두 한글로 옮기고 뒤에 원문을 붙여 대조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경전의 긴 내용을 단락을 나누고 소제목을 붙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 조선일보 1994년 간행당시 -

- 최근 간행된 무비스님 완역 한글 화엄경은 단순한 번역이 아닌 경전의 치밀한 내용 파악으로 연구자와 일반인 모두에게 잘 읽히도록 번역편찬됐다는 것이 특징이다.
- 불교신문 1994년 간행당시 -

무비스님 완역『한글 화엄경』의 특징

① 80권本 화엄경(전40품)의 완역판.
② 모든 불자들이 읽고, 독송하기 좋은 새 한글 번역.
③ 중국 天童山판 80권本 화엄경 원문 수록
④ 상세한 단락구분과 소제목이 첨부되어 내용 파악이 용이함.

구입방법 ① 특가 : 전 12권 220,000원 ② 신청 즉시 택배로 보내드림.
③ 송금방법 : 아래의 은행구좌를 이용하십시오.
국민은행 006-01-0773-002 윤재승 외환은행 059-18-17838-6 윤재승
농 협 053-02-109450 윤재승 조흥은행 390-01-033705 윤재승

도서출판 민족사
우편번호 110-130 서울 종로구 청진동 208-1
전화 : 02)732-2403~4 / 팩스 : 02)739-7565
E-mail : minjoksa@chollian.net



자원봉사도 수행이다

종교계의 사회복지사업 참여는 교세(敎勢)의 '대 사회 회향'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물질적 환원을 통해 정부와 함께 재원을 분담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직접적으로 수행과 신심의 실천 활동을 펼치는 것이다. 물질적 환원이 교단의 안목과 종책적 역량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자원봉사활동은 자발적으로 순수하게 이루어지는 신행 차원의 행위이기에 좀더 종교 본연의 자세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들어 불교계의 사회복지 동참 활동은 시설 및 운영법인의 개체수가 늘어나고 자원봉사활동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여서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자원봉사자의 경우, 전국적으로 2만여 명 정도가 활동하는 등 매년 11% 정도가 증가하고 있고, 봉사활동 시간도 25% 정도씩 늘어나고 있어 불교사회복지의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그러나 불교자원봉사 활동은 무한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36.7%, 불교 22.3%, 천주교 22.3%라는 한 자원봉사단체의 통계자료에서 보듯 아직은 수치적으로 그 참여도가 미약한 실정이다.



봉사자·활동시간 계속 증가추세
교육·전문영역확대 등 뒤따라야

불교의 자원봉사활동은 단순한 '이웃돕기' 차원이나 '자선활동'이 아닌 수행적 차원에서 차별성을 지닐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무보수, 자발성, 지속성, 신뢰성 등의 원칙을 가지고 전개되는 자원봉사 활동의 가치는 불교의 제 경전이나, 사상, 실천덕목 속에 폭넓게 그 사상적 기반과 연관성이 용해되어 있다. 특히 대승불교의 실천사상인 '상구보리(上求菩提) 하화중생(下化衆生)'의 정신과 같이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과 공덕의 사회 회향차원에서도 자원봉사활동 만큼 매력적이고, 현실적인 신행의 방편은 없을 것이다.

불교자원봉사 활동이 올바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좀더 내실화해야하고, 다양하고 현실적인 보상체계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최근 조계종복지재단의 서울과 경기지역의 불교자원봉사 활동 조사 내용을 보더라도 불자들의 자원봉사 활동영역은 식사지원이나 간병도우미 등 40% 이상이 단순 봉사에 치우치고 있고, 대도시에 집중되는 등 지역편중도 심한 것으로 나타나 교단 차원의 관심과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불교자원봉사 활동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전문영역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불교자원봉사센터의 전국적인 확대와 활성화가 필요하고, 불교대학의 교과과정에도 자원봉사 활동이 필수과목으로 개설되어야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들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포교사 고시에도 관련된 내용을 삽입하는 등 다양한 방편이 강구되어 할 것이다. 이밖에 자원봉사 크레디트제도나 상해보험 도입 등 현실적인 제도 도입을 통해서도 불자들을 복지현장으로 유도할 수 있는 다각적인 동기부여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 장지현(진각복지재단 사무처장)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채수삼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조계종 해외포교 '호황'

中 북경법당개원, 미국·호주 겨냥 포교사 양성도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이 최근 중국 북경한인불자회(회장 양의숙) 법당을 개원하고, 미국 뉴욕에 국제포교사를 파견하는 등 해외포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6월 27일 중국 교민포교를 위해 중국 북경한인불자회 법당 '만월사'를 개원한 포교원은 근시일안에 불교대학을 설립, 국제포교사를 양성할 방침이다. 현재 중국은 불교와 기독교를 막론해 어떠한 종교도 공식적인 포교 및 선교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 포교원은 이러한 중국의 현실을 감안할 때 스님이 상주하며 법회와 법당 살림을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 현지 교민을 국제 포교사로 양성해 중국 내 불교활동 및 신행생활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북경과 상해, 천진, 심양 등 한인불자회가 존재하는 중국 주요지역을 보다 집중적으로 투자, 지원해 향후 중국에 유입되는 교민들의 지속적인 불교활동을 돕고, 이를 기반으로 현지인들도 포교할 계획이다.

포교원은 중국뿐만 아니라 미주지역 포교 활성화를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미국 뉴욕에 국제포교사를 파견해 종단의 역량을 강화하고, 인터넷 사이버 강의를 통해 국제포교사도 양성하고 있다.



중국법당 '만월사' 개원법회와 함께 진행된 현판식.
사진제공=북경한인불자회

또한 오는 10월경에는 '국제포교사회 미주지부'(가칭)를 창설할 계획이다. 이는 미국 LA와 호주 시드니 등을 중심으로 국제포교사를 양성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활동이 미약하고, 종단과 연계해 현지의 포교활동을 점검·발전시킬 시스템이 개발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뉴욕에 파견돼 있는 국제포교사는 1명으로, 법회 위주의 포교활동은 물론 현지포교현황에 대한 조사 및 보고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포교원장 도영 스님은 "중국을 비롯한 미국, 호주 등 해외지역 내 포교역량이 상당히 미약한 상태"라며 "교민들을 껴안고 나아가 한국불교를 알릴 수 있도록 종단은 물론, 사찰과 신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경 기자 ilpck@buddhapia.com

"49재 보험 가입하세요"

천태종, 불자위한 보험사업 펼쳐

천태종이 보험판매 회사인 (주)금강라이프와 제휴, 7월부터 스님과 신도들을 대상으로 자동차·운전자·종신 보험사업을 벌여나간다. 천태종은 앞서 5월 24일 총무원장 운덕 스님과 교무부장 춘광 스님, 재무부장 도재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강라이프 현판식을 갖는 등 본격적인 보험사업을 전개하고 나섰다.

금강라이프는 천태종과의 보험업무 제휴를 위해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과 자동차·운전자 보험 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운전자 보험은 금강라이프를 통해 보험사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가입하거나 보험사를 바꾸어 가입할 수 있다.

금강라이프는 또 흥국생명에 종신보험 상품인 '49재보험'을 기획·의뢰해 놓았으며, 8월부터 판매에 들어갈 계획이다. 49재보험은 계약자가 수익자를 천태종으로 지정하는 대신 천태종에서 49재와 기제사를 봉행해주는 상품으로, 일반 종신보험의 기능에 사후 불교식 장례와 제사를 보장해준다. 천태종은 49재보험 혜택이 모든 신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49재와 기제사에 관한 통일된 의식절차 개발에 들어갔다.

박봉영 기자

세무서 '수입금액 및 자산현황' 내라
사찰 "종교 독립성 무시·행정편의"

세무서에서 각 사찰을 대상으로 '수입금액 및 자산보유 현황'에 대한 보고를 요청하는 것과 관련, 종교단체로서 사찰의 독립성과 특수성을 무시한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은 6월 28일 종단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이는 세법과 관련 규정상 불가피한 조치이긴 하나 종교단체로서 사찰의 독립성과 특수성을 무시한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며 "각급 세무서의 자료 요청 이외의 독촉이나 불이익 등은 없는 것으로 국세청과 양해되었으며, 향후 관련 법 규정 개정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교육국장 각만
포교국장 선웅스님
조계종 인사

조계종은 6월 30일자로 교육국장에 각만 스님을 임명했다. 각만 스님은 1984년 자운 스님으로부터 사미계, 1990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1994년 중앙승가대를 졸업하고 청주 용화사 주지를 지냈다.

한편 포교원 포교국장에는 선웅 스님이 6월 28일자로 임명됐다. 1988년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한 선웅 스님은 88년 사미계, 94년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최근까지 조계사 신도국장을 역임했다.

조용수 기자

승적 정정조치 촉구

조계종 98년 징계자들

조계종 1998년 종단사태 관련자인 정우·원학·현소·성문 스님은 6월 29일 조계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심사 속개를 위한 승적정정을 촉구했다.

스님들은 간담회에서 "법규위원회가 2003년 7월 제25차 심판부에서 '신청인들이 해종특위법에 의해 받은 징계는 특별법에 의해 유예된 상태이며, 특별법에 의해 심사를 속개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심판결정을 내렸다"며 "특별법에 의해 재심사 계류중이므로 승적은 당연히 정정(복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승정 정정(복적) 재요청서'를 동년 5월 12일 재차 총무원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재심호계원 불참위원 사퇴하라"

조계종 범어사 선암사 특위

지난 6월 21일 개최 예정이었던 제27차 재심호계원이 성원 미달로 자동 유예된 것과 관련, 조계종 범어사·선암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향적, 이하 범어사·선암사 특위)가 심판에 불참한 재심호계위원에 대해 사퇴권고안을 차기 중앙종회에 특위 명의로 의안 상정키로 했다.

특위는 또 선암사가 종단 승인 없이 토지처분금으로 구입한 건물(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소재 안락종합타운) 유실방지를 위해 신속한 법률적 조치(매각금지 가처분소송 등)를 취할 것을 결의했다.

남동우 기자

☞ 1면에서 계속

조계종 신도·신행·포교 단체, 불교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종교평화위원회(구 종교편향대책위원회)와 열린우리당도 같은 날 발표한 규탄 성명서에서 "시민과 국민이 안위와 민복은 뒷전이고 오직 정치적 목적달성에만 눈이 어두워 사회 구성원간의 갈등과 혼란을 조장하는 이 시장은 당장 서울시민과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스스로 참회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부산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총무원 뿐만 아니라 전국교구본사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다"고 강조했다.

공동 취재반

'화엄회' 발족

조계종 중앙종회 종책모임

조계종 중앙종회 새 종책연구모임인 화엄회가 6월 29일 수원 한 호텔에서 발족식을 가졌다. 장주·인행·자승·광조·도완·정안·성월·성직·정도·성국·종삼 스님 등 중앙종회의원 11명이 소속된 화엄회는 회장에 장주 스님, 수석부회장에 인행 스님을 추대했다.

이에따라 조계종 종책연구모임은 일승회, 금강회, 보림회, 화엄회 등 4개로 재편됐다. 일승회(회장 종광)는 총무원장 법장 스님지지 계열로, 금강회(회장 보선)와 보림회(회장 설송)는 견제 세력으로 알려졌다.

남동우 기자

고침·사과의 말씀

본지 지난호(480호) 7면의 '홍성·보령 불교 이끄는 주역들' 기사가 제작상 실수로 행의 흐름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4면 봉녕사 금강율원생 '5기'를 '3·4기'로 바로잡습니다.

내가 외떨어져 살기를 좋아하는 것은
나 자신의 리듬에 맞추어 내 갈 길을 가기 위해서다

홀로 사는 즐거움

법정 지음 | 양장 | 값 9,800원

교보 비소설 1위
영풍 종합 1위
영광·동보 1위



깊은 사유의 언어와 맑은 영혼의 소리
〈오두막 편지〉 이후 5년 만에 펴내는 법정 스님 신작 산문집!



홀로 있을수록 함께 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그는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없다.
'홀로'라는 말 자체는 어디에도 물들지 않고, 순수하며 자유롭고 부분이 아니라
전체로서 당당하게 있는 것을 말한다.
당신이 홀로일 때 비로소 세상에 살면서도 늘 아웃사이더로 있으리라.
홀로 있을 때 완벽한 생동과 협동이 존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래 전체적이기 때문이다.

사유의 기쁨을 깨닫게 해주는 법정 스님의 책들

서 있는 사람들
방황하고 절망하는 현대인들에게 띄우는 사랑과 위안의 글

버리고 떠나기
진정한 충만은 버리는 것임을 깨닫게 하는 준엄한 감동

물소리 바람소리
침묵을 통해 자연에서 배우는 진정한 아름다움과의 만남

산방한담
산사람의 정기와 자연의 정기가 듬뿍 스며 있는 수상집

텅빈 충만
스님의 속뜰을 들여다볼 수 있는 담백한 산사 이야기

영혼의 모음
새벽 이슬처럼 싱그러운 스님의 첫 수상집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
빈한한 영혼을 적시는 침묵과 명상의 언어

말과 침묵
일반인들도 쉽게 보는 불타와 조사들의 어록, 불교 입문서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나지막한 목소리로 읽는 소박하고 쉬운 숫타니파타 강론집

인도기행
영혼과 깨달음의 땅 인도를 찾아가는 스님의 첫 기행문

www.isamtoh.com
도서주문 및 문의 080-763-8961 | (02)763-8961~6 샘터

“해인사 협의기구 환영”
환경·신행단체 논평

해인사 대형불사에 대한 산중총회 관련, 불교환경연대 등 16개 불교 환경 · 신행단체들은 6월 28일 이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

불교계 단체들은 “광범위한 의견수렴 및 재검토를 위한 협의기구를 만들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며 “바람직한 불사문화 정착을 위해, 해인사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문화재청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단체는 6월 29일 해인사로 ‘불사의 목적’ ‘자연환경 및 국립공원 훼손’ ‘문화재 보호’ 등 23개 항의 질의서를 보냈다.

강유신 기자

동식물 천도재 열린다
7월10일 강릉 현덕사

동식물 수륙고혼 천도재가 열린다. 강릉 현덕사(주지 현종)는 7월 10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제3회 동식물 수륙고혼 천도재를 봉행한다. 천도대상은 사람들의 이기심과 편리함을 충족하기 위해 죽어간 동식물을 비롯, 교통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은 동물, 환경파괴로 피해를 입은 동식물, 병원과 연구기관에서 실험용으로 목숨을 잃은 동물, 2003년 조류독감으로 폐사된 조류 등이다.

주지 현종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을 받들어, 사람들로 인해 소중한 목숨을 잃은 동물과 식물들의 영혼을 천도하고 극락왕생을 발원하기 위해 동식물 수륙고혼 천도재를 봉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의 (033) 661-5878.

김원우 기자

백용성조사 탄생 기념
141회 봉찬대재 봉행

백용성조사 탄생성지 장수 죽림정사(조실 도문)는 6월 25일 백용성조사탄생 제141회 봉찬대재 및 6 · 25 일체 영가천도 법회를 개최했다.

봉찬법회는 장재영 장수군수와 김상두 전장수군수, 장수군 불자연합회 백사인 회장, 백용성조사기념사업회 유종혁 이사장, 백용성조사유훈실현후원회 한수승행 회장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봉행됐다. 죽림정사는 이날 백용성조사탄생성지 성역화불사 추진도량 관리사 · 화장실 기공 개토제를 개최했다. 김원우 기자

“여성불자 교육시스템 만들자”

제9회 여성주간 맞아 체계적 연구 필요성 제기

여성불자들이 뛰고 있다. 수행과 신행에 적극적이고, 스스로의 가치와 위상을 확립하려는 노력도 활발하다. 6월 30일 발표된 통계청 자료나 사찰 신행활동 현황은 이런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하지만 불교계의 관심은 아직도 먼발치다.

이러한 가운데 제9회 여성주간(7.1~7.7)을 맞아 여성불자들의 노력과 잠재력을 담아낼 체계적 연구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6월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서는 여성의 종교인구(61%)는 남성보다 14.6%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세계여성불자대회 등의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주변인 불자’를 뛰어넘으려는 여성불자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또한 시민선방 수행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80%에 달하고 여성불자들의 신행활동도 활발하다. 법회 참석 열의나 봉사활동 참여도는 남성불자를 훨씬 앞지른다. 최근 들어서는 불교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여성불자들도 대폭 늘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외부의 평가는 냉담하다. 여성 관련 단체 관계자들은 기도와 염불 등으로 대표되는 수행법의 가치에 대한 인식전환과 새로운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입을 모은다.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김정희 교수는 최근 세계여성불자대회에서 ‘여성불자들의 삶에서 본 생명 여성주의 윤리: 작은 해탈에서 머물고 말 것인가?’ 발제를 통해 “한국의 여성불자들은 수승한 실천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향의 서원을 시방으로 펼치지 못하고 있다”며 “서구 페미니즘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인욕바라밀의 실천수행 등이 새로운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해석과 가치발견도 중요하지만 실질적 제도 마련은 이에 앞서 논의돼야 할 문제다. 불교여성개발원 이창숙 자문위원은 ‘한국 여성불자 활동의 역사적 고찰과 과제’ 발표를 통해 “여성불자들을 위한 교육 체계를 세워 여성의 자각을 일깨워야 한다”고 밝혔다. 여성수행자의 여건에 맞게 고안한 프로그램은 물론, 이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개발도 전무한 상태라는 평가에서다.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이현옥 교수는 종립학교나 강원, 사찰 차원에서 여성불자 수행과 교육을 전담할 기관과 연구소를 설립 · 확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여성불자 개인의 정체성 확립은 최우선 과제다. 연초에 불교여성개발원이 실시한 ‘여성불자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설문조사’ 분석에 따르면 신행활동 중에 성차별을 경험한 경우 같은 여성 재가불자들에게 겪은 차별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교계에 뿌리박힌 여성비하 풍조를 여성이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교단 내에 남아있는 가부장적 요소를 불식시키고 치마불교의 이미지를 과감히 떨치는 것을 여성불자 정체성 확립의 주요 과제로 꼽는다.

불교여성개발원 한주영 연구개발실장은 “여성불자 성장방안과 관련한 제도적 장치는 여성불자들의 성향과 요구를 꼼꼼이 분석한 후에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며 “넘치는 여론을 수렴에 앞서 면밀한 검토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불자·일반인 함께 듣는 방송 지향

인터뷰 불교방송 신임 이성언 사장



“불교방송은 불교신자를 비롯해 일반인도 애청하는 방송이 돼야 합니다. 듣지 않는 방송에서 10번 말하는 것보다 많이 듣는 방송에서 1번 말하는 것이 포교의 효과가 뛰어나지 않겠습니까? 방송 내용도 많이 연구돼야 하고 부처님 말씀도 방송에 적합하게 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월 5일 취임한 이성언 불교방송 사장(사진)은 포부를 이렇게 밝혔다.

사장이 바뀐다고 회사가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 이 사장은 직원들과 함께 상생하며 서서히 회사의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방송 관련 경험이 부족하다는 우려에 대해 이 사장은 “KBS 기획계장으로 공무원의 첫 발을 내딛었고 해외 근무 때도 외국 방송사의 경영상태 분석을 맡는 등 방송국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방송사 경영이나 방송 운영에 대해 충분히 잘 알 수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저의 경험이 불교계에 보탬이 되는 결과가 나오게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불교방송재단은 7월 1일 제 52차 이사회를 열고 이성언 사장을 선임하는 한편 △ 진흥원의 불교방송 사장후보 복수천거 △ 조직개편, 부장급 이상 간부 인사권 이사장과 협의 △ 전무 · 상무 임면 이사장과 합의 등 정관을 개정했다. 강지연 기자



한자리에 모인 불이회 회원들. 창립 30주년을 맞아 젊은 회원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제공=불이회

“생활불교 · 不二정신 실천 30년”

재가여성불자단체 ‘불이회’
‘불이상’ 제정 등 인재불사 힘써



윤용숙 명예회장



홍라희 회장

불법의 외호와 실천의 길은 멀지 않은 듯했다. 함께할 도반이 6명뿐이라는 것, 살림밖에 모르는 주부들이 빈손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 ‘너와 나는 둘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시방세계를 오가며 보시행에 매진했다. 그렇게 걸어온 길이 벌써 30년이다.

재가여성불자단체인 불이회(회장 홍라희)가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1974년 한 화랑을 빌려 시작된 불이회는 윤용숙, 박명자, 강말원 씨 등 6명이 만든 모임. 현재는 40여명의 회원들이 사회 곳곳에서 왕성한 활동에 닻을 달았지만, 당시는 여성의 사회활동 제약도 심했고 불교 내 신행단체의 활약 역시 미미했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발기인들은 어렵사리 여성불자 모임을 꾸린 이래 원만한 회향의 원력을 품고 30년을 달려왔다.

불이회의 가장 돋보이는 활동은 바로 ‘인재불사’를 위한 실천에서 읽을 수 있다. 불이회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불이상’을 제정한 이래 매년 2명 이상의 수상자를 배출해 왔다. 불교나 관련 학문의 연구에서 두각을 나타내보인 이들, 음지에서 전법의 꽃을 피운 불자들을 선정해 시상한 것이다. 불이상에는 국내외 출 · 재가자들 63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불이회는 이러한 외부적인 활동에만 머물지 않았다. 전 회원을 지도자로 양성하겠다는 신념으로 불교교육에 적극적으로 뛰어 들었다. 불교대학 등의 교육과정이 생소하던 시절, 그들은 직접 발품을 팔고 다니며 각계각층 선지식들에게 강의와 설법을 청했다. 광덕 스님, 탄허 스님, 이기영 박사 등 그들이 찾아 모신 이들은 100여명에 이른다. 또한 단체 내에 금강경독송회를 조직해 여성불자가 주축이 되는 생활불교의 터를 닦기도 했다.

이밖에도 30여년에 이르는 군포교 활동, ‘불교 복지’의 이름조차 생소하던 시절의 양로원과 교도소 봉사활동으로도 주목을 받았다.

윤용숙(68 · 여성문제연구소 회장) 명예회장은 “앞으로도 불자로서 자신의 위치와 능력을 점검하고 그것을 사회에 회향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갈 것”며 “30주년을 기념해 젊은 여성불자들을 영입, 불이 정신을 사회 속에서 적극적으로 펼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제 19회 불이상 시상식은 7월 5일 오후 2시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다. 강신재 기자

“사기꾼 공양주 조심하세요”

사찰의 공양주가 사찰 명의로 빚을 지고 도망가는 사건이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경북 영주의 모사찰 주지 스님은 “김 모씨(47)가 지난해 11월 공양주로 들어와 최근까지 7개월여간 머물면서 승복집 등에 사찰 명의로 2백여만원의 빚을 지고 도망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스님은 “사찰에 있는 동안에도 자신을 찾는 전화가 오면 없다고 말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미심쩍은 면이 많았다”며 “다른 사찰에서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봉영 기자

“강의석 군 강제 전학 철회하라”

시민단체, 학내 종교의식 강요 중단 촉구

서울 대광고 강의석 군의 학내 강제적인 종교행위 거부와 관련(본지 480호 3면기사 참조)해 시민단체들이 연대모임을 결성하는 등 종교재단 소속 학교의 종교행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주노동당, 인권운동사랑방 등은 6월 30일 대광고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의석 군에 대한 징계철회와 강제전학 시도 등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아무리 특정 종교적 건학이념을 가진 학교라 하더라도 개인의 종교선택권을 박탈할 권리는 없으며, 이를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라며 “우리는 이 문제를 종교를 넘어 학생인권의 문제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뜻있는 사회단체들과 연대해 전국의 초 · 중 · 고교에서 강제 종교의식이 중단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학교측의 태도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는 강 군에게 전학을 가지 않으면 강제 제적 처리하겠다고 통보했다”며 “특정종교를 강요하는 부당한 현실에 문제를 제기한 강 군을 비민주적이고 권위적으로 억압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대광고측은 강 군의 부모에게 26일 “전학을 가지 않으면 강제제적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이에 강 군의 부모는 학교측의 요구대로 전학에 동의했다가 29일 이를 철회했다. 강의석 군은 현재 인터넷 사이트(www.daum.net/whdrytkfkd)를 통해 강제적인 종교행위의 부당성을 홍보하고 있다. 박봉영 기자

www.songchol.net

2004 해인사 백련암 여름수련법회

불보살님께 귀의함을 성스럽게 여기며
‘자기를 바로봅시다’라는
성철 큰스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는 곳, 해인사 백련암!!



대한불교조계종 12교구 본사 해인사
백 련 암

안내말씀

백련암을 아껴주시고 관심 깊게 바라보시는 모든 분들께 설레는 마음으로 다가서는 여름수련회의 기쁨을 전합니다.

해인사 백련암에서는 전통사찰의 품위와 성철 큰스님의 교훈을 중심으로 일상 생활 속에 흐트러진 마음을 스스로 닦고자 하는 불자님들과 모든 분들에게 산사의 체험과 출가사문의 생활을 바탕으로 신행 생활의 원력을 가일층 증장시키고 수행자의 생활을 그대로 체험하며 개인화된 사회에서 대중들과 화합하며 함께 하는 공동체 수련의 체험을 통해 진정한 자아의 역할을 인지하며 자연을 아끼고 삶의 방향을 정립하는 강인함을 기르는 데 목적을 두어 진정한 승가의 의미를 구현하고자 **2004년 7월 14일부터 2004년 8월 15일까지 5차에 걸친 3박4일간의 기수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또한 **2004년 7월 22일부터 2004년 8월 15일까지** 약 한달 기간동안 중고등 학생들을 위한 **‘단기출가 수련법회’**를 갖습니다.

수련회 일정

- **일 시** : 2004. 7. 14 ~ 2004. 8. 15
- **장 소** : 해인사 백련암(관음전, 고심원)
- **기수별 일정**
  - **1기**(대학 일반) 7월 14일 ~ 7월 17일
  - **2기**(고 등 부) 7월 20일 ~ 7월 23일
  - **3기**(중 등 부) 7월 27일 ~ 7월 30일
  - **4기**(초 등 부) 8월 3일 ~ 8월 6일
  - **5기**(일반 및 가족수련) 8월 10일 ~ 8월 13일
- **입재(시작)** : 각 기수별 입재 당일 정오
- **회향(마침)** : 각 기수별 회향 당일 정오
- **회 비** : 일반수련회 동참금 5만원
  특별수련회 동참금 30만원
- **등 록 접 수** : 백련암 원주실
  전계사(수계법사) : 원택(圓澤)스님
  수련회 담당 법사 : 일철(日鐵)스님

※ 특별수련(단기 출가자 수련)
- **대 상** : 중고등부 학생 누구나
- **일 시** : **7월 20일 ~ 8월 15일까지**
- 법복과 교과과목 필히 지참

- **문의전화** : (055) 932-7300, 011-9330-1615
  희망하는 기수 별 수련회 입재일 5일전까지 접수
  전화접수가능
- **통장입금접수** : 농협 843174-51-010195
  예금주 : 여무의

수련회 프로그램

	첫째날 - 발심의 날	둘째날 - 원력의 날	셋째날 - 정진의 날	넷째날 - 회향의 날
오전 3시		기 상	기 상	기 상
			새벽예불	새벽예불
4시		새벽예불	참선(명상)	참선(명상)
5시		수행교육① 발우공양습의	선체조	선체조
6시		발우공양	발우공양	발우공양
7시		휴 식	대청소	대청소
8시		수행교육 ② 모든부처님께인사하기 (자신의 발원 발표)	수행교육④ 능엄주독송	수련소감 작성
9시	반갑습니다			
10시	도착,방사배정	사시불공	사시불공	수계식(회향)
11시	사시공양	발우공양	발우공양	어려웠던 그때를 생각하며... (주먹밥 챙기고 집으로)
12시	오리엔테이션	청소운력	청소운력	
오후 1시	입재식 및 기념사진촬영	수행교육③ 마애불헌다식 (걸으며 생각하며)	수행교육⑤ 다도교육	
2시 5시	3000배 (1부)		누가누가잘하나 (장기자랑)	
6시	저녁공양	발우공양	발우공양	
7시	3000배 (2부)	저녁예불	저녁예불	
8시		참선(명상)	다짐의시간 (촛불의식)	
9시		취침준비		
10시		취침	취침	
11시	취침			

※ 날씨 등의 영향으로 일정에 다소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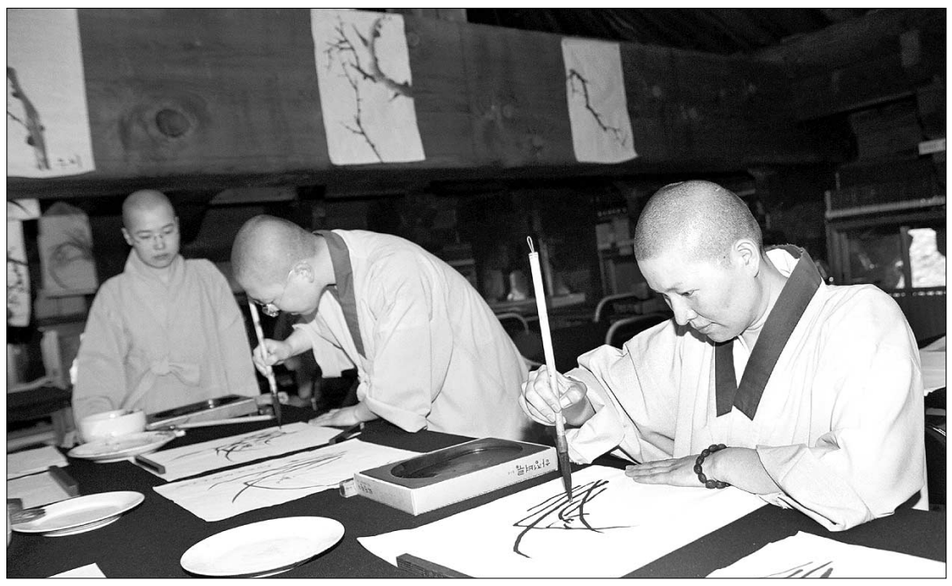
■ 교통안내
※ 부산 ↔ 해인사 / 교통비 10,000원 (교통비는 개별부담) / 부산역 아리랑 관광호텔앞 / 기수별 입재 당일오전7시 출발
서울(남부터미널), 대전 : 고령까지 고속버스 이용, 고령에서 해인사까지 시외버스 이용
대구(서부정류장) : 해인사까지 시외버스 이용
광주 : 함양까지 고속버스 이용, 함양에서 해인사까지 시외버스 이용 ※ 기타 지방 : 개별 교통편 이용

■ 준비물
- 일용품 : 세면도구, 휴지, 운동화, 손수건 등 • 의류 : 바지(츄리닝)속옷, 양말
- 필기도구 : 노트, 볼펜(연필) • 침구 : 담요 또는 침낭이나 얇은 이불
- 기타 : 자신에게 특별히 필요한 용품

※ 그밖에 불필요한 물건은 절대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50년간 1천명 배출
이력 종장들의 큰 정진터

사미니 강원을 가다
② 공주 동학사 (www.donghaksa.or.kr)


동학사 강원은 공부와 수행을 겸한 교육과 다양한 외과수업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은 사교반 학인들이 난을 치는 모습.


동학사 강원의 중강 스님들. 왼쪽부터 학감 행오 스님, 중강 수정, 명선 스님.

붓 모양과 같다고 해서 문필봉(文筆峯)이라 불리는 계룡산 자락, 고고한 자태를 뽐내는 동학사(주지 요명)는 수많은 대학자의 산실인 강원(승가대학)이 있어 더욱 유명하다. 도량 곳곳의 정갈함과 말쑥함은 많은 이들의 발길을 잡는다.

1864년 보선(普善) 스님이 비구 · 비구니 교육을 위해 처음 문을 연 동학사 강원. 1954년부터 사미니 전문강원으로 전환해, 사미니 강원으로는 가장 오랜 50년의 역사를 지녔다. 현재 강주 일초 스님을 비롯해 중강 행오 스님, 수정 스님, 명선 스님이 140여 학인들의 교육을 맡고 있다.

동학사 강원은 설립 초기부터 공부를 제일로 삼는 전통을 이어왔다. 강의시간에는 사찰 울력을 할 수 없고, 강주 스님과 강사 스님들은 학인들의 강의를 가장 우선시한다. 수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시간을 나누어 보충강의가 이뤄진다. 사찰에서는 도서관과 서예실, 컴퓨터실 등이 자리잡고 있는 강설전을 비롯해 조사전, 육화당 등 6동의 전각을 강원의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배려하고 있다. 여기에는 강원 중심으로 사찰을 운영하는 동학사 주지 요명 스님과 대중 스님들의 내조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논문 2편 이상 써야 졸업 가능

학인들은 새벽예불 직후인 새벽입선부터 취침에 들기까지 공부를 계속한다. 강의는 중강 스님의 논강과 강주 스님의 보충설명으로 진행되며, 강의가 끝나면 그날의 복습과 다음날의 예습, 경전연구 등으로 오후 일과가 이뤄진다. 특히 경전연구에 대한 발표시간을 둠으로써 학인들로 하여금 심도 있는 학습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학인들은 반드시 2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해야 강원졸업이 가능하다. 이 과정은 수행자로서 지녀야 할 학문적 소양 외에도 위의, 본분을 익히는 학습체계로 자리 잡았다. 내 · 외전, 교양, 공통과목으로 구성된 교과과정에서도 치밀함이 엿보인다. 특히 사미니과에서 대교과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년에게 주어지는 서예 · 사군자, 태극권, 영어, 일본어, 꽃꽂이, 다도 등의 외과수업은 동학사 강원의 독특한 커리큘럼이다. 학감을 겸하고 있는 중강 행오 스님은 "내전에 큰 비중을 두면서도 외전과 교양과목을 중요시해 온 전통은 학인들에게 원칙 안에서 책임감 있는 자율성을 보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연하장 만들어 장학금 등 후원

동학사 강원은 대중청규 뿐만 아니라 학년간 규율이 엄격하기로 유명하다. 이는 학인들의 자율적인 활동을 강조하고 있는 전통에서 유래했다. 학인들은 이 과정을 통해 승가의 화합정신과 수행자의 밑바탕을 배운다. 학인들의 신행활동은 배움을 많은 이들에게 회향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 사군자와 서예 등 학인들의 솜씨는 축제인 동향제(東香祭)에서 절정을 이룬다. 학인들의 작품으로 연하장을 만들어 판매한 수익금은 청소년 장학금, 불교단체 후원금으로 사용된다. 대전 건양대병원의 환우를 돌보는 봉사활동을 비롯해 정신지체 장애우 시설인 공주 명주원에서의 봉사도 학인들의 몫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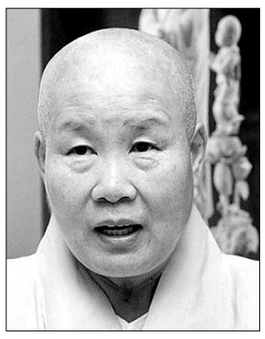
50년의 역사 속에 동학사 강원은 학문과 수행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 이력종장들의 큰 정진터로 자리매김해 왔다. 여기에 사미니와 비구니를 아우르는 전문교육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승가대학원 설립을 추진중이다.

동학사 강원이 배출한 인재

비구니 교육을 담당하는 주요 스님 상당수가 동학사 강원을 출신이다. 전국비구니회장 명성 스님(운문사 승가대학장, 1회)과 봉녕사 승가대학장 묘엄 스님(2회), 청암사 승가대학장 지형 스님(8회)이 대표적이다. 前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장을 역임한 광우 스님, 자제정사 묘희 스님과 전국비구니회 부회장 수현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운달 스님, 서울 승가사 상륜 스님, 양산 내원사 주지 혜등 스님, 前 동학사 주지 일연 스님, 화성 신흥사 주지 성일 스님, 동국대 교수 해주 스님도 동학사 강원을 졸업했다.

그동안 동학사 강원을 거쳐간 스님은 어림잡아 1천여명. 전체 동문을 대표해 현재 청암사 주지 상덕 스님(8회)이 회장을 맡아 동문회를 이끌고 있고, 명법(동학사 길상암)과 성지 스님(비응암)이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밖에 효탄(동국대 강사), 희경(前 교육원 사무국장), 철우(교육원 불학연구소 사무국장), 대전지역 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종실 · 경원 스님 등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글=박봉영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인터뷰 강주 일초 스님
"수행 빠진 학문 깊이가 없어요"



30여년을 비구니 교육계에 몸담아 온 동학사 강원 강주 일초(一超) 스님. 동학사 강원 입학 이후 8회 졸업생이 면서 비구니 교육에 뜻을 두고 줄곧 강원을 일군 산 증인이기도 하다.

"동학사 강원 교육은 학문과 수행을 겸해 이루어집니다. 수행자의 학문은 수행을 겸하지 않으면 깊이 있는 학문을 할 수 없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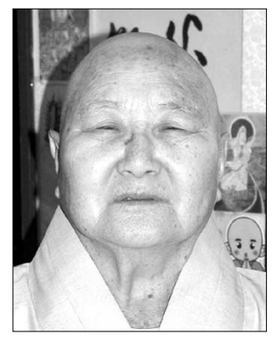
스님은 이런 교육방침에 따라 교육현장을 지켰다. 그래서 "따로 공부시간이랄 것 없이 매사가 공부고 수행"이라며 해(解)와 행(行)이 일치하는 교육을 강조해왔다.

"평생 동안 공부와 수행으로 살아야 하는 스님에게 있어 강원은 밑거름이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기초수행과 교육이 부족하면 제대로 된 스님되기가 쉽지 않아요."

스님은 4년의 강원 교육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8년은 해야 한다는 것. 현 교육체계 아래에서 4년 동안 8년의 가르침을 주고 싶은 것이 일초 스님의 마음이다.

동학사로 이어져온 호경 스님의 강맥을 이은 일초 스님은 10월 열리는 강원 50주년 기념식에서 경진, 행오, 수정, 명선, 보련, 도일, 법송 스님 등 7명의 제자들에게 전강을 내려줄 계획이다.

한국의 비구니 스님 <16> 상덕 스님
70여년 무소유 실천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면 그게 다인거야."

상덕 스님(사진)에게 법문 한자락 부탁했더니 거침없이 이렇게 말했다. 합천 가야산 해인사내 비구니 암자 약수암 상덕 스님은 세수 80, 법랍 72세로 비구니 원로중 원로다.

경남 합천군 야로면에서 태어난 스님은 어릴 때 절에 가지 않으면 15세 전에 죽을것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듣고 살았다. 이미 자식을 잃은 경험이 있는 스님의 부모는 귀한 딸을 잃을까 저어해 해인사 약수암 재희 스님에게 보냈다. 이 때가 스님 나이 8세.

어린나이에 약수암 재희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스님은 15세에 비구니계를 받고 20세에 해인사 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니계를 받았다.

흐트러짐 없이 구도의 길 걸어온 '호랑이 스님'

동진 출가한 스님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나무하고 불지피고, 밥하는 등 수행자의 길을 묵묵히 걸었다. 이렇게 시작한 수행자의 삶은 13세 때 은사스님을 따라 대구 팔공산 부인사에 가서 꽃을 피운다. 스님은 부인사에서의 삶을 가장 소중히 기억한다.

스님 나이 20세 때인 해방되던 해 은사 스님이 "네가 불사를 해야 한다"는 한마디를 남긴채 열반에 들자 스님이 모든 절 살림을 맡아야만 했다. 당시 부인사는 기와가 틀어지고 다 쓰러져가는 법당과 요사채가 전부였다.

당시 100원이면 아주 큰 돈이었다고 회고한 스님은 7년을 하루 세끼 시래기죽을 끓여 먹으며 농사를 지어 부인사 법당불사에 들어갔다.

손님이 찾아오거나 하여 죽마저 모자랄 것 같으면 배고프지 않다며 뒷산을 산책하며 다른 이들에게 죽을 양보하면서 오로지 불사에 매달렸던 것이다.

세수 40세되던 해, 스님은 그렇게 어렵게 부인사 불사를 마치고는 대중과 함께 살겠다는 마음 하나로 모든 것을 내어놓고 다시 해인사 약수암으로 들어왔다.

"지금도 그 당시 어머니께서 어쩌면 지혜롭게 나를 절집에 보내셨을까 생각하면 감사하다"는 상덕 스님. 어느 누구 부러울 것 없는 수행자의 삶에 대한 자긍심이 엿보인다.

스님은 후학들에게 '호랑이 스님'으로 통한다. 어려운 젊은 시절을 보내며 철저한 수행자의 삶을 살았기에 제자들에게 그만큼 철저히 공부하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세수 80세인 지금도 스님은 약수암 젊은 수좌들이 행여 수행자의 위의에 어긋날까봐 몸가짐 하나 하나를 따끔하게 지적해 주신다.

"수행자는 그저 편하려면 못쓴다. 아니 수행자뿐 아니라 일반 재가자도 마찬가지다. 옛날 조사스님들은 그저 몽치미(베개) 하나 베고 좌복 하나 덮고 그렇게 살았다."며 무소유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 요를 깔고 자리에 눕는 것조차 경계하라는 스님의 가르침은 스님의 기운 양말과 속옷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다.

스님은 후학들에게 "삶을 항상 조심스럽게 살라"고 이르고 또 이른다. "내 삶도 나의 삶이 아니라 모두의 은혜로 비롯되었음"을 거듭 강조하며, "쌀 한 톨의 소중함을 느끼는 것으로 보은하라"고 일러준다. 그런 삶을 행으로써 보여주는 상덕 스님은 당당하고 자유스런 수행자의 모습으로 약수암을 지키고 있다.

합천=배지선 기자

「본 마음 · 참나」
2004 쌍계사 여름 수련법회 안내

장하게 흐르는 쌍계활수와
산허리에 이는 맑은 바람은
지친 우리들의 육신을 맑혀주고,
붓다의 말씀과 조사스님의 활구는
나약한 영혼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동참하여 「본 마음 · 참나」를
찾아보시지 않겠습니까?

● 행사일정

	기 간	정 원	대 상
1차	7월 30일(금) ~ 8월 2일(월)	70	일반인
2차	8월 4일(수) ~ 8월 7일(토)	70	일반인

● 동참안내
◇ 수련법회 신청대상 (3박 4일) : 일반인(대학생 포함)
◇ 자원봉사 신청대상 :
수련법회 참가 경험이 있는 분으로 매 차수별 6명 내외
◇ 신청마감일 및 참가통보 :
7월 15일(목)까지이며, 7월 20일(화)개별 통지함.
◇ 동참금 : 일반인 7만원(교재포함)
※ 접수된 참가비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입금 통장번호 : 농협 833011-51-000948
(예금주 : 쌍계사)
◇ 준비물 : 고무신, 필기구, 세면도구, 운동화

● 참가신청 안내
◇ 참가신청서는 쌍계사 홈페이지
(www.ssanggyesa.or.kr)참조
여의치 않는 경우에는 아래의 기재사항을
A4용지에 기재한 후 우편이나 팩스(FAX),
e-Mail(info@ssanggyesa.or.kr ,
ssanggyesa@hanmail.net)로 신청가능
① 이름(한문, 한글), 성별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우편번호 필히 기재) ④ 직업(구체적으로)
⑥ 전화번호(직장, 자택, e-mail) ⑦ 종교
⑦ 원하는 차수(상기 일정표 참조)
⑧ 참가하고자 하는 이유
※ 팩스로 신청하실 때는 접수 후 꼭 전화확인 바랍니다.
◇ 문의처
전화 055)883-1901~2 (오전 9시 오후 5시까지)
팩스 055)883-6084
◇ 접수처 : 쌍계사 여름 수련회 담당자 앞
(우) 667-824 경남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208번지
쌍계사 홈페이지(www.ssanggyesa.or.kr)

대한불교조계종 제13교구 본사 쌍계사 주지 우담 합장

팔공산 은해사 여름 산사수련회
~ 구름을 벗어난 태양과 같이 ~

여기 오염되지 않은 산사의 싱그러운 햇살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천년 역사의 산사에 햇살, 바람꽃, 별빛, 물소리가 생활에 지친 모든이에게 자유와 평화를 드립니다. 진정한 자아 발견을 원하는 사람은 은해사로 오십시오.

차 수	기 간	대 상 자	모집인원	회 비
1	7월 26일 ~ 28일	중고등학교	100명	30,000원
2	7월 29일 ~ 31일	초등학생	200명	30,000원
3	8월 6일 ~ 8일	대학생/일반인	50명	60,000원
4	8월 13일 ~ 15일	대학생/일반인	50명	60,000원

■ 신 청 방 법
1)접수기간 : 2004년 6월 16일부터 입금완료 선착순 마감
2)신청방법 : 신청서 양식은 은해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직접 방문 접수 및 인터넷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3)준 비 물 : 공 통 - 필기도구, 세면도구(상의 T셔츠 지급)
초등부 · 중 · 고등부 - 물놀이 후 갈아 입을 여벌 옷
일반부 - 하얀고무신(수련복은 지급됨)
■ 집 결 시 간 : 당일 오후 3시 은해사
■ 접 수 안 내 : 054)335-3318~9
■ 인터넷 접수 : 은해사 홈페이지(http://www.eunhaesa.or.kr) 약도 및 노선편 참고
■ 입 금 계 좌 : 초 등 부 (농협 723084-51-027083 은해사)
중고등부 (농협 723084-51-027098 은해사)
일 반 부 (농협 723084-51-027102 은해사)
※입금시 참가자 이름으로 입금바라며, 참가비 입금이 확인되면 선착순으로 정식 수련생이 됩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불참하는 분은 2주일전까지 통보치 않을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수련생 및 자원 봉사자 참가자 확정 통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일괄 발표합니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자원봉사자 신청서 상세히 작성 - 신청서를 토대로 자원봉사자 최종 확정하고 자원봉사자 사전 모임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팔공산 은해사



한암사에서 진행된 찾아가는 어린이법당 주의 집중 놀이 모습. 사진=천미희 기자

천안 한암사서 '찾아가는 어린이법당' 첫 행사

"정말 재미있어요"

전문 지도교사 10여명 방문 눈높이 맞춘 프로그램 다양 은해사 · 관음사 등서 열릴 계획

6월 26일 천안 한암사 불교문화원(주지 원철) 소극장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회장 정여)의 '찾아가는 어린이법당'이 어린이들을 찾아왔기 때문이다. 어린이법회 지도교사 경력 18년의 이수안 사무국장을 비롯 경력 8년 차 박나영 담당 선생님을 비롯 10여 명이 지도자들이 이곳을 찾았다.

평소 엄마를 따라 절에 와도 별도로 마련된 법회 프로그램이 없었던 아이들은 이날 율동이 곁들여진 찬불가를 배우며 얼굴에 피어나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삼귀의, 사홍서원 등 의식가 밖에 접해보지 못한 아이들에게 율동과 함께 부르는 신나는 찬불가는 흥을 돋구기에 충분했다.

어디 그뿐인가? 드라이 아이스를 이용한 로케트, 도미도 놀이, 공기총 놀이 등 지도교사들과 함께 한 과학놀이는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마음을 사로잡았다. "우와 너무 신기해요!" "정말 재미있어요." 곳곳에서 아이들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낯선 선생님들의 진행으로 법회가 진행되자 부끄러워 구석 자리에 앉아 있던 지민이도 과학놀이가 시작되자 호기심을 감추지 못하고 달려왔다.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법회를 열어주고 싶어 '찾아가는 어린이법당'을 신청했다는 원철 스님은 "아이들이 너무 좋아한다. 한 달에 한번만이라도 와준다면 어린이법회가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학부모들도 대만족이었다. "정말 이렇게 재미난 프로그램들이 많은 줄 몰랐다. 아이들이 스스로 절에 오고 싶어 할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지도교사들의 능수능란한 법회 진행으로 아이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루를 보냈다. 반야심경, 삼배 등 사찰 습의 시간, 과학놀이, 찬불가, 영화상영 등 다양하게 마련된 프로그램이 끝났는데도 아이들은 흩어질 줄을 몰랐다.

"선생님! 다음주에 또 오나요?" 절에서 보낸 하루가 꿈결 같이 느껴지는 아이들의 아쉬움이 질문에 담겨 쏟아졌다. "친구들한테 자랑도 하고 다음에 같이 절에 가자고 할래요." 다겸이는 오늘 법회를 친구들에게 자랑할 생각에 신이났다.

찾아가는 어린이법당 전체 진행을 맡은 이수안 사무국장은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어린이 법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고 평가했다. 대불어는 이번 한암사 찾아가는 어린이법당 자체 평가 후, 지역의 어린이들을 한데 모아 지역별로 찾아가는 어린이 법당을 열거나 지역의 어린이 법회 지도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 등을 구상중이다.

천안에서 열린 첫 찾아가는 어린이법당을 시작으로 양산 화제 여름불교학교, 은해사, 적천사, 봉화 관음사 등의 어린이들을 찾아가 법회를 진행하게 된다. 대불어는 전라도, 광주 등 지역 사찰의 신청을 기다리고 있다. (051)864-4569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장애인요양시설 '반야원' 개원

숲길 · 농원 조성 통한 치료효과 기대

사회복지법인 내원(이사장 정련)은 6월 26일 중증장애인요양시설 반야원 개원식을 봉행했다.

이날 반야원 개원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김채용 경남부지사, 김한겸 거제시장 등 1천 2백 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정련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장애를 겪는 많은 이들도 고귀한 불성을 갖춘 존재임을 인식하고 좀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며 불자들의 지속적인 후원과 관심을 당부했다.

반야원은 94년 비인가 시설로 개원된 치자마을을 2000년 사회복지법인 내원이 인수한 후 정신지체 및 발달 장애시설로 인가를 얻고, 2004년 4월 중증장애인요양시설로 변경 인가를 얻어 개원하게 됐다. 2001년 기공식을 갖고 시설 신축을 시작한 후 2004년 4월 준공식을 가진바 있다.

지하 1층 지상 3층의 반야원은 생활실, 체력단련실, 생활기능훈련실, 프로그램실, 명상실, 법당 등의 시설을 갖추고 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시설을 둘러싼 숲을 명상을 위한 숲길로 조성하는 한편, 대규모 농원, 화원을 일궈 중증장애인들의 정서순화와 치료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천미희 기자

사찰문화보존연구원 문 열어 화장문화 보급, 자원봉사 조직



다양한 불교문화를 포교에 접목한 사찰문화 보존연구원이 대구시 중구에 문을 열었다.

사찰문화보존연구원은 25일 종수 스님(BBS 대구불교방송 총괄 국장), 사찰문화보존 연구원 원장 효신 스님 등 사부대중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법회(사진)를 봉행하고 사찰음식연구회, 불교명상연구회, 사찰문화체험테마연구회, 사찰체육진흥연구회, 불교장례다비문화홍보실천회, 불교자원봉사회를 두고 다양한 활동을 시작할 것을 밝혔다.

"도시의 황폐함 속에서 쌓인 정신과 육체의 스트레스를 치유하고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삶을 보다 풍요롭고 건전하게 하고자 설립하게 됐다"는 원장 효신 스님은 "선체조와 선명상, 태극권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불교적인 장례법인 화장 문화의 보급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며, 사찰음식 강좌 개설과 자원봉사 조직도 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종수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사찰문화보존연구원이 단순 조직 형태를 벗어나 사찰문화를 잘 보존하고 활용 · 실천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많은 연구물을 쏟아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원에는 대형 산소발생기가 설치돼 불자들이 도심 속에서도 숲속과 같은 환경 속에서 정신과 육체를 단련할 수 있도록 했다.

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양산불교련, 한국戰 학살 진상규명 촉구



양산불교연합회(회장 무호)는 7월 1일 양산시청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6 · 25 전쟁 전후 양산에서도 대규모 양민 학살의 정황들이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산불교연합회는 "양산은 1950년 6 · 25전쟁 이후 음력 6월 하순에서 7월 초순 사이 집중적으로 대규모 학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억울한 죽음을 당한 이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진상을 규명하고 이들의 명예회복과 위령탑 건립, 천도재 추진 등의 사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양산불교연합회는 종교계, 시민단체, 학계 등과 함께 진상규명을 위한 유골발굴조사단을 꾸리고 △억울한 희생자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령탑 건립 △유골안치 △천도재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천미희 기자

강서예술촌 3주년 기념식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공간이자 문화체험 공간으로 자리 매김한 강서예술촌(촌장 강세우)이 6월 26일 개관 3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강서예술촌 설립자 청원 스님의 우산전시 및 다기 전시회와 함께 열린 기념식에는 안병회 강서구청장을 비롯 3백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천미희 기자

대종사 법계품서 축하 법요식

불기 2548년 전국승가학인연합 불교학술대회가 7월 20일부터 21일까지 동화사 통일대불전에서 열린다.

이번 학술대회는 '참선수행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두고 간화선 수행의 역할과 방법을 밝혀 한국불교 수행의 문을 확립하고 확인하는 기회가 될으로 기대를 모은다. (053) 983-2500 배지선 기자

대구 법왕사 백고좌 법회 봉행

대구 법왕사는 7월 18일부터 10월 29일까지 100일간 '한반도 평화와 민족통일을 기원하는 제 13회 백고좌 법회'를 봉행한다.

법회는 조계종 대종사 혜정 스님과 원로의원 정무 스님 등 한국불교의 대표적 고승대덕 100명을 법사로 초청해서 법화경과 화엄경을 공부하는 자리로 마련되며 법회 입재 전날인 17일에는 정무 스님의 건강특강과 국악인 신영희 씨 등이 출연하는 산사음악회가 열린다. (053) 766-3747

배지선 기자

'파란 2004' 발대식 및 상견례

청년환경센터, 천성산대책위, 서울대 고려대 등 대학생 환경 동아리, 사회당 학생위원회 소속 대학생 150여명이 7월 1일 동대구역앞에 모여 '파란 2004' 발대식을 갖고 '고속철 2단계공사반대, 천성산 살리기, 느림의 소중함'을 알리는 대장정에 나섰다.

대장정은 7월 1일부터 8일까지 7박8일간 대구-경산-경주-울산-천성산-부산 등 고속철도 2단계건설 구간 약 150Km를 따라 걸으며, 고속철도 건설의 반환경적인 내용을 알리는 도보순례로 진행된다. 배지선 기자

유금사 장사상륙작전 천도재

경북 영덕 유금사(주지 혜관)는 27일 영덕 고래불 해수욕장에서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25전쟁 중 장사 상륙작전에서 희생된 학도병 701명의 호국 영령을 천도하는 천도재와 방생법회를 봉행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봉행된 이날 행사는 천도재에 이어 자비의 쌀 나눔 자선공연이 이어졌으며, 혜관 스님은 "이번 행사에서 모인 쌀은 지역의 복지단체와 불우이웃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덕 장사 상륙작전은 인천 상륙작전 하루 전 학도병 등이 중심이 돼 감행된 작전으로 북한군의 전력을 흩트리면서 인천 상륙작전을 무사히 성공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배지선 기자



영덕 고래불 해수욕장에서 열린 호국영령 천도재 모습.

98년 특별법에 의한 재심사 속개를 위한 승적정정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 승적정정 신청자들은 지난 6년여간 수행납자 본연의 초발심으로 돌아가 각자의 수행처에서 진심으로 참회자속하며 인고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간 종정 예하를 비롯한 원로의원 큰스님들께서 저희들을 위해 여러차례 교시와 유시 등을 통해 종단대화합 조치의 필요성을 하교해 주신 것에 대하여 더욱 더 분심참회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제라도 호계원과 총무원 등 해당 종무기관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승적정정 조치와 특별법에 의한 초 · 재심 합동 재심사 속개 등의 조치를 조속히 이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총무원장 스님 이하 집행부와 중앙종회의원 및 종단 중진스님들께서도 종도들의 여망에 부응해 진정한 종단대화합이 원만하게 성취될 수 있도록 관심과 아량을 아끼지 말아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아래와 같이 <특별법에 의한 승적정정 및 초 · 재심 합동재심사 속개>의 당위성을 설명드리오니 종도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 특별법에 의해 재심사 계류중이므로 승적은 당연히 정정(복적)되어야 합니다.

<해종행위조사특별위원회법등에 의한 징계자들에 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함)>은 1999년 10월 12일 제144회 임시중앙종회에서 제정되었으며, 1998년 12월 1일 종단사태의 와중에 소집된 제136차 임시중앙종회가 소집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그 중앙종회에서 선출된 호계위원들에 의하여 행해진 징계처분 또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문제인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98년 종단사태 관련자 중 특별법에 의하여 재심에 계류중인 이정우 스님이 2003년 6월 9일 법규위원회에 심판청구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종단의 최고 법률심판기구인 법규위원회는 동년 7월 24일 제24차 심판부를 열어"신청인들이 해종특위법에 의해 받은 징계는 특별법에 의해 유예된 상태이며, 특별법에 의해 심사를 속개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심판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법규위 판결에 근거해 이정우, 김원학, 박현소, 이성문, 진현근 등 5명의 신청인들은 동년 11월 11일 "특별법에 의해 재심사가 개시된 상태이므로 멸빈의 징계효력이 유예되어 있으며, 승적부상의 징계내용 정정과 승려로서 제반 공권이 제약받지 않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법규위원회 심판결정에 따른 승적 정정(복적)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2. 총무원의 납득할 수 없는 승적정정 유보는 종법질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즉각 시정되어야 합니다.

신청인들의 이같은 승적정정신청에 대해 총무원은 주무부서인 호법부의 징계변경 요청에 따라 승적관리부서인 총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승적정정의 행정절차를 이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화통보를 받은 지 불과 이틀 후인 동년 11월 29일 일부 종회의원 스님들의 승적정정조치 철회요구에 승적정정을 유보하고, 2004년 종회에서 지난 1962년 통합종단 이후 모든 징계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종헌개정을 통한 종단 대화합조치를 추진하겠다는 총무원의 성명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당시 총무원의 그같은 조치는 법규위원회의 판결과 특별법의 조항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행정집행부서인 총무원이 종단 최고법률심판기구인 법규위원회의 판결이행을 거부하는 심각한 종법질서문란이라 생각되었으나, 총무원장 스님의 대승적 종단대화합 의지를 믿고 개인적인 희생을 감수하면서 지금까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 3월 18일 제162회 임시중앙종회와 동년 4월 1일 제163회 임시종회에서 사면복권을 위한 종헌개정안이 두 차례나 잇따라 부결됨으로써 더 이상 종헌개정을 통해서는 1998년 종단사태 해결을 위한 화합조치가 어렵다고 판단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신청인들은 특별법에 의한 초 · 재심 합동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승적 정정(복적)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청하는 <승적 정정(복적) 재요청서>를 동년 5월 12일 재차 총무원에 발송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3. 특별법에 의한 특별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재심사의 과정.

특별법 제3조에 근거해 특별심사위원회는 호계원장 월서스님을 위원장으로, 총 16명의 특별심사위원으로 1999년 10월 29일 구성되었습니다.

<해종행위특별위원회법>에 의해 징계를 받은 96명과 1998년 11월 21일 이후 <호계원법>에 의해 징계를 받은 26명 등 모두 123명 중 44명이 재심사를 신청하여, 특별심사위원회는 1999년 10월 29일 오전 10시 제1차 심리를 갖고 재심사 심리개시를 하였으며, 2001년 9월 19일까지 7차에 걸쳐 심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호계원장 월서스님은 또한 2003년 3월 중앙종회의원 종광스님의 질의에 의해 제출한 자료에서는 "특별법에 의해 구성된 특별심사위원회가 1999년 10월 29일부터 2001년 9월 19일까지 7차에 걸쳐 재심사를 신청한 44명 뿐 아니라 미신청자를 포함 총 123명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으나, 2003년 5월 21일 원로회의가 "98년 종단사태 관련자들은 특별법에 의해 처리하라"는 결의문을 발표하자, 갑자기 태도를 바꿔 동년 5월 26일 원로회의 및 의원스님 들에게 보낸 답변을 통해 "해종특위에 의해 멸빈의 징계를 받은 5명에 대해서는 특별심사위원회가 심리개시를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징계가 유지되고 있다" 는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월서스님께서 불과 4년 전인 1999년 10월 29일 별좌한 제1차 특별심사위원회에 즈음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심사개시를 명확히 선언했을 뿐 아니라 "소위 정화개혁회의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스님 가운데 많은 분들도 주변의 어려운 관계에도 무릅쓰고 결단을 내려 주셨습니다. 이분들의 어려운 결단에 더욱 감사드리며, 우리 특별심사위원회에서는 종단안정과 화합을 바라는 종도들의 여망과 이에 적극 호응해 온 여러 스님들의 결단을 존중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응당한 결과로 화답해 드리겠다"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최대한의 관용을 준비하고 있으며, 심사청구 마감기일 이후에도 심사청구서를 접수하고자 한다면 특별법 제정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의미에서 접수받고 있다"고 발표한 사실이 있으니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한단 말입니까.

이처럼 특별법에 의하여 징계 재심사결정이 확정되고, 현재까지 계류중인 부분에 대하여 '위헌' 운운한다면 <해종특위법> 자체도 종헌에 위배된 것이 아닌지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위헌소지가 있는 해종특위법이나 그 법을 대신하는 특별법에 의하여 재심사를 신청한 징계자들에 대하여 특별심사위원회가 조속히 심사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재심사를 종결하지 않고 보류되어 있음은 종법이 정하고 있는 특별심사위원회의 직무를 스스로 유기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총무원은 종단의 최고 법률심판기구인 법규위원회의 판결과 법무법인들의 명백한 법률적 유권해석에 근거해 주무부서인 호법부가 징계변경 요청을 하고, 승적관리부서인 총무부장이 지난해 11월 행정조치하려다 유보했던 적법한 승적정정(복적)의 행정조치를 하루빨리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98년 종단사태는 특별법에 의한 초 · 재심 합동재심사를 속개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그 외 사안들에 대하여는 근원적인 종헌개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순리적인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법장 총무원장 스님께서 주창하신 종단대화합은 모든 종도들의 염원입니다. 따라서 저희 신청인들은 호계원과 총무원 등 해당 종무기관에서 하루빨리 특별법에 의거해 재심사를 속개할 것과, 적법한 승적회복의 행정조치를 이행할 것을 간절히 촉구합니다.

불기 2548(2004)년 6월

98년 종단사태 관련 특별법에 의한 재심사 신청인 이정우, 이성문, 박현소, 김원학 배상

"내가 변해야 평화 옵니다"

생명평화학교 개설한 정해숙 교장



"이제 생명을 존중하고 평화를 위하는 사람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이끄는 깨침의 존재입니다"

6월 26일 곡성 성륜사에서 '빛고을 생명평화학교'를 개설하고 첫 수련모임을 가진 정해숙(69, 사진) 교장은 "평화기운을 사회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먼저 평화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남원 실상사에서 결성된 지리산생명평화결사의 생명평화학교장으로 추대된 정 교장은 "5·18정신이 살아있는 빛고을 광주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생명평화학교가 개설돼 뜻깊다"며 "틀에 얽매이지 않고 평화를 갈망하는 등불들에 의해 스스로 운영되는 학교가 되도록 하겠다"고 운영방침을 밝혔다.

"학교 선생님이라면 수업중 잠깐이라도 학생들에게 눈을 감도록 하고 '내가 누구인지' 자기를 찾도록 해 보세요. 짧은 시간이지만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가 먼저 훈련되어야 합니다. 평화학교는 이처럼 교사, 부모가 먼저 평화를 실천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교육자로 시작해 초대 전교조 전국위원장을 지냈고 각종 민주화운동의 선봉에 섰던 정 교장이 생명평화운동가가 된 것은 지난해 입적한 청화 스님을 친견하면서부터. 1983년 광주 선덕사에서 처음으로 스님의 법문을 듣던 정 교장은 넋을 잃고 청화 스님의 얼굴만 쳐다봤다고 회고한다. '살인하지 말라'를 생명존중 사상의 극치로 생각하다가 '미물까지도 살생하지 말고, 더불어 살아야한다'는 스님의 법문에 충격을 받았던 것이다.

20여년 넘게 청화 스님을 시봉하며 정진해온 정 교장은 3년전 지리산에서 열린 천도재에 참가한 이후 생명평화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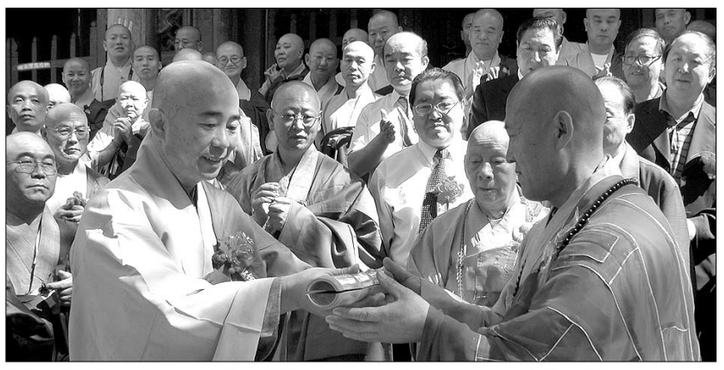
"생명평화는 인류의 희망입니다. 그 근본은 서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항상 내 안의 평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 봅시다."

실천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전개
"스스로 운영되는 학교 되길"발원

한편 지리산평화결사가 지역별로 개설하는 생명평화학교는 특별히 건물이 있거나 정규수업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지역별로 책임자를 둬 필요에 따라 시간, 장소에 얽매임 없이 개설된다. 평화서약을 한 등불(회원)이면 누구나 참가자격이 주어진다.

이날 첫 문을 연 빛고을 생명평화학교는 김민혜 목사(http://cafe.daum.net/peaceg)의 책임 아래 30여명의 등불이 모였다. 첫 수업 교사로 생명평화탁발순례단을 이끌고 전국을 순례하고 있는 도법 스님이 초청돼 다음날까지 강연과 토론이 이어졌다. **곡성=이준엽 기자**

한·중 오대산 문수신앙 재회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사진 왼쪽)과 중국 오대산 불교협회장 묘강 스님이 한국과 중국의 오대산 자매결연조약을 체결하고 조약서를 교환하고 있다. 사진제공=월정사

자매결연 및 대법회 봉행
문화·수행교류 활성화 약속

1400여년 만에 한국과 중국의 문수신앙이 재회했다.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는 한·중 양국간 불교문화교류와 수행교류 활성화를 위해 6월 24일부터 29일까지 중국 오대산을 방문, 중국 중앙정부의 공식 승인 하에 한·중 오대산 자매결연 및 국제평화기원대법회를 봉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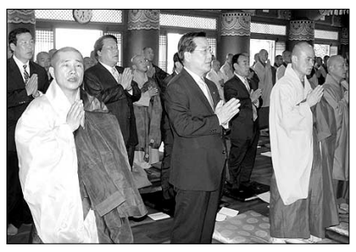
25일과 26일 오대산 수상사에서 열린 자매결연식 및 국제평화기원대법회에는 주지 정념 스님과 '문수성지순례단' 200여명,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근통 스님(수상사 주지), 오대산 불교협회 회장 묘강 스님 등 중국 오대산 내 47개 사찰 2,000여 스님이 참석했다.

정념 스님은 결연사를 통해 "불교수행과 학술관련 교류가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통 스님도 "적어도 2년에 한번씩은 양국 스님들이 왕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월정사측은 "향후 양국 스님들을 해당 사찰에서 정기적으로 초청해 안거 정진토록 함으로써 양국간 수행교류를 활성화하며, 화엄사상과 문수신앙에 대한 국제학술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화엄사상과 문수신앙의 대중화를 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올 8월 14일(음력 7월 1일) '중국 오대산 불교문화 대축제'에 참가해 조계종의 육법공양 또는 영산재 시연을 통한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고, 10월 8일 월정사 개산일에 맞춰 열리는 '강원 오대산 불교문화 대축제'때 중국측을 초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남동우 기자**

박준영 신임 전남지사 초청법회



지난 6·5 보궐선거에서 제34대 전남지사로 당선된 박준영 신임지사 초청 '국가와 광주·전남발전 기원법회'가 6월 26일 광주 무각사 대웅전에서 봉행됐다(사진).

광주·전남교구본사협의회(회장 명섭 화엄사 주지)가 마련한 이날 법회에는 전남지역 각 종단 본사 산하 스님과 불자 200여명이 동참했다.

이날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은 "도지사는 물론 사부대중이 한마음되어 광주·전남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기원했다.

이어 박준영 지사는 인사말에서 "스님과 불자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부처님의 지혜로 광주·전남지역이 살기좋은 땅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준엽 기자**

회광당 일각 스님 8주기 추모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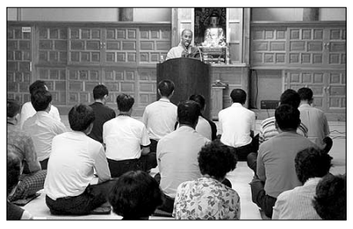
회광당 일각 스님 8주기 추모법회가 6월 25일 순천 송광사 대웅전에서 봉행됐다.

주지 영조 스님의 청혼으로 시작된 이날 추모재에는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을 비롯 법흥(송광사 회주), 천운(대흥사 조실), 원명(대구 관음사 주지), 현호 스님 등 문도와 재가불자 등 300여명이 동참했다.

헌향, 헌다에 이어 추모사에서 천운 스님은 "송광사 전 방장이었던 일각 대종사는 선승이자 학승이며 철두철미한 수행승이었다"고 회고하고 "대종사의 가르침을 받들어 정진에 더욱 매진하자"고 추모했다.

추모법회에 이어 대중들은 일각 스님 부도탑이 모셔진 탑전에서 탑돌이로 추모법회를 회향했다(사진). **이준엽 기자**

"불심 가득싣고 안전운행 해요"
전국여객연합불자회 창립



고속, 시외, 관광버스 운전자들의 불자모임이 창립됐다(사진).

전국 버스운송업체 소속 운전자들은 6월 23일 해남 대흥사에서 '대한민국 여객연합불자회(이하 전국여객불자회)' 창립총회를 갖고 '불심운전, 안전운행'을 다짐했다. 금호고속 이재술 포교사를 초대회장으로 선출하고 회칙를 확정했다. **회장 인터뷰, 14면**

이날 창립법회에는 금호, 한진, 중앙, 호남, 경북, 새서울 고속 등 고속버스와 용남, 관당, 코오롱 관광 등 총 14개 업체 소속 운전자와 가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창립된 전국여객불자회는 회칙에서 "버스사고의 대부분은 운전미숙보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일어난다"며 "불교의 정근과 명상으로 마음을 정화시켜 안전운행토록 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해남=이준엽 기자**

지금, 우리 절에서는…

대구 혜광사

그림보며 차 한잔 마시고 싶은 절

대구시 남구 대명 8동 주택가 한 복판에 단아하게 자리한 혜광사. 산사의 고찰은 아니지만 속인들의 삶 가운데 깊이 자리잡아 그들의 소리를 듣고, 마음을 달래주는 도심포교당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혜광사를 들어서면 1층 현관을 지나 3층 법당으로 올라가는 곳곳에 서산대사 진영, 관음 보살상, 달마상 등 다양한 선서화가 오는 이들을 맞이하며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 있다.

특히 주지 진일 스님이 몽골 불교대학 객원 교수로 있을 때 그렸다는 초원을 달리는 말 그림은 자유와 생명의 힘을 전해주는 듯하다.

법당에 들어서면 아미타 삼존불이 모셔져 있고 법당천장에는 중국에서 구해왔다는 나무대방광불화엄경이라 적힌 상량보를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아미타 삼존불 뒤에 봉안된 아미타불 후불탱화가 유독 눈길을 끈다.

법당안 선서화 전시 불법 홍포
불교복지, 후진양성 위해 노력

혜광사 신도들은 "아미타 후불탱화를 혜광사의 자랑"이라고 말했다. 주지 진일 스님이 기도 후 직접 그려서 봉안했다는 아미타 후불탱화가 180° 회전하며 신도들을 응시한다는 것.

1996년 1000일 기도를 통해 처음으로 관세음보살님을 그리게 됐다는 진일 스님은 그동안 8회의 개인전을 개최한 전문 선서화 작가이며 2회 째 시집을 발간한 시인이기도 하다.

선서화를 통해 부처님 법을 대중들에게 전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스님은 매일 아미타불 염불을 통해 만 번 이상 먹을 갈아 반야심경 8폭을 써 놓고 하루 일을 시작한다.

혜광사는 만 번 먹을 갈아 만든 반야심경 병풍과 무려 11m에 달하는 불(佛)자 등 부처님의 뜻을 전할 정성스런 선서화들을 보유하고 있다.

불교의 전통맥을 찾던 진일 스님은 10년 전 몇몇 뜻 있는 스님과 중국으로 가 소림사 방장이자 주지인 소이 선사로부터 불기 2538년에 전법게를 받고 우리나라 조동종을 중창하는데 일조했다.

현재 진일 스님은 조동종 중앙종회 의장으로 종단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건강생활 복지협회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노인 건강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혜광사 건립 16년, 진일 스님은 혜광사의 제 2 도약을 꿈꾸고 있다. 7월 2일 티베트의 핀린다 라마 스님을 계사로 국제보살계를 봉행하고 가을에는 대구문화예술회관과 서울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선서화전 개최를 통한 불법 홍포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또 1997년 경산 혜광사 불사를 추진한데 이어 경북 청도 인근에 납골당과 불교복지, 후진양성을 위해 제3의 혜광사 건립을 위한 부지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053)473-3131 **배지선 기자**



대구 혜광사의 자랑인 후불탱화와 아미타 삼존불 앞에서 주지 진일 스님이 기도를 하고 있다. 사진=배지선 기자

행복이 가득한 곳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제15차
거금도 거금선원 여름수련회 참가안내

바다!
누구나 꿈꾸는 마음의 고향입니다.
인생을 고해라고 하지만 밑없는 배를 타면 삼매의 바다에서 빈 배 같이 노닐 수 있습니다.
저기 파도소리가 들리십니까? 곁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파도소리를 따라 곧장 들어가십시오.

찾 수	기 간	정 원	대 상
1차	7월29일〈목〉~ 8월 1일〈일〉	50명	청소년~일반인
2차	8월 4일〈수〉~ 8월 7일〈토〉	"	"
3차	8월11일〈수〉~ 8월14일〈토〉	"	"
4차	8월18일〈수〉~ 8월21일〈토〉	"	"
5차	8월25일〈수〉~ 8월28일〈토〉	"	"

◆ 수련내용 : 묵언,바루공양,부처님호흡법,좌선의,수심결강의, 활구참선법(간화경절문),선체조
◆ 신청방법 :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원하는 차수, 종교,수련경험,참가사유(A4지 용지에 작성 팩스로 접수)
◆ 수련회비 : 일반 - 9만원 / 청소년 - 5만원
◆ 계좌번호 : 우체국 501023-01-000401 거금선원(접수된 회비는 반납하지 않음)
◆ 준 비 물 : 필기구,세면도구,우산,공양미(1봉지)고무신,손전등,상.하 법복이 있는분은 가져올 것. 모자
◆ 접수안내 : 전화 061-842-8488 / FAX 061-842-8487 인터넷 http://www.gukumzen.com

주말수련안내 (10인 이상 단체 환영)
●일 시 : 토요일 오후 4시 ~ 일요일 오후 2시 ●준비물 : 손전등, 모자, 공양미(봉지), 회비 5만원

전남 고흥군 금산면 어전리 산 9-2 ☎ 061-842-8488
대한불교조계종 수련전문도량 거금선원 선원장 일선 합장

신라천년의 숨결, 화랑이 나를 부른다~

선무도 청소년 화랑(여름) 수련회

골굴사 선무도대금강문에서는 청소년과 일반인을 위한 선무도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절제된 공동체 생활 속에서 나태해지기 쉬운 방학생활이나 휴가를 보람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청소년 대안교육의 새지평**'(조선일보-2001.12)이란 평가를 받은 선무도의 사찰 수련을 통해 평소 부족한 운동량을 보충하며 화랑의 호연지기를 맛봄으로써 **건강하며 활기찬 삶, 화합하고 절제할 줄 아는 삶**을 배워 익힐 수 있습니다

▶ 언 제 : 하 계 - 7월 ~ 8월(2달간) ▶ 모집 인원 : 수시모집(1주, 2주, 한달)
▶ 대 상 : 초등학생이상 개인 및 단체, 불교학생회 단체, 위탁연수
※ 동참금은 청소년 - 1일 2만원, 한달 60만원, 성인 - 1일 3만원, 1개월 65만원이오니 아래 계좌로 송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를 하셨더라도 입금하지 않으면 예약확정이 안되오니 미리 해당계좌로 입금바랍니다.
농 협 721107-52-037300 (예금주 : 설기준)

- 수련내용 -
1. 안반수의 수행법, 선요가, 선기공, 선무술, 참선, 불교한문, 전통문화(무용, 다도)
2. 기림사, 감은사지, 장항사지, 동해 문무대왕릉 등의 성지순례
3. 주지스님의 초발심 자경문과 부모은중경 강의를 통해 심성정화 및 한문공부
※ 지도진 : 스님·사범 등 10명, 무용강사 4명(현직교사·전공자), 다도강사 2명
※ 접수 및 문의 : Tel. 054)745-0246, 744-1689 Fax. 054)746-0172 홈페이지 www.sunmudo.com

일 과 표

시 간	내 용	시 간	내 용
4시	기상, 예불	13시	독서와 사색
5시	좌선	14시	오후 수련(학생)
6시	조깅, 등산	15시	전통문화 강습(학생)
7시	아침 공양(발우 공양)	16시	운력(도량 청소 및 정비작업)
8시30분	불교 강의	18시	저녁공양
9시	오전 선무도수련	19시	예불, 자율학습 및 참회록(학생)
11시	108배 참회기도, 자아를 향한 서원	19시30분	저녁수련(일반인)
12시	점심 공양	21시	점호 및 취침

탬플스테이 지정 사찰
대한불교 조계종 11교구 골굴사선무도 대금강문·선무도 대학

백제불교 위업잇기 '공동화두'

곳곳에 유적·문화재 180여점…신행·관광·교육자원 활용

각급 기관·단체 법회 활성화, 미래지향적 포교 '한마음'

충남 부여

백제불교의 고도 부여. 이곳의 사찰이나 절터, 그리고 각종 유물은 부여가 백제불교의 찬란했던 문화를 꽃피웠던 곳임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국보 5점, 보물 14점 등 국가지정 문화재 45점에 도 지정 문화재까지 합쳐 모두 180여 점의 문화재가 산재해 있는 백제불교의 보고(寶庫).

이런 유구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부여불교는 그 옛날 찬란했던 불교 역사를 재현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무량사, 고란사, 무진암, 오덕사 등 각 사찰들이 백제 불교의 역사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마련에 나섰고, 아직 구상단계에 있기는 하지만 백제불교 유적들을 관광자원화해 부여불교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일부 사찰들을 중심으로 검토되고 있다.

먼저 부여를 대표하는 사찰인 무량사는 지난해 시작한 대웅전 사지 발굴 작업을 계속 진행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대웅전 복원도 계획하고 있다. 또한 극락전이나 석탑 등 문화재가 많은 점을 최대한 활용, 살아있는 역사교육장으로 개발해 부여 불교의 이미지를 높일 생각이다.

고란사는 정림사지의 정책적 복원 및 개발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이를 위해 군과의 협조체계 구축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한 백제불교가 일본에 끼친 영향 등을 중심으로 고란사 관련 문헌을 정리하는 한편, 고란사를 기도도량으로 가꾸는 등의 종합발전계획을 통해 부여불교의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미암사 역시, 백제불교의 맥을 잇는 것이 부여불교 발전의 핵심이라고 판단하고 문화재를 활용한 부여불교 발전 방향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우선은 전통사찰인 미암사를 관광사찰로 변모시키고, 부여 문화재의 복원 및 홍보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무진암은 경내에 있는 김시습 부도를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다도 프로그램과 복지 등 각종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역사와 현대 불교문화를 잇는 문화도량으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주지 정원 스님은, 무진암이 인근 청양과 보령을 아우르고 있는 지리적 이점을 살려 대중의 수행처이자 휴식처로 자리매김 시키겠다는 포부도 내비쳤다.

지난 몇 년간 문화재 검증작업을 통해 괘불탱이 보물(제1339호)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둔 오덕사는 지속적으로 사찰 문화재의 가치를 검증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오덕사와 부여군이 힘을 모아 사찰의 옛 모습을 되살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부여의 사찰들이 지역불교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나선 것은 부여불교가 지닌 잠재력이 큰데다, 발전 가능성도 높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부여불교를 어느 정도 성장시킨 이곳 사찰들은 노력 여하에 따라 부여 불교의 위상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부여 불교는 10년 전보다 사찰 수가 10여 곳이나 늘었고, 지난해에 부여경찰서 경승실이 개원한데 이어 올해 5월에는 부여군 공무원불자회가 창립됐다. 또한 부여 거사림회가 활발히 활동하면서 신도들의 의식수준도 높아지는 등 질과 양적인 측면에서 성장을 해왔다.

게다가 정림사지 내에 정림사지유물전시관이 건립돼 개관을 앞두고 있고, 백제재현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등 부여군 차원에서도 백제불교의 혼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어 부여불교의 성장 가능성은 어느 지역보다도 높다.

하지만 이런 노력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부분도 없지 않다. 우선 사찰 간 단합을 통한 유기적인 의사소통이 필수적이다. 사암연합회가 그런대로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역불교 현안을 해결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 지역 스님들의 일반적인 평가다.

또 부여불교 관계자들은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관광 프로그램 외에 사찰들이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 관광객들을 유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해 정부 및 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도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부여=한명우 기자


한국 운전기사불자연합회 부여지회 회원들이 7월1일 고란사 포교당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지난 6월 열린 보리사의 가사불사 행사 모습. 보리사는 매년 가사불사를 열고 신도들의 신심을 고양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무량사 극락전과 5층석탑.


경내와 주변경관이 아름다운 무진암.


가족신행을 하기에 좋은 보리사.

돋보기

고란사 낙화암 아래 백마강가 절벽에 위치해 있다. 절 뒤편에서 솟아나는 약수와 고란초의 전설로도 유명하다. 백마강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등 주변 경관이 아름답다. 충남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돼 있는 사찰. (041)835-2062

무량사 부여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전통사찰. 역사성과 웅장함, 그리고 뛰어난 자연환경을 모두 갖추고 있다. 여느 건축에서는 보기 드물게 2층으로 돼 있는 극락전(보물 제356호)과 장중한 느낌을 주는 5층석탑(보물 제185호) 등 많은 문화재를 자랑한다. (041)836-5066

보리사 잘 정돈된 경내가 인상적이다. 요사채 지하에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돼 있고, 사찰 한 켠에는 어린이 놀이터도 있다. 가족끼리 와서 신행활동을 하기에는 그만인 사찰이다. 기도도량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041)834-7755

무진암 절 마당에 들어서면 아름답다는 느낌이 든다. 잘 가꿔진 정원처럼 깔끔한 경내와 수채화같이 맑고 소박한 주변 경관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면서 포근함을 준다. 기도도량으로도 유명해 외지에서도 찾아오는 이들이 많다. (041)836-5023

미암사 백제 무왕 때 한 할머니가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던 중 관세음보살이 나타나 호리병에서 쌀 세 톨을 바위에 던지자 자손도 얻고 날마다 먹을 만큼의 쌀이 바위에서 나왔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는 쌀바위로 유명한 절이다. (041)832-1188


백제불교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정림사지.

정림사지 부여읍내 한가운데에 위치한 백제시대 사찰터. 국보 제9호인 정림사지 오층석탑과 보물 제 108호인 석불좌상이 있다. 부여에 와서 정림사지를 보지 않는다면 핵심을 보지 못하는 격. 오층석탑에 걸린 저녁노을이 일품이다.

부여불교 이끄는 주역들

신행지도·포교로 바빠

성수 스님
고란사 주지
부여사암연합회장



97년부터 지금까지 8년간 고란사 주지를 맡으면서 부여불교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90년 읍내 한가운데에 마련된 고란사 포교당(불교문화원)에서 주로 머물며 신도활동 및 신행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등 포교에 여력을 쏟고 있다.

부여경찰서 경승실장, 부여군공무원불자회 지도법사, 운불련 부여지회 지도법사를 맡고 있으며, 해마다 어린이 여름불교학교도 열고 있다. 94~99년까지 조계종 포교원에서 일했으며, 포교국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열악한 불교문화원의 운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5년간 백일기도 8회

석전 스님
무량사 주지



부여 지역 스님들이 석전 스님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지난해 6월 무량사 주지로 부임한 이래 도량 정비에 나서는 등 무량사 부흥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슬레이트 건물인 선원을 전통양식으로 바꾸고, 보물급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방범시스템도 갖출 예정이다. '수행이 곧 포교'라는 신념 아래 신도들에게도 수행을 강조하면서 내실을 기하는데도 주력하고 있다. 지난 5년간 백일기도만 여덟 차례나 했을 정도로 수행과 기도에 열심이다.

최근에는 1천만원의 장학금을 부여군에 기탁하는 등 지역 복지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보수적이고 유교적 성향이 강한 지역 정서를 개혁적이고 불교적인 마인드로 바꾸는데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포교 활동 '전국구'

상초 스님
정각사 주지



군 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금도 강원도, 경기도, 충북 지역 군부대를 찾아다니며 법회를 열고 있을 정도로 열정이 남다르다. 현재 전통사찰인 정각사의 위상을 되살리기 위해 도량 정비작업을 진행 중이다.

30년을 넘게 선방을 돌아다니며 수행에 몰두해 온 스님답게 스님에게든 재가자에게든 항상 수행할 것을 강조한다. 광주교도소 교화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부여경찰서 경승을 맡고 있다. 아이들에게 한문을 가르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꿈이다.

백제불교계승 노력

만청 스님
미암사 조실
대각종 총무원장



지난 7년간 부여사암연합회장을 맡아 부여불교 발전에 노력을 기울였다. 12년간 미암사에 머물면서 미암사 발전을 위해 각종 불사를 진행 중에 있다. 장기적으로는 국민들이 많이 찾는 관광 사찰로서의 면모도 갖추겠다는 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 백제불교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부여불교 발전에 공헌하고 싶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이사, 법무부 교정위원, 한일백제불교교류회장 등을 맡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부여불교 이끄는 주역들

10년 불사한 '터줏대감'

정원 스님
무진암 주지
부여사암련 부회장



무량사에서 출가해 40년이 넘게 이곳에서 활동해 온 부여불교의 터줏대감이다. 지난해까지 10년 불사를 통해 대웅전, 요사채, 선방 등을 건립, 오늘의 무진암을 일궈냈다. 수행자의 본분을 중요시 여겨 이곳에 있는 스님들에게도 열심히 수행할 것을 늘 당부한다.

노인복지에 관심이 지대해 오래 전부터 노인복지 활동을 해왔으며, 부여경찰서 경승을 맡고 있기도 하다. 또한 다도교실을 열어 지역 문화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역민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으며, 부여의 각급 기관장들이 자주 찾을 정도로 명망이 높다. 절 입구에 노인들을 위한 휴식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았다.

무의탁 노인의 손과 발

승우 스님
보리사 회주



부여 어린이·청소년 포교를 이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8년 전 보리사를 창건하고 포교에 주력해왔으며, 지금은 부여에서 유일하게 어린이, 청소년, 신도회 등의 계층별 법회를 열고 있다. 여기에다 합창단까지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탄탄한 신도 조직을 갖춰 놓았다.

7년간 부여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기도 했으며, 경찰서와 군부대 포교 및 지역 노인 복지에도 정성을 쏟고 있다. 무의탁 노인 가정을 손수 방문해 봉사활동도 하는 등 노인복지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사찰 내 노인복지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운불련 부여지회를 적극 후원하고 있으며, 지역 학생들을 위해 10년이 넘게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도량정비·사진작가 활동

서명 스님
오덕사 주지



신라시대 당시 16개의 부속암자를 거느렸다는 오덕사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지난 6년간 법당 개축공사를 한데 이어 산신각을 짓는 등 도량 정비에 주력하는 한편, 오덕사 문화재 발굴에도 심혈을 기울여왔다.

한국사진작가협회와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특히 30여 년간 사진작가로 활동해 온 경험을 토대로 전국의 불교문화재를 사진으로 남기겠다는 발원을 하고 있다.

운불련 회원배가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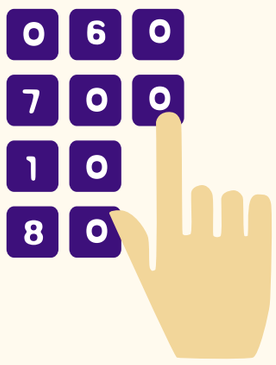
이학래 거사
한국운전기사불자
연합회 부여지회장



지난해부터 회장을 맡아 운불련 부여지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매월 한 차례씩 열리는 정기법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 회원들에게 모범을 보이면서 봄·가을로 성지순례법회를 실시하는 등 회원들의 동참과 결속을 유도하고 있다. 군 단위로서는 유일하게 운불련 지회를 두고 있다는 자부심도 대단하다.

최근 회원수가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여서 회원 배가를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또한 부여지회가 지역 불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다.

우리이웃 나눔의 손잡기 우리이웃 나눔의 손잡기 우리이웃 나눔의 손잡기 우리이웃 나눔의 손잡기 우리이웃 나눔의 손잡기 우리이웃 나눔의 손잡기 우리이웃 나눔의 손잡기 우리이웃 나눔의 손잡기



"수요일엔 060-700-1080 눌러요"

일반전화·휴대폰으로 福 짓는 날
한통화 3000원 저절로 이웃돕게 돼

전주에 사는 K보살. K보살은 작은 친목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다. 최근 현대불교에서 펼치고 있는 '나눔의 손잡기' 캠페인에 동참, 생활비를 아껴 매달 익명으로 소년소녀가장돕기 성금을 기탁하고 있다. 이를 지켜본 K보살의 도반들도 지난달부터 이웃과 더불어 사는 마음을 함께 나누기도 했다.

매주 수요일 모임에 나오는 보살들은 가장먼저 핸드폰을 들고, 나눔의 ARS (060-700-1080)를 누르는 것부터 시작한다.

또 서울 노원구에 사는 나상호 거사는 나눔의 ARS 번호가 새겨진 스티커를 주위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데 열성이다.

나 거사는 "그 동안 이웃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방법을 몰라 참여하지 못했다"며 "전화나 핸드폰을 통해 손쉽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자들이 보다 쉽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현대불교신문사가 3월말 개통한 나눔의 ARS (060-700-1080). 나눔의 ARS는 기존 후원모금 방식인 은행 지로와 자동이체가 후원자들이 은행에 직접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마련된 것이다.

나눔의 ARS는 삼보에 귀의하는 마음으로 일반전화와 휴대폰을 통해 060-700-1080을 누르면 3천원이 다음달 전화요금 고지서로 청구된다. ARS로 들어온 기금은 전액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전달된다.

김원우 기자



생명나눔실천 광주 전남본부가 6월28일 화순 전남대병원 환우들을 위해 희망나눔콘서트를 열었다.

'노래에 희망을 담아'

생명나눔 광주전남본부
전남대병원서 콘서트 열고
환자 4명에 치료비 전달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본부(본부장 현장 스님, 보성 대원사 주지)는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의 개원을 기념하고 환우들의 투병의지를 높이기 위한 '희망나눔 콘서트'를 6월 28일 저녁 병원 분수대 광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콘서트에는 환자와 가족, 의료진 등 300여명이 참석해 병상의 따분함에서 벗어나 흥겨운 여름밤을 수놓았고, 이영남 화순군수, 김경흡 화순교육장 등 지역기관장과 지역주민들이 함께해 환우들의 쾌유를 기원했다.

콘서트는 병원 의료진으로 구성된 현악 4중주를 시작으로 타악그룹 '얼쑤'의 모듬북 공연과 유상호, 주권기, 양은주, 노은경 씨 등 재즈 및 통키타, 포크송 가수들의 열창이 이어졌다.

공연에 이어 생명나눔실천본부와 전남대병원(강형근 원장)은 입원환자 4명에게 치료비를 전달하며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현장 스님은 "인공적으로 만들 수 없는 피와 골수를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자 하는것이 생명나눔 실천본부가 펼치는 운동의 하나"라며 "더 많은 이들이 생명을 나누는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 본부는 현재 소아암 투병 어린이들의 수술비 지원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문의(062)234-6602

화순= 이준엽 기자

일일찻집 수익금 600만원
어르신 무료급식에 쓰기로

대구 불광사 불광불교대학(학장 사요 스님)은 6월 29일 자비의 손길과 무료급식 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찻집과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10분의 고승대덕을 초청하여 법문을 듣는 백고좌법회 갑신년 회향을 맞아 마련된 것.

불광사 대웅전 앞 마당에서 오후 3시와 저녁 7시 2회에 걸쳐 개최된 작은 음악회는 신도와 동네 주민200여명이 동참하는 가운데 불광사 합창단과 사물놀이를 비롯해 도립국악단 지휘자 윤명국 씨의 피리연주, 김향교 씨의 시조창, 이기윤 씨의 대금, 박천용 씨의 플룻 연주가 이어졌다.

경내 초의 찻집에서 개최된 일일찻집 수익금 600여만원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급식과 소년소녀가장돕기 기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학장 사요 스님은 "작년부터 매주 해오던 지역 어르신들의 무료급식에 보다 많은 이들이 동참하여 자비봉사정신을 갖도록 해 주기 위해 일일찻집을 개최하게 됐으며, 신도들의 호응이 좋아 앞으로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 배지선 기자



대구 불광사 사물놀이패가 일일찻집을 찾은 신도와 주민들에게 흥겨운 한마당 공연을 펼치고 있다.

北에서 온 김창인씨 "남쪽 가족 찾습니다"

1999년 서울 상계동 살던 형 김창일씨


1999년 중국에서 만나 함께 촬영한 기념사진. 사진 맨 오른쪽이 셋째형 김창일씨.

북한에서 내려온 김창인씨가 셋째형 김창일(73세)씨를 애타게 찾고 있다.

김창인씨는 양강도 혜산시가 고향으로 남한에 둘째형 김창옥씨와 셋째형 김창일씨가 살고 있다.

김창인씨 가족은 1999년 중국에서 셋째형 김창일씨 가족과 만난 바 있다. 당시 만남을 계기로 생사를 걸고 탈북한 김창인씨 가족은 올 5월 한국으로 건너왔다. 최근 탈북자 지원센터인 하나원을 나와 김창인씨 가족은 가장먼저 김창일씨 가족을 찾았다. 그러나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살던 김창일씨가 다른 곳으로 이사가면서 연락을 못해 막막한 상황. 김창일씨는 슬하에 김승미(39) 김세훈(37) 김지미(36)씨를 두고 있다.

6월 28일 본사를 찾아온 김창인씨는 "오직 가족을 만난다는 기쁨에 어렵게 중국을 거쳐 남한에 왔지만 연락이 끊겨버렸다"며 "그리움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김씨는 "방법을 몰라 현대불교신문을 보고 무작정 찾아왔다. 신문을 보고 전국에 계신 불자들이 형님을 찾아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연락전화 02) 722-4162~3 현대불교 나눔의 손잡기 담당자.

김원우 기자

▌나눔의 손잡기 성금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장지원 보살- 200달러(21만원), 한마음선원 청주지원- 9만 5,420원, 최재순 보살- 3만원, 이제권 거사- 5만원, 이현이 학생- 5만원

▌정정합니다

의정부 광동여자고등학교에서 본사에 접수한 성금 '30만원'은 '34만원'의 오기이기에 바로잡습니다.

▌살립니다

현재 '나눔의 저금통' 1차 수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찰이나 단체에서는 직접 개봉하여 은행 온라인을 통해 입금한 뒤, 곧바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722-4162. 입금계좌: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

▌나눔의 손잡기 동참

경기도 용인군 수지 신도시에 살고 있는 청정심 보살이 중고 컴퓨터 모니터와 키보드 여름 옷 몇 벌과 겨울 스웨터 기증을 신청했다.

hong-hee@orgio.net로 연락요망.

▌나눠드립니다

우리 사회에는 현재 점심을 굶는 어린이들이 1만4천여명이나 되고 6천여명의 소년 · 소녀가장, 64만여명의 독거노인 등이 한 하늘아래 살고 있습니다. 이웃들과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불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나눔 저금통 분양합니다



원숭이해를 맞아 원숭이 저금통을 분양합니다. 저금통은 회사, 가정, 가게, 단체사무실 등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특히 불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기금 모금용 저금통을 비치할 경우 '나눔의 가게'로 선정해 드립니다.

스티커 드립니다

사찰, 자동차, 건물, 가방에 붙일 수 있는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를 나눠드립니다.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는 조선일보가 전개중인 '우리이웃' 캠페인과 상호 협조에 의해 엠블럼을 공동 사용합니다.

▌이렇게 참여하세요

♥ 각 종단의 나눔운동과 연결

함께하면 큰 힘이 됩니다. 각 종단과 NGO 복지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사업과 연대합니다. 또 자비의 콘서트(불자가수) 법률 및 세무상담(불자 변호사 세무사) 봉사에 참여하거나 사업연대가 가능합니다.

♥ 나눔의 손잡기 공동체

내가 가진 돈, 힘, 시간, 지식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시하도록 연결해 드립니다. 자원봉사를 원함에도 그 방법을 몰라 실천하지 못하는 불자들의 중개소 역할을 자부합니다. 모범이 되는 봉사자들을 추천해 주세요.

♥ 나눔의 손잡기 기금참여

남을 돕고 싶은 분들은 계좌나 한통의 전화로 자비를 실천하는 ARS(060-700-1080)를 통해 기금을 보내주세요.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우 등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고있는 이웃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 어려운 이웃 사연 제보

주위의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결식학생, 독거노인, 장애우의 사연을 알려 주세요.

♥ 정기후원 참여

소년소녀가장들과 결식아동들의 후원자가 되어 매월 정기적으로 생활비나 급식비를 줄 수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과 결연을 희망하시는 분은 연락주십시요.

♥ 불자기업의 사회공헌

기업의 사회공헌은 이제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불자기업들과 불교복지시설을 연계하여 후원하거나 시설을 건립해 드립니다.

♥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지도자 자매결연

불교권 국가의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계 각 종단 스님과 단체 운동가간 자매결연을 추진합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노동자들과의 결연을 희망하는 스님과 불교지도자들을 모십니다.

♥ 각 사찰의 공양미 나누기

불자들이 보시한 각 사찰의 공양미를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들에게 지원해주세요. 어려운 곳이나 복지시설에 공양미를 보내고 싶은 사찰은 본사로 신청해주시고, 공양미가 필요한 시설은 연락바랍니다. 과일과 김장, 양념, 라면, 과자류 등 식품도 접수 받습니다.

♥ 자비의 헌혈증 및 장기기증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헌혈증을 보내주세요. 장기기증에도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보고싶은 가족찾기

미아는 물론 실종가족과 이산가족, 입양아들을 찾아드립니다. 사연을 보내주십시요.

현대불교와 좋은벗풍경소리가 함께 하는 '나눔의 손잡기'



"어린이·청소년 법회에 찬불동요 테이프와 CD를 보냅시다"

현대불교신문사와 좋은벗풍경소리가 공동으로 '전국 어린이 청소년 법회에 창작 찬불동요테이프와 CD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아름답고 순수한 부처님의 마음을 담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창작 찬불동요를 선물해 주세요.

불자님들 한 분 한 분의 정성은 미래의 부처님 되실 어린 불자들에게 '불성'을 가꾸어 주는 참된 불사가 될 것입니다.

◀ 어떻게 참여하나

◇종단 · 사찰 · 기업 · 단체 · 개인 모두 동참 가능합니다.

◇본사·연고사찰 단체 등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1구좌 1만원입니다.

◇보급기간: 2004년 3월부터 12월31일까지

◀ 어떻게 진행되나

◇매주 캠페인 내용이 소개됩니다.

◇매달 한번씩 동참자 명단을 게재합니다.

◇아름다운 사연을 본지에 지속적으로 소개합니다.

※ 온라인구좌 / 농협 053-12-132878
예금주: 좋은벗 풍경소리 이종만

※ 문의 / 좋은벗 풍경소리 (02) 723-9836

대구불교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제작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여성불교의 현실과 문제를 이해하고 상호연대와 지원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 전 세계 여성불자 1300여명이 중앙승가대에 모였다.

여성불교 현주소 한국에서 찾다

제8차 세계여성불자대회(6월 27~7월 2일) 현장

29개국 1300여 대중 운집, 학술·문화행사 '풍성'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명성) 주최 제8차 세계여성불자대회가 6월 27일 중앙승가대학교에서 개막됐다. '여성불자의 교육과 수행 : 현재와 과거'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 개막식의 기조 연설은 前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 광우 스님의 '한국 비구니의 어제와 오늘'을 시작으로 앤 캐롤린 클레인 교수의 '타 문화간의 종교이해를 위한 실천방법', 폴라 아라이 교수의 '여성불자들의 정신적 치유'가 각각 발표됐다.

이번 대회 추진위원장 본각 스님은 "이번에 발표된 논문들의 특징은 전 세계 여성불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가감 없이 한데 모아 냈다는 점"이라고 평가했다. 이를 통해 각 나라의 여성불교 현실과 문제점들을 이해하고 상호 연대와 지원의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중앙승가대 자비관 4층 대강당을 가득 메웠다. 행사장에 들어가지 못한 나머지 인원들은 1층, 4층 로비에서 외부스크린을 통해 학술발표에 참여하는 등 열성적인 모습을 보였다. 대회 기간 동안 각종 다도 시연과 가사, 서각, 염색, 한지 공예 전시가 열렸으며 야간에는 육화당 뒤편 야외무대에서 매일 각기 다른 주제로 각 나라의 전통문화공연이 펼쳐졌다. 7월 3일~5일에는 해인사, 불국사, 석남사, 운문사, 봉녕사를 방문하는 사찰순례를 통해 한국 불교의 전통과 문화를 알리는데도 소홀하지 않았다.

문제점 이해 연대 · 지원 계기 마련
사찰순례 · 범패공연 등 흥미진진
천태종 비구니 스님들 참석 눈길

이번 대회는 29개국 184명의 외국인 참가자를 비롯해 13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외국인은 38명이 참가한 미국인 참가자가 제일 많았다. 참석 인원만으로도 지난 7차 타이베이 대회의 3배 규모다. 세계적 여성불교지도자들의 방한도 관심을 모았다. 비교종교학으로 유명한 '앤 캐롤린 클레인' 교수와 '폴라 아라이' 교수, 불교 페미니즘의 권위자 '리타 그로스' 교수, 티베트의 여성불교지도자 '텐진 팔모' 스님 등이 이번 대회에 참가했다. 천태종 비구니 스님들의 대회 참가도 눈에 띄었다. 구인사 성수 스님을 비롯한 8명의 비구니 스님이 참가했다. 천태종 창종 이후 비구니 스님이 외부 공식행사에 참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역 언어는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였다. 자원 봉사자들의 역할도 빛났다. 영어통역 40명, 일어와 중국어 각 5명의 자원봉사자가 대회를 지원했다. 최연소 통역 자원 봉사자는 고교 2학년 문아름(18)양으로 대회기간 동안 명성 스님과 쏘모 스님의 통역을 담당했다.

특히, 이번 대회는 한국 여성불교의 국제적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대회장 쏘모 스님, 클레인 교수, 텐진 팔모 스님 등 외국 주요 인사들은 한 목소리로 한국 비구니 승가의 저력을 극찬했다. 텐진 팔모 스님은 "우리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데 기존 서구의 여성불교 보다 문화적 동질감을 가진 한국이 더 훌륭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앞으로 한국 여성불교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도 깨닫게 하는 대회였다. 공동대회장 명성스님은 "이번 같은 국제적 규모의 대회를 통해 국제 불교계와 교류할 수 있는 전문적 능력을 갖춘 도제양성의 필요성을 실감했다"고 밝혔다. 쏘모 스님도 "한국 비구니 승단이 지금보다 더 조직화되고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회 폐막식이 열린 7월2일 공동대회장 쏘모스님은 유엔이 수여하는 '자랑스런 불교 여성상'을 수상해 참가자들의 축하를 받았다.

제9차 세계여성불자대회는 오는 2006년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다.

글=조용수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 명성 스님(공동 대회장 · 전국비구니회장)

한국 불교계가 여성불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더 많은 도제를 양성해서 더 많은 국가에서 한국 불교의 우수성을 포교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국제적 감각을 갖춘 포교사 역시 더 많이 양성해야 하는 필요성이 날이 갈수록 증대하고 있어요. 앞으로 여성의 힘으로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전 세계에 펼쳐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 쏘모 스님(공동 대회장)

동남아시아 국가의 여성불자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교육과 수행입니다. 열악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한국의 불교는 다른 여러 나라에 비해 가장 남녀의 차별이 적은 곳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의 여성불교는 세계여성불자들의 '횃불'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한국불교가 세계 여성불자들을 위해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 합니다.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주) 행복만선 Tel. 02)730-0705
여름 특별기획안내 (호화유람선으로 하는 중국여행 및 사찰순례)

삼보에 귀의 하옵고
당사는 중국과 제주도를 현지 직영
운영하는 전문 여행사로서
불자님을 위한 중국여행과 제주도 여행을
안내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

◎ 호화유람선 진천페리로 매주 화요일 출발
• 천진. 북경 7일(피운사,와불사,옹화궁) ₩ 390,000원
• 천진. 북경. 낙양 7일(소림사,백마사,용문석굴) ₩ 490,000원
• 천진. 북경. 오대산 7일(운강석굴,화엄사,현통사) ₩ 590,000원
◎ 호화유람선 진천페리로 매주 금요일 출발
• 천진. 북경. 내몽고 8일(호화호특) ₩ 520,000원
• 천진. 북경. 패상초원 8일(포타라궁,보녕사) ₩ 520,000원
◎ 호화유람선 위동페리로 매주 목,토요일 출발
• 청도. 제남. 곡부 6일(천불산 만불동,영암사,잠산사) ₩ 390,000원

요금포함내역(공통사항)
- 포함사항 : 왕복 선박료, 호텔(4성, 4성 2인1실), 입장료, 여행자 보험, 항만세, 선내 다인실 기준, 전일정 식사(선내 포함)
- 불포함사항 : 중국 비자비, 현지 가이드 기사 팁, 개인경비

중국 불교 성지 순례
1. 관음도량 보타 낙가산 5일 79만원
2. 지장도량 구화산 황산 5일 79만원
3. 보현도량 아미산 낙산 5일 85만원
4. 문수도량 오대산 운강석굴 5일 69만원
5. 소림사 백마사 용문석굴 5일 69만원
6. 달라이라마 티벳 8일 169만원

호화 유람선 선상에서 수륙제 및 소원성취 방생 대법회 가능 (진행 및 인원 상담)

제8차 세계 여성불자대회 **학술발표회 지상중계**

적극적 수행·참여로 '차별' 극복해야

'여성불자의 교육과 수행' 주제 논문 60편 발표

6월 27일~7월 2일 중앙승가대

제8차 세계여성불자대회의 백미인 학술발표회가 '여성불자의 교육과 수행: 현재와 과거'를 주제로 6월 27일부터 7월 2일까지 중앙승가대 자비관에서 열렸다. 이번 학술 발표회에서는 10개 분야 60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학술발표회를 통해 1,000여명의 참가자들은 오늘날 여성불자가 겪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불평등한 제도를 부처님 법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여성불자의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통해 역할을 다 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낮은 비구니 위상 제도 때문

학술발표회는 여성불자의 현실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됐다. 가장 주목받은 사실은 한국의 비구니가 높은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점이었다. 운월 스님(미국 뉴욕 백운선방)은 "한국에서는 비구니가 선원에서 평등한 수행기회를 가질 수 있고 사찰을 직접 운영할 권리도 갖고 있는 것"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반면에 동남아 국가의 비구니들은 비구를 도우며 허드렛일을 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으며, 불법을 배우고 수행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동남아시아 국가의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이처럼 비구니의 위상이 전반적으로 낮아진 것은 교단의 제도 탓이라고 리타 그로스 미국 위스콘신대 교수는 주장했다. 비구를 가르치는 게 금지돼 있던 비구니들은 스승이 될 가능성이 적었기에 수행을 외면했고 그 결과 비구니들은 본보기로 삼을 만한 큰 스승의 역할 모델을 갖지 못했다는 것. 그런 제약 속에서 비구니의 체험과 견해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고 그로스 교수는 강조했다.

"여성도 깨달을 수 있다"

이와 관련 비구니 차별의 근거가 되는 팔경계(八敬戒)를 시대의 산물로 규정하며 부처님의 뜻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려는 시도도 이뤄졌다. 리타 그로스 교수는 "부처님이 당시의 남성주도적인 문화에 동의했고 승가의 남성주도를 보장했음은 사실"이라면서도 "<테리가타(長老尼偈)>는 비구니의 정신적 성취를 남성과 동등한 것으로 묘사했다"며 팔경계만으로 편견을 갖지 말 것을 주문했다. 같은 맥락에서 틱누 동안(인도 델리대학 박사과정)도 "부처님은 여자도 깨달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틱누 고이홍(델리대학 박사과정)은 "부처님은 여성의 잠재력을 인정하고 사회적 정신적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첫 종교적 스승이라는 점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8차 세계여성불자대회 학술발표회에서 그룹토의중인 참가자들.

출·재가 모두 깨달음 향한 존재

교단 내의 가부장적 문화로 인한 피해는 비구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정희 이화여대 교수는 재가 여성불자들이 생활과 수행의 체험 속에서 얻은 '작은 해탈'의 사회적 확산을 불교의 가부장적 문화가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쇼요 다니구치 일본 간사이치대학 교수는 출가자와 재가자의 관계를 언급했는데, "출가불자와 재가불자의 차이는 생활양식의 차이일 뿐 우열의 관계가 아니다. 머리를 깎았는가, 승복을 입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갈애(渴愛)의 정도가 중요하다"며 출가·재가불자 공히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임을 부각시켰다.

한편 사회참여에 대한 논의도 활발했다. 상덕 스님(옥수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사회 참여적이며 휴머니즘적인 불교의 교리는 현대 사회복지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사상적 토대가 되기에 충분함"을 주장했다. 안옥선 순천대 교수는 생태 위기를 "유기적 생명의 일부를 이루는 인간이 그 밖의 존재들에 대해 그릇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야기된 문제"로 규정한 안 교수는 연기와 불이 사상에 토대한 불살생, 자비, 자애 등의 실천을 강조했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현장 인/터/뷰

"한국 여성불자 활동 놀라워"

텐진 팔모 스님



"깨달음은 본마음을 비추는 거울의 먼지를 털어내는 일이며 재가자는 출가자에 비해 좀더 두꺼운 먼지를 털어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입니다."

서구여성 최초로 티베트의 수행승이 된 팔모 스님. 히말리야 설산의 외진 동굴 속에서 12년간을 은거 수행하여 '영적 성취를 이룬 티베트여성'의 반열에 올랐다. 지금은 '국제여성수행센터'를 세워 21명의 여성 불자들을 지도하고 있는 스님은 여성의 깨달음을 돕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 여성불교의 역동적인 활동상을 보고 놀랐다는 스님은 "티베트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의 여성들은 아직도 남성중심의 사회에 순종하고 선업을 많이 쌓아 내세에 남자로 태어나기를 바란다"며 "한국의 여성 불자들이 이러한 편견을 깰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여움 제거해야 평화 가능"

리타 그로스 교수



"불교 페미니즘은 나와 타인이 둘이 아니라는 자각에서 출발합니다."

불교와 페미니즘을 접목하여 페미니즘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 리타 그로스 위스콘신대 종교학과 교수. 그로스 교수는 승가의 남성 중심적 경향을 비판하면서, "불교의 본래 가르침은 성차별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로스 교수는 "남방불교에서 소멸되었던 비구니 승단이 재건되고 있고, 서구에서 여성 선지식이 크게 늘고 있다"며 점차 불교계 내 성차별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30년간 직접 티베트 불교의 카규파 수행을 해온 그로스 교수는 "내 안의 노여움을 제거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지 않는 한 세계 평화도 있을 수 없다"며 명상을 통해 자신의 노여움을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고형곤 박사 타계… '여적과 추모'

말타고 승천하신 자리에 영구히 빛나는 '학업'

청송(聽松) 고형곤(高亨坤) 선생님은 6월 25일 새벽에 별세, 29일 장례를 모셨다. 장지는 행정구역상으로는 경기도 남양주군 수동면 장자리. 앞으로는 잔잔한 야산이 멀리까지 겹을 이뤄 연해 있고, 뒤로는 야트막한 산 줄기를 따라 커다란 철마산으로 이어지고 다시 이것은 천마산을 함께 형성하고 있다.

백수(白壽)를 하신 선생은 1906년 전북 임피에서 출생, 이리농림학교를 마치고 경성제대 예과에 입학했으며, 본과에서는 철학을 전공하셨다. 대학 졸업과 동시에 동아일보에 입사하셨다. 월간 <신동아>에서 3년간 근무하시다가 학문연구를 위해 연구실로 돌아와 연구한 지 얼마 뒤 연희전문 교수로 부임하셨다. 해방 후에는 서울대 문리과대학 철학과 교수로 자리를 옮기셨다. 58년 전북대학 총장으로 선출되셨으나 4·19혁명으로 그만두고 돌아와 한양대 부총장 겸 문과대 학장을 잠시 하시다가 군정에 반대하여 야당인 민정당에 입당, 총선에 출마해서 당선돼 국회의원을 지내셨다. 60년대의 일이다.



故 고형곤 박사

내장사 암자서 10년 불교공부
'선의세계' 등 불교관련 논문 백미

그러나 정치는 적성에 맞지 않아 다시 학문세계로 복귀, 활동하시다가 80년대에는 전북 내장사의 부속 암자에서 10여년간 불교 연구에 몰두하셨다. 연구를 마치고 돌아오기 위해 고속버스 정류장에 들렀을 때, 그 오랜 세월동안 만들어 놓은 카드 가방을 도둑맞았다. 80년대의 불교연구가 몽땅 달아나 버린 것이다. 실의에 빠져 그 뒤 학문적 업적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세월을 보냈다. 그래서 90년대는 학문적 공백기로 남아있다. 말년에는 옛 생각을 더듬어 원효 연구를 완성하려고 정열을 쏟으셨으나 그때는 이미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았다. 남을 시켜 원효 연구를 끝맺으려고 온갖 시도를 다해 보았으나 속수무책이었다. 선생은 서양철학 연구로 출발하여 중년 이후에는 동양의 선(禪) 불교와 후설의 현상학 그리고 하이데거의 존재론을 연구하셨다.

학문적 저술로는 <선의 세계>(1971)가 있다. <선의 세계>에 실린 '선의 세계'라는 글은 이 책의 도입부이면서 선사상을 철학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보여준 명논문이다. '선의 존재론적 규명'은 하이데거의 후기 존재론을 가지고 선을 밝힌 대작 논문이다. 이 논문으로 선생은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학술원 저작상을 수상했다. 70년대에는 '해동 조계종의 연원 및 그 조류'(1970), '추사(秋史)의 선관', '추사의 백파망증(白坡妄證) 15조(條)에 대하여'(1975), '화엄신론 연구'(1977) 등을 발표하셨다. 그밖에 수필집 <하늘과 땅과 인간>(1975)이 있다.

선생은 그 '존재현전'의 입장에서 한국 조계종의 선 사상을 조명하려고 했다. 그것이 '해동 조계종의 존재현전'이다. 70년대의 선 관계 논문 중 돋보이는 것은 조선조 후기 전남지방을 중심으로 한 선 사상에 대한 논쟁의 정리다. '추사의 백파망증 15조에 대하여'가 그것이다. 백파란 속명을 긍선(亘璇)이라고 하는 선사의 출가명이다. 그의 선 사상에 대해 추사 김정희가 가한 비판이 '백파망증'이요, 그 조리를 15개로 정리한 것이 '15조'다. '화엄신론 연구'는 당 나라의 이통현이 지은 <화엄신론>에 대한 연구다. 선생은 그 중에서도 특히 화엄의 시간론, 즉 시간은 가고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상을 절대 현재의 입장에서 정리한 것이다.

선생은 말이 용을 타고 내려오는 태몽과 함께 세상에 오셔서 —그래서 아명(兒名)은 용마(龍馬)이다— 마석 천마산(天摩山)의 한 자락인 철마산(鐵馬山)으로 돌아가셨다. 말을 타고 오셨다가 말을 타고 승천하신 것이다. 선생은 당신을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님의 묘비와 가르쳐 주신 서당 선생의 추모비를 세웠으며, 자신의 유품을 미리 원광대학에 기증하는 등 모든 것을 스스로 정리하시고, 손수 만든 묘지에 묘비명까지 지어 놓고 가셨다.

■소광희(서울대 철학과 명예교수)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732-1522, 737-8881
FAX 02)737-0697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자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중무원 모집, 알바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체, 탱화 업체 등
5. 알뜰정보 – 팔고/사고/대행/대여/재활용/인테리어
6. 생활장터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꽃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풍기명품 홍삼액은 홍삼만을 원료로 장시간 숙성발효 과정을 거쳐 최고의 제품을 만듭니다.

1. 100ml × 60포 무가당(진)홍삼액
2. 100ml × 60포 가당 홍삼액
3. 110ml × 50포 무가당(진)홍삼액
4. 110ml × 50포 가당 홍삼액

대중인삼가공공장 **풍기명품홍삼액**

■ 전화 : **054)638-3349** ■ 휴대폰 : **011-9118-1005**
■ 팩스 : 054)635-6617
■ 농협계좌 : 354-02-114693 대표 : 남상대



경면주사 (수비경면)
▷ 부적용, 서예용, 일반용 한의원 약국용 도, 소매
구입문의
011-9675-1089

구병시식 천도재 점안식
사찰의 행사에 직접
법진스님
염불 해 드립니다(바라, 작법)
방암사 055-882-3455
016-428-6665

계란 노른자 기름
냉한수족, 중풍치매, 협심증, 간장, 변비, 비만, 치질, 정력증강을 위한 건강식품
※ 1개월분 5만4천원
H.P 011-557-2773
017-608-3385
우체국(예금주)조순자
611038-02-019728
※ 특히 스님들께 권합니다. 光法寺

참선스님 보세요
☉ 위장, 관절장애, 변비
☉ 냉증(전신 寒증)
☉ 수마(잠, 졸음), 仙食
☉ 기력 저하, 기혈 불통
☉ 상기(上熱下冷)
011-9715-6071
02)878-2515
※원만수행을 위한 10수년 전문 연구

백련 꽃 차(생화) 백련 잎 차(덖음)
필요하신 분 연락 바랍니다
개화기간이 한달이므로 한달만 접수 받습니다
041)542-4594

범음범패, 전통의식, 각종행사 해 드림
점안식, 49재, 상주권공, 각종불공, 천도재, 바라나비춤, 사물다루는 법, 화청, 모든 재의식 경전, 민속, 역학 등 염불 배우실 학인 모집 중
대광명사 부설 동양불교대학 탄우 합장
02)939-3327

여성전용기능성 불한증막내
각 입점 모집
식당, 스낵, 까운, 분식, 좌욕, 경락, 실면도
건물주 영업 노하우가 많아서 한달 구입 고수익 보장 함
2004년 7월30일 오픈예정
임대 할곳 수원 시청 앞
010-7447-7717

치 질
● 재발 잘 되는 치질
● 한방 비법으로 완전치유
● 오래된 치질이나 암치질 특히 효염
※ 스님들께서는 특별 보시함
▷ 팔공산천룡정사
017-533-1356
053-986-1355

레이키(Reiki 靈氣)를 배우면
누구나 바로氣치료 원격치료 능력자가 됩니다
교육비 50만원, 교육기간 2~3일
인터넷: www.Reiki.co.kr
한글도메인: 국제타로학원
전화: 02)720-5719
720-5682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국제타로학원



명 당
탐지기 관룡자 **월간역학**
02)2264-0258
동양상 역학강의도 함
www.kbs.cc

역학 동영상 강의
www.kbs.cc
3개월분 7만원
속성 확실한 교육. 자격증 수여.
명당 탐지기 관룡자 판매
월간역학 02)2264-0258

행자 모집합니다
만40세미만으로 고졸이상 대학 대학원 진학 책임지원
(정릉)02)917-3363

신심있는 공양주 처사님 구합니다
011-576-2737

약간의 시주금으로 불사에 동참하여 평생 함께 절에서 기도생활하실 분
▷ 서울 강동구 포교원
016-261-2068

토굴, 작은 암자, 외딴 촌집, 불사 가능한 터(땅) 시주해 주실 분
* 좋은 인연 기다립니다
011-9122-0509
011-9416-2261

새법당에 후불탱화 보시할 분 모십니다
도심포교원에서 평생 기도 생활하실 분 모십니다
016-261-2068

행자모집
신산유곡의 조계종 전통사찰 참선수행도량으로 출가할 뜻이 있는분은 연락바랍니다
010-6384-7557

가족처럼 함께지낼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011-9571-6479

산세수려한 도량입니다 기도공부 요양하실 분 모십니다
▷ 경남 합천땜 옆
055)932-5706

보시금 필요없음
스님 없어 운영부실한 암자
명리철학, 대체의학
생활불교, 접목
부산경남근교
공부하는 비구스님
016-867-3060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경남지역에 있는 조계종 사찰)
011-9346-5719

조용한 산사에서 함께하실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 경남 진해
055)551-4949
017-553-5200

회수 55세 이상 부전스님 모십니다
행자,공양주보살님모심
현책 택배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1-259-5989

PC가능하고 참신한 40~50대의 총무(女)를 모집합니다
▷ 숙식가능
011-493-1121

신심있고 건강하신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 대구 달성군
053)614-6637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 대구 가창
011-9421-2254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 대구 칠보사
053)963-8975

약사선원을 운영하실 젊은스님이나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054)855-6461
011-522-1122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50~60대
▷ 금호동 관음사
02)2234-3310
017-260-3310

기도하시면서 공양주 하실분
▷ 강원도 강릉
033)661-5878

행자 및 기도스님 모십니다
▷ 영주
011-9342-9850

남,여 행자모집
법비오는 곳
기도 영험 도량 동해사
▷ 강원도 양양
033)672-2900

국제한의사, 대체의학 의사 자격 취득
캐나다 6년 제한의 대사회경험 및 각종 자격취득자 혜택
054)855-1588
011-522-1122

조계종 스님의 포교당입니다
위치는 부산 중심부에 있으며 포교당 크기는 90평이며, 이곳을 오랫동안 내절삼아 거주할 40대~50대의 건강한 조계종 비구니 스님을 원합니다
051)441-1430
설법원 포교당

아미타, 관음, 지장 삼존불 개금 동불 좌대포함 2자반
후불, 신중, 칠성탱화 모실분께 시주하고자 함
▷ 경기용인
017-372-8968

스님희망하시는분모십니다
경락 지압 수련생 모집
수련후 자격증 수여
관음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한국 대체 의학 학원장
051)558-1686
011-9521-6087

사주 개인 지도
● 특수비법으로 쉽고 정확하게 하루에 통변 승려에 한하며 보시금 250만원
● 지도 : 대주 스님
HP : 011-741-0867 ☎ 02)926-1259

성수철학원(학인모집)
■ 스님, 처사, 보살님 전문 교습 ■
▶ 무식자도, 공부해도 해도 안되는분 한달 수강 하면 역학 정통하여 환하게 개안(開眼)됩니다. (단체는 출장강의 가능)
▶ 눈치 안봐도 돼요, 다 맞으니까~ ▶ 사주, 신수, 작명, 궁합, 택일, 신병 모두 100% 적중
▶ 불자님의 포교 일환(방편)으로 최고 (불교 교리로 푼다)
▶ 전국 일원, 제자 150명 활동중 임. ▶ 전화 감정도 환영합니다(신속 정확)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270-4 (2층)
053)255-4784, 256-4784. 018-531-2237

역학 수강생 여러분
10초내 운/세를 맞추면 배우러 오/세요
● 교재 : 사주첩경(이석영 저) 격국용신 및 교재내용에 대한 질문을 10초내 답변
사주전체 대흐름(조상포함)을 알고나면 격국용신 및 신약신강을 신경쓰지 않아도 속시원히 통변할 수 있습니다.
http://www.speedunse.com에서 핸드폰 · 카드결제됨
02)826-5067에서 전화상담 중

행 자 모 집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에서는 미래의 세계불교를 이끌어 갈 참 수행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자격 : 16 세이상 남 · 녀
2. 1인 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수행
3. 산중 감포분원 및 대구 큰 절 중 택일
문의 : 011-9852-0075(총무스님)
상세내용은 홈페이지
영남불교대학 참조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053)474-8228 대구 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최면전문교육
당신도 최면 전문가가 될수있다
◆ 빙의(신들림) : 사람의 몸속에 들어온 빙의와 적접 대화하여 가족이 확인하고 영가가 떠나는 것을 본인이 목격함 (빙의된 분 별도상담)
◆ 전생상담 : 현생의 어려운 문제점과 전생과의 인연관계를 파악하여 긍정적인 삶으로 변화시킨다
◆ 2일간 핵심비법교육으로 완성지도 ◆ 출강강의 가능함
개인지도 : 일휴스님
연락처 053)984-9569, 011-533-8022



계절이 운명을 바꾼다!!
사주와 성형관상의 대가 저자 김창규 원장의 생활역학전서
역학수강생모집 (개인지도)
● 역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
● 사주공부를 하였으나 확신이 서지 않는 분
비법전수(현재 포교원, 철학원 운영중인 분)
미래음양회 서울 02)904-3094
해동철학원 부산 051)808-3260 H·P 017-277-7145

법요집·기초교리 集 괘도 재발간

첨단교육 매체가 다양한 오늘날에도 대중의 일체감과 효율성을 높이는 교육보조재료로는 칠판과 괘도를 활용하는 입체적 교수 방법이 좋습니다. 특히 청소년 여름불교학교 담임법사님들께서 교보재로 활용 하시면 좋은 결실을 거두실 것입니다.
군법당, 경찰서 교도소 등 대중교리 교육이 필요한 곳에 법보시를 하고자 원하시는 불자님들께서 전화주시면 택배로 우송해 드립니다.



■ 법요집
• 삼귀의 • 정근
• 찬양합니다 • 발원 및 축원
• 반야심경 • 사홍서원
• 입정 • 산회가
• 청법가 • 기타찬불가
• 법문

■ 기초교리
1. 불교란?
2. 부처란?
3. 대승과 소승의 차이
4. 사찰에서 쓰는 도구
5. 사찰경내 예법
6. 합장과 반배
7. 고두례
8. 예불문
9. 삼보 15. 사성제
10. 삼귀의 16. 사섭법
11. 삼법인 17. 십이인연
12. 삼업 18. 육바라밀
13. 삼학 19. 팔정도
14. 신도오계 20. 보왕삼매론

■ 기획 : 예맥불교문화원 ■ 제작 : 불교포교자료원
■ 전화 : 02-772-9052

– 매일경제신문 인체 경영학 연재 –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 해독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몸안에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지면서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옥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희속식이다.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 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답답해 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원액은 우리땅에서 자란 50여종의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간 자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마치 쓰레기처럼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 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일상 생활 중에 소리없이 진행한다.

02)523-0708 초 록 원 (팔보효소)

반야원 불상 조성소

동불 조성 전문 · 7치, 8치, 9치, 1자 · 각종 조각, 천불조성, 순금개금



천수천안 및 작은 불상 조성부터 대불 조성까지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불사상담 성의껏 해드립니다. 주 · 야 상담해 드립니다.
부산시 동구 범일 2동 833-1번지
TEL 051)647-5188 / 051)632-1470
019-535-6495
ly2021@hanmail.net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737-8881 (代)
· FAX : 02) 737-069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 법당 : 46평
- 요사 : 80평
- 부지 : 1200평
- 가액 : 7억5천(급매)
- 납골당 1000기 시설완료

- 위치 : 전북
- 법당 : 15평
- 요사 : 40평
- 부지 : 350평
- 가액 : 1억5천

- 위치 : 강원도
- 법당 : 30평
- 요사 : 30평
- 부지 : 2400평
- 가액 : 5억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 011)713-5634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
- 대지 : 300평
- 임야 : 2천5백평
- 인등 : 3천개
- 가액 : 8억원(절충가능)

011-9338-2993
소개업자 일체사절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시 온천3동
- 71평 3층
- 법회즉시가능
- 가액: 전세 7천만원 (5천만원에 월20만원)
- 포교당 15년 됐음
- 시설비 없음

011-9571-1710

포교당안내

- 위치 : 성북구 성북동
- 대지 : 50평
- 건물 : 40평
- 욕실2, 주방1, 방2 법당, 시설일체
- 전세 5500만원

011-732-6933

비구니스님토굴안내

- 위치 : 경주시내 10분거리
- 경주고속철도역사, 경부고소상,하행선IC와 대구~포항간 고속국도 근접, 교통이 시내보다 편리
- 대지 : 2필지 240평 임법당 15평정도 1동(스님방,목욕탕구비) 옛날흙집 방3칸 1동. 옛날흙집 방2칸 1동
- 교통편리함에 비해 공기가 너무 맑고 조용한 시골마을. 토굴은 소박하지만 욕심을 내려놓으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깨끗한 물과 공기가 느껴집니다.
- 보살님도 가능. 비구니스님 적합지

011-9211-6385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
- 부지: 700평
- 법당: 25평
- 요사: 30평
- 가액: 4억

- 위치: 원주
- 부지: 300평
- 법당: 25평
- 가액: 6천5백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포교당,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지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통일시대 최대 투자처 경기 연천 土地 다량보유 상담환영

포교당안내

- 위치: 서울 강동구 암사동
- 평수 : 약 25평 큰방1개, 작은방1개
- 보증금 : 500만원 월 35만원
- 시설비 : 2천2백만원
- 철학관 환영

018-333-3205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남 무여 (산세수려하고 경관 최고)
- 평수 : 대지 200평,건평30평 (방4,부엌,거실,욕실) 건물20평
- 임법당1, 정원, 창고, 텃밭, 지하수2
- 신축건물, 벽돌, 기와
- 가액 : 1억5천만원(절충가능)

011-792-6910

포교당안내

- 위치: 서울 노원구 공릉1동 아파트상가2층 전체 (6,7호선 태릉 입구역 400m)
- 평수: 전체 (32평), 법당(11평), 요사2동(12평)
- 실내 인테리어 완료, 역세권, 북부지원 인근, 가액 1억6500만원

011-9650-6104
02)949-6604

포교당최요지

- 위치: 부산시 사상구 주례1동
- 평수 : 45, 2층
- 큰법당1, 방2, 부엌, 목욕탕 삼존불(후불탱화), 지장불(후불탱화) 신중탱화, 산신용왕불
- 전세 : 500만원, 월 45만원
- 시설비 : 1700만원 사정상 급 안내 몸만오시면 바로 법회가능(살림)

051)327-0477
019-556-6047

포교원안내

- 위치: 인천시 계양구 계산1동
- 평수: 25평
- 삼존불 각단탱화 모셔져 있음
- 보증금 1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는 답사후 논의요망

010-7128-5195

포교당안내

- 위치: 성남시 분당
- 평수: 110평(2층)
- 법당: 40평
- 요사: 40평
- 보증금 3천만원 월 350만원
- 시설비: 3천5백만원

토굴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 대지: 100평
- 법당: 시골집 2동
- 양도가: 2천만원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11)530-1975 / 011)688-3521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중구 중앙동 (버스정류소앞 지하철 1분)
- 평수 : 55평 4층 전관,법당 20평 온돌방 6개, 삼존불, 삼존탱화, 욕실크고 주방2, 엘리베이터有
- 내부한옥식으로 잘 꾸며져있음
- 전세합 7천만원, 월50만원

011-9678-2979
018-801-2566

절터안내

- 위치: 경북 봉화군 춘양면 근교
- 평수: 전 2000평 (터 정리됨)
- 토굴 14평, 방 3개, 기름보일러, 부엌1동
- 상태: 독립된 청정계곡 도로포장됨
- 가액: 5800만원

010-4752-2758

사찰안내

- 위치: 전북 남원
- 부지: 3천 2백평
- 법당, 요사 완비
- 납골시설 100기 (분양완료시 2억이상 수익가능)
- 대규모 납골사업 가능한 부지 조성 완료
- 가액: 1억 5천만원(전세가능)

011-9415-6831

포교당안내

- 위치: 경기 시화 신도시
- 시설완벽 최고급
- 내부실평수 53평, 베란다 약 20평
- 난방 전기 큰방2, 거실겸주방 1, 샤워실겸화장실2, 엘리베이터, 주차장완비
- 가액: 보증금+시설비 포함 6천만원에 월60만원
- 살림일절, 몸만오셔서 포교하실분 따로상담가능

031)432-7406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시 북구 구포 3동 건물 4층 콘크리트
- 1층 법당. 2층 공양채. 3,4층 주택
- 산을 끼고 있으며 용도변경 가능함
- 법당 부분 주불 관세음보살 호신불 305불 조성되어 있으며 단청되어 있으며 법당 시설비는 일체 받지 않음
- 가액 : 2억 7천만원(절충가능)

051)343-5689
011-597-8889

사 찰 안 내

- 위치: 서울시 은평구(북한산)소재
- 부지 : 250평
- 법당 : 40평(임법당)
- 가액 : 8억(전세가능)
- 특징 : 북한산 자락의 조용한 사찰임

사찰(토굴)안내

- 위치 : 경북 안동시 소재
- 법당 : 35평(임법당)
- 가액 : 3천만원
- 특징 : 시내에 인접한 조용한 토굴로 공부할 스님과 기도정진 할 스님에게 적합합니다

좋은인연됩시다 동진불사 전국소재 사찰, 포교당 양도 양수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서울 018-536-4064 / 대구 018-689-0455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거창군 운양면
- 건물: 일반 한옥 사찰
- 요사채, 총건평 45평 대지 159평 삼존불, 각단 탱화 모셔져있음
- 특징: 교통편리 (거창에서 김천방향 국도변)
- 모든시설 사용이 편리함
- 가액: 8천만원

019-503-7959
055)942-9156

한마음 납골묘 납골당

사찰 경내에 본사의 비용(무상)으로
납골묘를 설치해 드립니다
사찰에서는 일체의 부담이 없음
한마음 석재 납골묘 납골당 고원 합장

011-348-0668 / 031)318-0616

사찰안내

- 위치 : 충남 공주시 유구읍
- 평수: 대지 48평
- 건물: 법당 1동, 산신각 1동
- 요사채 1동
- 가액: 5천5백만원

041)841-3090
017-337-4168

토 굴 안 내

- 위치: 충남 금산군 남이면 소재
- 대지 : 110평(전통한옥, 등기필)
- 건물 2동(안채, 사랑채)
- 심야전기 시설이 완비된 아주 깨끗한 전통 한옥
- 스님토굴이나 가족휴양처로 최적으로 장소
- 가액 : 9천만원

041)753-3766

포교원안내

- 위치: 대구시 달서구 4층 중 2층
- 방3, 부엌1, 화장실1, 법당30평(총 70평)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3000만원

011-822-6104

사찰 안내

- 위치 : 의정부
- 평수: 65평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2,200만원 절충가능, 즉시법회가능
- 시설완비(상담후 결정)

031)826-0376

신축사찰안내

- 위치: 광주광역시 평동 공단 인근
- 대지: 207평, 1층 요사채 25평 2층 법당(목조) 25평
- 삼존불, 지장보살, 신중
- 가액: 1억3천만원 (전세 5천만원)

062)943-3330
011-9600-8002

눈

* 충혈, 눈물, 피로, 눈꼽, 눈이 뻑뻑함.
* 침침함, 눈부심, 가려움, 기타 불편증세

눈 전문 특수영양식품

눈에 좋은 물질특허성분 함유
일본특허 2790212 미국특허 5382714

제조원: 日本 (주) MERCURY-MK

일본 성인병예방협회 추천제품

눈밝은 세상 (02) 2237-8004

물좋고 산세좋은 도심속 암자

- 건평 100평
- 법당 : 15평
- 요사채, 주차장완비
- 40년 역사 가건물
- 가액 : 2억 7천만원

011-9303-8550
051)301-8555

포교당안내

- 위치: 경기 의정부시 시청앞 공영주차장 앞
- 5층 건물에 4층, 42평
- 방1, 주방1, 도시가스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50만원 시설비 답사후약정

031)873-8171~2
011-258-6432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 남산초등학교 정문 맞은편
- 상가 2층 법당 실평수 20평 (사정상급매)
- 방2개, 넓은 응접실, 편리한 구조
- 시설비 : 300만원
- 가액 : 전세금 2,500만원

011-519-0808

사찰안내

- 위치 : 강원도 주문진 IC근처
- 대지 : 500평, 법당1-80평, 신축회관, 한옥 23평
- 가액 : 1억 5천만원
- ※ 임야 6천평-3천만원 (동해바다가 보임)

033)661-1375
011-202-8288

암자(급)안내

- 위치 : 경기도 가평군
- 법당, 요사, 산신각, 용화전, 용왕전, 정각2
- 물좋고 산세 경관 수려
- 평수 : 2530평 (평당 30만원)
- 실버타운 가능

011-9126-2266

암자안내

- 위치 : 경기 여주 가남면
- 법당 10평
- 요사채 30평, 방3개
- 가액: 상담 후 절충

019-691-0056

도심의 사찰

- 위치: 원주시내 (40년된 사찰로 조그마한 야산에 있음)
- 대웅전, 지장전, 용왕, 산신각, 요사채2동, 스님방 별도
- 가액 : 2억 5천만원

011-327-5863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 대지 : 600평, 법당 20평, 요사채 80평, 공양간, 사무실 각각 따로
- 가액: 4억5천만원

011-9387-4446

사찰안내

- 위치: 팔공산 갓바위 밑 아늑한 소나무 숲속
- 텃밭있고 주차장 넓은 신축법당
- 삼존불 넓은 거실 방4개
- 스님 대불사 관계로 급매
- 가액: 보증금 4천만원, 월 10만원 시설비 1천만원

011-537-1739

포교원안내

- 위치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
- 삼존불, 탱화 등 모든시설 완비
- 가액 : 1천만원 월 30만원
- 즉시 법회 가능
- 스님 몸 안좋은 관계로 급 안내 모든집기 일체 포함

041)337-8078
011-332-8079

포교당 안내

- 위치 : 인천시 부평구청 뒤 2분거리 4층건물중 3층, 35평
- 법당, 공양실, 친견실, 삼존불, 지장단, 신중단, 영가단, 앰프시설, 사무기기, 포교서적 완비 시설A급
- 보증금 2천만원에 월 15만원 시설비 1천8백만원

032)511-4974
부전스님 필요하신곳 연락바랍니다

사찰안내

- 위치: 대구
- 대지: 102평(신축건물)
- 금액 : 3억 1천만원 (융자 4천만원 포함)
- 법당 : 28평 ● 요사채 : 45평
- 방5개, 구조편리, 화장실4개
- 즉시법회가능

011-226-2880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인근 현재 불사중
- 요사 40평 법당 가건물
- 가액: 1억 8천만원

016-868-5517

사찰안내

- 위치 : 전남 장흥군
- 면적: 임야 대지 포함 11400평
- 법당: 목조 40평
- 요사: 벽돌 110평 1동 창고겸 요사 45평 1동
- 가액: 3억7천만원

011-9457-7060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천시 대부시장 입구 3층
- 법당, 스님방, 주방, 사무실 등
- 법회시설 완비
- 가액 : 보증금 5백만원 월 35만원
- 시설비 : 1천만원

019-226-5901

사찰안내

- 위치: 부산시내
- 총평수 500평 중 주거지300평, 학교부지 200평 건평 180평 3층 현대식 건물
- 1층 법당 60평, 2층 주택 빌라식 80평, 3층 주택식 요사 15평 20평
- 삼성각
- 가액: 10억 (은행융자가능)
- 실투자금 15억 들었음

051)645-3600 / 02)363-0425

사찰안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중산동 약수마을
- 대지 : 150평(독채)
- 법당(목조)25평, 삼존불, 약사여래불, 신중단,영가단
- 스님방6평, 요사채10평
- 산신용왕당, 텃밭
- 전세 양도 : 2천3백만원

018-550-7260
016-429-2820

암자안내

- 위치 : 경북 상주 산현리
- 법당 : 21평
- 요사채 : 20평
- 대지 : 108평
- 가액: 7500만원

054)533-1477
011-9588-0998

사찰안내

- 위치 : 경주 건천 감산1리
- 부지: 1690평
- 법당 20평
- 요사채 20평
- 석불모셔져 있음
- 문의하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054)751-5530

약사여래불 포교당

- 위치 : 서울 서초구 방배동 467-10 2층
- 평수: 약 25평(주방, 방1 포함)
- 보증금 1000만원 월 80만원
- 약사여래불을 모시고자 하는 분
- 도심 속 사찰 (사당역 7~8분 거리)

02)3487-2311~3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 다사
- 대지(밭) 500평
- 전통한옥 법당, 방3개
- 뒤편에 산이 있고 옆으로 낙동강이 흐름 교통편리 시내버스 5분거리
- 시설비 600만원 월 10만원

017-854-2428

토굴암자안내

- 위치 : 강원도 홍천군 양덕원
- 평수: 흙집 황토방 건평 20평 텃밭있음(서향집)
- 건물 등기 있음 기타 집기류 일체 보시
- 가액: 800만원

017-379-2201
서암합장

포교원안내

- 마산시 부림시장상가 60평
- 보증금 1천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1천2백만원(절충가능)
- 도심포교 최적지
- 노송과 대나무가 있는 토굴
- 남원 광한루에서 5분거리
- 현대식 20평(방2, 거, 주, 화)
- 가액 : 4000만원(절충가능)

016-424-0500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산외면 산세좋은 명당
- 대지: 200평,건물 25평 2동 조립식 건물
- 토목공사: 전 4000평 임야 10000평
- 4차선 도로 진입로에서 5분거리
- 대형차량 진입가능으로 대가람 중창 가능한곳
- 가액: 1억 7천만원

043)255-2773
016-402-1159

사 찰 안 내

- 위치 : 포천시 경기 승마공원 입구
- 부지 1천3백평
- 건물 53평, 25평
- 17평 3개동
- 가액 : 3억5천만원
- 서울강남에서 50분거리
- 산세수려하고 전망좋음

031)533-2420
017-202-2741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효목동
- 건물: 5층건물 3층(56평)
- 법당(20평), 요사채
- 방2개, 큰거실, 공양간, 화장실 별도
- 비로자나불 부처님 모셔져 있음 후불탱화 3점
- 비품: 대형냉장고, 에어컨 시설, 정수기
- 기존 신도로 즉시법회가능
- 가액: 시설비 2천만원(조정가능) 보증금 1천만원 월 80만원

053)756-7339
011-9599-6996

사찰안내

- 위치 : 산청군 황매산 서편
- 부지: 약2천평
- 밤산군유지 2만평
- 건물: 단청한 법당 30평 요사채 2동, 그외
- 특징 지리산 천왕봉 안대 동양화 같은 최고 명당 비구니 선원 적합
- 가액: 2억 7천만원

011-531-1334

포교당(급)안내

- 위치: 대구시내 중심지 포교최적지
- 건물 : 2층 건물중 2층 전체 40평(법당 20평)
- 시설: 삼존불, 각단 탱화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45만원

016-640-8133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천 북안
- 대지: 108평
- 건평: 법당(18평), 요사채. 방3개. 목욕탕, 공양간(12평)
- 특징: 심야 보일러 설치 삼존불 부처님, 후불탱화 대나무숲, 만불산이 보이고 도로변 인접
- 가액: 4천2백만원

011-595-7360

사찰전세(매매)안내

- 위치 : 경기도 양평
- 부지 : 920평 중 550평 허가득 (국유지 점유 사용. 약 2000평)
- 법당 : 목조 30평, 기타부속건물 4동
- 요사채(32평) : 방 3, 주방 1
- 전세금 : 절충 후 결정(매매도 가능)

※계곡 청정수려하고 특히 복지활동 하실분 최적지

011-9773-5701
031)771-5731

여름특별기획-일터불심 10대 화두

날이 새면 일터로, 어두운 밤이면 집으로 돌아오는 직장불자들의 일상. 그런 삶 속에서 일터불자들은 어떤 꿈들을 키우고 있을까. 때론 일탈의 유혹에 흔들리기도 하고, 배짱 좋게 사표를 던지려고 한다. 하지만 마음은 늘 그 자리. 그럼 일터불자들은 불교에서 무엇을 찾기 바랄까. 직장불자들은 말하고 있다. 돈, 결혼, 자녀교육, 건강, 처세, 승진 등 인생 고비 때마다 불교는 '지혜를 내어주는 창고'가 된다고.

본지가 이와 관련, 직장불자들의 올바른 신행생활을 돕기 위해 '일터불심 10대 화두'를 선정했다. 전문가 조언, 직장인들의 관심사 등을 담아 10회에 걸쳐 풀어헤쳐보기로 한다.

글 싣는 순서

① 일터, 마음 닦는 수행처
② 직장 동료 · 상사 · 후배, 모두를 도반으로
③ 아직도 출퇴근 시간에 졸고 있습니까.
④ 하루 5분 수행, 인생이 달라진다.
⑤ 스트레스, 불교에 치유법 多 있다.
⑥ 술과 담배 그리고 과식은 신행의 적
⑦ 제대로 불교 믿으면 저절로 부자 된다.
⑧ 한달에 한번 집중 수행 필요
⑨ 틈틈이 읽는 불서, 인생을 풍요롭게
⑩ 인터넷은 신행정보의 보고

일도 신행도 '만점' 되는 비결은?

'모든 일이 바로수행' 가슴에 새기면 만사 OK!



서울 은평구청 환경미화원 보살들. 6월 30일 그들의 '수심(修心) 도량'인 구산동 공중화장실을 깨끗이 청소하고 있다. 사진=김철우 기자



삼성증권 FNhonors 종로타워 우승택 지점장이 스크랩 해놓은 신행정보 기사를 들어 보이고 있다.

하루의 대부분을 일터에서 보내는 직장불자들. 직장인으로서 100점, 불자로서도 100점이 되는 완벽한 일터불자가 되는 방법은 없을까? 그 길은 일터를 '수행처'로 여기는 마음가짐에서 찾을 수 있다. 일을 수행처럼, 수행을 일같이 하는 것이다. 일과 수행은 별개가 아니라는 열린 마음에서 일터가 즐거워지고, 수행도 깊어진다는 것.

그럼 직장불자들은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업무와 이해타산으로 맺게 되는 인간관계 등으로 얽힌 일터를 어떻게 수행처로 삼고 있을까? 그 대답은 명쾌했다. '제업즉수행(諸業卽修行)'이다. '모든 일이 바로 수행'이란 이 말은, 직장불자들이 실천해야 할 일터 수행의 모토다. 그렇다면, 일터에서 구체적인 자기변화 과정을 어떻게 점검하고 무엇 때문에 일터를 최고의 수행도량으로 삼는지 직장불자들에게 들어봤다.

우승택 지점장의 '평상심 유지하기'

하루 종일 증시 관련 데이터에 파묻혀 사는 '불자 CEO' 삼성증권 FN honors 종로타워 우승택 지점장(44 · 부동). 일터는 온갖 번뇌가 겹겹이 뭉쳐 있는 곳이라고 말한다. 듣기 싫은 소리도 들어야 하고 보기 싫은 사람도 매일 만나야 하기에, 결국 일터는 고통의 집합처라는 것이다. 미운 사람과 만나고(怨憎會苦), 구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求不得苦) 고(苦)가 그대로 드러나는 곳이다.

하지만 우 지점장은 '번뇌'를 통해 '보리(깨달음)'의 씨앗을 키운다고 말한다. 내가 직장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면, 번뇌는 더 이상 스트레스가 되지 않는다. 만약 업무 스트레스에 싸여 평상심(平常心)이 흔들려도 일터에서의 수행은 흔들린 마음을 곧바로 돌려놓는 힘이 있다.

"참선이나 염불을 할 때 떠오르는 잡념과 망상을 마장이라고 합니다. 직장인들에게 이 마장은 구체적 · 육체적 · 금전적으로 즉각 다가옵니다. 그 마장을 타고 넘을까, 아니면 발로 차고 지나갈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때 불교가 나침반이 돼 줍니다. 끊임없는 갈등과 고통 속에서 바른 길을 찾고, 중도 자리를 시시각각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의 '하심 · 인욕 · 세심'

이 같은 생각은 흔히 하찮은 일로 여겨지는 환경미화원 일을 하는 불자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서울 은평구청불심회원 이명자(60 · 불심행), 김정애(46 · 법계심), 김종임(47) 환경미화원은 그들의 일터인 공중화장실에서 하심(下心)과 인욕(忍辱)을 배운다. 이들은 처음 청소 업무를 시작했을 때, 하룻밤 만에 전쟁터가 돼 버리는 공중화장실의 모습에 질려 '이 일을 계속해야 하나' 하는 절망감을 맛봐야 했다. 그러나 이들은 일터에 대한 생각을 고쳐먹었다. 내 것 네 것 따지는 '이기심'이야 말로 일터수행의 적이라는 사실을 일을 해나가면서 깨달았고 열심히 청소를 했다. 지금은 공중화장실이 '세심(洗心)' 공부를 하는 도량이 됐다고 말한다.

이명자 환경미화원은 "내가 부처라고 생각하면, 지금 일하는 이 곳이 바로 도량"이라며 "거울이 더러울 때 깨끗이 닦으면 마음도 시원해지는 것처럼 내 일에서 소박한 깨달음을 얻고 있다"고 말한다.

10년 넘게 '일터 일일 수행점검표'를 써온 국토연구원 법우회원 김의식 책임연구원(56 · 연담)도 일터는 수행력을 키우는 도량처럼 여기고 있다. 자기 점검의 바로미터가 바로 수행. 김 연구원은 나만의 일터가 아닌, 한걸음 더 나아가 동료들과 함께 하는 수행처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생공심(共生共心)'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직장은 계층조직입니다. 일터를 수행공간으로 생각한다면, 상하관계가 동업중생이 됩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매순간 확인하게 되면, 종교와 상관없이 일터가 수행처가 되는 겁니다."

특히 김 연구원은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하면, 그 속에서 불법의 이치가 확연히 드러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되면, 자기 일은 그대로 화두가 되고 그 수행력은 24시간 내내 지속된다고 설명한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일으키라(應無所住 而生其心)'는 <금강경>에 나오는 유명한 경구다. 서울 마포경찰서 불교회 지도법사인 김진홍 대한민국경찰불교회 사무국장은 업무에 임할 때마다 이 구절을 '해야 할 업무라고 생각하면 주저 없이 하라'는 말로 해석한다.

직장불자들은, 중국 임제 선사의 <임제록>에서 나오는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이라는 말을 그대로 어떠한 곳에 처하든 주인이 되어 그 자리에서 진면목을 보이라는 뜻으로 새기면 어떤 일이든 성취감이 생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우리불자회는요

한국공인회계사불자회

한국공인회계사불자회는 경제계의 파수꾼으로서 기업과 일반투자자 및 정부 관계자에게 회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불자 공인회계사들의 신행모임입니다.

창립 4년차를 맞은 불자회로서 어느 불자회보다도 뒤지지 않는 활동력을 선보여 왔다고 자부합니다. 물론 불자로서의 긍지와 깊은 신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공인회계사라는 직업 설명부터 드려야겠습니다. 아마도 불자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공인회계사는 기업 등 일반적인 재무와 회계와 관련해 그 경제적 가치와 자금 출입이 투명한가를 판정하는 전문직입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회계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민과 기업, 정부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그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자회는 지난 2001년 12월 22일 서울 종로 조계사에서 불자 공인회계사 10명이 모여 총회를 열고 발기인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후 2002년 1월 조계사 문화교육관 설법전에서 당시 조계사 주지였던 지홍 스님을 모시고 창립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그때의 환희심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후 우리 불자회는 꾸준히 사업을 알차게 전개해왔습니다. 첫 사업으로 많은 회원을 동참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벌여 지금은 회원이 25명이 넘습니다. 불자 공인회계사를 일일이 파악해 가입을 유도했고, 가족 단위의 동참도 이끌어 냈습니다.

현재 우리 불자회의 임원단으로는 전상구, 이 건, 김길원 불자가 부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총무에는 김정운 불자가 불자회 크고 작은 일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들 불자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공인회계사 불자회는 없을 지도 모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창립이후 2002년 6월까지 조계사 설법전에서 매월 한 차례 정기법회를 꾸준히 봉행했고, 2002년 7월부터는 법수선원 송찬우 중앙승가대 교수를 초빙해 <이입사행론(二入四行論)> 강의를 들었습니다.



한국공인회계사 불자회원들이 지난 2001년 서울 조계사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불교문화체험 · 군포교 지원 계획

가족단위 활동, 법회 활기 더해

무엇보다도 우리 불자회의 가장 큰 자랑은 가족 단위 신행활동을 벌인다는 점입니다. 가족 단위로 신행활동을 한다는 것은 회원간 화목을 높일 수 있고, 신행생활이 더욱 활기를 가질 수 있어 유익합니다.

앞으로 우리 불자회는 다소 침체된 활동을 다시 활성화하는데 역점을 둘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 조직을 굳건히 다지고, 수도권 중심의 모임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올 하반기에는 선지식 초청법회를 열고, 불교문화체험 테마법회도 가질 생각입니다. 이와함께 미래불교를 위한 연대 사업으로 군포교 지원사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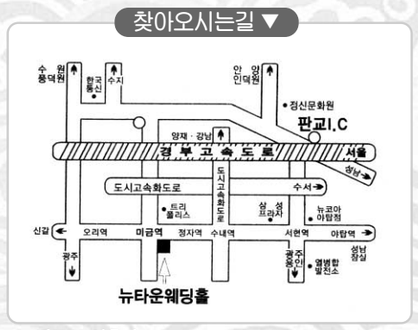
■박노영 회장(신한회계법인 부회장)

봉 대한불교 대승종 총무원장 취임식 축

대한불교대승종 제9대 총무원장 법철당 혜심스님
취임식을 아래와 같이 봉행하오니 사부대중 불자님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일 시 : 불기 2548(2004)년 7월 14일(수) 오전 11시
● 장 소 : 경기 성남 분당 뉴타운 웨딩홀 5층 (☎031-714-6800)
● 연락처 : 총 무 원 033)435-4108
봉행위원회 055)585-7993
011-507-2837
031)769-4334
011-202-4334

찾아오시는길 ▼



◎ 판교 IC 이용시
판교 LC 내려서 바로 우회전(수지방향) 5km 직진 우영냉장 지나 바로 우회전(미금역 · 분당방향) 로타리 내려와서 신호 두개 직진

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장 취임봉행위원회

종 단 가 입 안 내

본 종단은 문화관광부 관리법에 의하여
2003년 10월에 비영리법인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가입대상
1. 불교를 신앙하시는 모든 분
2. 사찰(암)등록. 스님 및 법사 불교에 종사하시는 분

종교단체명칭
사단법인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종단마크는 본 종단에서만 사용가능함)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3동 266-76
02)391-8540 / 019-548-8588

일주문



6 · 25 희생자 위령대재서 법문

동국학원 이사 현성 스님은 6월 25일 육군 제5군단 호국 금강사에서 봉행된 '창건 21주년 기념 6 · 25전몰 희생자 위령대재'에서 법문했다.



원효종 대구교구 종무원장에

대구 대원사 주지 서응 스님은 6월 30일 대구 정현사 대웅전에서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효종 대구교구 초대 종무원장으로 취임했다.



영산회원 정기교육

태고종 광주전남 종무원장 법천 스님은 7월 5~11일 제주도 광명사에서 영산회원들을 대상으로 정기교육을 실시한다. (062)222-4133



반야심경 설법특강

안성 백마사 주지 법성 스님은 7월 3일~8월 23일 열린다선방 불교대학에서 <반야심경> 설법 특강을 연다. (031)674-7188



전국교법사단 59주년 법회

전국교법사단 김형중 단장은 6월 26일 동국대 대각전에서 전국 교법사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법사단 창단 59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순천교도소 법회 봉행

전국 불이회 곽종형 사무총장은 6월 22일 순천교도소 법당에서 재소자 불자들의 교화를 위한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부산불교거사림 14대 회장 취임

부산불교거사림회 배호암 회장은 6월 29일 통도사부산포교원에서 창립 32주년 기념법회를 개최하고 제14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진각복지재단에 후원금 기탁

김홍신 前의원 6백만원 쾌척



김홍신 前 국회의원(열린우리당 · 사진)은 6월 28일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에 의정활동 잔여금 603만1천211원을 기탁했다.

김 전 의원은 "치매노인전문요양시설인 진각치매단기보호센터의 운영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5, 16대 국회에서 보건사회위원으로 활동해 온 김 전 의원은 사회복지 발전과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자원봉사도 뭉치면 두배가 됩니다"

천수천안 남양주 · 구리지부 자원봉사단장 홍선 스님



"60여 사찰이 종파와 지역을 초월해 뭉쳤습니다. 그간 사찰들의 개별적인 활동을 한데 묶어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봉사를 전개해 삶의 현장에서 희망을 전하는 나눔의 지역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6월 28일 (사)천수천안 남양주 · 구리시 지부 자원봉사단장에 취임한 홍선 스님(무량사 주지 · 사진)은 이들 지역의 사찰 자원봉사연합단체 결성 취지를 이렇게 밝혔다.

"각 사찰이 부지런히 봉사활동을 펼쳐왔는데도 남양주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등록된 불교단체는 불과 1곳이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따로 따로 활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교의 대사회적 활동력을 응집하기 위해 불교자원봉사연합단체를 출범하게 됐습니다."

스님은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이들 지역 65곳 사찰 주지 스님들과 10차례 넘게 만나 창립준비 모임을 가져, 현재까지 재가불자 5백여 명의 봉사단 가입을 이끌어 냈다.

"지역민들이 봉사활동을 피부로 와 닿게 만들 생각입니다. 단순 노력봉사는 물론, 간병 발마사지 등 전문 영역에 이르기까지 지역민이 원하는 때와 장소에 맞춰 다양한 봉사활동을 선보일 겁니다."

스님은 특히 긴급수해 복구, 불교계 문화활동 지원 등에 활동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여름마다 장마와 태풍으로 수해가 잦은 지역 특성을 감안해 수해 예방 활동을 벌이는 한편, 조직화된 자원봉사영역 확대를 위해 문화행사 도우미 등의 활동도 적극 전개할 방침이다.

"앞으로 대규모 지원이 필요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천수천안 봉사연합단체의 엄청난 힘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명실상부한 지역불교연합단체로 키워나가겠습니다." 남양주=김철우 기자

희망 2004 유공자 포상

운덕 스님-대통령 표창
배정충 씨-국민훈장 모란장
미영순 씨-국민 포장


운덕 스님


배정충 사장


미영순 회장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6월 30일 서울 연세대 동문회관에서 개최한 '희망2004 이웃돕기 유공자 포상식'에서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이 대통령 표창, 삼성생명 배정충 사장이 국민훈장 모란장, 저시력장애인연합회 미영순 회장이 국민포장을 받았다.

운덕 스님은 천태종복지재단이 지난 2002년부터 전국 단위로 벌인 미아 찾기 운동을 통해 미아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에 대통령 표창을 받았으며, 배 사장은 치명적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공익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등 지속적인 사회공헌 사업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헌신한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했다.

미 회장은 시각 2급 중증장애인이면서도 전국저시력 장애인 50여 만명의 학업능력향상과 직업교육을 위해 헌신했고 저시력장애인연합회원들과 독거노인 돕기 등 봉사활동을 해왔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편한 마음 즐거운 운전 추구"

전국여객불자회 이재술 회장

"마음을 다스려야하는 운전자들에게 부처님 가르침만큼 좋은 공부가 없습니다. 운전 중 정근이나 염불을 하면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미연에 막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난 6월 23일 해남 대흥사에서 전국여객연합불자회를 출범시킨 이재술 초대회장(48 · 금호고속 · 사진)은 3년 전 전국신도회가 마련한 설법대회에서 여객운송 운전자들의 불자모임을 만들겠다는 발원이 이제야 이뤄지게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지역, 소속사가 다르고 장거리운행을 하는 여객운전자들의 생활특성상 한자리에 모인다는 것은 애초부터 어려운 문제였다는 이 회장은 전국의 운전자가 모이는 강남터미널에서 휴식시간을 쪼개어 불자 운전자들을 수소문했다.

"남에게 불교를 말하려니 제가 먼저 불교를 알아야겠더군요. 그래서 불교대학에 다녔고 지난해엔 조계종 포교사 자격증을 획득하게 됐습니다."

이 회장은 또 "앞으로 여객운전기사들이 안전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행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흥사=이준엽 기자

나눔의 집 김순덕 할머니 별세



나눔의집 김순덕(사진) 할머니가 6월 30일 오후 서울아산중앙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84세. 경북 의령 출신인 김 할머니는 일본 공장에서 일할 여공을 뽑는다는 말에 속아 중국 상해로 끌려간 후, 일본군 위안부 생활을 했다. 40년 귀국한 김 할머니는 남의집살이, 가방공장 일을 하면서 어려운 생활을 했다. 1992년 나눔의집에 들어간 후 김 할머니는 매주 일본대사관 앞 수요집회에 참석해 일본 정부의 사과를 촉구하는 활동을 펼쳐왔다. 강유신 기자

일붕 대종사 원적 8돌 추모법회 봉행



일붕선교종 창종조인 일붕 경보 대종사의 원적 8주기 추모법회가 6월 26일 서울과 경남 의령에서 각각 봉행됐다. 봉암, 법철, 동봉, 혜운, 도기 스님 등 2천여명이 참석한 법회에서는 남북 평화통일과 세계평화의 염원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충북 옥천서 경불회, 갑사 등 삼사순례



충북 옥천경찰서 경불회(회장 조남희)는 6월 26일 충남 갑사, 신원사, 관촉사로 삼사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경승실장 혜철 스님과 회원 40여 명이 동참한 이날 성지순례에서는 갑사 주지 장곡 스님의 법문, 옥천서 무사고 기원, 108배 참회 등으로 진행됐다.

정신지체 요양원 '나눔의 동산' 방문



납골장 전문업체 돌잠(대표 양정곤 · 춘천 복지후원회 이사)은 6월 9일 춘천시 치매 노인, 정신지체 요양원 '나눔의 동산'을 방문해 위문품과 수의 7벌을 전달했다. 이날 양정곤 대표는 "앞으로도 지역 독거어르신들을 정기적으로 찾아 뵙겠다"고 말했다.

인천 보국사 개원1돌 기념법회



인천 보국사(주지 지원)는 개원 1주년을 맞아 6월 27일 장수 죽림정사 조실 도문 스님 초청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인천지역 신도와 군장병 등 5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도문 스님은 "계로써 스승을 삼으라"고 당부했다.

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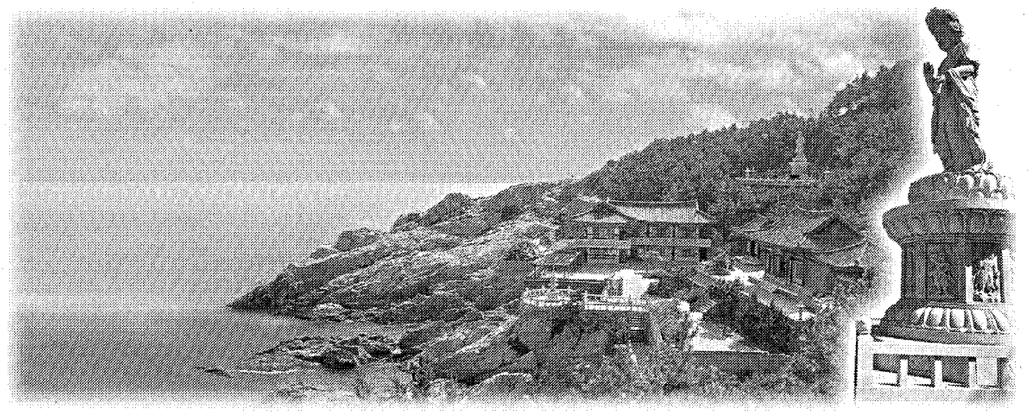
서울 조계사 △총무국장 지월 △재무국장 정범 △교무국장 정법 △사회국장 진성 △포교국장 재경 스님.

부산광역시 불교신도회 △부회장 김성림(前 불심홍법원 이사) △사무총장 이욱태(해동중교법사) △재무총장 황국근(대불청 부산지구 직전회장) △포교분과위원장 이숙희(前 불심홍법원 이사) △예술분과위원장 김귀련(부산불교음악인연합회장).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삼사순례 및 방생도량

귀의 삼보하옵고,
해수관음도량인 **해동용궁사**는 앞은 푸른 바다요, 뒤는 산으로 **삼사순례**나 **방생법회** 하는데 가장 좋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전국의 佛子님께서는 甲申년 새해를 맞이하여 해동용궁사에 오셔서 많은 공덕을 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 주차장 완비
◀ 입장료 무료
◀ 점심공양 가능
◀ 방생물 배달해 드림

www.yongkungsa.or.kr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
전화: 051) 722-7744,7755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2004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25기생**을 모집함

1년 교과목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상담론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유식사상 · 정토사상	·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 · 최봉수(동국대교수) · 주명철(동국대교수) · 최종석(금강대교수) · 박 종 (동산불교대교수) · 정병조(동국대교수) · 김상현(동국대교수) · 김상영(승가대교수) · 묘주스님(동국대교수) · 차차석(동국대교수)
2년 교과목	· 법화사상 · 반야사상 · 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 불교학개론 · 선사상 · 불교미술 ·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암도스님(전포교원장) · 권기종(동국대교수) · 정엄스님(승가대교수) · 보각스님(승가대교수) · 김호귀(동국대교수) · 윤열수(문화재전문위원) · 박 종 (동산불교대교수) · 종석스님(승가대교수) · 활안스님(금강선원총재) · 허일범(진각대교수)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 불교학과(200명) (정규반 · 주간반 · 통신반) (100명) (50명) (50명) · 다도학과(50명) · 불교미술학과 (30명) · 불교한문학과 (50명) · 불교장례학과 (5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불교학과] 2004년 6월 20일~ 2004년 7월 31일 입학금 20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정규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주간반)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다도반)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미술반)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한문반)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불교장례반)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

4. 입 학 일 시 **불교학과 : 2004년 8월 7일 (토) 오후 5시 (동산불교회관)**
불교한문학과 · 다도학과 · 불교미술학과 · 불교장례학과 : 2004년 9월 7, 8,9일 개강

5. 원서교부처
본대학 사무국 Tel. 02)732-1206~8 Fax. 732-1207 (우) 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 www.dongsanbud.net
· 서울 : 보련각 (조계사앞) 02)733-0333 · 부산 : 부다가야서점 051)865-4383 · 대구 : 삼영불교서림 053)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042)257-0161 · 광주 : 불일서점 062)232-7542 · 제주 : 예전 수보리 쉼터 064)743-4184
※ 특전사항 :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 **상기 과정을 졸업한 자는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거쳐 연합회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불교학과, 한문학과)**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대학



불자 세상보기

황 진 수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水災를 피해가는 길

작년 매미가 할키고 간 수해지역의 공공시설물 복구율이 86.7%정도라고 한다. 금년 여름 우리나라에는 30일정도의 장마가 이어지고 예상 강수량은 연평균 장마철 강수량 151~376mm보다 다소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북태평양 고기압세력이 급속히 동아시아 지역으로 이동함에 따라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사이에 각각 두세차례의 집중호우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는 장마철만 되면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보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에도 막지못한 인재(人災)였다고 말하곤 한다. 인재는 왜 생기는가 라고 질문하면 답은 복잡해진다. 지방행정관서는 지방행정관서 차원에서 할 말이 있고, 중앙부서는 중앙부서 나름대로의 변명이 있다. 예를 들면, 예산부족, 토지소유자와의 보상지연, 설계변경, 현지조사의 지연, 관련 공무원의 과다한 업무로 인한 현장조사 늑장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재해관리를 하기 위한 대처방안으로 어떤 것이 있는가.

첫째, 재난 관리를 위한 총체적 관리 시스템이 동원되어야 한다. 몇 년전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시에서 큰 지진이 발생했다. 도로가 균열되고, 다리가 파괴되었으며, 도시가 그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그 때 캘리포니아 주지사, LA시장, 시민단체, 건설업자가 모여 복구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는가를 알아보니 32주 였다고 한다. 주정부와 LA시에서 32주를 기준으로 정해놓고 빨리 재해 지역을 복구하는 회사에 하루 1만달러씩 보상금을 주겠다고 했더니 16주만에 완공되었다는 일화가 있다. 그들은 이를 가치공학(Value engineering)이라고 부른다. 장마철의 재해관리를 위해서 우리는 얼마전에 발촉된 소방방재청을 비롯하여 시?도 관계 당국의 긴밀한 총체적 관리시스템이 가동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주민의 책임의식이 고양되어야 한다. 재해의 문제는 한 두 사람의 재산과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재앙을 가져온다. 따라서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제방, 하천, 댐, 도로의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전에 주민스스로 예비 모임, 예산청구, 도상훈련 등을 실시해야 한다. 재난이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갑자기 일어났을 때 생기는 일도 있지만 예상가능한 일도 있음을 대처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난관리 재량권과 함께 지자체 공무원에게 재난관리 실명제를 도입하도록 해야 한다. 네덜란드에서 둑이 무너질때 어느 소년이 팔뚝으로 구멍을 막아서 재난을 피할 수 있었고 그 소년의 이름은 교과서에도 실릴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넷째는 원스톱 서비스(One-stop service)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하천, 도로, 주민대피, 복구 등에 있어 관련 부처 공무원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재해관리 제도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제를 도입하는 등 28개 제도 개선과제를 만들었지만 아직도 시행상의 문제점이 많이 노정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관련기관이나 해당공무원이 혼합관조(混合觀照)모형에 의해 망원렌즈에 의한 관찰과 정밀렌즈에 의한 관찰방법을 동원하여 장기적 안목에 따른 과학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재해문제를 다루는 업무에 대하여 무리한 비유인지 모르지만 왼쪽다리를 잘라야 하는 환자에게 오른쪽 다리를 잘라놓고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오리발 내미는 철면피같은 공무원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 행정이란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해야 하고, 재해방재도 물이 막히지 않게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승가교육개선 제대로…

꼭 필요한 일이지만 결행을 하기 쉽지 않은 일이 있다. 문제가 많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개선하기 힘든 일이 있다. 결행을 하였다가는 뒤따르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 예상되고,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만한 모범답안이 쉽게 나오지 않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승려 교육 개혁'의 문제일 것이다. 요즈음 현안이 되고 있는 '선교육 후득도' 제도만 해도 대다수가 그 필요성은 인정 하면서도 강원과 승가대학 등등의 각 집단들 간에 이해가 상충되고, 무엇이 더 시급한가에 대한 각층의 목소리가 불협화음을 이루고 있다. 이런 현실을 보면 이번에 출범된 '승가교육제도개선추진위원회'(위원장 종범스님)가 진 짐은 너무도 무겁고 크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일이라면 해야만 하고, 문제가 많으면 개선해야 한다.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미루고 있어서는 불교의 미래가 없다는 인식에 함께하는 것이 바로 참다운 출발점이다. 그리고 여기에 꼭 덧붙여야 할 조건이 있다. 각계각층의 주장을 적당히 얼버무리는 식의 개혁은 안하느니만 못하다는 것이다. 어려운 문제라고 쉽게 피해갈 길만 생각하다 보면 결국 더더욱 어려운 상황을 맞는다. 적절히 몇몇 집단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개혁안이 나와서는 안 될 것이다.

우선은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의 장이 확대되어 많은 대중들, 가능하면 모든 불자들에게까지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과정이야말로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다. 그리고 그러한 공유된 문제의식이 깔려 있어야 어떤 안이 확정되더라도 그 실행에의 힘을 얻을 수 있다. 한 두 집단의 반대에 부딪혀 이곳저곳을 뜯어고쳐 누더기 제도를 만들지 않고 의연하게 새로운 개혁안을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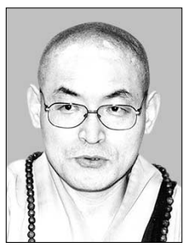
여러 계층과 집단이 자기의 목소리를 내되, 자신의 주장에 책임을 지고 모든 대중들 앞에 검증을 받아 그 각각이 올바른 결정을 위한 원동력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긴 호흡으로 많은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승속을 넘어서 지혜를 모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급하게 미봉책을 내놓기보다는 불교의 백년대계를 이룬다는 의연한 각오로 임하는 '승가추'가 되기를 기대한다. ■성태용(건국대 교수)

특별기고

인생이 명상이다

대상과 둘 아닌 상태로 安心 이뤄야

시간·장소 따로 없이 매사 열심이면 '생활 명상'



송암 스님
안성 도피안사 주지

요즘 우리사회에 명상처럼 자주 쓰이는 말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사람들이 명상에 많은 관심을 갖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시대의 새로운 흐름이고 요구사항이다.

삶을 온전하게 하려면 무엇이든지 쪼개고 나누면 안된다. 명상공부 또한 삶과 명공부를 따로 나누면 안된다. 일상사 모두가 명상이어야 한다. 즉 삶이 명상이고 명상이 곧 삶이어야 한다. 어떠한 이유로도 삶을 조각조각 나누거나 훼손시켜서는 안되기에 삶과 명상도 결코 나뉘어질 수 없다.

있는 그대로의 인생을 대하고 간직하기 위해서는 분석의 사념방법이 아닌 직관의 명상방법을 통해서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그렇게 되었을 때 명상을 통해 인생은 전성적(全性的)으로 온전해지는 것이다.

여기서 강조해야할 점은 명상에 대한 공부를 따로 한다 해도 그 실제는 어디까지나 현실생활에서 얻는다는 점이다. 즉 명상에 대한 공부는 현실생활을 더욱 충실하게 하기 위한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 명상을 통해서 정신이 명랑하고 상쾌해져야 현실적인 삶은 비로소 온전해진다. 또 전문적인 명상공부를 따로 하지 않았어도 일상적인 삶의 순수하고 성실한 몰입을 통해 명상을 얻을 수도 있고 익힐 수도 있다. 성실한 삶이 곧 명상인 것이다.

성실한 삶이 명상이라는 일상명상은 전문적인 명상에 비해 깊이가 다르고 폭이 다르며 일시적이라고 말해야할지도 모르겠다. 그렇긴 해도 삶 속에서 바로 명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인생의 큰 힘이 된다.

우리 인생살이에서도 자기가 맡은 분야에 정성을 기울여 충성하는 것, 무슨 일이든지 매사에 열심인 것도 일종의 명상상태이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어야만 자신의 능력이 드러난다. 인류의 모든 문명발달의 기저에는 이와 같은 정신적인 합일의 명상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 현대인들은 그것을 노동명상, 독서명상, 놀이명상 등 여러 가지 '생활명상'의 친근한 이름으로 부른다.

그러나 정신과 대상의 합일된 상태라고 해도, 약물이나 특수한 방법으로 자신의 정신을 혼절시키거나 빼앗기는 것, 강제로 이탈시키거나, 혼탁하게 하는 경우와는 매우 다르다. 오직 자신의 의지와 주체적인 노력에 의해서 대상과 둘이 아닌 상태에 머물러야만 한다. 이런 경우를 절대적인 안심(安心)이나 평화, 곧 삼매(三昧)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명상언어는 거울이다. 명상언어를 통해서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대개의 사람들은 부족하면 부끄러워하고 잘못하면 뉘우친다. 이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진실한 마음이다. 감명 깊은 글 한 줄을 읽게 되면 자신의 내면을 떠올리고 자신의 행을 비추어 본다. 그 짧은 순간, 글 한 줄과 자신은 합일되는 것이다. 그 한 줄의 글은 바로 명상으로 이끄는 연결고리다. 글 한 줄뿐이 아니다. 어떤 사물이나 사건 속에서도 자신을 떠올려 합일시켜 본다면 그 또한 명상고리이고 명상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명상은 움직이는 것만도 아니지만 반드시 고요한 것만도 아니다. 어디까지나 순수하게 합일된 정신작용이다. 반성하고 다짐하고 기뻐하고 슬퍼하는 그 모든 것이 명상이고 명상에서 얻어진 결과이다. 그래서 합일된 정신작용만 늘 살아있으면 명상언어가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순간순간이 명상이다.

사람은 자신의 정신과 대상의 합일을 통해 진실한 자기를 깨닫고 진실한 세계를 만난다. 이것이 명상의 힘이다. 여기에는 그 어떤 외형적인 차이도 영향을 끼칠 수 없다. 다만 얼마만큼 깊은 명상에 이르렀느냐 하는 성숙도만 그 사람의 성실과 순수성에 따라 차이가 날 뿐이다. 그래서 정신작용이 나타나는 모든 곳에서 명상은 성취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명상의 연결고리는 무엇으로 딱 고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진지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대상을 자세히 들여다보기만 하면 모두가 중요한 명상의 연결고리, 곧 명상언어가 된다는 것이다. 설령 좋은 말이 아닌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이나 욕이라고 하더라도 대립 없이 순수하게만 받아들이면 곧바로 자신을 성숙시키는 명상언어가 된다. 이것은 또 다른 각도에서 자신을 비추는 좋은 거울이 되기에. 그래서 자신의 정신이 접하는 모든 대상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명상언어다. 일상이 곧바로 명상이 되는 경지이다. 다만 대상(사람, 사건, 사물)의 본질을 자신의 내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깊은 명상이 된다. 그렇지만 자기화시키는 과정은 각양각색이다. 뉘우침과 다짐도 있고 기쁨과 슬픔도 있으니.

이런 모든 것이 주객합일의 정신작용인 명상이다. 그래서 명상언어는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솔직하게 그대로를 받아들여 자신을 향상시킨다. 그래서 명상을 자주 할수록 내면은 깊어지고 빛나는 것이며 자신의 덕성은 저절로 넘치게 되므로 향상일로(向上一路)를 가게 된다. 마침내 끝없이 '열린 마음'으로, '웰빙(well being)'으로, '열반행로(涅槃行路)'를 가게 되는 것이다.

'현대' 만평 심 민 섭



아름다운 전원 도량 일산 길상사

1백만배 1,000일 기도

"기도를 마치면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천일기도 인연도량인 길상사에 부처님 진신사리 모셨습니다.
이 뜻 깊은 불사회향을 함께 하고자 매일 1080배씩 1,000일 동안 1백만배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불자님께서 1백만배 기도 동참하시어 소원하신 바를 성취하시고
성불의 인연을 맺으시길 기원합니다.

◆**입재** : 2004년 3월 15일 ◆**회향** : 2006년 9월 15일 ◆**장소 및 시간** : 길상사 대웅전, 매일 새벽 및 사시 예불

백중 49재 지장 천도기도 안내

8월 30일(음 7월 15일) 백중은 불교계에서 우란분절로 '효' 사상을 일깨우는 뜻 깊은 명절입니다.
1,000일기도에 동참하시는 조상영가님들과 만년영구위패 영가님들을 위해 오는 **7월 13일 백중 49일기도를 입재**합니다.
사부대중께서는 인연 따라 꼭 동참하시어 다생겁래의 업장을 소멸하고 무진복락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중요한 결정이나 사업을 하신 분, 입시자녀를 앞두신 분들은 조상님들께 가장 좋은 효도가 될 수 있는 백중 49일기도에 많은 동참바랍니다.

◆**백중 49일 기도 입재 : 7월 13일(음 5월26일) 오전 10시 30분** **초재** : 7월 19일(음 6월 3일)
2재 : 7월 26일(음 6월 10일) **3재** : 8월 2일(음 6월17일)
4재 : 8월 9일(음 6월 24일) **5재** : 8월 16일(음 7월 1일)
6재 : 8월 23일(음 7월 8일)
◆**백중회향 기도 : 8월 30일(음 7월15일) 오전 10시 30분**

□ **교통안내** : • 구파발 – 원당역 – 주교사거리 – 길상사 • 자유로 – 일산 호수교 – 길상사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식사동 산 70-2 전화 031)966-9852
대한불교조계종 길상사 주지 보산 합장

일산 전원 포교도량
'상황버섯 재배, 주말농장 운영'

지장대불기도 도량 양주 대원정사

백중 설판공양 영가천도기도

백중 8월 30일(음 7월 15일) 우란분절로 '효' 사상을 일깨우는 뜻 깊은 명절입니다.
나로 인한 선망조상이나 부모님을 위한 모든 영가들의 극락왕생과 사업 원만 발전, 가족들의 안녕 및 입시 자녀를 위한 백중 49일 기도 입재를 7월 13일(음 5월 26일)에 봉행하오니, 사부대중께서는 인연 따라 두루 동참하시어 나로 인해 비롯된 모든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자녀들의 입시기도를 비롯한 학업성취 등 저마다 소원하신 바를 성취하고 모든 영가의 극락왕생과 성불의 인연을 맺으시길 기원합니다.

■ **동 참 비** : 영가 1위 30만원(백중 49일 기도기간 중 매주 일요일 오전11시 영가시식봉행)

▷백중 입재 : 7월 13일(음 5월 26일) 오전 11시 초재 : 7월 19일(음 6월 3일)
2재 : 7월 26일(음 6월10일) 3재 : 8월 2일(음 6월17일)
4재 : 8월 9일(음 6월24일) 5재 : 8월 16일(음 7월 1일)
6재 : 8월 23일(음 7월 8일)
▷백중(108참회기도)회향 : 8월 30일(음 7월15일) 오전 11시

■ **토요일 철야정진 기도**
- 토요일 밤 11시부터 일요일 새벽 4시까지

■ **판소리 / 장구 회원 모집** :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 참가비 1개월 : 1만원 (학생 · 일반인, 가족회원 환영)

오시는 길 1. **셔틀버스** – **오전 10시 10분**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문산 방향 환승주차장) 출발
– **오전 10시 30분** 장흥 농협 앞 출발
2. **자가용** : 서울 구파발 → 장흥 → 돌고개 앵무봉 관광지→ 대원정사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산 126번지 지장대불조성 만등불사 접수중
대한불교조계종 대원정사 전화 031)855-5501, 3 / 팩스 031)855-5502

가족과 이웃 국민이 함께 조성하는 동판대장경

해인사팔만대장경 '동판복원'의 의미

세계문화유산인 해인사팔만대장경을 보다 체계적이고 엄밀하게 보존 유지하여 길이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이다.

해인사팔만대장경은 고려 고종 23년인 1236년부터 고종 38년인 1251년까지 16년에 걸쳐 완성된 뒤 750여년이라는 긴긴 세월을 이어오는 동안 많은 시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고스란히 우리 앞에 그 성스러움을 간직하고 있다.

정교한 과학성과 뛰어난 서풍(書風), 방대한 경전의 집대성, 거의 오류가 없는 교정의 치밀함, 수백 년 동안 완벽하게 보존되어온 역사 등을 미루어 볼 때, 해인사팔만대장경은 무아의 경지에서 이루어낸 호국 · 호법 신앙이 아니고는 이룰 수 없는 각판예술의 극치이다.

이는 세계의 모든 한역대장경 중에 가장 뛰어난 것으로, 종교적 성보(聖寶)일뿐 아니라, 우리 민족의 보배요, 나아가 전 세계가 보호하고자 하는 자랑스러운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우리는 이를 잘 보존하여 길이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사명을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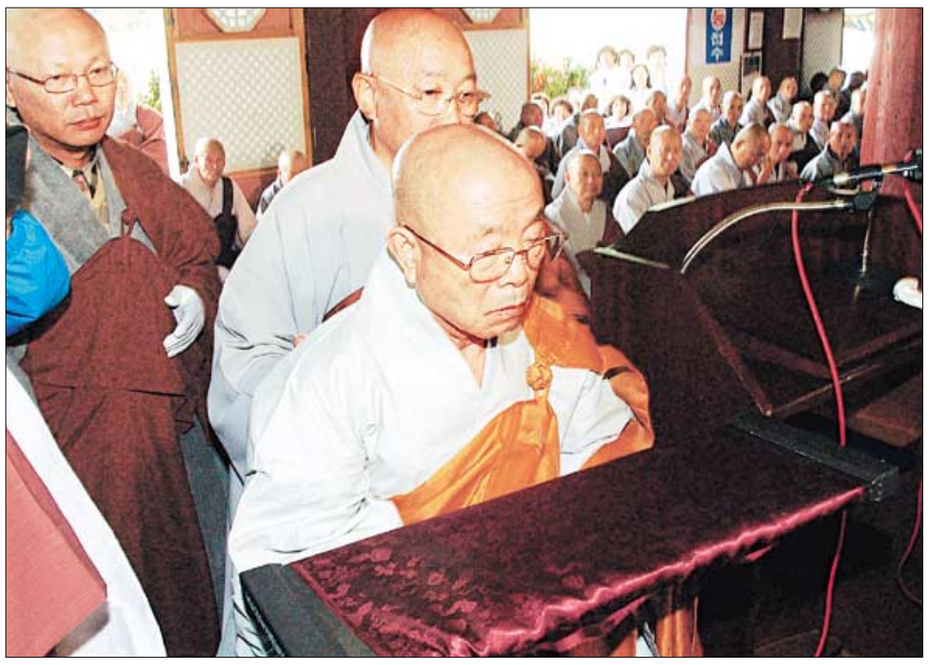
그러나 팔만대장경은 보존하는데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가장 큰 요인은 목판자체가 가지고 있는 천년이라는 수명의 한계성이며, 또 하나는 팔만대장경이 봉안된 장경각이 관람객들의 무제한 출입으로 말미암아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어있고, 먼지라든지 각종 해로운 환경조성으로 인해 팔만대장경의 수명이 단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각계 전문가들이나 해인사 대중들의 일치된 견해는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우리의 문화유산을 보다 완벽하게 물려주기 위해 장경각 출입을 제한해야한다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도 중요한 국가문화재는 철저한 통제를 통하여 그 수명을 연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현재 해인사에서 봉행하고 있는 동판 팔만대장경 조성사업은 일차적으로 국보이자 세계문화유산인 해인사팔만대장경을 오래 보존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인경(印經) 작업, 우수한 우리 문화의 교육 및 홍보, 다양한 체험 등 폭넓은 활용을 통해 민족문화의 계승 ·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이다.

해인사팔만대장경은 문화유산의 보존이라는 측면과 살아있는 대장경으로서의 다양한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문화유산의 철저한 보존도 매우 중요하지만, 아울러 문화적이나 종교적 · 학문적으로 활용도가 매우 높은 팔만대장경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관람객들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장경판전 외부 살창을 통한 대장경판 관람이 아닌 실질적인 차원에서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조성하고, 그들에게 우수한 우리문화에 대한 교육 · 홍보 등이 함께 이루어질 때, 팔만대장경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법전 종전예하께서 동판 팔만대장경 결정판을 부처님께 봉정하고 계시는 모습.

하지만 현존 목판 팔만대장경은 보존상의 어려움으로 활용이 거의 제한되어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팔만대장경의 엄밀한 보존과 폭넓은 활용을 위해서는 현시점에서 수명이 반영구적인 인청동(燐靑銅)으로 복원 조성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팔만대장경을 인청동으로 복원 조성하게 되면 장경판전 통제를 통해 현존 목판대장경의 엄밀한 보존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되고, 인경작업, 관람객의 직접적 체험, 다양한 행사, 교육 및 홍보 등 다각적인 활용이 가능해져 비로소 팔만대장경 본연의 가치를 발현하게 되는 것이다.

현존 목판 팔만대장경에서 누락된 주요경전과 우리나라 역대 조사어록 등을 증보하여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21세기 신대장경'을 조성하기 위해서이다.

새로 조성되는 동판 팔만대장경은 고려대장경연구소에서 심혈을 기울여 교정하고 완성한 성과물을 반영하고, 다른 나라 대장경에는 있으나 해인사 목판 팔만대장경에는 누락되어있는 주요경전과 우리나라 역대 고승들의 조사어록을 추가 증보하여, 명실 공히 세계에서 가장 정확하고 방대한 '21세기 신대장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동판 팔만대장경' 탄생까지의 과정

각계 전문가 6개월간 자문·검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최종 검증

장경각을 바라보며 한 순간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는 해인사 대중들은 현 목판의 영구보존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신앙으로서 목판을 대체하여 누구나 보고 만지며 나눌 수 있는 새로운 대장경의 조성을 발원하였다.

그리하여 지난 해, 여러 차례의 산중 임회(林會)를 통해 해인사 동판 팔만대장경 조성불사에 관한 논의를 하였으며, 동판으로 팔만대장경을 복원 조성하여 현 목판대장경의 근본적인 보존 대책을 마련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영구히 담아, 찾아 즐기는 문화로서의 대장경,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만지고 나누는 대장경을 조성하여 후손들에게 전해주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러한 논의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초기견본을 토대로 지난 2003년 11월 1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사부대중과 함께 동판 팔만대장경불사의 시작을 부처님께 고하는 고불식을 가졌다.

그리고 고불식 이후에 이 시대 최고의 대장경을 조성하기 위해 스님들과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해인사 동판대장경 불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동판대장경 불사의 취지, 동판의 재질, 서체 및 제작기법, 디자인 등 모든 분야를 점검하고, 백여 종에 이르는 샘플 제작 및 오랜 기간과 여러 차례의 자문 · 검수 과정을 거쳤으며,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최종적으로 검증하여 경판의 최종결정판이 탄생되었다. 해인사에서는 지난 5월 17일 이 결정판을 모델로 금강경, 아미타경, 반야심경, 불설법신경 등을 제작하여 부처님께 봉정하는 동판 팔만대장경 결정판 봉정식을 가졌다.

새로이 조성되는 해인사 동판 팔만대장경에 사용되는 재료는 주식회사 풍산 제품으로 보존성과 경도가 가장 우수한 인청동3이며, 또한 판각의 깊이는 글씨의 정확성과 입체감, 시각적 자연스러움이 가장 뛰어난 0.6mm로 하였으며, 판각기법에 있어서는 경도가 높은 인청동 재질에 완벽한 구현이 가능한 노즐방식이라는 부식기법을 적용했다. 그리고 1.3mm두께의 인청동판을 사용하며, 전체 경판의 두께는 20mm이고 무게는 목판보다 약간 무거운 4.2kg이다. 또한 크기는 목판과 같으며 디자인은 현 목판의 심미감을 최대한 살리고 금속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였다. 그리고 동판의 재질을 순수하게 유지하여 그 보존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체의 땜을 사용하지 않고 특수 제작하였다.

특히 동판대장경에 사용되는 글자체는 팔만대장경 원본의 글자체를 바탕으로 고려대장경 연구소가 10여년에 걸쳐 심혈을 기울여 만든 팔만대장경 정자본 한 자체를 사용함으로서 이 시대에 가장 완벽한 대장경을 만드는 데 기초로 활용한다. 고려대장경 전산화 작업과정에서 큰 애로사항은 학문적 연구를 거쳐 규명할 정도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체자(음과 뜻은 같으나 모양이 다른 글자)가 많다는 것이었는데, 이처럼 이체자가 많은 목판본을 그대로 동판에 옮길 경우 경전을 볼 때 이체자 사전 없이 해독이 어려워 활용도가 떨어진다.

그러나 동판 팔만대장경은 대장경연구소에서 목판본에 나타난 일부 오류를 완벽하게 보완한 성과물을 반영하고, 모두가 알기 쉬운 정자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매우 우수하다. 그리고 누락된 경전이나 조사어록을 증보하는 데 있어서도 서체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동판 팔만대장경이 완성되면 목판 팔만대장경에 버금가는 또 하나의 문화사적 업적이 될 것이다.



스님과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동판팔만대장경의 서체, 재작기업, 디자인 등 전 분야에 걸친 자문 · 검수과정을 하고 있다.

자문위원 명단

- 고려대장경연구소장 종림 스님
- 고려대장경 연구소 대석스님
- 재단법인 아름지기 신연균 이사장
- 서울대학교 이태녕 명예교수
- 서울대학교 미술학과 서세옥 명예교수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금속공정 연구센터 김재수 박사
- 국민대학교 금속공예학부 김승희 교수
-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신승운 교수
-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이상해 교수
- 도시건축 조성룡 소장
- 안 그래픽스 안상수 대표
- 한국예술종합학교 안규철 교수

통일 발원 담아 3질 제작… 해인사, 北사찰, 시주자 보관

해인사팔만대장경은 몽골의 병화 속에서 제작기간 16년에 연인원 150만 명이 참여하여 이 땅에 전쟁 없는 평화를 염원하며 한 자 한 자 새겨나가 어마어마한 대작불사를 이루어낸 것으로 이는 호국 · 호법 신앙의 꽃이며, 화합과 평화의 정수이다.

이 시대에 새로이 조성하는 해인사팔만대장경의 동판복원불사는 선조들의 국난극복정신과 민족문화를 계승발전하고, 법륜상전과 국운융창, 평화통일과 세계평화의 발원을 담아 개인, 가족, 단체, 기업 등 모든 국민이 동참하여 성취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특히 동판 팔만대장경에 동참자의 이름을 각인하여 우리민족의 최대 과제인 평화통일의 발원을 담아 한질은 해인사에 봉안하고 한질은 북한 사찰에 모실 계획이며, 시주자에게는 해인사와 북한 사찰에 모신 동일한 경판 한 장을 가보로 간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경 · 율 · 논 삼장이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총망라한 팔만대장경을 결집하는 이 불사는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도 단 몇 번밖에 없었을 만큼 흔치 않은 인연이고, 현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그것도 8만여 명만이 동참할 수 있는 희유한 인연이이 아닐 수 없다. 동참자는 천년의 팔만대장경에 만년의 생명력을 불어 넣고, 통일의 초석을 다지는 민족문화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100여종에 이르는 샘플제작과 전문가의 자문 · 검수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동판 팔만대장경.

동판대장경 불사 원만 성취를 바라며

"진리의 하늘이 맑으리라"

동판팔만대장경은 달을 바로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손가락만 보는 어리석은 사람 역시 달을 보도록 해주는 대선지식이 될 것입니다.

진심부동(眞心不動)하면 교해징명(敎海澄明)이요
득용여여(得用如如)하면 의천병환(義天炳煥)이로다.
참마음이 요동치 않으면 교해(敎海)가 맑을 것이요
용(用)이 분명파면 진리의 하늘이 맑으리라.

도림 법전 조계종 종정(봉정식 법어 중에서)

"21세기 신대장경을 만들자"

이 자랑스러운 유산을 보존하고 후세에게 물려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입니다. 불교계는 물론 정부와 국민,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합니다. 천년 수명의 목판에서 만 년을 이어갈 동판으로 '21세기 신대장경'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이를 통해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층 더 높여나가야 하겠습니다.

대장경 불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져서 국민이 화합하고 나라가 더욱 번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고불식 축사 중에서)

"민족문화유산 항구적 보존 의미 커"

천년수명의 목판에서 만년을 이어갈 동판으로 21세기 신대장경을 새로이 제작하는 이번 사업은 민족문화유산의 항구적 보존과 활용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참으로 크다고 하겠습니다. 팔만대장경의 한글번역, 그리고 그 전산화를 통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과 함께 이번 팔만대장경 동판화 사업은 우리 불교가 귀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을 오늘의 현실에 맞게 끝없이 재창조하는 미래지향적인 노력으로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봉정식 축사 중에서)

"새로운 정신적 역할을 기대한다"

750여 년 전 우리 선조들의 그 슬기와 마음을 본받아 이 시기에 다시 이 복원 사업에 전 국민이 참여해서 동판으로 복원하는 일은 단순히 팔만대장경을 복원하는 것이 아닌 750여 년 전 그때와 같이, 우리의 분단이 하나의 평화로 바뀌어 지고 우리 사회의 모든 갈등이 서로 해소되어 화해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도덕적 사회적 윤리적 붕괴현상이 여기에서 새로운 길로 탈출할 수 있는 정신적인 하나의 큰 역할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축하를 드립니다.

강원룡 목사(고불식 메시지 중에서)

"정치·경제·사회의 황금시대 열자"

동판장경을 조성함으로써 저희는 선조의 피맺힌 구국의 염원을 계승하고 민족문화의 창조적 전개에 나아감으로써 민족분단의 청산과 국민화합 그리고 높은 문화를 창달할 정치 · 경제 · 사회의 황금시대를 열고자 하옵니다.

고은 시인(고불식 발원문 중에서)

지금 전국 어느 농협을 방문 하셔도
동판 대장경을 접수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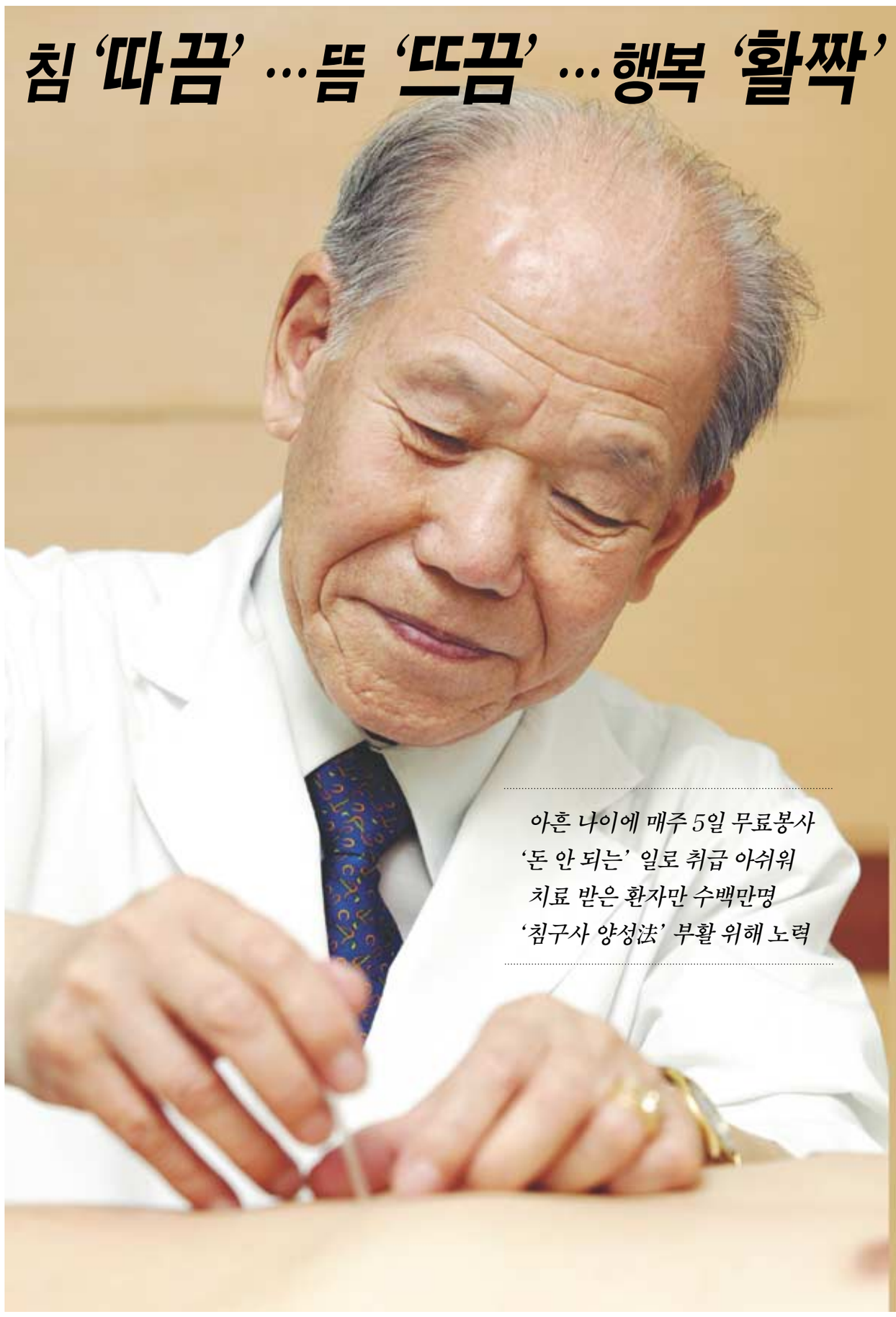
• 동참금 납부방법 :
① 전국 농협에 직접납부
-전국 농협에 비치된 동참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납부 하시면 됩니다.
-BC카드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② 해인사에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동참금 : 100만원 (동일경판 3장 : 해인사 봉안, 북한사찰 봉안, 각 개인 소장)

• 문의 : 1577-0889

침 '따끔' …뜸 '뜨끔' …행복 '활짝'



아흔 나이에 매주 5일 무료봉사
'돈 안 되는' 일로 취급 아쉬워
치료 받은 환자만 수백만명
'침구사 양성法' 부활 위해 노력



▌정통침뜸교육원 김남수 원장

"농사짓는 사람은 어깨, 허리, 다리 안 아픈 데가 없어. 이렇게 무료로 침도 놔주고 뜸도 떠주니 얼마나 좋아."

6월 23일, 전남 해남군 황산농협 2층에 마련된 침뜸 무료봉사장을 찾은 김병석(74) 할아버지를 치료한 사람은 정통침뜸교육원 김남수(90) 원장. 김 원장은 봉사자 43명과 함께 이틀 동안 600여 명의 어르신에게 침뜸 치료를 하고 돌아왔다.

침뜸의 맥 잇는다

부친에게 전통 민간의술인 침과 뜸을 배운 김 원장은 1943년 자신의 이름을 딴 '남수 침술원'을 개원하고 본격적인 침뜸치료에 나섰다.

"침은 침구 하나만 있으면 되고 뜸은 쑥만 있으면 되는, 가장 서민적인 의술입니다. 하지만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침뜸은 '돈 안 되는' 일로 취급받아 발달도, 보급도 안 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962년 국민의료법이 의료법으로 바뀌면서 침구사 양성제도가 폐지됐다. 더 이상 '합법적인' 침구사가 배출되지 못하게 된 것이다.

"현재 국내에 생존해 있는 침구사는 80명인데 그중 실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50여명에 불과합니다. 폐지된 침구사 양성법을 되살리고 전통의술의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내가 가진 지식을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배워서 남주자

지난 60여 년간 전통 침뜸의 맥을 잇기 위해 노력해 온 김 원장의 좌우명은 '배워서 남주자'다. 의술은 어느 누구도 사사로이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의료인의 목적은 오직 병을 치료해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의술(醫術)은 곧 인술(仁術)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오후 10시까지 활동하며 환자를 보살피는 김 원장은 일주일에 5일을 무료 진료 봉사 활동으로 보낸다. 월요일은 국회, 수요일은 <시민의 신문>에 위치한 봉사실, 금요일은 감사원, 토 · 일요일은 서울 종로구 창신동 봉사실에서 환자를 돌본다. 유료 진료는 화요일, 목요일 단 이틀뿐이다.

2000년 개원한 창신봉사실에는 치료를 받으러 온 생활보호대상자와 어르신, 장애인, 외국인근로자로 늘 붐빈다. 지금껏 창신봉사실에서 치료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는 2천여 명, 노인 환자는 3만명에 이른다. 국회에 문을 연 봉사실 처음엔 주목을 끌지 못했지만 병원에서 손 놓은 전 · 현직 의원들을 고치면서 금방 유명세를 탔다.

그러나 '배워서 남 주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다. 지방에 마련된 봉사실이 어느 정도 자리 잡게 되면 인근 병원이나 한의원에서 김 원장을 '불법 의료행위'로 신고하기 일쑤였다. 법원에 불려 다니기도 수차례. 지난 달 부산에서도 똑같은 경우가 발생했는데, 부산검찰청은 김 원장에게 '혐의없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제야 마음 놓고 봉사도 하게 됐다"고 말하며 웃는 김 원장의 얼굴에는 기쁨과 함께 씁쓸함이 가득했다.

'붕어빵'이 되라

김 원장은 80세가 되던 94년부터 자신의 침뜸술을 전수하기 위해 정통침뜸교육원과 인터넷 사이트(www.chimtm.net)를 개설했다. 그는 이곳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제자' 대신 '붕어빵'이 되라고 말한다. 침뜸을 배우는 사람이면 누구나 똑같은 실력과 똑같은 목적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교육생들에게는 180여 시간의 봉사활동을 이수하는 것이 필수조건이다. 교육에 있어서도 한 치의 오차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2천여 명의 교육생 중 자체 시험을 통과해 그 실력을 인정받은 사람은 360여명에 불과할 정도다.

김 원장은 이 '붕어빵' 제자들과 함께 봉사단체 '뜸사랑'을 결성해 매년 6만여 명을 상대로 무료 진료 활동을 펴 오고 있다.

남은 생, 침구법 제정위해

김 원장의 유일한 소원은 침구사법이 부활되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김 원장이 발품을 팔아 국회의원 45명의 서명으로 제안한 의료법개정안이 폐기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아흔 살 노인에게 명예나 돈이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다만, 제가 평생을 바쳐 이어온 침뜸의 명맥이 올곧게 이어져 나가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이 전통의술인 침뜸을 배우기 위해 외국으로 나가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인터뷰를 마친 김 원장은 다시 의료가방을 챙겨 들고 발걸음을 옮겼다. 봉사실에서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전통 민간의술인 침뜸의 보급으로 국민 모두가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그날을 위해 남은 생을 다 바치겠습니다." **글=여수령 · 사진=박재완 기자**

우 · 리 · 절 · 은 · 불 · 자 · 여 · 러 · 분 · 을 · 사 · 랑 · 합 · 니 · 다

우리절 정기기도 · 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일요법회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자녀 및 입시기도 목련사랑법회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특별대비주기도회
- 매월셋째 화요일 오후 2시 ~ 4시 부 산 동 선 회 법 회
- 곤지암터미널 – 우리절 셔틀버스 운행

◆ 교통편
1. 강변역 → 광주 → 곤지암 1113-1
2. 잠실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1
3. 양재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2

곤지암 우리절

천도재 기도도량 · 대비주 기도도량 우리절!

우리절 정기기도 · 법회

요 일	시 간	법 회 명	강의내용
매주일요일	10-14시	일요가족법회	자경문강의
매주수요일	10-15시	목련사랑법회	지장경강의
〃	10-15시	수능자녀기도	〃
〃	10-15시	지장경독송회	〃
매주목요일	10-15시	대비주기도회	예참문강의
셋째화요일	14-17시	부산 · 동선회	주제별특강

우리절은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대비주 기도도량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장장 5시간에 걸쳐 논스톱으로 올리는 대비주 기도에 불자님들의 모든 바램을 한번 멋지게 걸어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절은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 선망조상 영가님들을 천도하는 역시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천도재 기도도량입니다.
주[대비주 = 신묘장구대다라니]

특별기도
[1] 천도의 명절 백중기도 : 기도비50,000원이상 2004년 7월 11일–8월 30일(만 50일간)
[2] 사랑의 명절 칠석기도 : 기도비30,000원이상 2004년 8월 15일–8월 22일(만 7일간)
예년과 마찬가지로 시댁과 친정으로 나누어 위패를 모시며 영가님 수에 관계없이 한 쪽이 50,000원씩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특별히 큰법당에 영가등을 기도기간 내내 달아 드립니다.

사십구재봉행
오는7월9일 금요일10시 우리절 큰법당에서 대한불교조계종 곤지암 우리절주지 동봉스님의 모친, 故초계유인 정청련화 영가님의 사십구재를 봉행합니다. 이번 사십구재에 참석하신 불자님들에게는 동봉스님의 《일원곡》제11권을 법공양으로 드립니다. 우리나라 불교역사상 최초로 향수해례를 비롯하여 대예참례를 우리말로, 그것도 아름다운 운률에 담아 사언절로 옮긴 《일원곡》제11권은 매우 소중한 법공양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보여주신 불자님들의 따스한 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 http://www.urijeol.com / 우리절.com /우리절.net 우)464-881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상림리 178 전화 031)763-4674-5 / 팩스 031)763-2150

이제열 법사의
경전속의 수행법 <11>

여섯가지 걸음걸이로 본 기질

사람의 성격과 운명을 알아보기 위한 방법 중에 관상이 있습니다. 남의 관상을 전문적으로 보아주는 관상가의 말에 따를 것 같으면, 관상은 사람의 얼굴이나 손 발등의 생김새만 보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모양과 습관까지도 자세히 보아야 정확하게 운명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예컨대 밥 먹는 습관이나 잠자는 습관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 행동까지도 관상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 걸음을 걷는 행위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걸어가는 모습에 따라 사람의 성격의 성격을 볼 수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배를 내밀고 지나치게 양반걸음을 걷는 사람은 현시욕과 권위의식이 강해서 욕심이 많고 화합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위를 쳐다보고 한 눈을 팔며 기웃대고 걷는 사람은 마음이 들뜬 좋지 않은 상으로, 안정성이 없고 실패가 뒤따르며 복을 누리기 어렵다고 합니다. 또 고개를 숙인 채 땅만 보고 걷는 사람은 이중성격의 소유자로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짱걸음을 하거나 발을 질질 끌면서 걷는 사람은 나서기를 꺼려하고 의지가 박약해서 성공하기가 힘들지만, 마음이 착하므로 좋은 사람을 만나면 뜻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팔을 전혀 흔들지 않고 어깨를 늘어뜨리며 걷는 사람은 매사에 자신감이 없고 소극적이며 남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밖에 걸음을 급하게 걷거나 지나치게 흔들며 걷는 사람은 성격이 강하여 안정되지 못하고 화를 잘 내며 덕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걸음이 좋은 걸음걸이일까. 당당하고 활기차게 앞을 바라보고 검되 천천히 절도 있게 걷는 것이 좋은 걸음걸이입니다. 이런 걸음걸이의 소유자는 마음과 생활이 안정되고 위엄이 있으며 책임감이 강하며 주변사람들의 공경을 받고 복을 누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걸음걸이에 대한 말이 미신 취급받는 관상학에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말씀가운데에서도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앞을 보고 천천히 움직임에 집중하라

마간디 숫다라는 가르침에서는 부처님께서 사람의 걸음걸이를 여섯 가지로 나누시고 그 사람의 기질을 판단하셨는데 '탐욕의 기질을 가진 사람의 걸음', '성내는 기질을 가진 사람의 걸음', '어리석은 기질을 가진 사람의 걸음', '믿는 기질을 지닌 사람의 걸음', '지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의 걸음', '잡념이 많은 기질을 가진 사람의 걸음' 등입니다. 출가 한 스님들의 행동규범을 정해놓은 율전을 보면 수행자는 사방을 두리번대거나 팔을 휘 젖거나 뛰듯이 걷거나 입안에 무언가를 씹으면서 걷거나 하지 말고 앞을 보고 똑바로 걷되 천천히 청정하고 위엄 있게 걸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길을 걸을 때 수행자는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걷는 행위에 집중 하라는 것입니다. 바쁘게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이지만 자신의 걸음은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고 습관을 바로잡는다면 운명 또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마선원장>

분별심 놓고 마음보기 정진 또 정진

탐방 | 생활참선 보급하는 임제선원



6월27일 바라밀회 회원들에게 <신심명>과 <증도가>를 강설하며 일상속의 참선공부를 지도하는 법현스님.

"법은 원래 세간에 있어서 세간에서 세간을 벗어나나니, 세간을 떠나지 말며 밖에서 출세간의 법을 구하지 말라."(육조단경)

법에 어찌 세간과 출세간의 구별이 있을까. 산중에 있든, 도심에 있든 마음 닦는 공부에는 시간과 장소의 차별이 무의미하다. 분별심을 쳐부수는 것이 선(禪)의 근본이니 분주한 세간에서 공부하는 것이 오히려 힘있는 공부가 될 터이다.

서울 봉천7동 주택가 골목길 모퉁이에 자리잡은 임제선원(조실 종성)은 이런 점에서 세간과 출세간을 벗어난 공부도량이라 할만했다. 임제선원의 법조인법회, 교직원법회, 청년법회, 바라밀법회에서 공부하는 교수, 공무원, 법조인, 직장인, 가정주부 등은 바쁜 일상 속에서 간화선을 닦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6월20일 정기법회를 가진 법조인법회(회장 · 박기동 부장판사) 회원들.

6월 27일, 이날은 바라밀법회(회장 한복남 · 80)가 있는 날. 20명의 노보살들이 종성스님의 제자인 법현 스님의 죽비 삼타(三打)를 신호로 예불을 올리고 반야심경을 봉독한 뒤 30분 간의 입정에 들었다. 평균연령이 60대 중반이나 되는 바라밀회 회원들이 꼿꼿이 반가부좌를 틀고 입정한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다.

이어 죽비 삼타로 좌선을 끝내고 법현 스님의 설법이 진행됐다. 법현 스님의 설법 주제는 <신심명>과 <증도가>에 대한 강설. 법현 스님은 노보살들이 행여나 말귀를 못알아들을까봐 미리 복사해 둔 자료를 나눠줬다. 한문 원전에 대한 해설과 스님의 강설이 진지한 가운데 이어지고 쉽지 않은 선 법문에 대해 고개를 끄덕이며 반응하는 회원들이 모습이 이심전심의 모습으로 보였다.

"참선공부란 화두를 들고서 자기의 모든 감정과 지식이 본래 없는 허공과 같은 마음자리로 뜻을 돌려 일관되게 빈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법조인·교직원·청년·바라밀 법회 등 운영
'무위진인' 임제 가풍 이어 생활선 주창

법현 스님은 <신심명>의 첫 구절 '지도무난 유혐간택'(至道無難 唯嫌揀擇: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아서 오직 간택함을 꺼릴 뿐이다)을 거듭 인용하며, 분별심을 쉬고 빈 마음 자리로 돌아가서 화두를 챙기라고 강조했다.

법현 스님은 설법과정에서 늘 '삼계는 오직 마음 뿐이니, 마음이 일체 현상을 만든다'(三界唯心 心造萬有)는 일심(一心)의 도리를 강조했다. 불교의 근본목적은 일체법의 근본인 마음을 밝혀서 진여자성을 보는 명심견성(明心見性)에 있다는 것. 때문에 스님은 본래 청정한 나의 자성을 보면 누구든지 깨달음을 성취하여 우주와 하나되는 일심을 얻게 된다고 말했다. 이런 스님의 열띤 설법은 언제나 생활 속에서도 잊지 말고 공부를 이어가야 한다는 당부로 결론지어지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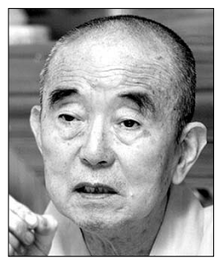
'어느 곳에서든 주체가 된다면 서는 곳마다 모두 참될 것'이라는 임제 스님의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의 종지에 따라 참사람, 즉 무위진인(無位眞人)의 삶을 표방하는 임제선원. 이 곳 신도들은 '선은 마음의 도리를 실제로 깨닫는 진리요, 활발발하게 살아서 행동하는 활선(活禪)'임을 강조하는 조실 종성 스님의 가르침대로 삶과 수행을 둘 아니게 닦는 마음 공부로 '날마다 좋은 날'을 살고 있다. (02)888-6397

김재경 기자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된다!
왜?
홈페이지 : www.binmaum.org
한글인터넷주소 : 빈마음

"본래 망상 없는 줄 알면 참마음 드러나"

▌조실 종성 스님이 말하는 참선법



지난 해 입적한 백양사 방장 서옹 스님으로부터 1992년 부처님오신날 '부촉정법 제산장실(付囑正法 濟山丈室: 불조의 정법을 제산 장실에게 부촉함)'이라는 전법게를 받은 임제선원 조실 종성 스님. 현재 제자인 법현 스님에게 설법을 대신하게 하고 참문하는 수행자들을 지도하고 있는 스님은 '돈오돈수(頓悟頓修)'라야 확철대오할 수 있다는 확신과 한국불교의 법맥은 태고보우 국사로부터 시작됐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스님은 참선공부의 요령을 이렇게 설명했다.

"화두를 참구하는 것은 성성적적(惺惺寂寂)하고 소소영영(昭昭靈靈)한 마음의 당체를 아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화두 참구 시에 산란한 생각을 붙잡아 메려고 하면 자기의 참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니, 다만 자기의 참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본래 산란한 생각이 없는 것인 줄만 알면 그 즉시로 성성한 심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화두를 성성적적한 마음에다 두고서 나가되 정념과 망심이 끊어진 곳에 이르러서 홀연히 의심을 타파하면, 마치 깜깜한 밤중에 태양이 솟아 올라 환하게 비추듯이 자기의 본래면목이 드러나서 견성 정각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스님의 참선법은 서옹, 성철, 향곡 스님의 가풍을 이은 철저한 돈오돈수의 입장이다.

"화두공부의 철칙은 움직임을 떠나 고요할 때 한결같은 동정일여(動靜一如)의 과정을 거쳐서, 다음으로 꿈속에서도 공부가 한결같은 몽중일여(夢中一如)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잠이 꽉 들어서 꿈도 없는 데서 한결같은 숙면일여(熟眠一如)의 경지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기서 다시 죽은 가운데서 살아남을 얻는 사중득활(死中得活)이 되어 의단(疑團)을 부수고 화두를 바로 알아서 자기를 분명히 밝여야 견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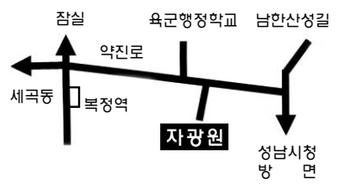
물론 이렇게 깨쳤다고 다 된 것은 아니다. 선지식과의 참문과 인가, 보임의 과정이 필요하다. 견성하고 나서도 눈밝은 선지식을 만나 말후대사(末後大事)를 마쳐야 행해(行解)가 상응하게 된다는 것.

불편한 몸으로 찾아오는 후학들에게 기꺼이 가르침을 전하는 종성 스님은 성철 스님의 <선문정로(禪門正路)> <한국불교의 법맥> <본지풍광(本地風光)>을 참선 수행자의 필독서로 추천했다.

관절염에 "글루코사민샥카트리지"
서울대 병원에서 효능A등급 제품으로 선정


글루코사민 샥카드리지란?
· 미국에서 효능을 인정받은 관절영양제
· 관절치료제인 기존의 글루코사민보다 효능을 높이기 위해 상어연골, 칼슘, 비타민, 아연, 망간 등 관절과 연골의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를 첨가한 복합제
· 이 물질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임상결과 그 우수한 효능발표 - 미국, 일본, 선진국에서도 인정
· 연골의 파괴 효소를 막고 연골을 생성 촉진하는 제제
= 복용시 =
· 2~3주후면 효과발현 시작
· 4~8주면 30~50% 호전 단계
· 6개월이면 90%이상이 만족
주요성분 및 특징
• 제품의 내용량
글루코사민 샥카드리지 180정(2개월분)×3병
• 1정당 성분 및 함량
글루코사민 500mg, 상어연골분말(콘드로이친함유) 400mg, 구연산칼슘150mg, 비타민 C 75mg, 비타민B, 비타민D3, 토코페롤, 아연, 망간 등
• 섭취대상자
- 관절과 연골영양공급이 필요한 노약자 갱년기 여성
- 무릎이 쑤시고 계단을 오르내릴때 불편하신 분
- 관절이 심한 통증과 뻣뻣함을 느낄때
• 관절염이란? 뼈에 영양을 공급해 뼈속이 좋아야만이 낫는 병입니다.
* 글루코사민은 1일 1500mg을 6주이상 지속적으로 섭취하 셔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복용량은 몸무게에 맞게 먹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은 재정경제부고시(소비자보호법 제12조 제2항)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의거, 교환 또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수입지(원산지) : 미국 수입 완제품
*신용카드 구매 가능
상담문의 : 080-631-4525
부산시 동구 범일2동 830-274번지 세종별관 3층 서부통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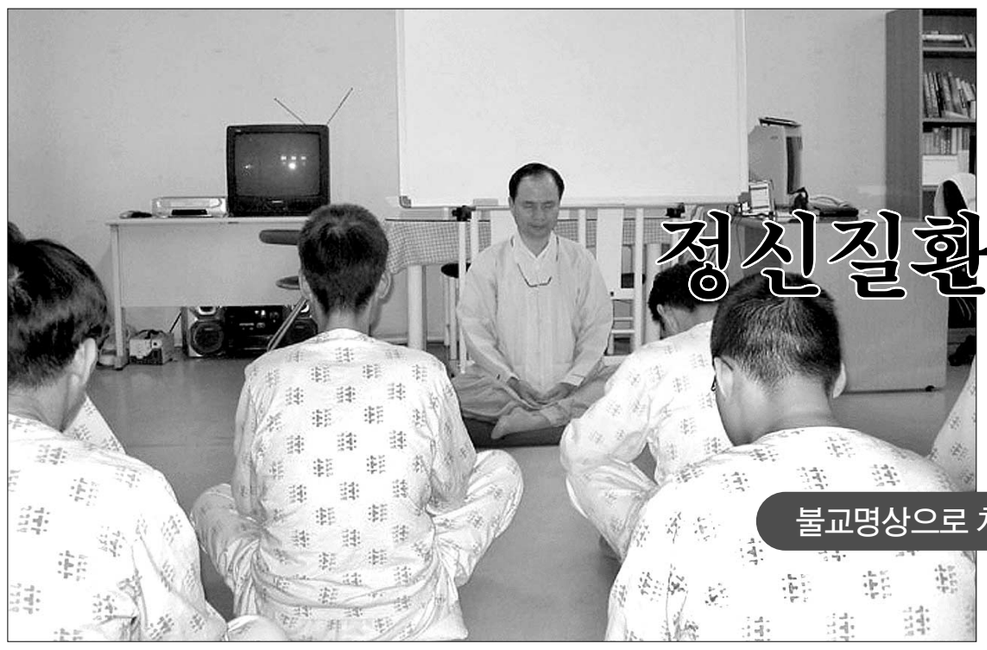
기도처 자연속에 보금자리 자광원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보살 염불원의 특징
≫ 남한산성 자락에 위치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 날마다 부처님을 모시고 염불과 기도정진으로 마음을 닦으며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즐기며 보내시도록 새로운 기도처를 마련하였습니다.
≫ 20년간의 무료 노인요양원인 사회복지법인 부처님 마을 자광원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 전문지식에 의하여 설계된 노인을 위한 기도처 입니다.
≫ 외롭고 우울하게 혼자사는 노인 또는 부부노인중 한분의 거동불편으로 의 · 식 · 주 해결에 고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낙원입니다
≫ 자손들에게는 효도의 기회를 노인들에게는 안락한 여생을 제공하며 임종 시까지 정성껏 모셔드리겠습니다.
≫ 고부간의 갈등으로 고민하시는 분
≫ 홀로계신 시아버님, 모시기가 어려우신 분 자광원에서 해결하여 드립니다.
위치 및 시설개요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116
◆ 대 상 : 만 65세 이상, 노환스님 또는 부부, 개인 등 거처하고자 하는 모든 불자
◆ 정 원 : 24명~30명 내외
◆ 시설개요 : 본 건 물 →방규모(약 7평) 24실(각실 인터폰 설치) 법당, 팔각정자
부대시설 →제 2 물리치료실, 목욕탕, 이 · 미용실, 식당, 오락실
◆ 입방비부담 : 평생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 자비부담
◆ 연 락 처 : 전화 031)759-5320 팩스 031)759-4209


2002년 5월 15일 개원 대한불교 조계종 자광원

명당을 만들어 주면 운이 바뀝니다 명당육氣방


본인, 가정집, 점포, 사무실 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바뀌면 좋은 운으로 바뀝니다.
재수없는 일들과 불화와 액운이 사라지고
새로운 앞길이 열리며
새로운 좋은 일이 있게 되고
새로운 관운, 명예, 재물운이 옵니다.
아무리 할려구 노력해도 안되시면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 묘지터를 처방해 보십시오.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하시는 일들이 잘되며 관운, 명예, 사업, 재물운이 옵니다.
이것이 처방이다 명당육氣방 051)865-9933
천도재 49재와 겹들인 처방법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명당육氣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氣가막힌 복이들어와 향금운으로 변합니다. 복덩어리 복덩어리 황금덩어리 氣가막힌



최훈동 원장이 정신질환자들에게 명상을 지도하고 있다.

위빠사나로 정신질환 치유 돕는다

불교명상으로 치료하는 한별정신병원 최훈동 원장

7~8명의 사람들이 선방에서 걸음에 집중하고 있다. 처음에는 그저 편안하게 걷는 듯하더니 차츰 보폭을 줄이고 발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기 시작한다. 발을 들어 앞으로 옮기는 동작, 옮긴 발을 바닥에 찬찬히 내려놓는 동작 어디에서든지 쉼없는 관찰이 살아있다. 그 관찰은 움직임을 넘어서 발의 가벼움과 무거움, 뜨거움과 차가움 등의 느낌으로까지 이어진다.

상담 전문가들과 주2회 행선·좌선·수행문답 진행

매주 월·목요일 한별심리연구소 선방에서 열리는 명상모임은 이 같은 걷기명상(행선)으로 시작된다. 심리치료사, 의사, 정신과 간호사 등 심리상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모임에서는 행선과 좌선, 그리고 수행문답을 나누는 지도점검 시간까지 마련된다. 심리치료와 명상을 접목하며 그 가능성과 실제를 논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나를 바라보는 과정입니다. 내 몸과 마음의 모든 과정을 주의깊게 비추고 바라보는 것이 곧 명상이 아니겠습니까."

명상이란 회광반조(廻光返照)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최훈동(51, 한별정신병원장·한별심리연구소장) 씨. 그는 명상과 정신분석에 관한 연구를 수년 째 이어오고 있는 정신과 의사이자 참선, 단학, 기공, 아봐타 등의 각종 명상법 등을 두루 섭렵해온 명상 전문가다. 구산 스님, 탄허 스님, 백봉 김기추 거사, 우 자야카 사야도 등 가르침을 전해받은 스승만 해도 여럿인데다 출가를 결심할 만큼 구도에 대한 열정도 각별한 수행자다.

명상·정신분석 연구에 몰두 각종 명상법 섭렵한 전문가

그런 그가 20여 년의 수행 끝에 정착하게 된 것은 '집중(사마타)'과 '통찰(위빠사나)'을 결합시킨 위빠사나 사념처 수행. 대부분의 명상법이 깊은 삼매를 체험하는 '집중'의 요소는 포함하고 있지만, 본래성품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는 정념(正念)으로 대표되는 '통찰'로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최훈동 원장

최 씨가 모임을 통해 소개하는 명상법도 이 같은 정념의 실천과 다르지 않다. 그는 대상에 집중하는 사마타 수행을 통해 회원들이 선정에 드는 것을 돕는다.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배의 움직임에만 밀착해서 집중하는 것이 그 예다. 그러나 사마타 수행은 관찰대상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대상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그는 '초점을 맞춘 대상이 변화하는 내용을 그대로 알아차리는' 위빠사나 수행을 권하기도 한다. 또한 잡념이 너무 심해서 관찰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경우에는 들숨과 날숨의 수를 세며 호흡을 관하는 수식관을 별도로 지도한다.

그는 또 심리연구소에서의 명상모임 이외에도 한별정신병원 환자들과의 명상치료 모임도 꾸리고 있다. 명상이 정신질환의 치유에 있어 약물요법을 보완할 수 있는 대체요법으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념처 수행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함으로써 대상에 대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어, 환자의 치유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명상치료를 지속한 한 알콜 중독자의 경우 "복잡한 망상들을 담고 있던 머리의 뚜껑이 확 날아간 듯한 느낌"이라고 말할 정도다.

명상치료 받은 알콜중독자 "복잡한 망상들 확 달아나"

그러나 그는 이것에 안주하지 않는다. 경전에 입각한 명상수행의 정도를 제시하고자 한 달에 두 번씩 니까야 경전읽기 모임도 열고 있다. 계행(戒行)을 지킴으로써 신구의(身口意) 삼업(三業) 정화의 '물없는 목욕'을 실천하고자 하는 바람의 반영이기도 하다. 그에게 있어 명상은 치료나 상담의 수단을 넘어서는 삶의 지침이자 죽는 날까지 이어갈 삶의 목표다. 그가 이야기하는 사념처 수행은 나의 모든 과정을 비추고 돌아보는 것에 다름아니기 때문이다. 한별심리연구소 = (02)2168-3114 강신재 기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Avatar 밝은길 아봐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110-4 101호
☎ 02)396-2736 · HP 010)6230-2113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heegyunwiz@hanmail.net

초·중등 교사 참나발견 실습

김병채(창원대 유아교육학과) 교수는 8월 2~11일 창원대학교 한국초월·영성상담연구소에서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참나발견 실습 프로그램을 연다.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 연수 성적 및 연수 이수 학점이 인정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매일 오전 9시~오후 4시(단, 토요일은 오전 9시~ 오후 1시) 총 60시간에 맞춰 진행된다. 강의에서는 참나와 참깨달음(김병채), 요가니드라(곽미자), 아유르베다와 건강(정미숙), 이완과 균형을 위한 명상(강영철) 등을 지도할 예정이다. 7월 24일까지 40명 선착순 마감, 연수경비 13만원(1박 2일 합숙비 별도). (055)299-6379

청교련, 요가 통한 참선교육

대한불교청소년불교연합회(회장 현성스님)가 6월 28일~12월 27일 정신과 육체의 균형·조화를 위한 '요가를 통한 참선교육'을 연다.

종로구 국청회에서 열리는 이번 교육은 오전과 오후반으로 나눠 진행되며, 청소년을 비롯한 성인남녀 모두 참가할 수 있다. 오전반은 매주 월·화·목요일 오전 8시부터 50분간, 오후반은 매주 월·화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60분간 이어질 예정이다. 참가비 월 4만원, 3개월 10만원. (02)735-8165

선의 세계 50

교외별전(教外別傳)-10

부처님 "40년간 설법하지 않았다" 말에 담는 것 모두 방편임을 표현

불교에서 천명하는 세상의 진상은 생각으로 따지고 헤아려서는 알 수 없으며(불가사의·不可思議) 말에 의지해서 도달할 수도 없기에(언어도단·言語道斷), 선(禪)에서 교외별전을 강조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불교에서 천명하는 세상의 진상은 불이(不二)이다. 분별의 틀을 가지고는 불이라는 진상을 파악할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적인 사변과 언어는 워낙에 분별의 틀을 가지고 작동한다. 그러므로 세상의 진상에 관해서 사변과 언어로써 헤아리려고 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나온 구호가 교외별전이다.

불이라는 개념도 실체가 따로 있다는 뜻은 아니다. 그저 분별의 틀을 내려놓으라는 취지이다. <유마경>에 보면 유마 거사(維摩居士)와 문수 보살(文殊菩薩)이 불이법문에 관해 대화를 나누는 대목이 있다.

그리고 <능가경(楞伽經)>에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녹야원의 초전법륜에서부터 열반에 들 때까지 40년간 한 마디도 설법을 하지 않았다는 대목이 나온다. 또한 저 앞에서 이미 언급한 적이 있지만 원효 대사는 <이야경(二夜經)>이라는 경전을 인용하며 대각(大覺)을 이룬 그날 밤부터 열반에 든 밤까지 두 밤 사이에 석가모니는 아무 설법도 하신 것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석가모니가 평생 토록 어마어마하게 많은 설법을 했음을 잘 알고 있다. 여시아문(如是我聞), 즉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는 아난(阿難)의 말로 시작되는 불교 경전은 다 그 석가모니의 설법을 기록한 것이다. 그런데도 아무런 설법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그 모든 말씀, 언어가 법(法), 즉 세상의 궁극적인 진상인 불이법문에 든다는 것이 무엇이냐고 유마 거사가 묻자, 문수 보살이 답변한다. "모든 것은 말하거나 말하지 않거나 알거나 모르거나 모든 물음과 답을 떠나는 것이 불이의 법문에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마 거사는 이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없이 그저 침묵을 지킬 뿐이었다. 그러자 문수 보살이 찬탄을 하며 말한다. "훌륭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보살이 불이의 법문에 들어가는 도리이니, 거기에는 문자도 말도 없고 마음의 움직임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마음의 움직임이란 곧 상념(想念), 즉 분별하는 생각을 일으키는 것을 뜻한다. 무생법인(無生法忍)에 관해 견해를 말해달라는 청을 받았을 때에도 유마 거사는 침묵으로 답하며, 그 침묵의 설법을 듣고 현장에 있던 수천 명의 청중이 무생법인을 깨달았다고 한다. 세상의 궁극적인 진상을 우리의 언어로 설할 방도는 없으며 말로 하면 왜곡과 호도가 일어날 뿐이고 차라리 침묵이 더 나은 설법이라는 취지의 이야기겠다.

이법, 무생법에 대한 온전한 설(說)은 아니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석가모니께서 괜한 헛소리만 했다는 말인가? 과격하게 말하자면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순하게 말하자면 그 모두가 방편설(方便說)이라는 뜻이다.

세상의 궁극적인 진상은 언어에 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중생을 위하여 할 수 없이 짐짓 이런 저런 말씀을 하신 것이라는 얘기이다.

교학(敎學)에서는 경전에 기록된 설법의 내용을 두고 어떤 것은 요의설(了義說), 즉 궁극적인 진리를 직설적으로 말씀한 것이고 또 어떤 것은 불요의설(不了義說) 즉 방편설이라고 분류한다. 그러나 선종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설법은, 다시 말해 진리를 말에 담는 것은 모두 다 방편설이다. 진리를 그대로 담아낼 방편은 없다.

그래서 "방편 없음을 방편으로 삼는다"는 선종의 방침은 교외별전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윤원철(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시멘트
서가래에서 포작까지 고건축자재 판매

법당, 요사채, 일주문, 종각
흉내는 낼수있어도 금과은의 가치는 분명 다릅니다

목조
취목에서 시공까지

최고의 작품을 최소한의 자금으로 스님께서 직접 건축하실수 있습니다.

자재일체판매
설계에서 회사 시공까지
기술지원 완공까지

생산품목 : 서가래, 부연, 초익공, 이익공, 계각자, 외삼포작, 외삼포/ 내오포작, 외오포/내칠포작 등 법당에 필요한 모든 부자재

특허출원 제7240호
특허출원 제6194호
의장등록 제2283~2288호

부처님께서 감사패를 주셨습니다.
지난10여년동안 시행과 착오 속에서도 개발과 노력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까지 몇번이고 때론 좌절과 시련속에서도 누군가 꼭해야한다는
신념아래 이어온 주저앉기도 했었지만 그때마다 부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더 큰일을 하라고 일깨워주신 부처님, 이제조금은 더 알것같습니다.
그동안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와 용기를 주신 정여큰스님, 혜담큰스님 등
많은 스님들께 지면으로나마 깊은 감사드리며 역사에 남을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감사패받는 부처님의 기업으로 키워가겠습니다.
시공사 한국불교건축공예 대표 장 춘 식
제작사 성불공예 대표 박 경 남

2004년 6월13일 불교신문에 실린 건축광고 시공사진은 한국불교건축공예에서 시공한 사찰이고 포작 및 계자각등 모든자재는 성불공예에서 제작한 작품과 생산된 제품사진의 대부분이 성불공예공장의 사진임으로 불법으로복제하여 실린 기업을 고발합니다

시공사
한국불교건축공예
제작사
성불공예
본사및 공장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어비리 205번지
대표전화:031-336-6242

시공및 납품실적 ●전통사 ●지장사 ●장안사 ●영탑사 ●정법사 ●안정사 ●여여정사 ●혜광사 ●만불사 ●송계사 ●법혜사 ●천영사 ●보광사 ●옥정사 ●두계사 ●묘각사 ●용주사 ●원각사 ●각화사 ●삼덕사 ●쌍용사 ●죽림정사 ●감로암 ●법성사 ●묘원사 ●반야암 ●금성사 ●북악팔각정 등 100여곳
그동안 배풀어주신 스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서언(2) 누구나 불교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마음' 알고 닦는데 너·나 구분 없다

"불성은 잊고 있던 옛 추억과 같은 것"

행입(行入)이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으니, 제가 힘을 보탤 곳은 아무래도 이입(理入)쪽입니다. 저는 불교의 이치를 다루되, 그것도 '아주 낮게', 어디까지나 일상의 구체적 경험을 토대로 설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너무 수준 높은 논의에, 옛 한문의 거친 어법을 견디느라 고생이 많았을 대중들에게 작은 위로와 이해의 기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강의를 시작합니다.

한국불교의 가장 큰 문제는 소통 부재

왜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나서느냐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불교에 관한 한 저는 아마추어입니다. 불교학생회나 수련회에도 나간 적이 없고, 불교에 관한 전문적 커리큘럼을 거친 적도 없으며, 더구나 염불이나 참선을 본격 수련해 깨달음이란 것을 얻은 바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불교를 아는 데는 그런 준비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육조 혜능은 그런 정규 커리큘럼이나 경전 지식의 권위가 오히려 불교를 아는데 방해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불교를 알기 위해서는 다만 한 가지 조건만이 필요한데, 그건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이 없는 사람이 없으니 누구든 불교를 알 수 있고, 누구든 불교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돈교(頓敎)의 뜻입니다. 육조 혜능은 이 마음을 알고 닦는데 있어, 재사(在寺)와 재가(在家)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까지 했습니다.

아마추어가 외람되이 나선 것은 전문가의 불교가 너무 어려워서입니다. 지금 불교는 너무 높고 험준해서 보통 사람들이 접근하기 힘듭니다. 그런데다 그것을 말하는 전문가들의 말은 무슨 소린지 알아듣기가 버겁습니다. 이렇게 난해와 모호에 지친 사람들을 향해 이번에는 너무 격이 낮고 곁가지인 지루한 이야기들이 번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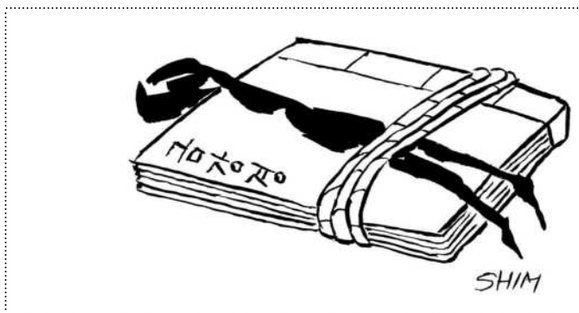
요컨대 한편에서는 한문 경전의 용어와 어투를 그대로 외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화두선을 중심에 세워 일상의 대화와 상식의 접근을 근본 차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한국불교의 가장 큰 문제가 이 소통의 부재입니다. 스님들과 재가 신도들 사이에도 그렇고, 불교학자와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최근 그 틈을 메워보려는 노력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습니다. 불교를 두고 대학에서의 강독이나 대중 상대의 문화강좌가 많이 생기고 있고, 사설 참선 단체들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벤처의 노력들을 의아하게 바라보던 절간에서도 최근에는 템플스테이를 정착시키고, 논강 등을 열어 대중과의 적극적 소통을 모색하게 된 것은 크게 고무적인 일입니다. 제 소견에, 참선지도나 템플스테이 등 실참 지도나 문화체험 등은 아주 훌륭하고 앞으로 한국불교의 큰 밑천이자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불교가 너무 어렵다는 소문에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불교가 가르치는 마음의 진실은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한걸음 더 내딛자면, 그 마음은 당신과 나,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기에 새삼 알 필요도 없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누구도 자신이 모르는 것을 새로이 알 수는 없습니다. 만일 안다면, 그것은 마군임에 틀림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도 상대방이 모르고 있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가르침이란 본시 내 속에 있던 어떤 것을, 새삼스럽게 확인시켜 주는, 선가의 말을 빌면 지시(指示)일 뿐입니다. 그래서 옛 선지식들이 하나같이 "나는 네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의발을 찾아 천리 먼 길을 쫓아온 혜명에게 육조 혜능 스님은 분명히 일렀습니다. "비밀은 이미 너에게 있다."

저는 이런 비유를 들곤 합니다. "마음의 소식은 흡사 방 한 구석에 먼지 덮여 있는 어릴 때의 장난감 같은 것이다.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그것을 돌아보지 않게 되었다. 우리의 시선은 세상사는 일에 고착되어 있어, 한때 순수한 기쁨이었던 그 물건을 더 이상 돌아보지 않는다. 그러나 그 장난감은 늘 그곳에 있었다. 아련한 향수가 밀려들거나, 누군가가 일깨워줄 때, 그는 거기 그 장난감이 오래전부터 있었음을 새삼 알게 된다. 우리의 불성 또한 그와 같다."



다시 말하지만,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고, 그 비밀은 우리 자신에게 미리 알려져 있는 것들입니다. 혜능 스님의 권위를 빌리면, "보리 반야의 지혜는 본래 세인들에게 갖추어져 있습니다(菩提般若之智 世人本自有之)." 저는 불교가 노리고 있는 그 지식이, 비록 비밀스럽다고들 말은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특별한 오랜 수련을 통해, 그동안 꿈도 꾸어보지 못한 어떤 것들이 비로소 완전히 새롭게 등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깨달음은 우리에게 언제나 알려져 있습니다. 그 깨달음은 마음의 밝음으로서, 욕망과 분노와 무지의 먹구름 틈 사이에서 늘 빛나고 있는 어떤 것입니다.

깨달음 이후 지속적 실천 과정이 중요

저는 그것을 일별하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심에 찌든 마음이 잠시 숨을 죽이고, 자비와 동정과 기쁨과 공정함 등의 무량한 네 마음들이 문득 피어날 때, 저녁 고요 속에서 들뜬 마음을 참선을 통해 가라앉히고, 그날 지은 죄가 무겁게 가슴을 치며 참회하는 마음이 먹먹히 일 때, 그때 우리 마음의 본래의 빛이 환하게 떠올라 옵니다. 문제는 그 마음의 빛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깊은 평화와 만족 속에서 더욱 더 선명하고 뚜렷하게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돈오점수(頓悟漸修) 쪽에 기웁니다. 돈오(頓悟)는 쉬운데 정말 점수(漸修)가 어렵습니다. 불교의 이치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으되, 그 이치를 진정 믿기가 어렵고, 또한 그 가르침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돈오를 이렇게 가볍게(?) 해석하는데 대해 눈을 흘기시는 분이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방패막이 삼자면, 이 또한 제 독단이나 창안이 아니라 옛적 지눌 스님께서 돈오를 해석하신 그대로입니다. 스님은 돈오란 다름 아니라 "마음의 실상에 대한 지적(知的) 이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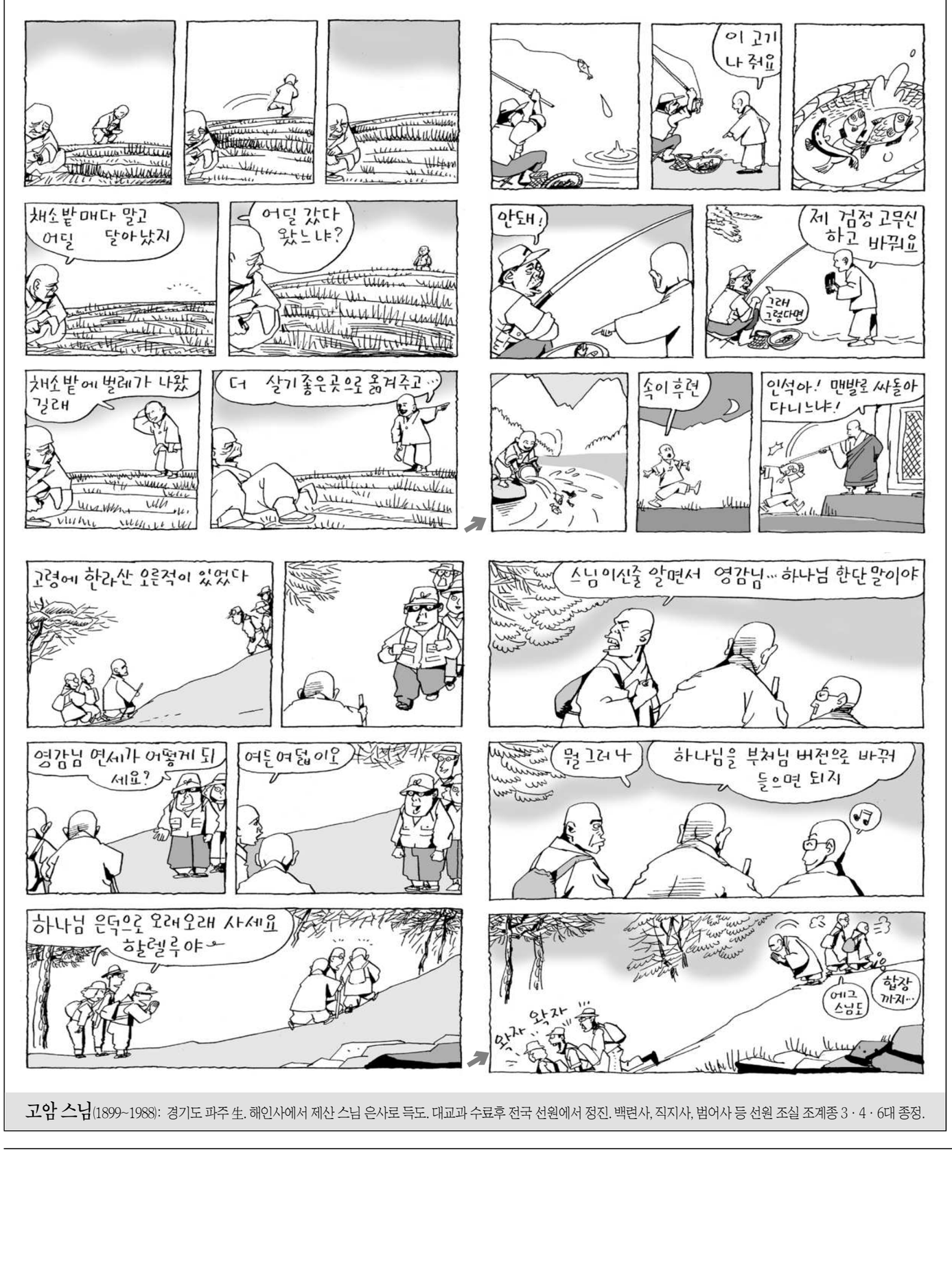
바로 그 돈오(頓悟)를 살아가는 것이 점수에 속합니다. 그것은 끝이 없는 심화와 지속의 실천적 과정입니다. 깨달음 한 번에 일대사인연(一大事因緣)을 마치겠다는 턱없는 과욕과 오만을 버리십시오. 그럴 수는 천만 없습니다. 술과 고기를 마음대로 먹는 경허 대사께 진응 스님이 그 방광색의 연유를 묻자, 대사께서는 천연스레 옛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돈오했으니 부처와 같은데, 다생의 습기가 깊어서, 바람은 멎었으나 물결은 아직 일렁이고, 진리를 알았지만 상념과 정념이 여전히 침노한다(頓悟須同佛, 多生習氣深. 風停波尙湧, 理現念猶侵)."

요컨대 불교의 이치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등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이 연재는 불교에 아무것도 새로울 것이 없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여는 괜한 야단에 법석입니다. 팔만 사천 법문이 그런 점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느 이야기를 골라볼까 하다가 <금강경>을 골랐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이야기, 그러면서도 가장 알고 싶은 이야기가 이 <금강경>이 아닐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주장자따라…

㉕ 고암 스님의 '방생'

조태호



고암 스님(1899~1988): 경기도 파주 生. 해인사에서 제산 스님 은사로 득도. 대교과 수료후 전국 선원에서 정진. 백련사, 직지사, 범어사 등 선원 조실 조계종 3 · 4 · 6대 종정.

네티즌 교리문답

"돈오의 대상은 무엇인가요?"

문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주장하는 선은 단박깨침(頓悟)을 말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단박에 깨친다는 말인가요? 깨침의 내용이 궁금해서 문의합니다.(ID '묻는자')

답 1: <육조단경>에 "자성의 마음자리가 지혜로써 관조하여 안팎에 사무쳐 밝으면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알고, 만약 본래의 마음을 알면 이것이 곧 해탈이다. 이미 해탈을 얻으면 이것이 곧 반야삼매며, 반야삼매를 깨치면 이것이 곧 무념이니라. 무념법이란 모든 법을 보되 그 모든 법에 집착하지 않으며 모든 곳에 두루하되 그 모든 곳에 집착치 않고 항상 자기의 성품을 깨끗이 하여 여섯 도적들로 하여금 여섯 문으로 달려나가게 하나 육진 속을 떠나지도 않고 물즐지도 않아서 오고 감에 자유로운 것이다. 이것이 곧 반야삼매며 자재해탈이니 무념행이라고도 한다. 무념법을 깨친 이는 만법에 다 통달하고 모든 부처의 경계를 보며, 무념의 돈법을 깨친 이는 부처의 지위에 이르느니라" 했다. 여기서 깨침의 대상은 반야삼매이며, 무념행임을 알 수 있다. (ID '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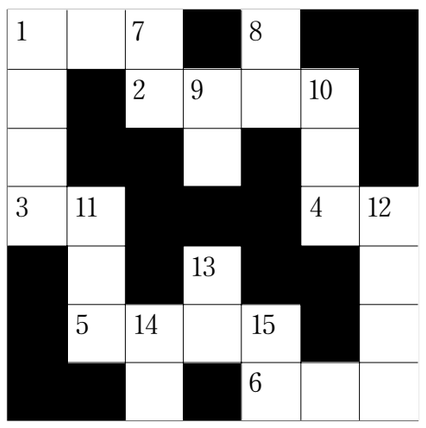
답 2: 같은 불교라 하여도 시대에 따라 용어가 달리 쓰인다. 초기불교의 대답은 연기법(근거: 가전연경)이며, 중관불교의 대답은 무자성(無自性), 공(空), 중도(中道)이다. 유식불교 의 대답은 식(識, 轉識得智)이며 대승불교와 선불교의 답은 진여(眞如), 일심(一心), 자성청정심(自性淸淨心), 불성(佛性), 법성(法性) 등이다. 성철 스님은 위 용어들을 모두 중도라는 이름으로 회통한 바 있다. 그러나 말로 표현하면 모두 대상이 되고 말기에 '언어도단(言語道斷)'의 경지임을 말한다. (ID '서림')

답 3: 도대체 무엇을 깨친다는 말인가? '오직 마음 뿐임'(一心)을 깨닫는다. 이미 자성은 완전하여 닦을 것도 얻을 것도 없음을 깨닫는다. 이미 깨달아 있어 깨달을 것이 없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견성을 아직도 무엇을 보는 것이라 착각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성품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각하는 것이다. 원효 보살이 해골물을 먹고 오바이트 한 사실을 기억하라. 깨달을 것은 '일심'일 뿐이다. (ID '공부인')

답 4: '삼계는 오직 마음 뿐이요, 만법은 오직 의식일 뿐'(三界唯心 萬法唯識)임을 깨닫는 것이다. (ID '부천시민')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상식퍼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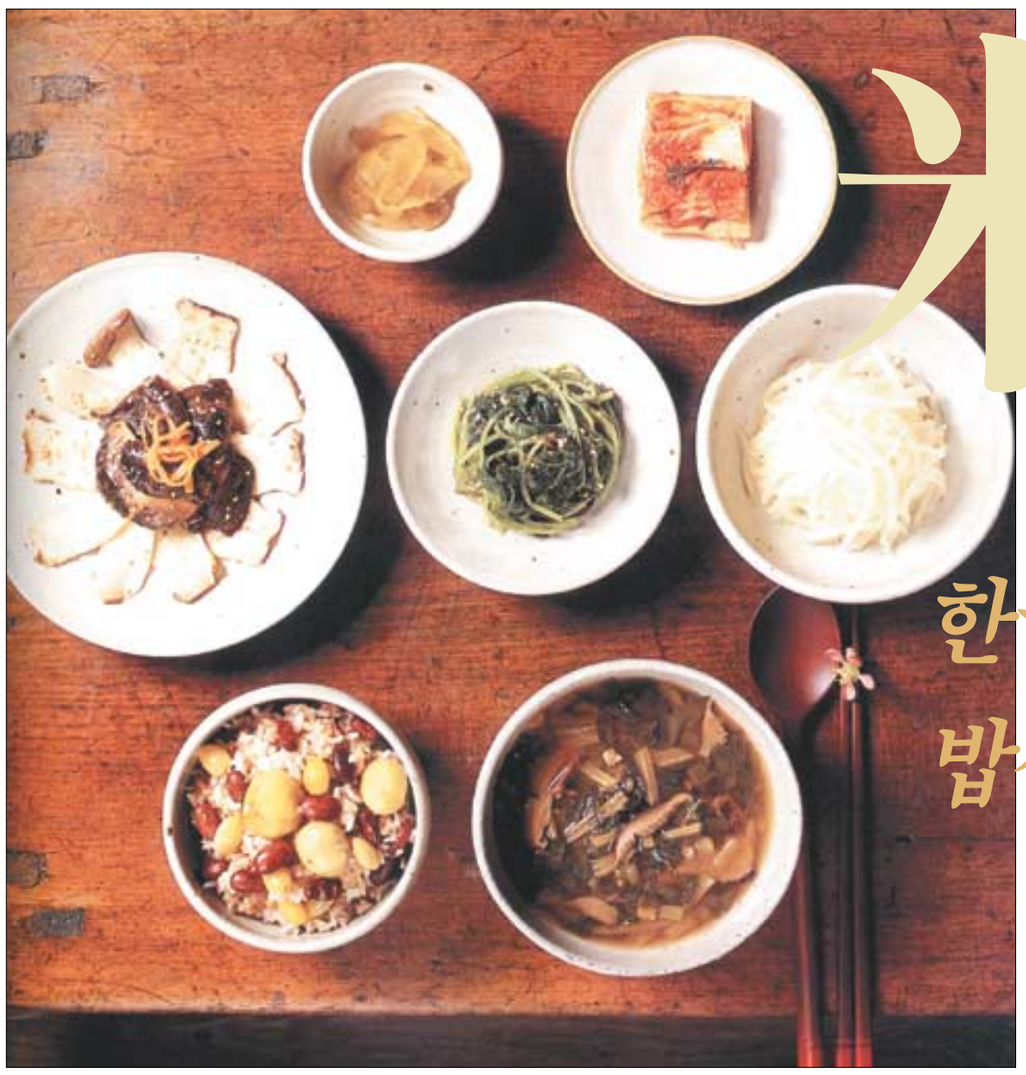
가로

1. 서유기에 나오는 주인공 중 하나, 수륙괴물 2. '그림의 떡'을 뜻하는 한자성어 3. 상가집을 방문하여 조의를 표함 4. 물건이나 자재를 보관하는 건물 5. 어떤 일을 계기로 마음가짐을 새로이 함 6. 지구를 본떠 만든 모형, 지구본의 다른 말.

정답은 26면에

세로

1. 지국천왕, 광목천왕, 다문천왕, 증장천왕의 네 분의 천왕을 모신 문 7. 깨끗하게 함 8. 북반구에서 밤이 가장 긴 날 9.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중용의 도 10. 병기를 만드는 군인이나 부대 11. 상고한 소송사건에 대해 조사 · 심리하여 판결하는 일 12.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예술작품을 모범삼아, 형식미를 중시하여 조화 · 균형을 추구하던 창작태도 13. 하루씩 거름 14. 소망하는 바를 기원하는 일, 백일OO 15. 모든 것을 앎.



米 한국인의 힘 밥상에 있었네



한국인에게 밥은 무엇인가
최준식 지음 | 휴머니스트 | 1만5천원

외국인들에게 한국 음식에 대해 아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는 단골 메뉴 두 가지가 있다. '김치와 불고기'다. 그러면 김치는 언제부터 만들어 지기 시작했을까? 답은 1백년 전쯤이다. 중국 산동(山東) 지방의 배추를 왕십리에 가져와 재배하기 시작하면서 부터다. 그럼 불고기는? 삼국시대다. 우리나라 음식인데도 한국 음식의 역사에 대해 아는게 적은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다.

최준식 교수(이화여대 한국학과)가 정혜경 교수(호서대 식품영양학과)의 도움을 받아 한식의 역사적 실체와 특성을 밝힌 책 <한국인에게 밥은 무엇인가>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저자인 최 교수가 한국음식 전문가 정 교수에게 궁금한 걸 묻고, 또 그들이 그 대답을 놓고 토론한 내용을 대화체로 정리해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이 자못 흥미롭다. 그래서 자칫 딱딱한 문화서로 전락하기 쉬운 단점을 말끔히 해소시켜 술술 읽히게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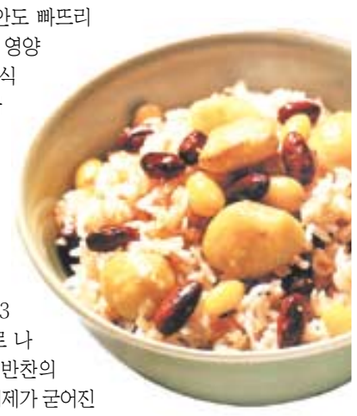
책을 만든 동기도 재미있다. 한국문화의 마스터 플랜을 짜달라는 한 기업인의 부탁으로 김봉렬(건축), 오주석(그림), 송혜진(음악), 방병선(도자기), 정혜경(음식), 김소현(복식), 김영숙(무용), 김영훈(영상)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한국문화의 미래를 만드는 사람들' 이란 모임을 만들었다. 이 책은 이 모임의 첫 번째 성과물이다. 왜 많고 많은 분야 중 음식 얘기부터 할까. 그 이유는 아주 뻔하다. 의식주 가운데 의복이나 건축은 이미 대부분 서양식을 따르고 있지만, 음식은 한식을 하루라도 먹지 않는 날이 없기 때문. 그런데 이 매일 먹는 우리 음식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 "한정식 식당에 한식 없다"
> 우리 음식의 과학성과 장점
> 전문가 문답통해 해부

저자는 현재 우리나라의 한정식 음식점에 한식이 없다는 주장으로 이 책을 시작한다. 그 예로 한집 건너 한집으로 한정식집이 몰려 있는 서울 인사동을 든다. 그곳의 한정식 식당에는 여러 사람이 한상에 음식을 깔아놓고 먹는다는 것이다. 그건 우리의 전통이 아니라는게 최 교수의 생각이다.

서양과 중국식 같은 코스별 요리처럼 시간을 두고 나오는 요즘 한정식 문화도 우리 선조에겐 낯선 것이다. 우리 조상(주로 남자)은 평소 겸상이 아닌 독상을 받았고, 음식도 함께 차려놓고 이것저것을 골라 먹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우리 음식문화에는 분명 합리적인 '과학'이 숨어 있었다. 많은 음식을 동시에 차려놓고 먹으니 우리 음식에는 중국 음식처럼 돼지기름 같은 동물성 기름을 쓸 수 없다. 동물성 기름은 쉬 굳기 때문에 오랫동안 깔아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들기름과 참기름은 다르다. 버터 · 치즈처럼 혈관 장애를 일으킬 염려도 적다.

이런 이유를 들어 저자는 건강식으로서 한식을 강조한다. 동물성 기름과 식물성 기름이 8대2의 황금 비율을 이루는 가운데, 채식에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육지와 바다에서 나는 재료를 적절히 배합한 음식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는 것. 파 · 마늘 · 생강 · 고추는 약리적 효과가 뛰어나고, 상차림의 구성이 다양하니 영양학적 효과도 만점이다. 이런 데도 한식을 등한시할 수 있을까. 저자는 전통음식의 문화상품 개발, 한국음식의 세계화 방안도 빠뜨리지 않는다. 맛과 영양을 고루 갖춘 한식의 우수성이 깔끔히 정리됐기에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이 책은 1부 한식의 역사, 2부 원리로 본 한식의 세계, 3부 한식의 미래로 나누었다. 밥, 국, 반찬의 한식 트로이카 체제가 굳어진 것은 조미료가 발달해 국이 다양해진 고려시대였다거나, 임진왜란 이후 신분질서가 요동치면서 평민들의 지위가 높아지고 음식문화에서도 귀천의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 등 1부에서는 한식의 기원과 역사적 변화상을 짚었다.



개별 음식을 다룬 2부에서는 우리 음식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내용이 적지 않다. 김치는 고추에 들어 있는 엄청난 양의 비타민C와 젓갈 등 다양한 양념에 따른 풍부한 영양에 이어 유산균까지 함유해 최고의 식품으로 불러도 손색이 없다는 주장 등이 그것이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전문가 서평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낚시를 해야 할 때가 온다
폴 퀸네트 지음 | 공경희 옮김 | 바다출판사 | 1만2800원

이 책은 낚시책이 아니다. 삶을 즐기는 철학으로서의 낚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다. 유명한 심리학자이자 에세이스트이며, 알아주는 낚시광인 폴 퀸네트가 '낚시는 스포츠가 아니라 인생을 사는 방법이며, 낚시야말로 유쾌한 인생의 은유' 라는 것을 설득력 있게 들려준다. 50여 년 간의 낚시 경험을 통해 건져 올린 통찰과 유머가 살아있는 90편의 글로 수록돼 있다. 마치 몇 년전 흥행했던 영화 '흐르는 강물'에서 처럼 아버지 리버런드 맥클레인이 두 아들에게 낚시를 통해 인생의 교훈을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말이다. 나는 이 영화 한편을 통해 낚시를 좋아하게 됐고 인생의 교훈을 낚시터에서 문득문득 많이 깨닫는다. 인내, 기다림, 무욕(無慾) 등.

그러나 이 책을 탐독하기 위해 낚시를 꼭 좋아할 필요는 없다. 아니 낚시를 할 줄 모른다해도 상관없다. 이 책은 낚시라는 매개체를 통해 인생을 가르쳐 주는 교훈적인 글로 가득차 있기 때문이다. 낚시로부터 실마리를 풀어내지만, 역시 인생의 어느 한순간에 불현듯 마주치게 되는 사소한 깨달음의 계기들을 담고 있다. 절제와

낚시터에서 건진 인생의 참맛

살다보면 불현듯 마주치는 사소한 깨달음 담아

지나침, 성공과 실패, 삶과 죽음, 관계의 윤리 등. 이런 인생의 교훈 들은 물론 무지개 송어, 줄무늬배스, 창꼬치, 연어와 함께 강에서 플라이 낚시로 길어 올린 것들이다. 가령 '멋진 물고기와의 대단한 싸움에서 진다는 것은, 내가 물고기를 과소평가했거나 낚시를 잘못했다는 뜻이다. 패배의 이유를 운이 나빴다고 둘러댈 수는 없다'는 것처럼 물고기를 낚기 위해서는 겸손과 무심(無心)이 필요하다고 지혜를 일러준다.

또 다른 사람과 어떻게 더불어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낚시꾼의 전통적 에티켓'을 열 올려 얘기한다. "경험 많고 예절바른 송어 낚시꾼이라면 캐스팅(낚싯줄을 던지는 것)하고 두 발자국 하류로 옮겨 다시 캐스팅하는 식으로 자리를 바꾼다. 다른 낚시꾼들에게도 고기가 많은 물까지 내려올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동료 낚시꾼이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다.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달라는 것, 가능한 한 혼자 내버려 두라는 것, 위대한 자연의 정적을 즐기게 해 달라는 것…."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자기와 죽음 사이에 아무도 없다는 걸 알게 된단다"라는 인생의 깊은 비밀을 저자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도 바로 낚시터에서의 어느 밤이었다. 베트남전에서 살아 돌아온 동생에게서는 낚시에서 절망을 버티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정글에서 밤에 보초를 설 때면 늘 그 기억을 떠올렸어. 높은 산, 좁은 실개천, 발밑에 융단처럼 펼쳐진 풀밭, 강둑에 붙어 있는 금빛 송어떼. 그런 기억 덕분에 집에 돌아올 수 있었어."

저자는 친구와 와인 7리터를 나눠 마시고 강가에 누워 밤하늘의 별을 보며 프로이트의 영혼이 자기의 몸 속에 들어왔다며 너스레 떠는 유머와 긍정적인 품성이 몸에 밴 사람이다. 늘 배울 일을 찾고, 좋은 경험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려고 애쓴다. 그래서 저자의 인격이 글속에 녹아 있어 이 책이 더욱더 교훈적으로 다가온다.

■이주선 (삼성 SDI 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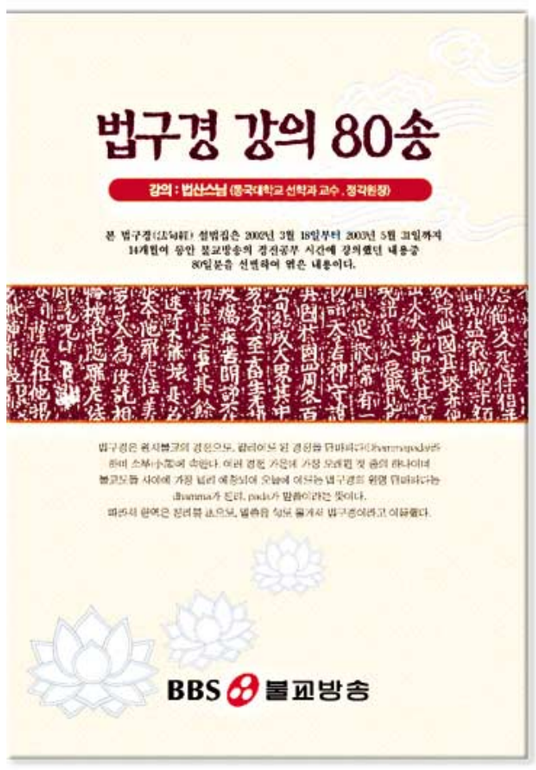


법구경 강의 80송

불교방송에서는 동국대 교수, 법산스님의 설법집《법구경 강의 80송》을 테이프로 제작, 판매하고 있습니다.
각박한 현실 속 현대인들의 마음에 한구절의 시처럼 쉽게 다가오는 법구경을,
법산스님은 알기쉬운 생활방편을 곁들여 불교를 접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잔잔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잠 못 이루는 사람에게 밤은 길어라.
피곤한 사람에게 길은 멀어라.
어리석은 사람에게 생,사 길거니
그는 바른 법을 모르기 때문일세.
- 법구경 우암품



구입문의 불교방송 포교자료팀
전 화 (02)706-3502
가 격 70,000원(C70×20EA)

BBS 불교방송
서울FM101.9MHz · 부산FM89.9MHz · 광주FM89.7MHz · 대구FM94.5MHz · 청주FM96.7MHz · 춘천FM100.1MHz

山寺 앞마당에 선 석등

원조가 일본 神社라니!

테라우치 총독 조선의 꽃이 되다
이순우 지음 | 하늘재 | 1만3천5백원



#1 오늘날 우리 사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화강암 석등. 하지만 그 정체는 일본 나라의 카스가 신사(神社)에서 유래된 '카스가 도로(春日燈籠)'다. 일제 식민지를 거치며 이 땅에 들어온 이 카스가 석등은 지금도 부지런히 확대 재생산되어 전국의 사찰 앞마당을 장식하고 있다.



사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석등은 일본 신사에서 유래한 '카스가 도로'다.

#2 만원권 지폐 뒷면, 경복궁 경회루 오른쪽에 새겨져 있는 삼층석탑. 실제로는 경복궁 복원공사 후 그림의 위치에서 사라진 이 석탑의 정체는 무엇일까? 바로 경복궁 주차장 옆 잔디화단으로 옮겨진 '영전사보제존자사리탑(보물 제358호)'이다. 이 석탑은 강원도 원주 영천사에 있던 것으로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 때 야외전시유물의 하나로 수집돼 오늘에 이른다.

무심히 지나치기 쉬운 유물에 얽힌 진실 추적 상식의 허 찌르는 역사읽기의 재미 선사

#3 '조선화관(朝鮮花管)'이라고 불리던 백합과에 속하는 꽃이 있다. 이 꽃의 학명에는 초대 조선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의 이름인 '테라우치(terauchi)'가 들어가 있다. 일본의 저명한 식물분류학자인 나카이 다케노신(中井猛之進)이 이 꽃을 발견하고 자기 조사를 후원해준 테라우치에게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 붙인 이름이다.

우리가 무심히 지나치기 쉬운 유적지와 유물, 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추적해낸 책 <테라우치 총독, 조선의 꽃이 되다>가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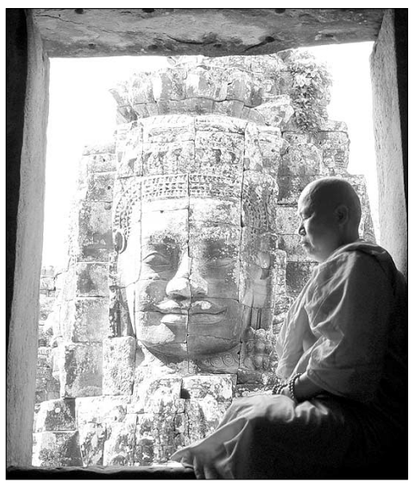
지은이는 <제자리를 떠난 문화재에 대한 조사보고서>라는 책을 통해 우리 문화유산의 '제자리 찾기'에 앞장서고 있는 이순우(42) 씨. 15년간 증권계에 몸담았던 그는 지난해 직장을 박차고 나와 '문화재 사료수집가'이자 '아마추어 문화재 연구가'로 변신했다.

본격적인 문화재 사료 수집에 매진하고 있는 그는 이번 책에서 "일제강점기 이후 빚어진 뒤틀린 근대역사의 해묵은 찌꺼기"라고 말할 수 있는 사례 31건을 보여준다. 2권의 <…조사보고서>가 문화재의 이동경위를 추적한 것과는 달리 이번 책에는 문화재 외에도 국회의사당에 세워진 해태상과 조선호랑이의 포획기록, 조선 최초의 여자비행사 등의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다. 상식의 허를 찌르는 역사 읽기의 재미와 함께 보통 사람들의 생활 속에 스며들어 있는 역사의 흔적도 만날 수 있다.

제야의 타종 행사가 식민지시대 경성방송국의 기획프로그램에서 비롯됐다는 사실, 치욕의 삼전도비가 1980년 대통령 지시에 의해 송파구 삼전동 역사공원에 자리 잡게 됐다는 사실 등을 그가 제시하는 사료를 통해 확인하다 보면 그 조사방법과 집념에 혀를 내두르게 된다. '도서관 들락거리는 일에 이골이 났다'는 지은이의 말과 노력이 절절히 느껴진다.

"우리가 상식처럼 알고 있는 수많은 역사적 사실들 중에도 애당초 기록의 오류나 근거 없는 풍설의 작용으로 엉뚱한 내용들이 사실인양 유포되고 있는 사례가 수두룩하다"는 이 씨는 "이 책을 통해 잘못된 사실은 지금이라도 바로 잡고 그 의미를 찬찬히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한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앙코르의 미소'라고 불리는 바이욘 사원의 석불상 앞에서 좌선삼매에 든 혜자 스님.

앙코르와트서 14일 수행체험 '초심'을 얻다

캄보디아 선묵 혜자 스님 글·사진 | 장문산 | 1만5천원

"남방 불교를 체험한 캄보디아는 내게 부처님 가르침의 참 맛을 느끼게 해준 정신적 고향입니다."

혜자 스님(도선사 주지)은 지난해 12월 3일부터 2주 동안 앙코르와트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간직한 나라 캄보디아를 순례했다. 그 곳에서 다양한 인간 군상과 남방불교의 유적을 만났다. 그리고 이 여정과 견문, 감상을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 바로 <캄보디아>이다.

혜자 스님이 캄보디아에서 제일 먼저 찾은 곳은 씨엠립시의 가장 큰 사원인 왓 라지보. 여기서 혜자 스님은 삭발을 하고 이 사원의 쁘셈 조실 스님에게서 오렌지색 남방 가사를 수지한다. 40여년전 출가할때처럼 다시 초심자로 돌아간 혜자 스님은 짧은 시간이지만 그곳 스님들과 똑같이 새벽에는 탁발을 하고 오후에는 빨리어 공부를 했다. 그리고 유네스코가 지정한 인류 문화유산이며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리는 앙코르와트의 유적을 둘러보며 직접 발굴 복원에 가세하기도 했다. 앙코르와트는 앙코르의 유적지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서 요즘은 유적지 전부를 가리키는 고유명사로 굳어져 있다. 이 사원은 12세기 초에 수리야 바르만 2세에 의해 건축된 힌두 사원으로, 훗날 대승 불교의 사원으로 바뀌었다. 유적지 내의 모든 사원들이 동쪽을 향해 있는데 비해 앙코르와트만 서쪽을 향해 지어졌기 때문에 장례(葬禮)를 위한 사원이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 수많은 돌을 어떻게 옮겼는지 저절로 감탄사가 나올 정도입니다. 이런 귀중한 유산을 미국 일본 중국 등에서는 복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빠져 있어 안타까웠습니다."

여행에서의 가장 큰 재미와 추억은 그 나라 문화 생활속으로 직접 들어가 체험하는 것. 혜자 스님 역시 왓 라지보 사원 근처에서 열린 결혼식에 초대돼 캄보디아 전통 혼례식을 지켜본 일, 20세기 최악의 학살현장인 킬링필드 '쯔응아익'의 유골탑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원혼을 달래는 천도재 의식을 해준 것, 사원에서 열린 장례식에 참가 했던 경험 등을 이번 순례의 소중한 기억으로 소개했다.

스님에게 이번 순례는 양국이 불교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스님은 이번 순례의 안내를 맡았던 캄보디아 쏘린스님을 상좌로 받아들였다. 또 내년에는 도선사와 왓 라지보 사원과 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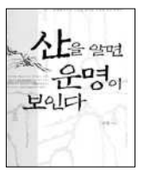
새로나온 책



■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의 이야기>**(성일 스님 엮음, 불광출판사, 9천5백원)="부처님의 딸 다혜예요. 어제 수계식을 해서 분홍색 팔찌를 받았어요. 지금도 그 기분을 잊지 못하겠어요.(수원 세류초등 4년 이다혜)" 경기도 화성군 신흥사·청소년 수련원장 성일 스님이 30여 년에 걸쳐 모은 어린이 불교학교와 청소년·성인 수련대회 참가자들의 소감문을 책으로 엮었다. 수련회 참가자들의 솔직한 수련회 소감문을 읽다보면 책 제목처럼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 **<다시 읽는 우리 수필>**(김종완 엮음, 을유문화사, 9천8백원)="법정 스님의 수필은 종교적이고 사색적인 수필의 전범을 보여주고 박연구는 신변잡사의 일상적 사건이 문학적 사건으로 신비롭게 변신하는 실례를 보여주고 있다." <수필과 비평> 주간인 김종완 씨가 법정 스님과 박연구, 전혜린, 유병석, 손광성, 박완서의 수필 중 45편을 가려 담고 작가론을 덧붙인 수필평론집.



■ **<산을 알면 운명이 보인다>**(조광 지음, 바보새, 1만원)=자생풍수가 조관 씨가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풍수지리학을 소개한 '풍수에세이'. 지은이는 "풍수란 미신이나 신비학 학문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움을 모색하는 자연과학"이라고 말한다. 책 말미에는 최근 웰빙 열풍을 타고 관심을 받고 있는 '풍수인테리어'에 대한 설명을 실었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하룻밤에 읽는 불교	소운 스님	랜덤하우스중앙
2	마음 부처가 사는 나라	청화 스님	이른아침
3	홀로 사는 즐거움	법정 스님	샘터
4	스님이야기	지묵 스님 외	여시아문
5	가장 행복한 공부	청화 스님	시공사
6	백일법문	성철 스님	장경각
7	참회·참회기도법	김현준	효림
8	불교가 정말 좋아지는 불교우화	이용범	수희재
9	불교가 좋다	가와이 하야오	동아시아
10	육조혜능평전	이은윤	동아시아

도서 안내:(02)737-0695

여름방학 자녀와 부처님나라로 떠나요

■새 단장한 어린이 불교동화 3권 출간



세계불교동화 행산 스님 엮음 | 박기종 그림 | 큰나 | 1만4천원
산은 산 물은 물 정찬주 글 | 우종택 그림 | 파랑새어린이 | 8천5백원
어린이 법구경 향봉 스님 옮김 | 밀알 | 8천원

자녀들의 여름방학을 앞두고 불교 동화책 세 권이 새롭게 단장해 선보였다. 이번 방학에는 컴퓨터 게임이나 오락에 빠지기 쉬운 자녀와 함께 불교 동화를 읽어보는 건 어떨까?

행산 스님(영산법화사)이 엮음 **<세계불교동화>**는 1965년 출간됐던 <불교동화집>의 내용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게 다듬고 그림을 덧붙인 책이다. 우유에 물을 섞어 판 돈으로 귀고리를 산 할머니가 욕심을 버림으로써 동네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된다는 '할머니와 귀고리', 마술을 좋은 일을 위해 쓸 때 복이 온다는 '사라진 마술사', 석가탑과 다보탑에 얽힌 전설을 보여주는 '아사달과 아사녀' 등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다.

<산은 산 물은 물>은 소설가 정찬주 씨가 성철 스님의 일화를 동화로 엮은 <성철 스님과 모과동자>(2001)를 새롭게 단장한 책이다. 주인공 '모과동자'를 통해 성철 스님의 출가 전 이야기와 출가 후의 수행생활 등을 들을 수 있다.

<어린이 법구경>은 '불교 교훈집'이라고도 할 수 있는 <법구경>에 실린 432개의 이야기 중 146개를 가려 담은 책이다. 이야기 마지막 부분에는 책을 엮은 향봉 스님이 어린이 법회 때 들려주기 위해 틈틈이 만들어 둔 이야깃거리를 곁들였다.



전등록 전30권을 5권으로 완간!
전강선사의 인가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의 번역. 기존의 학술적 번역과 달리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바른 법을 밝게 밝혀주는 <바로보인 전등록>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바른법

부처는 웰빙족이었다?

문화영의 생활명상집 무심 ! <SBS-TV> "오픈스튜디오", <MBC-TV> "즐거운 문화읽기" 등 20여 언론에 보도된 화제의 베스트셀러 !

선방에서 화두잡고 앉아 무념무상에 빠지는 것만이 무심?
유기농과 스파 갖춰놓고 잘 먹고 잘사는 게 웰빙이라고?

소프라노 조수미의 긴 손톱에 담긴 자유로움!
아름다운 죄, 사랑을 혼내주는 방법은 복수가 아닌 무심!
폐위된 광해군이 18년 동안 유유자적 기쁘게 산 경지!
근심걱정과 화를 금방 잊어버리는 축복받은 건망증!
무심의 경지에서 지치지 않고 쌩쌩하게 일하기!
수치심을 벗으면서 얻는 훨훨 날 듯한 마음의 자유로움!
즐거운 죽음, 소풍 가듯 죽는 방법!

부처님처럼 웰빙하는 통쾌하고 시원시원한 마음 명상법,
문화영의 생활명상집 〈무심〉이 알려드립니다!

명상마을의 자연인, 문화영
방송작가이며, 아루이 명상 지도자이다.
충북 진천의 명상마을 '명상아루이 수선대'에서
벌과 바람과 더불어 자연인으로 살고 있으며,
그곳에 명상을 배우러 찾아오는 사람들을 지도하고 있다.





MBC-TV & SBS-TV
"오픈 스튜디오" 교재!



책 이 름 : 무심(無心) · 사람은 어떻게 자유로워지나
저 자 : 문 화 영
가 격 : 9,000원

도서출판 수선재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274-1, 2층
TEL 02)391-9315 FAX 02)391-9314
WWW.SOOSUNJAE.COM

· 〈무심〉에 소개된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무심 명상법은
명상학교 수신재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www.soosunjae.org, 1544-1150)

명상 음악가 나왕케촉 · 츄키 내한 공연
7월 7일 인천 서구문화회관 대강당

티베트 출신의 세계적인 명상 음악가인 나왕 케촉(50)과 국민가수 츄키(48)가 한국무대에 나란히 선다. 호주에서 활동하다 최근 미국으로 무대를 옮긴 나왕 케촉은 츄키와 함께 인천불교청소년연합회(회장 선일 스님) 초청으로 7월 7일 오후 7시 인천 서구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성매수 대상 경험 청소년 쉼터 운영 기금 마련 음악회를 갖는다. 이에 앞서 6월 28일 안국동 탄트라 사무실에서 나왕 케촉과 츄키를 만났다.

자연의 고요한 울림



츄키
첫 앨범에 달라이 라마가 제목
전통 음악에 현대적 요소 접목
민요 · 만트라 등 장르 다양

짜내는 듯한 고음의 티베트 전통 창법에서 나오는 소리를 통해 동양적 정서를 잘 대변해 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츄키.



나왕 케촉
자연 · 불교 · 법문에서 영감 얻어
밴브 플루트 이용 내면세계 표현
명상 게임, 다큐멘터리 제작 계획

'음악은 다양한 세계를 이어주는 다리'란 생각을 가진 나왕케촉은 사찰 · 교도소 · 콘서트장 등 어디든지 찾아가 내면의 음악을 전한다.

■ 츄키(Kelsang Chukie Tethong)는?

츄키는 월드 뮤직 분야에서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며 티베트 민족 음악을 알리는 대표적 뮤지션이다. 티베트 본토에서 태어나 어린시절 히말라야를 넘어 인도의 다람살라에 망명했다. 특히 그녀는 달라이 라마가 1950년에 티베트 문화 예술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설립한 티베트공연예술협회(TIPA)에서 11년간 춤과 성악, 악기 수업 등을 받으며 수석 졸업한 재원으로 티베트 국민 가수로 칭송 받고 있다. 매년 유럽과 미국 등 해외 순회공연과 달라이라마의 생일 및 국제적인 티베트 행사에 참여하며 티베트 독립을 위한 음악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는 달라이 라마의 수석 비서겸 장관인 남편과 함께 다람살라에서 호텔을 경영하며 살고 있다.

티베트 공연 예술협회 수석 졸업
국민 가수 칭송, 홍보대사 활동

▲한국에서 몇번째 공연인가?
나왕케촉 : 다섯 번째이다
츄키 : 첫 번째다.

▲음반은 몇 개 정도 냈는가?
나왕케촉 : 'Sound of Peace' 'Quiet Mind' 'In A Distant Place' 등 4개의 독집 음반과 키타로, 카를로스, 나가이 등의 공동 뮤지션들과 작업한 5개의 공동 음반을 발표했다.
츄키 : 달라이라마가 음반 제목을 지어준 첫 앨범 'Voice from Tara' 와 'Where The Heart Blossoms' 등 2개가 있다.

▲음악 세계를 소개한다면?
나왕케촉 : 음악은 메마르고 삭막해져 가는 세상에 평화와 자비를 주는 가장 힘있는 도구 중 하나다. 내 음악은 이 강력한 도구를 이용해 듣는 이들에게 고요한 내면의 상태 즉 우주의 세계에 닿게 하려는 시도이다. 침묵과 명상은 우주로 통하는 문이기 때문이다.
츄키 : 티베트 전통 음악에 현대적 음악 요소를 접목해 티베트 유목민의 삶이 담긴 민요에서부터 티베트 불교의 만트라(기원문)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부르려고 한다.

▲소재는 어디에서 찾는가?
나왕케촉 : 밴브 플루트(일종의 대금)로 주로 연주하는데, 히말라야의 산과 계곡 등 자연에서 곡의 모티브를 따온다.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자연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인간의 감정을 조절하고 평화롭게 만드는 데는 자연 만큼 좋은 것이 없다. 또 경전과 달라이 라마의 법문에서 받은 영감을 음악으로 옮기기 위해 노력한다.
츄키 : 티베트 민속 노래의 종류는 다양하다. 자연과 산의 노래, 일할 때 부르는 노래, 스승에 관한 노래, 불교를 찬탄하는 노래 등 많다. 나역시 불교와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노래를 좋아하고 즐겨 부른다. 단 어떤 노래를 부르든 점점 없어져 가는 티베트 고유 음악을 현대적으로 복원하려는 화두는 놓지 않는다.

▲앞으로의 계획은?
나왕케촉 : 나를 주제로 한 비디오 게임이 미국에서 출시됐다. 게임 프로그램 안에 들어 있는 내 이름의 버튼을 누르면 내가 들려주는 명상법과 음악을 통해 게임으로 심장 박동이 빨라진 게이머들이 마음을 고요히 가라 앉힌다는 컨셉이다. 일종의 명상 치유 프로그램이다. 올해 안에 새로운 프로젝터로 2~3개 정도 더 출시될 예정이다. 또 티베트 스님들의 명상과 불교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를 내년에 제작할 계획이며, 미국과 일본 등에서 국제 콘서트도 몇 차례 가질 계획이다.
츄키 : 이번 한국 공연이 끝나면 올해 9월 일본의 동경에서 열리는 '티베트의 날' 기념 행사에서 공연한다. 그리고 음반을 통해 티베트의 전통과 현대적 음악을 접목하는 시도를 계속할 예정이다.

글=김주일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 나왕 케촉(Nawang Khechog)은?

달라이 라마의 사상과 티베트의 문화를 음악으로 전 세계에 전하는 문화 전도사. 11년간의 승려생활과 히말라야 산 기슭에서 은둔자 생활을 하다 음악가로 변신, 티베트의 전통적인 악기를 이용한 음악을 널리 알린 최초의 티베트 음악가다. 지금까지 모두 10여장의 음반을 발표했으며 3차례나 그래미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또 영화 '쿤둔'의 영화음악을 맡았던 필립 그래스와도 음악적 교류를 하고 있으며, 브래트 피트가 주연한 영화 '티베트에서의 7일'의 영화음악을 맡은 것으로도 유명하다. 특히 89년 달라이라마의 노벨평화상 수상식에서 축하음악을 연주하기도 했던 나왕케촉은 96년부터 매년 열리는 티베트 독립 콘서트에 참여하고 있다.

승려생활 후 음악가로 변신
영화음악 제작으로 유명

부처님의 법음이 넘치는 륜장(輪藏) 묘음 법륜장(妙音法輪藏)



묘음 법륜장 개금
₩1,080,000 → 864,000



묘음 법륜장 청동
₩550,000 → 430,000

사용법
묘음 법륜장 전면에 사람이 2M이내 접근시 인체감지센서가 감지하면 전자회로가 작동, 에밀레 종소리(3번)와 새소리, 바람소리가 발생과 동시 목탁소리가 함께 반야심경(인천시지정 무형문화재 제 10호 범패작법보유자 김능화 스님)독송이 울려퍼진다. 이때 여의주는 시계방향으로 회전하고(1분 1회)LED전구는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면서 5색의 찬란한 빛이 여의주표면 글자에 비춰지며 화엄경의 상단부분에 불꽃형상이 나타난다. 작동시간은 4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꺼지고 다시 감지센서에 사람이 감지되면 재작동을 반복한다.

* 본 제품 음성칩은 원하는 음성를 재 취입할 수가 있습니다.

30대 특별할인 한정판매

판매처 불교문화상품 전문쇼핑몰 마하몰 Mahamall.co.kr
주문전화 02-732-1520
마하몰에 오시면 3,000여종의 불교문화상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숲속의 절 육지장사 특별수련회
청소년과 가족을 위한 산사축제

명상과 소리의 만남 락 페스티발

서울 도심에서 가장 가까운(광화문. 승용차 45분거리) 숲이 우거지고 산새 소리 끊이지 않는 백옥으로 장엄된 도량 도리산 육지장사에서는 도심인의 되풀이되는 일상생활속에서 심적 불안과 갈등, 온갖 스트레스로 찌든 삶을 한순간이라도 정화하기 위한 특별한 여름휴가 수련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고전과 현대를 넘나드는 아주 특별한 수련회!
고요적정해야하는 명상과 시끌벅적 요란한 락뮤직의 만남!
어찌보면 극과 극의 대립같지만 이것은 모든 것으로부터 해탈인 인간적 깨달음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동참하시어 마음의 번뇌로부터 오는 고통과 육체적 긴장에서 해방되는 건강하고 행복한 행운을 맞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 수련일시 : 2004년 7월 31일(토) 오후 2시 ~ 8월 1일(일) 밤 10시
- 장 소 : 도리산 육지장사(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 주 최 : 대한불교조계종 삼보사
- 프로그램 : • 제1부 - 명상 · 관행수행
  • 제2부 - 젊음이 폭발하는 락 페스티발공연 (공연은 무료, 누구든 참석 가능)
  7월 31일(토) 밤 8시 ~ 10시(출연진 : 가이야, 베베, 블랙홀) 선 무용단 이선옥교수외 그제자
  8월 1일(일) 밤 8시 ~ 10시(출연진 : 보리즈, TO, 블랙신드롬) 선 무용단 이선옥교수외 그제자
- 수련동참금 : 삼만원(숙박 수련생에 한함)
  계좌번호(하나은행 110-082213-00105 예금주 삼보사)
- 인 원 : 150명(숙박 수련생 선착순 접수)
- 문 의 : 031)871-0101(육지장사), 02)352-6406(삼보사)
  홈페이지 www.yukjijangsa.org (한글도메인 육지장사)

안양규 교수의
경전이야기 <27>



내 생명이 소중한 것처럼

생명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 풀 한 포기에서 인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체는 행복하게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자 한다. 자신을 해치는 폭력을 모든 생물은 두려워하는 것이다. 인간은 다른 동 · 식물에 비해 붓다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뛰어 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소중하다고 부처님은 역설하고 있다. 먹이사슬에 얽혀 있는 동물들은 약육강식의 물리적인 힘의 법칙에 구속되어 있지만 인간은 도덕적인 양심을 지니고 있어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여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생명체에게 자비를 베풀어 더불어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인간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폭력과 살생을 일삼는다면 그런 사람은 인간의 모습을 한 악귀(惡鬼)에 불과하다.

이라크에서 참수당하기 직전 촬영된 고 김선일 씨의 절규를 방송을 통해 들은 사람들은 슬픈 감정이 격렬하게 일어나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복면을 한 무장 괴한들이 뒤에 서 있고 김씨는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외치고 있었다. "나는 살고 싶습니다(I want to live). 나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I don t want to die). 당신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그리고 나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Your life is important and my life is important)." 이 몇 마디 외침에서 우리는 김 씨의 절박한 심정을 통감할 수 있었고 그의 말이 진실임을 공감한다. 당신에겐 당신의 생명이 소중하듯이 나에겐 나의 생명이 소중하므로 서로 해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의 소원대로 그의 생명이 유지되기를 간절히 바랬다. 국민들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참하게 참수 당하고 말았다. 국민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는 중에 그가 피랍된 직후에 촬영된 그의 모습을 방송에서 볼 수 있었다. 그는 납치범들에게 자신이 결코 그들의 적이 아니라는 것을 온 몸으로 설득시키고 있었다. 우리는 살생이란 폭력을 피해보려는 김 씨의 애절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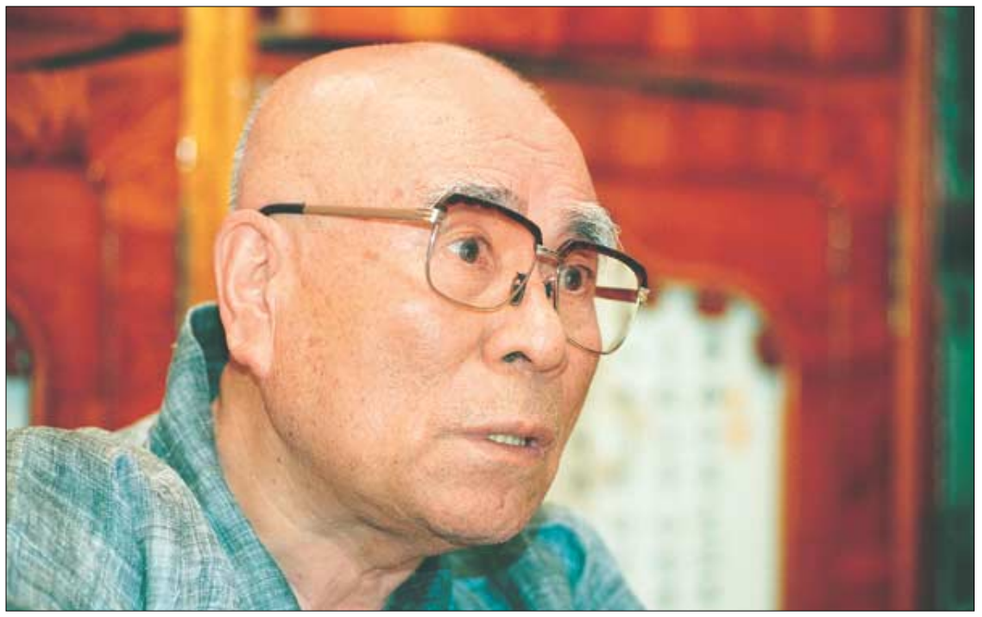
<잡보장경>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귀자(鬼子)의 어머니는 늙은 귀신의 왕 반사가의 아내로서 1만 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모두 역사(力士)의 큰 힘이 있었다. 제일 작은 아들은 이름이 빈가라(嬪伽羅)였다. 귀자모는 흉악하고 요사하며 사나워 사람의 아이들을 잡아먹었으므로 사람들은 걱정하여 부처님께 아뢰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신통력을 사용하여 발우로 막내아들인 빈가라를 덮어 감추었다. 막내아들을 잃고 7일간 여기저기 천하를 헤매었으나 찾지 못하자 거의 광란에 빠진 귀자모는 남들이 전하는 말에 일체지(一切智)를 갖추시었다는 부처님의 명성을 듣고 부처님께서 계신 곳을 방문하여 자신의 아들이 어디 있는지를 여쭈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1만 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가운데 하나의 아들을 잃고서 그다지도 고뇌하는가.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이는 한 아이를 두고 또 어떤 이들은 다섯이나 셋을 두기도 한다. 그런데 네가 살해하였으니 그 부모들의 비통은 어떠하겠느냐." 그러자 귀자모가 말씀드렸다. "제가 지금 만약 막내아들을 찾는다면 다시는 세상 사람들의 아이를 살해하지 않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말을 듣고 귀자모에게 발우 밑에 있는 아들을 보게 하였다. 귀자모가 신력을 다하여 아이를 잡아당겼으나 구하지 못하자 다시 부처님께 돌아왔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지금 능히 삼귀의와 오계를 받아서 수명이 마칠 때까지 살생을 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네 아이는 돌아오리라."

귀자모는 수많은 자식을 두고 있으면서도 단 한 명의 자식이 보이지 않자 격심한 고통에 빠졌다. 다른 부모의 자식을 죽이면서도 피해자나 그 부모의 고통은 알지 못했다. 어떤 원한을 품고 그 원한과 직접 관련이 없는 아이를 죽이는 귀자모의 모습이 선량한 시민을 살해하는 이라크 테러리스트의 모습과 일치한다. 생명은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다. 돈이나 이데올로기나 종교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자신의 이익이나 신념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해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무고한 젊은이를 죽인 테러리스트에 온 국민이, 심지어 아랍인조차도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테러리스트의 주장이 정당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지는 간단히 판정하기 어렵다. 복잡다단한 국제정치, 세계경제, 종교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군인도 아닌 외국 시민을 인질로 삼아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폭력적인 방법은 절대 잘못된 것이다. 다시는 살생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귀자모는 다시 아들을 되찾을 수 있었다. 살생은 더 많은 폭력과 고통을 낳는다는 것을 테러리스트는 명심해야 할 일이다. 부처님께서 5계 중 불살생계를 제일 먼저 두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아들 1만명 둔 악귀, 자식 하나 잃고 비탄
자기가 죽인 아이 부모의 고통 헤아리지 못해

동국대(경주) 불교학과



"그대의 마음이 본래 부처이니 부처행을 하며 살아가라"는 덕해 스님. 학교법인 보문학원 이사장으로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와 보문 중 · 고등학교를 성공리에 경영중인 스님은 수도권에 여자 중 · 고등학교 설립을 발원하고 있다.

"인재·복지 불사가 곧

지상 백고좌

덕해 스님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이사장)

"큰스님, 구들장은 고치셨어요?"

"아니요, 아직 그럭저럭 살고 있습니다."

안양 보장사 주지 덕해 스님(보문학원 이사장)을 친견한 것은 3년전. 보장사청년회 활동을 취재하러 갔다가 우연히 공양간에서 스님을 뵌 적이 있었다. 마침 겨울이었는데도 스님은 방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 냉방에서 지낸다는 것이었다. 신도회 간부로부터 일흔이 넘은 노스님이 냉방에서 지내며 정재(淨財)를 아끼고 아끼면서 보문 중 · 고등학교와 안양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다는 말을 듣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었다. 6월 26일 오후, 스님은 아직도 당신 처소의 보일러를 고치지 않은 채 인재불사에만 전념하고 계셨다. 일상사 그대로가 수행이자 기도인 스님으로부터 일과 수행이 하나 되는 도리와 참 불사의 의미에 대해 들어보았다.

사찰 정재 금쪽같이 아끼며 한겨울 냉방서 생활
"만물 움직이는 힘 일상에 있는데 어디서 뭘 찾나"

나는 신도들에게 주로 <금강경>과 <법화경>을 강의하곤 합니다. 요즘엔 <법화경>을 강의 중인데, 늘 <법화경>의 본래성불(本來成佛)과 공덕(功德) 사상을 강조합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불법의 핵심을 설한 <법화경>은 현대인들이 자신이 부처임을 깨달아 '부처 행'을 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일불승(一佛乘)의 가르침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늘 일념으로 살아왔습니다. 출가한 이래 50여년 동안 줄곧 교육과 복지, 포교사업을 수행이라 여기고 매진해왔습니다. 나 자신의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나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이로운 길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도 새벽 3시에 어김없이 일어나서 초발심 시절의 행자 때와 마찬가지로 목탁을 치며 예불을 올리고, 타종도 직접 합니다. 일상 그대로가 진법(眞法)이자 진불(眞佛)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가만히 두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만, 찾아내 일으키면 만물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일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달리 어디에서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가부좌 틀고 참선을 하는 것만이 수행이 아닙니다. 앉아 있어도 서 있는 생각을 하면 서 있는 것이요, 서 있어도 앉아있는 생각을 하면 앉아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수행을 해도 번뇌에 사로잡혀 있으면 수행이 아니요, 사소한 일을 해도 번뇌와 망상이 없이 고요하면 그것이 곧 수행인 것입니다.

한 작은 사찰이 어떻게 불교전문대학원과 중 · 고등학교, 노인복지센터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지 놀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원력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정재를 철저히 관리하면서 살다보니 모든 일이 자연스레 이루어졌습니다. 절 안에서나 밖에서나, 어려울 때나

피 흘리는 부처님의 영험 도량 가평 원흥사 (세계불교 법왕종)

신묘장구 대다라니 진언 7일 정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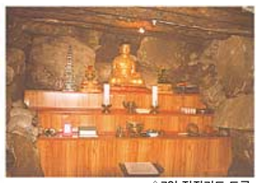
부처님의 영험이 가득한 원흥사에서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는 마음으로 지극정성 7일 정진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고통 받는 마음이 간절한 기도로 치유되고, 소원하는 바가 성취되도록 무루 동참하시어 이루시기 바랍니다.

옛이야기로는 삼국시대 원흥가라는 곳이 이곳이었는데 이절의 스님이 불법은 물론 부처님의 자비로움으로 병을 치료하는 신비한 힘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이곳을 찾는 신도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으며 특히 이절을 찾아 많은 신병을 치료했다고 하고, 이때부터 이절이 있던 곳을 불심의 터전이라 하여 원흥 부락이라 불리워졌습니다.

옛절은 일제시대때 소실되었으며 소승 구천이 복원 불사 중 땅속에 묻혀있던 두 부처님을 발견하고 정성껏 관욕하여 새롭게 금으로 개금하여 원흥사에 모셨고, 이 부처님께서 기이한 피흘리는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일 정진기도 토굴

기도안내
7일 정진기도
(신묘장구 대다라니 진언기도)
● 입재 :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 회향 :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찾아오시는 길 ✪ 서울에서 포천 일동 방향 신팔 사거리에서 현리(37번 국도) 방향 10분. 청평에서 포천 방향 20분.

경기도 가평군 상면 태봉 2리 494-1 전화 031)585-2090 원흥사 주지 구천 합장

관상학 특강반 모집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12시)

▶ 지선법사 직강 ◀ (현재 방송국에서 강의 중)

사주로 볼 수 없는 찰색 ! 특강반에서는 기초와 이론을 속성강의

완벽한, 실제 감정 완전 정복

(취업보장) "ARS 대동정보통신에서 후원"

사단법인 한국기문미래 연구학회

전철 5호선과 7호선 환승역 군자 3번 출구 조흥은행 88m

현재 미달 접수 3명만 제한. 접수 연락처 02)454-3368

사주학 특강반 모집

매주 수요일 - 금요일 (오전 10시 ~ 12시, 오후 4시 ~ 6시)

▶ 신기문 선생과 송강선생 직강 ◀ (현재 방송국에서 강의 중. i-TV. SBS 출연함)

평생 직업 ! 특강반에서는 직접 영업할 수 있게 속성강의

오행의 기초부터 완벽한 이론 및 실제 감정 완전 정복

(자격증, 취업보장) "ARS 대동정보통신에서 후원"

사단법인 한국기문미래 연구학회

전철 5호선과 7호선 환승역 군자 3번 출구 조흥은행 옆

미달 접수 5명 제한. 접수 연락처 02)454-3369

지선법사의 운명 특별상담 접수 中

편안할 때나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불가능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정성을 다할 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삼매'에 들 것이요, 일하는 사람은 '일 삼매'에 들 수 있습니다. 일과 수행이 둘이 아니기에 매사에 정성껏 임하면 만사가 형통하는 이치입니다. 어떠한 영험도 신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처음이나 중간이나 끝이 똑같은 신심으로 꾸준히 정진하는 데에 모든 불사성취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신도들에게도 수행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공부하는 마음으로 살라고 말합니다. 한 생각에 500번의 생멸(生滅)이 일어난다고 했듯이 번뇌망상은 쉬지 않고 일어납니다. 때문에 '한 생각 일으킬 때가 공부할 때'입니다. 신도들이 절에 가려는 마음을 내는 그 순간부터 이미 공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절에 간다는 마음가짐으로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서 법당에 들어오는 순간까지가 정진입니다. 그렇게 자주 절에 오다보면 절에 있거나 집에 있거나 상관없이 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결제와 해제가 따로 없이 항상 마음 공부를 하거나 기도하며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교육입니다. 하지만 지식교육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인성교육이 뒷받침돼야 해요.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부처님 사상을 심어주는 것이죠. 광명과 평화의 세계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깨침의 진리가 우주에 두루해야 합니다. 이 맑고 밝은 빛은 인간 내면의 불성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의 목표는 불성을 깨쳐, 무아의 인격으로, 불국정토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재양성을 가장 중요한 전법으로 생각하는 것은 스승이신 관응

한생각 일어날 때가 공부할 때
계율 지키고 인과법 잊지말라



덕해 스님은 "일상 속에서 매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사는 것이 수행"이라고 당부한다.

수행이지"

큰스님의 덕화 때문이었습니다. 은사스님께서는 일찍이 일본에 유학하시어 내전, 외전을 회통하셨을 뿐만 아니라 수행력 또한 대단하셨지요. 속가(속질간) 인연도 깊었으나 제대로 부처님의 길을 배우기 위해서 관응 큰스님의 문하로 들어갔습니다. 은사스님은 유가 집안에서 태어나 선비의 기질을 타고난 분이셨습니다. 종단의 원로이면서도 일체의 자리에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일신의 편안함이나 명예 보다는 오로지 부처님 법 배운 은혜를 회향하시겠다는 원력을 갖고 계셨지요. 그 어른의 학덕과 생활을 보고 배우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은사스님은 늘 신심을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게 인연으로 생겼다 멸하는 것이니 신심으로 선업을 쌓으라고 당부하셨지요.

참선과 기도, 독경을 할 때도 늘 신심을 잊지 말라 하셨습니다. 스님께서는 늘 계율을 철저히 지키고 인과의 도리를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 삼보정재를 허투루 쓰는 것을 절대 용납치 않으셨습니다. 사실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이야말로 부처님 가르침을 가장 잘 따르는 것이고, 어떤 원(願)이든 성취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스승을 오랜 세월 모시고 살면서 그 영향을 받은 것이 수행생활에 가장 큰 힘이 된 것 같습니다.

부처님 가르침 자체가 바로 교육입니다. 그동안 청년회, 학생회를 운영해 보니 잘 안되더군요. 결국 사찰에서 힘겹게 청소년 포교를 하는 것도 좋지만 제도권 종립학교를 통한 포교가 가장 효과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문 중·고등학교만 해도 1년에 1천여명이 수계를 받아 불자가 되고 있습니다. 불교를 통해 자연스럽게 정신순화가 되고 인성교육이 되다보니 우수한 인재가 배출되어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단이나 스님들은 우선적으로 인재불사에 힘을 기울여 불교의 백년대계를 도모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리=김재경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궂은일에 임자 있나… '일꾼 부처'로 통해

덕해 스님은 일흔을 넘긴 세수에도 도량 청소, 새벽 종성 등 행자들이 할만한 궂은 일을 몸소 행하는 큰스님. 학교법인 보문학원 산하의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와 보문 중·고등학교, 안양노인복지센터, 보장사 영각당 등 여러 기관을 책임진 바쁜 몸이지만 그 흔한 자가용도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신다. 덕해(德海) 스님은 잡다하고 궂은 일이라도 아래 사람을 시키는 법이 없고, 계율을 철저히 지키는 까닭에 신도들로부터 '일꾼 부처'라고 불리운다. 개신교인인 안양시장이 안양노인복지센터를 잘 운영하고 있는데 대해 감사하며 적극 협조할 정도로 지역에서도 존경을 받고 있다. 서울신문이 선정한 '2004년 한국을 빛낸 얼굴'에 선정될 정도로 불교의 사회적 회향에 큰 성과를 일궈 온 덕해 스님은 여자 중·고등학교를 설립하겠다는 또 하나의 원력을 세우고 있다.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김봉희 상무이사는 "청렴한 생활로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남을 위해 봉사하는 스님의 보살행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다"며 "특히 스님의 인재불사와 포교사업은 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1932년 경북 상주에서 출생한 덕해 스님은 지난 3월 입적한 직지사 조실 관응 스님의 맏상좌이자 친조카이기도 하다. 1952년 경북 예천 용문사에서 관응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1959년 김천 직지사에서 사교과를 수료하고, 1960년 부산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은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1968년 안양에 보장사를 창건하고 1982년에는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을 설립해 활발한 포교활동을 벌이고 있다. 현재 불교안양원 이사장, 1990년에 인수한 학교법인 보문학원 이사장, 2000년 수탁한 안양시노인복지센터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교육·복지불사에 진력하고 있다.



진각 스님의
스님이야기
진명 스님

진명 스님을 처음 본 것은 해인사강원에서다. 스님은 나의 해인사강원 일 년 선배인데, 선배 스님들 중에서도 유난히 기억에 남는다.

해인사강원의 대교반은 4학년을 말하는데, 무섭기로 말하면 도량 안에서 이보다 더한 곳이 없다. 강원의 기강을 입승스님이나 찰중스님이 다스리기도 하지만 학년전체의 규율은 대교반에서 지도한다.

연중 행사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당한 날을 정해서 3학년인 사교반부터 1학년인 치문반까지 대교반이 사용하는 관음전으로 차례로 소집된다. 이때는 강원 전체가 비상이다.

선후배간 질서를 세우는 방법도 대교반은 전혀 힘들이지 않고 한다.



그림 · 문병성

불려가는 당사자들은 우리는 관음전에 들어가기 전부터 어떻게 하면 1시간을 잘 버틸 수 있을까 묘안을 짜내기에 여념이 없다.

관음전 큰방으로 불려가면 선배스님들은 아랫반을 방 가운데 질서정연하게 무릎을 꿇려 앉힌다. 그리고 아랫반 주위에 원을 그리며 빙 둘러 앉는다. 이제 아랫반에 대한 대중공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대중공사는 윗반 학인들이 한사람씩 돌아가면서, 아랫반 학인들에게 지적해야 할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사람이 5분만 말을 해도 열 사람이면 50분이 된다. 꿇어앉아 있는 당사자인 우리들은 30분이 지나면 이마에 땀이 흐르기 시작하고, 1시간이 지나면 졸도하는 사람이 나오게 된다.

아랫반은 행전을 착용하는데, 무릎을 꿇고 앉아 있으면 행전이 오금과 종아리를 더욱 조여서 대중공사의 효과를 높이는데 적절히 기여한다. 그래서 졸도를 하게 되는데, 졸도하는 사람이 나오면 대중공사는 끝난다. 그렇다고 일찍 끝내자고 일부러 졸도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 사람은 신심과 원력이 없는 것으로 대중들에게 각인되기 때문이다.

이때 대교반 선배가 말을 짧게 하거나 적게 하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다. 말이 많거나 길면 윗반이라도 아랫반에 미운털이 박힌다.

그런데 진명 스님은 아랫반에 도대체 경책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냥 합장하면 끝이다. 항상 웃는 얼굴에 오로지 경전 보는 일에만 열심이다. 도량에서 선배를 만나게 되면 후배들은 깍듯이 합장을 해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진명 스님은 싱그러운 미소만 짓고 지나간다. 요즘으로 치면 '범생이'라는 말이 적절할 모범생 스님인 것이다. 한 눈 팔지 않고 경전에만 매달리니 경전실력은 강주 스님에 버금가는 학인이었다.

이 훌륭한 스님을 강원 졸업하면 자주 보지 못하겠구나 했는데, 졸업한지 10여년이 지나면서부터는 불교계 언론에 가끔 모습이 보였다. 그런데 내가 포교원에서 근무하기 위해서 원장스님으로부터 면접을 보는데, 진명 스님을 만났다.

나는 너무도 반가워 기쁜 마음으로 인사를 했다. 포교부장 일관스님도 강원 선배인데, 연구실장인 진명 스님까지 선배이니 서울생활에 대한 부담이 한결 가벼워졌다. 두 선배스님의 보살핌

아량 넓고 자신에겐 철저
너그럽고 따뜻한 심성 소유

으로 부족함이 많은 내가 포교원 소임을 그런대로 잘 마친 것 같다.

포교원에서의 진명 스님은 강원학인 때와 다를 바가 없었다. 숙소를 스님은 위층, 나는 아래층을 쓰는데 스님은 언제나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서 일정한 시간에 출근했다. 나는 항상 늑장부리다가 허둥대면서 지각 일보직전에 겨우 도착하는데, 스님은 몇 시에 도착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다니니 시간이 늘 넉넉했다.

또 누구에게나 나무라는 법이 없다. 본인 자신에겐 철저하지만 남에게는 너그럽고, 말을 아끼면서 잘 챙겨준다. 타고난 천성이 남에게 싫은 소리를 못한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생활화되어 있으니 진명 스님이 가는 곳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저절로 형성된다. 항상 빵빵하게 풀먹인 무명옷에 꼿꼿한 자세가 몸에 밴 진명 스님은 무비 스님(현 범어사 강주)의 맏상좌다.

그러고 보니 조계종 포교원은 원장스님부터 부·실장 스님까지 모두 맏상좌라는 공통점이 있다. 원장 도영 스님은 월주 스님 맏상좌, 포교부장 일관 스님은 일면 스님의 맏상좌이다.

윗 사람이 아랫 사람을 애정으로 보살피고, 아랫 사람은 윗 사람을 어른으로 깍듯이 존경하니 항상 원만한 분위기다. 어른들이 이런 분위기를 앞장서 만드니 젊은 우리들은 많은 것을 느끼게 된다. 말은 넘치고 사람들이 복닥대는 속에서도 고독감이 느껴지는 요즘 세태지만 포교원의 어른 스님들에게서, 인생의 즐거움이 말보다는 실천에 있음을 배웠다. ■ 해인사 원당암

현대불교신문
창사10주년
독자사은대잔치

※ 탄허스님의 육성법문 일부분은 탄허닷컴(www.tanheo.com) 육성듣기 코너에서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출고정가 15만 2천 6000원
참고교재 1권 포함
5만원(74.8%할인)

단!
"500분"제만!
기회를 드립니다

<<탄허스님의 佛·儒·仙·華嚴 특강(CD18매)>>

탄허스님 육성 강의
(동양사상 특강 CD)



탄허 대종사께서 1977년과 1982년 동안거 기간에 전국 강원의 중강이상의 스님 80여 명을 대상으로 하루 8시간씩 강의한 내용을 녹음한 250여 개의 테이프를 간추려 18장의 CD에 담아 처음으로 공개하는 스님의 육성 강의

■ 판 매
책 방 : 여시아문 전화 02)737-0695(www.yosiamun.com)
마 하 몰 : 주문전화 02)732-1520 (www.mahamall.co.kr)
주 소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3

불교성지순례
17년간 불자님들과 함께합니다

(주)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앞 (02)720-9600

부처님의 숨결을 느낄수 있는 성지순례!!

특선
대한항공전세기
중국 오대산 성지 순례 4일
599,000원

문수보살의 도량 오대산과 중국 3대 석굴 중 하나인 운강석굴, 응현목탑, 현공사등 성지를 대한항공 전세기 편으로 편리하고 저렴하게 참배할 수 있습니다. ● 출발일 : 9월 17일

■ 파키스탄, 카라코람, 실크로드 13일 293만원
대승불교와 불상의 탄생지 간다라의 불교성지와 수많은 불상을 참배하고 실크로드를 따라 파미르 고원(총령)을 넘어 우루무치 까지 불교가 전래된 전법의 길을 따라 순례하는 실크로드 코스
● 출발일 : 8월 10일
● 일 정 : 파키스탄 라호르-탁실라-페샤워르-스와트-칠라스-길기트-훈자(세계 최 장수 마을)-카슈카르-쿠차(천불동)-우루무치

■ 티벳, 네팔 일주 12일 259만원
티벳의 라사에서 히말라야를 넘어 카트만두까지 일주하는 신비로운 티벳의 불교성지를 찾아서
● 출발일 : 8월 3일, 9월 3일
● 일 정 : 라사-포탈라궁-장체-시가체-라체-시가(에베레스트등 히말라야 조망)-장무-카트만두



풍자 해학 마당극 축제 '풍성'

열림터의 마당극 '집' 공연 모습. 사진제공=민족극협

부안 등 5개 도시서 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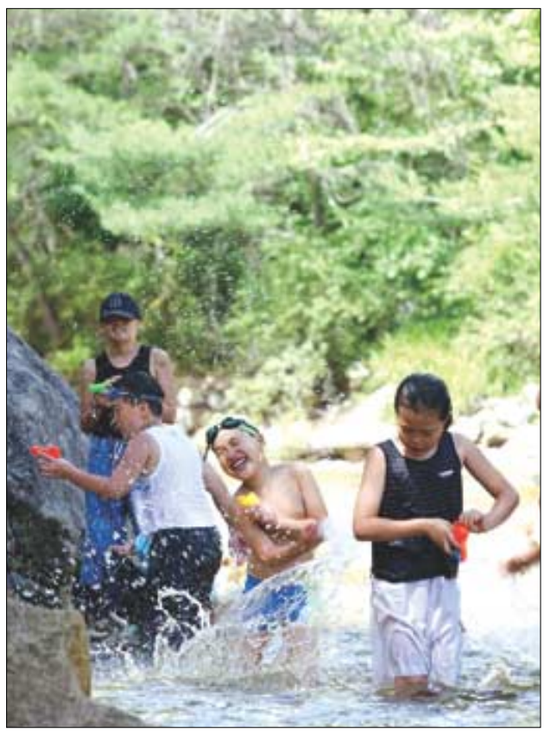
탈춤 풍물 판소리 등 전통 민속연희를 계승 발전시킨 마당극. 부안 영동 등 5개 도시들은 7월부터 한판 신명나는 마당극으로 후끈 달아오른다.

한국민족극운동협회(이하 민족극협회)는 7월 8일부터 10월 31일까지 부안 원주 영동 창원 진주 등지에서 14개 마당극 단체가 펼치는 '찾아가는 마당극 큰 잔치'를 준비했다.

핵폐기장 건설과 관련해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환경마당극(부안), 3일 동안의 장승굿 역사체험 농사체험 풍물마당(원주), 심우성의 '결혼굿' 유순웅의 '염쟁이 유씨' 등 다양한 1인극과 탈춤공연(영동), 창원 지역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노동극과 풍물굿(창원) 등도 아주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다.(02)2278-5818 강유신 기자

일 시	장 소	작품(공연단체)
7월8~9일	부안 핵폐기장건립반대 부안성당 등	버터플라이(갯돌) 다시온 취발이 (현장) 북어가 끓이는 해장국 (우금치) 소리없는만가(한두레)
7월 17~18일	원주시 부론초등학교	집(열림터) 밥굿(모두골) 뻘소리(갯돌) 세경놀이(한라산)
8월 1~2일	영동군 용화면 자계예술촌	꽃등들어 님오시면(신명) 세경 놀이(한라산) 귀향(열림터) 소리없는 만가(한두레)
8월 21~22일	창원 성산아트홀 소공연장	흥부네 박터졌네(큰들문화센터) 날아라 나비야(토박이) 지키는 사람들 (함께사는 세상) 북어가 끓이는 해장국(우금치)
10월 30~31일	진주 문산읍	꽃등들어 님오시면(신명) 영도다리(자갈치) 지키는 사람들 (함께사는 세상) 날아라 나비야(토박이)

설레는 여름캠프 어디로 갈까



"신나는 여름방학이다." 부다피아 어린이 캠프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사찰 · 불교단체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눈앞으로 성큼 다가온 여름방학. 이제 슬슬 알찬 방학을 보내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할 때다. 그러지 않으면 1달 반의 시간은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기 마련. 이런 사정을 잘 아는 하계 청소년 캠프가 문을 활짝 열고, 청소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현대불교신문사의 '부다피아 어린이캠프'는 장소를 미국 하와이로 옮겨 열린다. 7월 29일~8월 19일 하와이 무량사에서 열리는 이번 캠프는 외국인 친구들과 놀며 영어와 미국생활 등을 배우는 기회다.

파라미타청소년협회는 8월 4~7일까지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청소년과 함께 달리는 희망'을 주제로 제7회 파라미타청소년 연합캠프를 실시한다. 이번 청소년캠프에는 백일장 대회, 사경 체험 및 전시회, 음악놀이 페스티벌 등과 법주사 참배, 스님 강연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

청소년교화연합회는 7월 28~30일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관에서 2박 3일로 '리더십 그린 아이' 주제의 리더십 함양 캠프를 개최한다. 리더십을 기르기 위한 발표 및 경청 연설과 연설문 작성 신문제작을 비롯, 스킨스쿠버 요가 산악 트래킹 등 풍성한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구로청소년수련관도 8월 12일 강원도내 한탄강에서 '자연아~ 함께 놀자' 레프팅 캠프를 연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청소년 캠프 및 수련회 일정

개최 단체	날 짜	연락처
현대불교 부다피아 어린이캠프	7월 29일~8월 19일	(02)722-4162
진각종 자성동이연합캠프	7월 26~28일	(02)913-0751
총지종 어린이수련회	7월 26~28일	(02)552-1080
파라미타청소년협회 청소년연합캠프	8월 4~7일	(02)723-6165
청소년교화연합회 리더십 그린아이 캠프	7월 28~30일	(02)735-8165
양정청소년수련관 영상창작캠프	8월 9~11일	(051)868-0750
구로청소년수련관 신나는 문화학교	8월 12일	(02)838-1318
우리는선우 국제청소년캠프	8월 11~26일	(02)2278-8675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여름가족캠프	8월 5~7일	(02)733-1884
불교환경연대 불교생태학교	7월 23~25일	(02)720-1654
법장사 여름불교학교	7월 25~27일	(02)971-1331
도선사 〃	7월 21~23일	(02)933-3161
봉은사 〃	7월말~8월초	(02)3218-4815
봉선사 여름수련회	7월 24~26일	(031)527-1958
길상사 맑고향기롭게 수련	7월 25~28일	(02)3672-5945
용주사 불교학교	7월말	(031)234-0040
사나사 여름불교학교	7월 23~25일	(031)772-5182
영평사 여름숲속학교 등	7월 23~25일	(031)857-1854
흥국사 여름불교학교	8월말	(031)381-7970
용주사 〃	7월말	(031)855-5503
통도사 여름수련회	8월 1~4일, 6~8일	(055)382-7182
해인사 〃	8월 3~5일	(055)931-1001
청암사 여름불교학교	7월 24일	(055)437-0038
삼보사 〃	7월 10일	(053)763-5223

※단체에 따라 추가일정 있음



연꽃중의 여왕으로 꼽히는 '백련'.



'홍련'.

7·8월 연꽃바다로 오세요

전국 각지서 축제 잇따라

더러운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 부처님의 가없는 깨달음을 상징하는 연꽃은 오랫동안 수많은 불자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7월과 8월, 전국의 사찰과 단체들은 연꽃의 아름다움과 다양한 문화 행사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연꽃축제를 열고 있다.

매해 7월이면 연꽃축제를 여는 사찰은 서울 봉원사 남양주 봉선사 보성 대원사 강화 선원사 등. 봉원사는 매년 연꽃축제와 영산재 시연 행사를 함께 열고 있으며 봉선사가 개최하는 연꽃축제에서는 백일장 사생대회 사진전 등을 비롯, 설봉스님의 도예전 영산대제 산사음악회의 즐거움도 함께 맛볼 수 있다. 대원사의 연꽃축제는 8월 30일까지 열린다.

선원사는 7월 24일부터 제2회 '논두렁 연꽃축제'를 준비한다. 연꽃 구경뿐만 아니라 연잎 자연염색 대장경 판각 체험 연 요리 연꽃 민화 그리기 연꽃 주제의 사진전 등 이색적인 행사가 방문자들을 기다린다.

연꽃 볼 수 있는 곳	날 짜	연락처
서울 봉원사	7월 17일	(02)392-3007
남양주 봉선사	7월 23일	(031)527-5974
보성 대원사	8월 30일까지	(061)852-1755
강화 선원사	7월 24일~8월 1일	(032)934-8484
영남불교대 칠곡법당	8월 15~22일	(053)312-8221
전남 무안 백련축제	8월 14~22일	(061)450-5114
향백련축제	8월 5~12일	(031)775-1834
여술마을 연꽃축제	7월 9~17일	(011)353-2707
태안 연꽃축제	8월 1~15일	(041)670-2544

※단체에 따라 추가일정 있음

무안군이 여는 무안백련대축제는 8월 14일부터 22일까지 열리며 연꽃무용 창작타악공연 백련퍼포먼스 연꽃사진촬영대회 등도 즐거운 구경거리. 앙평 용문사 인근 용담리 연꽃 테마 학습장인 세미원의 '향백련축제', 성남 중구청이 준비하는 '여술마을 연꽃축제'도 가볼만하다. 강유신 기자

전시

그림 인생 70년 한눈에

김흥수 화백 초대전 19일까지 세종문화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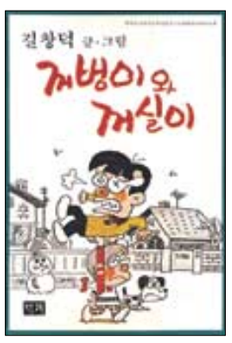
김흥수 화백의 승무도.

세 차례의 척추 수술을 극복하고 끝없는 창작욕을 불태우는 김흥수 화백의 작품 전시회 '김흥수화백 인생 85 초대전'이 7월 19일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다. 김 화백의 70년 그림 인생을 한 눈에 살펴보는 기회.

이번 전시회에는 50년대 프랑스 유학 시절, 60~70년대 초 미국 필라델피아 시절, 73년 '하모니즘' 선언 이후 현재까지의 작품세계를 담은 '승무도' '고국을 그리는 용진이' '세 얼굴' '한국의 환상'이 벽에 걸린다. 특히 1936년 선전 입상작인 '밤의 정물(화방 화재로 소실)'도 실사방법으로 재현돼 관람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02)399-1111

꺼벙이와 추억 속으로

길창덕 만화전 15일부터 서울 · 부천서



◀많은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았던 길창덕 화백의 대표작 꺼벙이.

인기 청소년 만화가 길창덕 씨의 만화 전시회가 7월 8일부터 11월 23일까지 서울과 부천에서 연속적으로 열린다. 제목은 '길창덕 만화세계 50년, 꺼벙이전.'

'꺼벙이' '순악질 여사' '재동이' '신판 보물섬' 등 길씨의 대표적인 작품을 비롯, '아리랑' '실화' 등 대중잡지에 실렸던 그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전시회는 오는 7월 8~13일 세종문화회관 광화문갤러리, 7월 15일~11월 30일 부천 한국만화박물관 내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032)320-3745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서울 FM 101.9 MHZ, 부산 FM 89.9 MHZ, 광주 FM 89.7 MHZ, 대구 FM 94.5 MHZ, 청주 FM 96.7 MHZ, 춘천 FM 100.1 MHZ)

05:45 고승열전
09:05 차 한잔의 선율
02:05 네트워크 연결, 전국은 오늘
17:10 무명을 밝히고
18:00 저녁예불
21:30 BBS 초대석
00:00 살며 생각하며

Btn 불교TV (sky-life:161 케이블: 지역방송사 문의)

7일 11:30 향토음식기행 전통의 손맛
8일 13:10 정세채 교수의 선식건강법
9일 15:10 외국인스님의 영어법문
10일 22:10 충성 성불하십시오
11일 23:40 TV법회-혜능 스님 11회
12일 09:20 불교TV 메디칼
13일 12:00 자비의 천수천안

하이라이트

■불교방송: 정경대 박사의 의명학 강의(7월 9일 14:30~15:10)- 불교TV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건강프로그램 '정경대 박사의 의명학 강의'에서는 동양철학과 불경을 접목시켜 건강한 삶을 꾸리는 방법과 지혜를 전한다.

■불교텔레비전: 행복스튜디오 구효서입니다.(7월 9일 11:10~12:00)- 소설가 구효서와 함께 다양한 문화가 소식, 청취자들의 정감어린 사연을 들어보는 시간. 매주 금요일에는 '생긴대로 병이 온다'의 저자, 한의사 조성태 박사가 출연, 전화로 청취자들의 건강 문제를 상담한다.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고요한 산사에서의 명상



삭막한 도시의 정글을 잠시, 아주 잠시라도 떠난 그곳에서 들려오는 소리. 저 능선 너머 먼 곳에서 산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풍경소리를 들어보는 기회, '고요한 산사'에서 만나요. '선암사의 대나무숲 소리' '산사의 낙엽 밟는 소리'가 담겨있는 '고요한 산사의 명상' CD 2개의 가격은 1만 5천원. 총 41분과 47분.(02)732-1520

게시판

공부합시다



'법률로 본 가족 갈등' 강좌(사진) 불교상담개발원은 7월 8일 오후 2시 서울 조계사 불교대학에서 '법률로 본 가족갈등'을 주제로 곽배희 씨의 교양강좌를 마련한다.(02)737-8803

건강 미용 양육 특강 신길종합복지관은 7월 7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건강, 미용, 아동 양육과 관련한 특별강좌를 실시한다. 선착순 20명 마감. 이외 7월 20~24일 청소년 자원봉사 계절학교, 7월 13, 20, 27일 노인 무료한방 서비스도 마련한다.(02)831-2755

어르신들과 스포츠댄스 금천노인복지관은 7월 9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스포츠댄스의 첫걸음' 주제의 특강과 안과 무료진료를 연다.(02)804-4058

구나라타나 스님 초청 집중수행 서울 보리수선원은 스리랑카 구나라타나 스님을 초청한 특별 집중수행을 7월 17일부터 8월 7일까지 진행한다. 참가비는 주당 15만원.(02)517-2841

반야나마 위빠사나 수행 다음카페 반야나마는 7월 7~11일, 14~18일, 21~25일 등 7차에 걸쳐 김해시 다보선원에서 위빠사나 수행을 실시한다. 매회 50명 선착순.(011)1700-2841

요가특강 부산 미타선원은 매주 화 · 목, 수 · 금요일 오후 5시 20분과 7시 2차에 걸쳐 요가특강을 실시하고 있다.(051)243-8687

즐겁게 떠나요

역사탐방 좋은벗들은 7월 17~18일 전라도 정읍, 전주, 천안 일대로 동학 운동의 현장을 찾아가는 역사탐방을 실시한다.(02)587-8996

문경새재 답사 답사단체 터사랑은 7월 11일 문경새재와 태조왕건 촬영 세트장 등을 둘러보기 위해 답사를 떠난다. 출발은 오전 7시 30분, 서울 안국역.(02)725-1284

함께 해요

청소년 연극체험 구로청소년수련관은 7월 17일 오후 3시 중 · 고등학생 대상으로 '몸짓으로 소통하기' 주제의 연극체험 행사를 마련한다. 접수는 15일까지.(02)838-1318

20면 상식 퍼즐 정답

사	오	정		동		
천		화	중	지	병	
왕			도		고	
문	상				창	고
	고		격			전
	심	기	일	전		주
		도		지	구	의

신행수기

내 인생의 참스승 〈상〉

우선주 (43·충북 진천)

우리는 매일 하루를 산다.

어떠한 억만장자나 재력가라도, 커다란 권세의 권력가라도 매일 이틀을 살 수는 없다. 그가 누구이든 무엇이든지간에 눈을 떴을 때 주어지는 하루는 평등하다 하지만, 그 평등으로 시작된 하루가 눈을 감을 때에는 시작할 때와 같이 평등할 수 있겠는가?

아마도 사람들의 얼굴이 각기 다르듯이 그 하루의 마침도 그러하리라.

벌써 내 인생도 불혹을 훌쩍 넘어 45년이란 세월이 지났다. 그 오랜 시간의 하루하루를 언제나와 같이 시작했지만 그 마침은 한 번도 같은 날이 없었던 것 같다. 그 많은 날들 중에 단 하루라도….



그림 · 김홍인

내겐 몸서리쳐지게 생각조차 떠올리기 싫은 과거가 있다. 언제부터인가 저녁이면 어둠이 스며들 듯 내 마음에도 어둠이 스며듦을 나는 몰랐다.

처음엔 그저 말하기도 싫어지고 사람들과의 어울림도 싫어지고 밖에 나가기도 싫어지더니, 소리도 햇빛도 싫어졌다. 그저 모든 것에서 숨어 버리고만 싶어졌다.

세상 모든 것들이 나를 짓눌러 오는 것만 같아 난 그곳에서 도망치고 싶었다.

무척이나 활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쾌활했던 내가 자폐성 우울증이라니 참으로 믿기 어려웠다.

나라는 존재조차 없애버리고 싶을 만큼 내 숨소리조차도 나를 괴롭혀왔다.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생명과도 같은 우리 아들! 그 아이의 존재가 왜 그리 내게 무겁게 짓눌러 오는 무게였든지. 지금 생각하면 아이에게 너무 미안해 고개를 들 수가 없다.

그렇게 쾌활했던 내가 자폐성 우울증이라니 약보다는 술을 찾게돼…

난 내 아이에게 초등학교 2학년 이후로 김밥을 싸 준 적이 없다. 남편이 이제사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아이 소풍 갈 때가 제일 마음 상했단다. 혼자 일어나서 김밥도 없이 가방 메고 소풍가는 아이를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건설업을 하는 남편은 건축현장을 돌아봐야겠기에 새벽에 일찍 나가서 아이 일어날 시간이면 전화로 어린 아들을 깨우고 혹시 못 일어날까봐 자명종을 아들 머리맡에 놓아둔다.

아이는 깨면 혼자 일어나 밥 먹고 혼자 학교에 간다. 그 모습을 바라보아야 했던 남편의 그 참담한 심정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을까.

남편도 아들도 뒤로 한 채 나의 우울증은 점점 더해만 갔다. 한번 시작된 증상은 내 모습을 길거리 노숙자의 모습으로 만들어 버렸다. 머리카락은 산발이 되고 며칠 동안 잠을 못자 핏발이 선 눈과 움푹 패인 볼. 누가 이런 내 모습을 보고 '우선주'라고 믿겠는가.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서 난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고 끝도 없이 흐르는 눈물 속에서도 그 증상의 속박을 벗어날 수 없었다. 병원에서 주는 약은 나를 흐느적거리는 연체동물처럼 만들어갔고 손가락 하나 들어 올릴 힘조차 없어 살아있다는 생각조차 힘겨운 무력감에 빠져 있기만 했다. 그런 와중에 나는 술에 손대기 시작했다. 약을 먹는 것 보다는 마음이 더 편안해지고 무력감도 사라지는 듯 했고 속박감에서 벗어나 자유로움도 잠시 맛볼 수 있었다.

하지만 난 그로 인해 약보다는 술의 힘을 빌리는 날들이 더 많아졌고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다. 그런 나를 애타게 지켜보던 남편은 결국 의사의 권유로 병원에 입원시킬 결심을 했고 그것이 마음 아팠던 남편은 시누이가 출가해 있는 해인사 약수암으로 가족여행을 갔다. 마침 2박3일짜리 어린이 수련회가 있어서 아들을 해인사 수련회에 입회시키고 우리 부부는 3박4일 동안 약수암에 머물며 너무도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평화로움과 따사로움을 맛보았다. 처음 해보는 새벽예불 발원문을 들으며 왠지 모르게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 서러움도 슬픔도 아닌 무엇이라 표현할 수도 없는 감정 속에서 부끄럼도 잊은 채 목 놓아 울었다.

몇 년 전 나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다. 그저 기도하고 매달리는 신앙이 아니라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섭리를 구약과 신약 말씀을 넘나들며 열심히 공부했고 직분도 맡아 하나님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한다고 자부했다. 하지만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그토록 존경하던 목사님이 변해가는 모습에 교회를 그만 다니게 되었다. 이후 우울증은 더 깊게 진행됐다. 하지만 성서에 기록된 섭리를 깨우치게 도와준 그 목사님에 대해서는 지금도 감사하다. 시누이인 스님의 스승이신 보선 스님께서 "교회에 다닌다면서 어떻게 해인사 수련회에 아이를 보낼 생각을 했느냐?" 하시기에, 이렇게 말했다. "제가 하나님을 믿을지라도 아이가 부처님을 믿겠다고 하면 그리 해 줄 겁니다."(계속)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꼭꼭 담아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소정의 고료를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thatiswhy@buddhapia.com

릴레이 수행일기 〈상〉



김광연
(주)유메코 기술부장

나는 삶에 눈을 뜨게 되면서부터 정신세계에 관심이 깊었다. 늘 정신수행에 뜻을 두며 살다가 30대 중반에 어떠한 계기로 직장을 버리고 본격적인 구도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깨달음의 경지를 이뤄야 되겠다는 거창한 목표보다는 나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 인생길을 걷겠다는 생각에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모든 것을 운명에 맡기는 심정으로 시작한 마음공부였다.

초기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정진하여 심신의 변화를 느끼면서 조금이나마 수행의 성과가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3~4년의 세월을 넘기면서 수행은 진전이 없고 나중에는 수행의 목표조차도 흐려져 시간이 흐를수록 이유없이 답답함을 느끼게 되었다. 속세를 살 때 보다는 많이 달라진 인생철학을 지니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나을 것도 없는, 조금은 특이한 인간으로 변모되었던 것이다. 마침내 내가 수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회의가 찾아들었지만 돌파구를 모색하

정신세계에 관심…구도의 길 선택
별소득 없이 다시 속세로 돌아와 방황

지 못하고 몇 년을 더 허송세월로 보내다 경제문제 등으로 수행을 접고 다시 생업전선으로 되돌아오게 되었다. 그러나 마음공부에 대한 열망이 다 꺼지지 않은 덕분이었는지 얼마 후 주변 인연으로 우곡선원을 찾게 되었다.

이 곳을 찾기 전까지는, 예전에 접했던 마음공부가 사도인 줄은 전혀 몰랐었다. 마음공부는 다 똑같고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술렁거리면 그것이 최고인 줄만 알았던 것이다. 외도사마 법을 구하던 훈습이 배어있었던 까닭에 참선법회는 참석했지만 훌훌 뛰어넘는 장명화 원장님의 설법은 도무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특히 우곡선원의 공부는 주변에서 항상 보아오던 그런 유형의 불교가 아니었다. 인간불사를 주창하는 것처럼 최상근기를 위한 참선공부이기 때문에 선법이 생소한 나로서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렸다. 그 후 일주일에 한번씩 꼬박꼬박 법회에 동참하다 보니 수개월 후부터는 조금씩이나마 말귀가 열렸다.

그럴 즈음 경제적인 어려움을 먼저 해소하려다 법회에 빠지게 되면서 참선공부를 내팽개치다시피 했다. 그렇게 1년을 넘게 허송세월 하다 보니 생활고도 해소되지 않을 뿐더러 하는 일은 점점 꼬여만 갔다.

마침내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엄청난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앞날에 희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막다른 골목에 내몰리는 절박한 상황이 밀려오자, 제정신이 들고 난관을 극복해야겠다는 절박한 생각이 들었다.

세속에서의 생활을 원만히 헤쳐 나가지 못하는 부족한 나를 절감하게 되었으며, 경제적인 문제가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인생에 가장 큰 의미를 부여했던 수행만은 더 이상 등한시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후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수행에 우선적으로 힘을 쏟기로 결심했다. 다시 시작하는 심정으로 열심히 법회와 '만행수행'을 빠지지 않고 동참하며 수행을 생활의 최우선에 두려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결국 모든 문제는 역시 나에게 있었다. 몸과 마음을 고요히 가다듬는 좌선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경제적인 현실에 묶여 고통스럽던 마음이 조금씩 줄어들었다. 경제문제를 내팽개친 것이 아니라 현실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나보다도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인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걱정을 앞세우기 보다는 최선의 해법을 모색하되 염려스런 마음을 놓고, 비우고, 버리는데 몰두하였다. 이러한 마음자세로 수행을 시작한지 반년이 흘렀다. (계속)

승복 법복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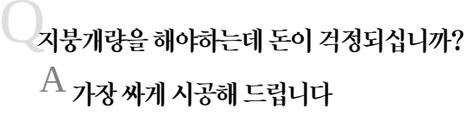


1. 고급 모직(물세탁)
적삼, 바지 150,000 동방, 바지 190,000
두루막 140,000
2. 면,광목(먹물, 손염색)
적삼, 바지 100,000 동방, 바지 130,000
두루막 100,000
3. 면레프사(먹물염색)
적삼, 바지 150,000 동방, 바지 170,000
두루막 140,000
4. 무명(먹물, 손염색)
적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두루막 180,000
5. 마 : 한국산 100%(먹물, 손염색)
적삼, 바지 140,000 동방, 바지 160,000
두루막 140,000
6. 장삼 고급모직 200,000
경남제일모직 250,000
7. 가사 대가사 150,000 / 반가사 70,000

◆ 유사제품과 비교해 보십시요 ◆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치 : 대구 중구청 뒤편 [동삼아파트 지하 공장] (지역판매점 모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승복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1-809-2398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 3가 88번지(동삼아파트 지하 공장)

당신도
설법을 잘할 수 있습니다
단시일내에 대법사가 될 수 있는 길
부처님의 오종설법, 비유법, 대기설법
〈실기훈련 · 설법자료제공〉
성공적인 법회운영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자료의 재구성능력이 확보되야 합니다.
과목
● 발성훈련, 표정연기, 설득, 상담기법
● 음성, 태도, 修辭, 원고작성법, 회의진행법 등
연 수 안 내
▶기 간 : 2개월 과정 ※ 수시접수
▶강 의 : 수요반 - 매주 (수) 오후 2시 ~ 4시
목요반 - 매주 (목) 오후 7시 ~ 9시
▶지도교수 : 金哲會 박사
▶장 소 : 본 연수원
※ 출장 또는 개인지도 가능합니다 ※
◆ 문의 및 신청 ◆
☎ 02)747-1567/02)737-1567
H·P 011)248-1567
韓國說法研修院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F)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 교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 울 : 011-379-0667
강원도 : 010-3044-9708
경기도 : 019-690-4018
충청도 : 011-327-7697
경상도 : 016-9294-8580
전라도 : 011-368-0667
조은칼라지붕공사

부처님께서 즐겨 드셨던
두리안(DURIAN)
부처님께서 즐겨 드셨던 과일 두리안!
이제 태국까지 직접 가시지 않아도 열대지방에서 '과일의 왕'이라는 두리안을 편하고 저렴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 두리안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B,C 가 풍부하며, 강장효과도 탁월합니다.
- 무게 : 약 3Kg
- 지름 : 20~30Cm
- 원산지 : 태국
※ 태국에서 영아 40℃ 급냉 직송하여 냉장창고에 보관중
- 가격 : 1개 35,000원
2개 이상 구입시 개당 30,000원
※ 택배비 무료 (제주도, 도서지역 제외)



- 현재 백화점에서 상태에 따라 50,000원~120,000원에 판매중
■ 판매 및 문의 : 불자기업 향다원
Tel 031)797-1357 / 031)882-1357
H·P 011-474-1345 / 019-229-1345
입금계좌 : 농협 100023-56-156761 예금주 : 조명숙
전화주시면 두리안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효당 스님을 기리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반야로차도문화원 채원화 원장은 "효당 스님의 탄신 100주년을 맞아 스님의 차도 사상을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한다.

효당 최범술 스님 탄신 100주년

禪茶 정신 기린다



우리나라 현대 차문화를 중흥시킨 효당 최범술 스님(1904~1979).

다례제 · 유품 전시회 등 문화행사 다채
스님의 차 · 불교사상 담은 책 발간 예정

우리나라 현대 차문화의 중흥조로 일컬어지는 효당 최범술 스님(1904~1979)의 탄신 100주년을 맞아 스님의 차 정신을 기리는 다양한 기념행사가 마련된다.

반야로차도문화원(원장 채원화)은 스님의 탄신일인 7월 13일(음력 5월 26일) 차도문화원 회원을 비롯한 전국의 차인들과 함께 대전 국립묘지에 안장된 스님의 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다례제를 열 예정이다. 그동안 매년 빠지지 않고 해 오던 행사지만 올해는 100주기를 맞아 다례제를 봉행한 후 인근 예술인 마을에 들러 도예지를 탐방하는 순서도 마련했다.

또한 8월 1일에는 서울 종로구 가회동 효당차도본가에서 스님의 친지와 차인들과 100주기 제사를, 11월에는 '효당 최범술 스님 탄신 백주년 기념 문화제'도 열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효당 스님 문집 발간과 '효당 사상'을 학문적으로 조명하는 차문화 학술제, 효당가 차법 시연, 스님이 생전에 소장했던 책과 차도구 등을 전시하는 유품 전시회 등의 문화행사도 마련할 예정이다.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채원화 원장(왼쪽 사진)은 1968년부터 10여 년간 효당 스님을 시봉하며 제차법과 차도를 전수받은 제자이자 부인. 채 원장은 "효당 스님의 탄신 100주기를 맞아 스님의 사상과 반야로차의 맥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이를 올곧게 이어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차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한다. 또한 채 원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 차문화 개론서인 <한국의 차도>와 불교 잡지에 연재했던 글을 모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등의 책을 재발간해 스님의 차도 사상과 불교 사상을 널리 알리는 한편 스님의 생애를 보여줄 수 있는 책도 발간할 계획이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차 전문월간지 <다도>에 연재 '효당의 삶과 차도'를 연재하고 있다. 채 원장은 "스님의 생애를 정리하고 이를 글로 발표함으로써 그동안 잘못 알려진 것은 바로잡고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은 바로 알려나가는 작업을 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02)763-8486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반야로차도문화원(원장 채원화)은 7월 10일 대전 국립묘지에 안장된 효당 스님의 묘를 찾아 다례제를 열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해 다례제 모습.

현대 우리차 발전 토대 마련

효당 스님은

1904년 경남 사천에서 태어난 효당 스님은 15년 곤양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6년 다솔사로 출가해 이듬해 환경 선사에게서 계를 받았다. 19년 3 · 1운동이 일어나자 독립선언서를 등사해 영남지역에 배포하다가 일본 경찰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하기도 한 스님은 22년 일본 다이쇼(大正) 대학 불교학과에 입학했다. 유학시절 김법린 스님 등과 함께 항일비밀결사인 만당(卍黨)을 조직했고 33년에는 조선불교청년동맹 중앙집행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이후 33년 명성여자학교, 34년 광명학원, 36년 다솔사 불교전수강원을 설립했다.

한국전쟁 당시에는 해인사 주지로 주석하고 있었는데 목숨을 걸고 인민군을 설득해 절이 소실되는 위기를 막기도 했다. 47년 미 · 소공동위원회 대한불교단체 대표로 선출되고, 48년 제헌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또한 47년 국민대학, 51년 해인중 · 고등학교, 52년 해인대학을 설립하는 등 교육운동에 앞장섰다.

60년 이후 일선에서 물러나 다솔사에 주석하며 원효 스님의 사상과 교학 복원 연구에 전념했다.

스님은 사천 지역에서 자생하고 야생차 씨앗으로 다솔사 후원에 다원을 조성해 손수 '반야로(般若露)'라는 정제증차(精製蒸茶)를 만들었다. 73년 한국 차도의 입문서로 평가받고 있는 <한국의 차도>를 집필했고 77년 1월 15일 국내 최초로 차인들의 모임인 '한국차도회'를 발족시켜 우리 차문화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

어떤 규범이나 격식, 계층에 얽매임 없이 누구나 차를 즐길 수 있다는 '차도무문(茶道無門)'과 다기를 다루는 행위와 그 마음자세를 일컫는 '차도용심(茶道用心)'을 바탕으로 한 선차(禪茶)수행을 확립한 효당 스님은 79년 7월 10일 76세의 나이로 입적했다.

명성여자학교 · 국민대학 등 설립
한국戰 당시 해인사 주석 소실 막아
국내 최초 차모임 '한국차도회' 발족

통도사 헌다제 참가단 모집

통도사 선다회(회장 류용숙)는 10월 21일 오후 1시 경내 부도전에서 열릴 부도헌다제 및 두리차회에 참가할 차 단체를 모집하고 있다. 참가를 원하는 단체는 9월 20일까지 신청서를 홈페이지(www.tongdosa.or.kr)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참가비는 1인당 3만원.(055)384-8380

삼청각 다례원 상설개원

명원문화재단(이사장 김의정)은 7월부터 삼청각 천추당에 상설 문화체험공간 다례원을 개원한다. 그동안 신청자에 한해 실시해 오던 체험행사를 외국인 관광객과 일반인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문화행사로 운영한다. 월~토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되며 외국인을 위한 '영어 전통체험 강좌'도 열린다. (02)730-7191

특별기고

'다도' 말 뜻 제대로 알자

오늘날 차생활을 하는 데 있어 가장 흔히 쓰이는 말 중에 하나가 '다도(茶道)'일 것이다. 그렇다면 다도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옛선인차회(cafe.daum.net/teakorea) 강우석 회장이 <다신전>을 통해 '다도'의 정의를 살펴보는 글을 보내왔다. 그 내용을 정리해 싣는다. 전문은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서 볼 수 있다. 편집자



옛선인차회 강우석 회장

'다도(茶道)'라는 용어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등 동양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는 많은 차인들이 이견을 내놓고 있으며, 그 내용 또한 상당히 형이상학적으로 기우는 경향을 띠고 있다.

다도라는 용어가 문헌상에 최초로 쓰인 것은 당나라 현종(685~762)때 스님인 석교연(704~785)의 다시 '음다가초최석사군'에 나오는 "누가 다도의 참됨을 온전히 알겠는가! 오로지 단구자만이 알고 있음이랴!(孰知茶道全爾眞 唯有丹丘得如此)"라는 구절이다. 하지만 이는 다도의 정의를 설명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내용이다.

이후 다도의 정의는 <다신전(茶神傳)>의 원전인 명나라 장원의 <다록(茶錄)>(1595년) 제23장 '다도'에서부터 거론되기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명나라 장원의 <다록>에서 거론
<다신전> 23장에서 '다도' 정의
차 따는 것부터 마시는 차생활 일체

그 내용을 살펴보면 "차를 만들 때에는 정성스럽게 만들고, 저장할 때에는 잘 건조시켜야 하며, 포법시에는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정성, 건조 그리고 청결은 다도를 다함이다(造時精藏時燥泡時潔 精燥潔茶道盡矣)"라고 적혀있다. 이것이 초의 선사의 <다신전>에서는 제22장에 '다위(茶衛)'라고 제목만 바뀌어 소개되었다.

먼저 오늘날 다도의 정의 몇 가지를 살펴보자. 국어사전에는 다도란 "차를 손에게 대접하거나 마실 때의 방식 및 예의범절"이라고 되어있다. 중국의 사전(대만교육부국어사전, 1998)에는 "차를 품평하는 예술이요 방법이다. 그중 포다적 방법에 대한 것이며, 예의 등 일정한 정도의 질서와 법도를 모두 포함한다"라고 적혀 있다. 우리와 비슷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포다적 방법'이라는 것이 강조된 것이 눈여겨볼 대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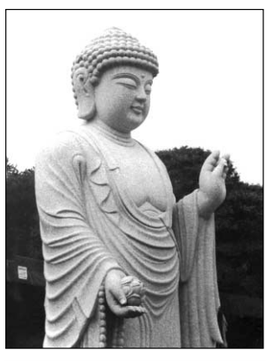
<다신전> 제8장에서도 '포법(泡法)'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두 '포다법(泡茶法)'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포다(泡茶)'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우리의 사전에는 없으나, 중국의 사전에는 "끓는 물속에 차를 우려내는 것(用煮開的水沖茶)"이라고 나온다. 바로 오늘날 잎차를 관에서 우려내는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써 <다신전> 다풍이요, 초의 다풍인 포다법을 말한다.

<다신전>의 제1장에서부터 제22장까지를 종합 정리하여 결론을 내린 것이 바로 다도의 정의이다. 각 장을 순서대로 간략히 살펴보면서 다도의 정의를 고찰해보자.

제1장 차를 채취하고(採茶), 제2장 차를 만들며(造茶), 제3장 잘 만들어진 것을 골라낸다(辨茶). 1~3장을 오늘날은 제다(製茶)라고 표현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잘 만들어진 것을 골라내어 저장하기는 방법은 조(燥)로 표현하고 있다(藏茶). 제5장 불다루기(火候)에서부터 제22장 분다합(分茶盒)까지는 차를 우려내는 전체적인 방법, 즉 포다법을 설명하는 것으로써 제8장 포법(泡法)으로 집약된다. 그러므로 제8장의 내용은 다신전 전체의 내용을 함축한 것이 되며, 또 1장부터 22장까지 전체를 함축하여 결론하기를 제23장에서 '다도'로 정의한 것이다. 23장에서는 다도의 영역에 차를 따는 것에서부터 포다법으로 마시고 뒷정리를 하는 것까지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造時精藏時燥泡時潔 精燥潔茶道盡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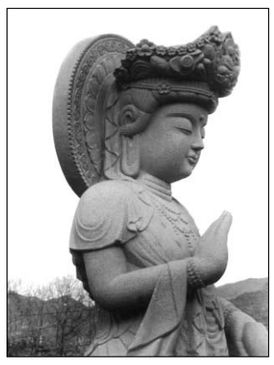
이를 정리하면 다도란 곧 "차를 만들어 예절과 법도를 지키면서 마시는 차생활 일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문화재청등록 조각기능보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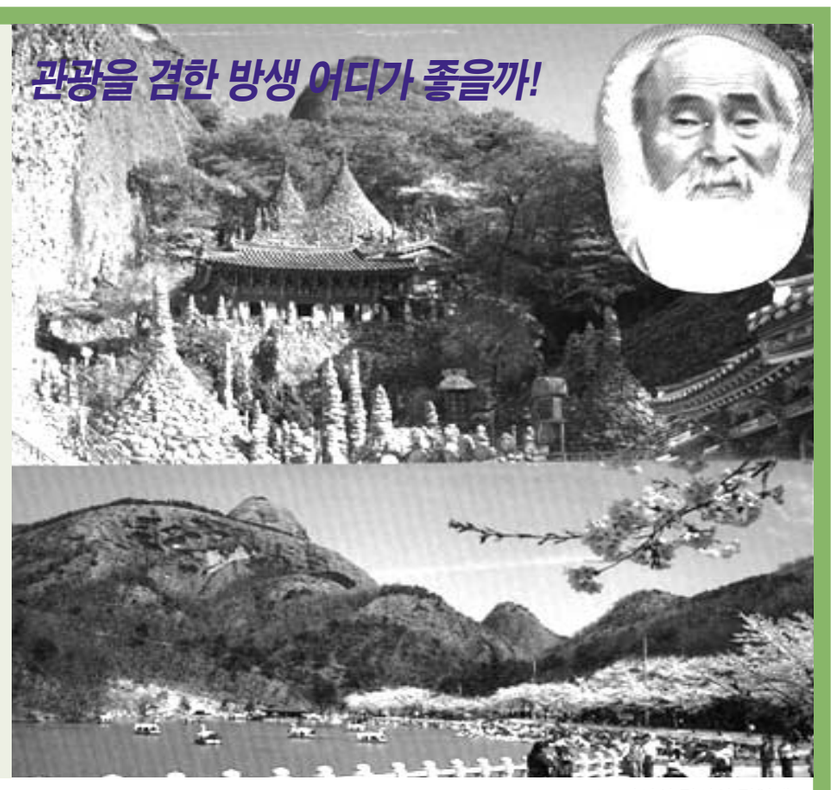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8736 팩스: 031) 531-5549 휴대폰: 011-284-5101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 마이산 탑사와 탑영제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기묘한 산이 있어 좋고, 불가사의한 탑이 있어 신비스러운 곳,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서울 대전 대구 전주 40분 마이산 광주

진안 마이산 탑사
063)433-2900,0303
432-0652,0072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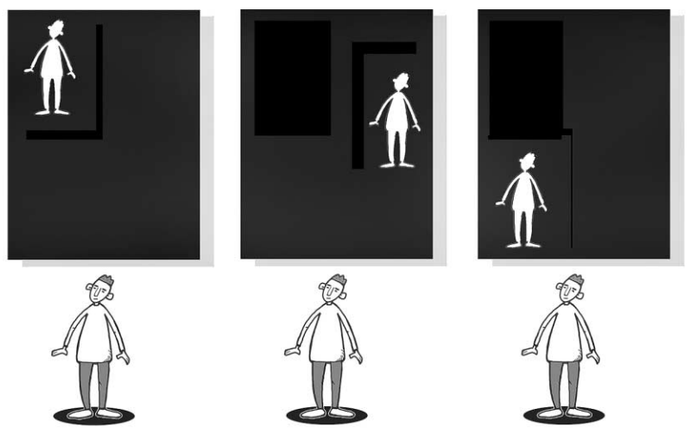
내가 끌어서 먹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 없어

여러분을 아주 오래간만에 만난 듯 합니다. 하지만 한 찰나도 떠나지 않고 여러분과 같이 돌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아셔야 됩니다. 물론 같이 돌아간다 하더라도 전력을 내가 끌어 쓰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어떤 거 할 때 내가 했다고 하지 못하리만큼 그렇게 천차만별로 자꾸자꾸 화(化)해서 돌아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것을 끌어 쓰는 데 달려있다 이 소립니다. 끌어 쓰는 그 자체가 묘한 도리라고 봅니다. 아무리 큰 물건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끌어서 먹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 만유를 창조하여 나가는 그 인과필연의 법칙. 우리의 몸과 생명, 정신 작용으로 인한 일상생활 그 자체가 바로 인연의 법칙에 따라서 운전되고 움죽거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연의 법칙을 벗어나서는 우리가 발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불도 중생도 이 모두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연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아침 쇳송에 '오종대은명심불망(五種大恩銘心不忘)'이라고 있습니다. 오종대은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오종대은이라는 뜻은 일체제불의 종지를, 즉 말하자면 모든 우리들의 생명의 씨, 불씨의 그 어마어마한 뜻을 알고 감사함을 느낄 줄 알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면, 즉 말하자면 우리를 인솔해 나갈 수 있는,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의 은혜를 생각해야 한다는 얘기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못하든 잘하든, 예를 들어 우리 가정의 부모가 자식을 잘 이끌어가려고 애를 쓰지 잘 이끌어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잘하든 못하든 무조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부모가 자식들에게 하는 행입니다.

그와 같이 "그 뭐 대통령에게 무슨 은혜가 있어?" 이러지만 잘하든 못하든, 못났든 잘났든 내


그림 · 최주현

그 자체가 생명의 근본이 불(佛)이요 말과 말이 통하는 것이 교(敎)라 한다면, 하다못해 곤충에 이르기까지 무정물에 이르기까지 식물에 이르기까지, 서로가 존경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얽히고설켜서 돌아가는 이 통합이 바로 교란 말입니다. 죽은 세상이나 산 세상에서 통하듯이, 또는 저런 곤충에 이르기까지 서로 통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하다못해 개미도 요만한 거 하나를 발견을 하면 물고 그냥 가지만 큰 과자를 하나 발견했을 때 보십시오.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금방 소식이 통해서 그냥 떼를 지어서 옵니다. 이건 무슨 까닭입니까? 얼마나 묘한 도리입니까? 말없이 말을 전달하는 이 소식 말입니다. 개미뿐만 아닙니다. 모두가 다 그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일체 만물만생에 의해서, 내 곤충 하나까지도, 안 보이는 세상의 모두를,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또는 죽은 생각이나 산 생각이나, 생각이 없는 중생이나 생각이 있는 중생이나 다 그 자비를 베풀어주신다 이겁니다. 그거 하나를 생각할 때 우리 가정에서 무조건, 조건 없이 자식들에게 주는 거와 같다 이겁니다. 여러분 한테 모든 것을 베풀어줄 때에 그 마음의 보시, 이것은 제일 으뜸 나는 무주상 보시(無住相布施)입니다. 조건 없이 줄 수 있는 마음, 조건 없이. 물질을 주더라도 조건 없이 주는 보시, 조건이 조금이라도 붙었다 하면 그것은 보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오시면, '너는 죄가 얼마만큼 있고 너는 죄가 얼마만큼 있으니까 이것이 안 된다.' 이럴 수가 없는 것이 부처님 법입니다. 죄가 있으면 얼마나 있으려고요. 작은 거든 큰 거든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무조건 조건 없이 줄 수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말입니다. '나는 죄업이 많으니까 이렇게 받을 수가 없다.' 하는 생각, 또 '나는 이런 거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업보가 다 녹아야 된다.' 하는 조건, '나는 이러한 병이 걸렸는데 과거로부터 이 업보가 얼마나 많으면, 얼마나 죄가 많으면 이럴까.' 하는 생각에서 조건 없이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도리를 배우고 아는 사람들은 조건 없이 줘야만이 마음으로도, 길을 지나가다가도, 하다못해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도 무명을 벗겨줄 수 있고, 그 소의 의식을 바로 나한테로 넣는다면 즉시, 그건 죽지도 않아서 벌써 환토를 한 거죠. 천도가 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무명을 벗고 사람이 돼서, 굴려서 사람으로 환생을 할 때 소는 그 은혜를 생각해서 이 불법에서 떠나지 않게끔 됩니다.

부처님 법이라는 것은 어느 한 군데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니라 끊간 데 없는 진리입니다. 그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이 진리 속에서 우리들이 인연에 따라서 활짝 개이기도 하고 인연에 따라서 나쁜 마음을 먹으면 나쁜 대로 이끌리기도 하죠. 이 몸뚱이 속에는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대로 이끌어주고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대로 이끌어주는 그런 수십억의 중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소리도 가끔 하죠. 팥죽을 쑤는데 끓어오르는 팥죽 방울을 보고 "요것도 문수! 요것도 문수! 요것도 문수!" 하고 주걱으로 쳤다는 얘기 잘들 아시죠? 그 주걱으로 죽 방울을 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뜻을, 그 속에 있는 뜻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참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고 행하고 또는 경을 달달 외워서 강의를 잘하고 이런 게 참선이 아닙니다. 배우지 못해서 무지렁이더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처님 법을 한시라도 떠나지 않는다면 그게 참선이죠. 내가 먼저 나왔으니까 나로부터 화두요, 나 자체부터 알 양으로 노력하는 것은 불씨를 심어서 싹을 틔우는 거나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모두가 이러한 관계상인과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그것은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다 이겁니다. 자동적인 법칙입니다. 모든 만남이, 교류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발전을 하고, 또 '이것이 안된다 된다' 하고 법석이기 때문에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거를 가만히 생각한다면 '아이고! 이 나라가 혼란스러워서, 이거 이거 뭐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렇게 해서야 나라가 잘될 수 있어?' 이러지마는 부딪치지 않는다면 불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하하….

이 모두가 상대적인 원리로써 이렇게 가는데, 부처님 법에 의해서 우리가 '선(禪)이다' 그런다면 이거를 붙이고 안 붙이고를 떠나서, 인연에 따라서 딱 불이면 즉, 전선줄과 전선줄을 한데 불이면 불이 확 일어나서 불이 들어오는 그 광명을 바로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양면의 이 줄을, 갖다 붙이는 줄을 가지고 이게 틀리다 이게 옳다 하니까 그래서 '놔라' 하는 겁니다. 선과 악을 놔라. 물질계와 정신계를 그냥 놔라. 놔야만이 이게 하나로 이루어지면서, 모두가 하나로 이루어지면서 하나의 중심이 일체를 다 자동적으로 굴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으로써 그 하나는 움쭉도 안 합니다.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우주가 다 망가진다 하더라도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꿈쩍도 안 하는데, 그게 왜 꿈쩍도 안 하느냐? 은하계의 중심도 태양계의 중심도 이 우주의 중심도 이 인간의 중심도, 모두가 중심은 하나로 전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은하계에서 태양계로, 태양계에서 지구로, 모두 별성이나 혹성이나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 에너지 광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 뒷면에서 나오죠, 중심 뒷면에서. 서로가 서로를, 우리가 마음의 샘터다 하는 것도 모두가 연관성이 있음으로써 이 마음의 샘터에 샘도 나올 수 있고, 그냥 누구나가 다 '아이고, 저 사람은 아예 쓸모가 없어.' 그러고 그냥 다 내치면 아예 그냥 죽은 거나 마찬가지로, 산 송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인연에 따라서 이렇게 잘 가는 동안에 의욕이 생기고 할 일이 생기고, 얼굴이 좋아지고 다복해지고 짜증도 안 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조그만 것 하나로부터 큰 우주의 삼천대천세계를 집어먹을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집어먹을 수 있다는 것은 모두가 나를 죽여서 내가 될 수 있어야만이 그렇다 이 소리입니다.

이 몇 마디 안 해드리는 것을 잘 참작하셔서 행하세요. 스님네들은 신도들을, 법우님들을 만날 때 무조건이요, 이유가 없어야 하고, 신도님들은 신도님들대로 믿음이 진실해야 하고 물러서지 말아야 하고, 또는 마음과 마음,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도리를 알아야 하고, 고깃덩어리를 믿지 말고 일체제불의 마음, 이 스님들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먹는 대로 한 찰나에 들고 한 찰나에 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아셔야 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선과 악을 놔라!
물질계와 정신계를 그냥 놔라!

부모가 있기 때문에, 마치 각 나라의 임금과 임금이 접하듯이, 대통령과 대통령이 서로 회의를 할 때도 내 나라를 중요시하지 남의 나라를 중요시 안 합니다. 그리고 내 국민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거든지 마다 않고 하는 그런 계기는 있다고 봅니다. 또 부모의 은혜, 낳고 길러주고 가르치고 그랬건만 머리털이 세어서 죽을 때까지 내내 마음고생을 있는 대로 시키는 것이 바로 자식입니다. 그 은혜를 모른다면 아니 되기 때문에 국왕의 은혜, 부모의 은혜, 사장의 은혜, 국민의 은혜, 땅의 은혜, 불의 은혜, 바람 · 공기의 은혜, 물의 은혜 모두가 감사함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돌 아닌 도리를 얼른 납득할 수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수차에 말을 해왔지만 거기서부터라도 얘기합시다. 미생물에서부터 쫓고 쫓기면서 그 아픔을 당하면서 찌그러지고 일그러지면서 잡아먹히면서 잡아먹으면서 이렇게 진화돼서 인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올 동안에 남의 자식도 됐었고 남의 부모도 됐었고, 짐승의 부모도 됐었고 짐승의 자식도 됐었고, 사람의 부모도 됐었고 사람의 자식도 됐었고, 넓게 생각을 한다면 하나도 내 자식 아님이 없고 내 부모 아님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겁니다.

좁게 보고 한 가정에서 요 한 철 나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사람이 쳇바퀴 돌아가듯 끊임없이 돌아가면서 진화되고 화하는 도리를 안다면 아마도, 네 부모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좋고 내 부모니까 잘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들 아닌 도리를 확실히 증득할 겁니다. 그럼으로써 부드러운 말이 나오고, 부드러운 행이 나오고, 진실한 구함이 생기고, 진실한 구함이 생김으로써 진실하게 나 아닌 나의, 참나의 소식을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항상 말을 하지만, 불교라는 몸속에 있는 그 중생들이 화해서, 천백억화신으로 화해서 모든 사람들이나 모든 짐승들이나 모든 곤충들, 하다못해 무정물까지도, 목신까지도 원한다면 다 응해주십니다. 응해주시되 묘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뱀이 공부를 하면서 원하면 한 찰나에 드실 때 뱀으로 응하신다 이겁니다. 뱀으로 응하셔야 뱀이 저항력을 느끼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의 모습이 아닙니다. 모습을 천태만상으로 나투시면서 응해주십니다. 관세음보살을 관(觀)하면 관세음보살로 나투어주시고, 지장을 염하면 지장으로 나투어주시고, 약사를 염하면은 약사로 나투어주시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죠. 하다못해 풀포기 하나까지도,


그림 · 최주현

놔야만이 하나의 중심이
일체를 다 자동적으로 굴린다

▲질문자1(남): 오늘도 법 자리를 베풀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공부를 하는 중에 어느 날 수행자 한 분이 "불경은 완벽하지 못하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니까 "성경에는 삼십육천(三十六天)이 있고 불경에는 삼십삼천(三十三天)밖에 없으니까 우주를 다 간파하지 못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견해로 볼 때는 유(有)의 법으로 보면은 사람이 겨자씨만 하지만 영체이탈한 성인의 경계로 볼 때는 삼천대천세계가 공만할 건데 어떤 면에서 이렇게 경에 차이가 나서 범부들이 헷갈리게 하는지 그게 좀 의심스러워서 여쭙니다.

▲스님: 하하하,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과거를 보러 가는데 어느 스님 한 분이 아, 백지를 보고 있거든요. 백지 말입니다. 그거 옆에서 아무리 봐도 백지를 보고 앉았으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거든요, 과거 보러 가는 사람이. 그래서 "아니, 노스님은 어째서 백지를 보고 계십니까? 하나도 볼 게 없는 백지를 왜 보십니까?" 하니까 그 노승이 있다 하시는 소리가 "자네도 백지를 볼 줄 알아야 과거를 볼 수 있네."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 과거만 봐서뿐이 아닐세. 또 국민을 제도하는 데도 역시 백지를 볼 줄 알아야 제도를 할 수 있네." 하거든요. 그러나 그걸 수긍을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도리가 없더랍니다. 정신계로부터 물질계로 나오는 이 사실을 그래도 어렴풋이나마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깐 그날 저녁에 "자네는 내가 지금 아무리 말을 해줘도 모르니 이따 보세." 아, 그러더니 밤에 자는데 꿈에 턱 나타나서 이러 이러하다 하고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과거를 봐서 박

☞30면으로 계속

믿음이 진실해야 하고 물러서지 않아야

☞29면에서 계속

문수가 되었답니다, 하하하.

▲질문자1(남): 예. 감사합니다. 지구 사바세계를 중세계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생이 체를 벗어나면 마음따라 마음세계로 간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도리를 볼 때 이곳 사바세계처럼 색류의 체를 갖고 공심(共心) · 공생(共生) 하는 땅이 우주에 또 있는지 의문이 생겨서 여쭙고자 합니다.

▲스님: 이거 보세요. 마음의 도리라는 것은 삼천대천세계를 집어먹어도 남음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고 없고 그것을 생각 마시고 지금 몸속에 들어 있는 수십억 마리의 의식이나 한마음으로 모아서 내 말을 척척 들을 수 있게끔, 따라줄 수 있게끔만 하시면 이 우주 공간의 전부를 알게 될 겁니다, 아마.

▲질문자1(남): 예. 감사합니다. 부처님 제자는 숙명명 · 천안명 · 누진명의 세 가지 밝은 지혜를 얻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누진명은 용심으로 해석을 하여도 무방한가 여쭙고 싶습니다.

▲스님: 그것도 다 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천안 천이 타심 숙명 신족, 이 모두 이것이, 예전에도 그렇게 표현을 했죠. '야, 보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먹지 못하고 주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 이것이 도가 아니니라. 아무 이름 없이, 오신통(五神通) 이름 없이 그냥 물을 줄 수 있고 먹을 수 있다면 그것이 최선의 참선이니라.' 아뇩다라삼먁삼보리 아닌 아뇩다라삼먁삼보리의 법이라 이것입니다.

▲질문자1(남):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보시 · 업보 두 가지 경우에 대하여 더 여쭙고 싶습니다. 누가 인도에 가서 거지에게 돈을 주니까 인도 거지가 고맙다 인사를 안 하고 또 달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당신은 왜 돈을 줬는데 고맙다는 인사도 하지 않느냐 하니까, 인도 거지가 하는 얘기가 "당신이 공덕 베푸는데 왜 내가 고맙다고 하느냐." 그래서 돌아서 갔더니 또 돈 달라고 해서 "조금 전에 줬지 않느냐. 당신 복 지으라고 그러는데 뭣이 나쁘느냐." 하고 오히려 반문을 하더랍니다. 요 경우와 누가 보면 절에 '오늘 얼마 갖다줘야지.' 하고 나가다가 절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어디 어디서 왔는데 오늘 요거만 냅니다.' 하고 돈을 주고 갑니다. 이런 경우에 보시의 과보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스님: 그거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줬으면 준 대로 그냥 받는 것이, 받는 것이 아닌 받는 것이지마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게에 물건을 사러 갈 때에 돈을 주고 물건을 샀는데 아, 내가 돈 준 거 생색내겠습니까? 그와 같거든요. 그런데 굳이 또 달라는 건 뭡니까? 굳이 달래서 주는 것은 공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요만한 것 하나를 시주를 한다 하더라도 내 주인공에, 이게 주인공과 더불어 일체제불의 마음이 한마음이기 때문에 나와 더불어 같이 한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다 할 때 내가 했다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갖다 내는 거지, 스님네들을 위해서 갖다 내는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들 해보라고, 나를 위해서 갖다주는 게 있던가 없던가?

그러나 이 스님네들이 잘못 생각하고 '나는 스님이니깐 날 갖다줬겠지.' 한다면 이거 오산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쓰레기를 치워달라고 갖다주는데 내 이 고깃덩어리가 치울 무슨 용빼는 재주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체제불의 한 마음, 즉 불바퀴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받은 사이도 없고 준 사이도 없이 보시를 하고, 누구한테 무엇을 건네주더라도 조건 없이 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공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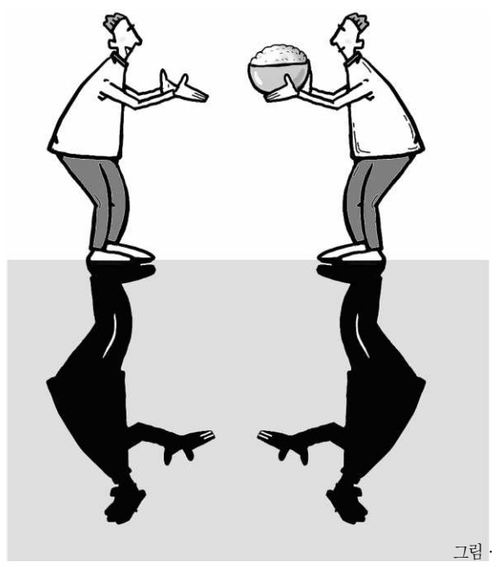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이 우주의 중심도 인간의 중심도 모두가 중심은 하나로 연결이 돼 있어

▲질문자1(남): 예. 감사합니다.

▲스님: 아까 첫번에 뭐라고 그랬죠?

▲질문자1(남): 성경에는 삼십육천 하늘이 있고 불경에는 삼십삼천 하늘이 있다.

▲스님: 그 말을 묻는데 내가 그 대답한 것을 잘 이해를 해서 생각해보세요. 그런 거는 모두 이론이다 이겁니다.

▲질문자1(남): 예. 알겠습니다.

▲질문자2(남): 저는 부처님 뜻에 따라 이곳에 온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궁금해서 배우고자 나왔습니다. 불가능과 가능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며칠 전에, 제가 여기 처음 와서 한마음 공부를 시작한 날은 1월 17일인데 한 일주일쯤 있다가 한 · 일 축구 시합을 봤습니다. 한 · 일 축구에 대해서 일본은 한국에게 비겨도 올림픽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돼 있어서 유리한 입장이고, 우리는 일본을 꼭 이겨야만 나갈 수 있는 그런 불리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시간이 가도 골이 안 터지니까 굉장히 저로서는 불안하고, 또 저뿐이 아니라 국민들도 다 그렇겠지요. 우리나라가 올림픽에 나가고 안 나가고가 저한테는 문제가 아니고, 일본한테는 어떡해서든지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그런 조바심, 그것은 아마 제가 말은 안 해도 우리가 일본한테 36년간 억압된 그 시절을 생각해서 그랬던 모양이죠. 골은 안 터지고 한참 조바심을 내다가 시간은 다 되었는데 제 처가 하는 말이 "여보! 당신은 한마음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한마음 공부 한다면서 조금 침착하세요.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이 주인공한테 맡기는 그런 공부를 해야죠." 그러면서 "이길 수 있는 것도 주인공이요, 지는 것도 주인공 그 자리니 주인공한테 맡겨보세요. '좀 이기게 합시다' 하면 될 거 아니요. 해서 안 되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고 나서 처가 눈을 지그시 감고 있더라고요. 그래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깐 '아,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한 50초 정도, 1분도 안 남았을 때 정말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러자마자 골인이 났습니다. (대중 웃음) 그래서 이것이 다 우리 한마음 뜻의 기도 덕인가 하고,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50초, 40초 이렇게 남았는데도 호루라기를 불지 않는 겁니다. 아마 루즈타임을 적용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1분이 1시간, 2분이 2시간 심지어는 10시간이 간 것 같았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그때는 나도 '아, 한마음 주인공, 이 공을 지켜주십시오. 빨리 골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한순간에 골이 나서 결국 한국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10초, 20초에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이긴 건지 아니면 불가능이란 게 있는지, 만약에 불가능이란 것이 있다면 이 한마음 공부를 함으로써 녹아내릴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중 웃음)

▲큰스님: 마음이라는 거는 아주 광대무변하기 그지없는, 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묘하냐? 이 마음은 천리라도 멀지 않고요, 발밑이라도 가깝지 않습니다. 단 있다면 내 마음에 불을 켜면 저 사람의 마음에도 불이 켜집니다. 가설이 돼 있기 때문이죠. 이 한생각의 가설이요. 이건 두고두고 뭐 전기 가설 하듯이 꼭 해놔야 가설이 되는 게 아니라 한생각의 가설이란 말입니다. 이러니깐 묘하죠. 그래서 마음 속에 불을 켜면 만 명이라도 가설이 됐다면 불이 들어올 수 있다 이겁니다. 모두 여러분이 가정에서 '아이구, 저놈은 믿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이것이 믿지 않는다고 말로 하고 끌어오려면 그게 부러집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불을 켜면 자식이라는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불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용이요 그것이 바로 묘법인 것입니다. 이 부처님의 법을 일일이 파헤쳐 보면 참 신기한 일과 불가사의한 일이 많은데, 그것이 불가사의한 일이 아니라 본래 그렇게 인간이 할 수 있는 도리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바들바들하고 애를 쓰면 내 육신 자체가 벌써 망가지고 해(害)를 보고, 그런데 그렇게 바둥바둥 뛰면 되겠습니까? 마음과 마음이 전달이 돼야지, 밝게. 그러니까 마음을 침착하게 두고 '거기서만이 해결할 수 있지.' 한다면 그것이 그냥 한 찰나에 불이 가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 그 한 사람의 불이 들어가면 수십억 마리의 의식이 불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하이고, 수십억 마리에 불이 들어온다면 거기서 또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연결 연결, 가설이 돼 있죠. 한 패가, 전부 한식구가 해야지 이런 절망감과 의구심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깐 연방 연방 연줄이 불이 들어오게 돼 있으니까 그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질문자2(남): 예. 감사합니다. 이제 배우는 과정에서 계단을 한 발자국 올랐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스님: 아이구, 이거 보세요. 하하하. (대중 웃음) 이 공부하는 데는 한 발 계단을 올라섰다 내려섰다 할 것도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동쪽에 가는 것도 서쪽이요, 서쪽에 가는 것도 남쪽이요, 남쪽에 가는 것도 북쪽이니, 북쪽이다 서쪽이다 남쪽이다 동쪽이다 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그 마음. 마음은 이리로도 갔다 저리로도 갔다 하루에도 몇 번씩 돌아갑니까? 그런데 무슨 한 계단을 올라서요? 하하하. (대중 웃음) 선생님 같은 분도 있어야 웃죠. 하하하.

▲질문자2(남): 배우는 데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서라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큰스님: 예. 우리가 탑을 쌓으려면 자꾸자꾸, 벽돌 하나를 갖다놓고 또 하나 갖다놔서 다 올라갈 때까지는 잠자코 그냥 쌓는 겁니다, 잠자코. 뭐 하나 더 갖다놨느니 덜 갖다놨느니 할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쌓아 올라가요. 그러다보면 한순간에, 그 봉우리는 한순간에 올려놓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저 침착하게 하십시오.

※위 법문은 대행스님 법어집 『한마음』의 내용 중에서 54호를 발췌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당신도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과정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단기과정!! 속성비결!!
사암침술 강좌
맥을 터득해야 사암침술을 자유자재로 시술 할 수 있습니다.
(초,고급과정)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구요결,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처방요령, 침술즉효요법(一鍼法), 뼈교정법, 종합실습
▶ 개강 : 2004. 7. 5 (주 · 야간반 : 3개월 완성)
※ 침술사 자격증도 교부합니다.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 매월 첫주 금요일 (주 · 야간반 : 1개월 완성, 개인지도 가능)
사암침술학회
장소 : 화암빌딩 402호(종로3가 지하철 12번 출구 옆)
문의 : 011-307-2975. 02)2267-9136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전함

가격 수요증가로 시중품과 가격동일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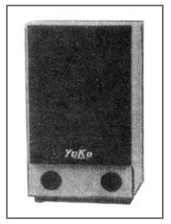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각지역 대리점 모집

서원기전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불교신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부처님 가피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영숙 합장
7월의 하늘이 너무도 맑아
가만히 바라봅니다
삶의 번뇌하나 가슴으로 남아
요즘 어려운 경제 관계로 힘드시죠?
다소 도움이 되어 보고자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저렴한 비용으로 회원등록을
해드리겠습니다
성혼을 이루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大卒,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 대 결 혼 연 구 원
원 장 이영숙 (법명 : 無生子)
사무실 : 032)345-5411
휴대폰 : 011) 288-2944

사찰, 법당, 앰프 설치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아무리 먼 곳이라도 출장비는 받지 아니합니다)
소리공양 실적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www.yukosound.com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비구니스님 특별우대!
염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법당전용스피커 YM-520
유 코 음 향 연 구 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1-8284 팩스 (02)2695-9676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스트레스 · 피로…
푹~ 쉬고싶다



스트레칭으로 건강한 직장 생활을

바로 앉는 습관으로 자세 교정

모니터, 눈보다 10~15도 낮게

10~20분 간단한 스트레칭

직장인 A씨는 요즘 아무리 푹 쉬어도 도무지 쉰 것 같지가 않다. 사무실 책상에 앉으면 10분도 채 안돼 피곤이 몰려오는가 하면 머리 뒷부분은 돌덩이를 달아맨 것처럼 무겁다. 목 주변은 뻣뻣하게 굳어있고 어깨근육은 잡히지도 않을 만큼 뭉쳐있어 매일 통증에 시달리는 A씨. 누적된 스트레스와 피로 때문에 그렇겠거니 하고 이래저래 넘겨왔지만, 반복되는 장애와 통증이 이제 짜증의 온상이 돼버린 듯하다. A씨 건강에는 어떤 이상이 생긴 것일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건강과 웃음을 되찾을 수 있을까?

장시간 업무에 따른 어깨결림·근육뭉침 '근막통증 증후군'

증상과 원인

20~30대 직장인들이 호소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근막통증 증후군'인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근육이나 근육을 싸고 있는 막의 특정한 부위에서 통증이 유발되어 어깨나 허리 등에 증상이 이어지는 것이 그것이다.

통증은 근육이 굳은 부위(통증 유발점) 뿐만 아니라 위쪽 또는 아래쪽으로 신경을 타고 전달되므로 다른 부위에서의 연관통도 생기게 된다. 어깨 근육에 통증 유발점이 있다면 팔이나 손이 저리거나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 수도 있다.

근막통증 증후군의 발병 원인은 다양하지만, 직장인은 주로 잘못된 자세를 통해 병을 얻는 경우가 많다. 사무실에서 같은 자세로 장기간 작업해야 하는 직장인들의 경우 목을 내밀거나 구부정한 자세를 굳히기 십상이다. 과도한 스트레스 또한 근육 뭉침의 주요한 원인이다.

해결책

의식적으로 자세를 교정하려는 노력이 근막통증 증후군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먼저 의자의 등받이를 제대로 조절해 허리와 목을 과도하게 앞으로 당기지 않도록 유의한다. 의자는 머리받침대와 팔받침대가 설치된 것을 사용하면 목과 어깨의 긴장을 풀 수 있다. 또한 무릎이 고관절과 직각을 이루면서 발이 지면에 수직으로 닿을 수 있도록 조절한다.

모니터는 눈높이보다 10~15도 정도 낮게 하여 목과 등을 꼿꼿이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손목이 젖혀지지 않도록 손목 지지대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문서를 입력할 때는 자판을 보고 치는 것보다는 모니터를 보면서 치는 것이 목의 긴장을 푸는데 수월하다.

그러나 아무리 바른 자세와 인체 공학적인 기구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일정 시간 같은 자세로 업무에 몰입하다보면 피로와 통증을 피해갈 수 없다. 이때는 10~20분 짬을 내서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보자. '등 뒤로 양손을 맞잡는' 방법이나 '손등 깔고 앉기' 등의 동작으로 앞으로 구부린 자세를 교정하거나 목과 어깨의 통증을 완화한다. '의자에 앉아 앞으로 숙이는' 자세를 취함으로써 척추와 허리근육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도 좋다.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 사무실에서 하는 스트레칭



● 등 뒤로 양손잡기

1. 오른손은 어깨 위로, 왼손은 허리 뒤로 돌려서 서로 맞잡는다. (이때 손이 잘 닿지 않으면 타월 같은 것을 이용해도 좋다.)
2. 맞잡은 손을 최대한 당긴다.
3.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한다.



● 의자에 앉아 앞으로 숙이기

1. 양발을 어깨 넓이만큼 벌리고 의자에 앉는다.
2. 숨을 들이마셨다 내쉬면서 서서히 상체를 숙인다. 머리를 다리 사이로 숙이면서 깍지낀 양손을 뒤로 자연스럽게 뻗는다.
3. 30초~1분 정도 숙인 자세를 유지한다.

KBS, MBC, SBS, EBS 각종 언론이 인정한
인생역전 김재덕 역학교육원
실력있는 역학인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모집과정 : 7월7일 7기생 모집
강 의 : 주 2회(화,수요일)
역 학 : 초 · 중급 - 남륜스님
사주통변 및 작명법, 인연법 : 김재덕선생
관상학 (특강 월2회 화요일) : 신기원선생
신청문의 02)567-4833, 011-9702-2237

최윤근 교수의 아유르베다 읽기 ㉓

몸, 계절 기후 지역 영향 받는다



계절의 변화에 대한 적응법

사람은 자연의 일부다. 따라서 외부적 자연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 몸 속에서도 그대로 일어난다. 계절, 기후, 지역의 변화에 따라 우리 몸도 직접적이고 신속하게 영향을 받는다. 만약 우리의 몸이 강하고 건강하다면 이런 변화를 상쇄하고 역동적인 자극제로 받아들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춥고 습기 찬 겨울에는 카파가 몸에 축적된다. 그 결과 조직과 기관을 수축시킴으로써 추위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 준다. 봄에는 태양이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어 눈이 녹고, 겨우내 축적된 카파가 유화돼 확장된 조직의 관을 통해 빠져나가게 된다.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만물이 생동하는 영향을 받아 바타가 증가하게 된다. 증가된 바타는 노폐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카파를 돕는다. 봄은 이를테면 우리 몸의 대청소 시기이다. 재생과 성장에 더 이상 필요치 않은 물질들을 제거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봄, 필요치 않은 물질 제거 시기
여름, 피타 지나치면 더위 심해
유동성 음식 · 낮잠 건강에 도움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을 때에도 이와 똑같은 변화를 볼 수 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낙엽이 떨어진다. 여름 동안 우리 몸에 쌓였던 피타는 바타가 점점 그 영향권을 확대함에 따라 서서히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여름날 유독 심한 더위로 고통 받는 사람들은 피타가 지나치게 왕성한 게 그 원인이다. 그럼 이러한 계절의 변화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각 계절은 도샤의 균형에 영향을 끼친다. 그러므로 이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그 계절에 알맞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 규칙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 간단한 행위들은 일년 내내 우리들의 건강을 잘 유지시켜 줄 것이다.

봄에는 점액 분비가 많아지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코와 목구멍을 매일 따뜻한 소금물로 가볍게 헹궈 준다. 또한 조직의 관을 확장시켜 몸 속에 쌓여 있는 카파를 제거하기 위해 따뜻한 물에 자주 목욕을 한다. 자연적인 추위가 사라질 때까지 옷은 따뜻하게 입어준다. 봄의 대기중에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들이 많이 떠다닌다. 이때 우유에서 걸러낸 기름인 기(ghee)를 콧구멍에 바르면 이런 물질들로부터 호흡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봄에는 또한 카파에 이상이 생기는데, 만약 카파가 과도하게 되면 판차카마에 나오는 '바나마(vamana)'라고 하는 구토법을 사용한다(이 부분은 뒤에 다룰 예정임).

여름에는 자연이나 인간 모두 피타가 왕성한 시기다. 따라서 자극성이 없고 가벼우며 쉽게 소화될 수 있는 유동성 음식을 먹어야 한다. 과일과 주스는 여름에 좋은 음식이다. 태양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고 심한 운동은 삼가며 옷은 가볍고 얇게 입어 준다. 몸에 카파를 증가시키기 위해 오후에 짧게 낮잠을 자는 게 좋다. 바타는 여름에 점점 악화되기 시작하므로 바타를 감소시키는 음식과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야 한다. 물을 많이 마셔 수분을 유지시켜 주는 것도 방법 중 하나다. 만약 바타 증상이 심해지면 판차카마 중 '바스트카르마(basti karma)'라는 관장법을 사용한다.

■ 포천중문의대

제4기 역학 상담 전문가 과정 강좌개설
미래 상담 역리사 양성 목적
타고난 운명과 다가올 인생 여정에 대하여 상담하고, 복잡한 현대사회의 고달픈 생활을 비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카운셀러! 전통의 "동양역학 전문지식"전수로 불확실한 미래를 성공으로 이끄는 상담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 직업인 양성과정"
주요 교육 내용
◆ 우주 창시론, 역학의 기원, 운명과 사주, 음양오행, 생극제화, 사주구성
◆ 대운,세운,합,충,파,해,십이신살,십이운성,육친론,지장간,격국,용신
◆ 성격,직업,건강과질병,재난,부부,자녀관계,부귀빈천,간지체성론,궁합,택일
참가 대상
◆ 기관 기업체 퇴직자 및 주부, 일반인, 대학생으로 평생직업으로 전환하실 분
◆ 부동산중개업, 결혼상담인, 심리적성을 상담하여 성공하실 분
▣ 특 전
• 한국역리사자격 검정관리협회 자격증 시험응시 자격부여
• 수료후 합격자 전원 전화상담사 및 일반 상담요원으로 취업보장
▣ 중요교육내용 ※ 개강 날짜 문의 바람

과목	시 간		강 사	수 업 료
명리	토요일(오후2시~6시)	일요일(오후2시~6시)	유방현	25만원(5개월 완성)
육효	월요일(오후7시~10시)	보충수업가능	유방현	25만원(4개월 완성)
육임	수요일(오후2시~5시)	보충수업가능	정수언	25만원(3개월 완성)
자미두수	화요일(오후2시~5시)	보충수업가능	장정림	25만원(4개월 완성)
원문	목요일(오후7시~10시)	원문 해독	박종천	12만원
관상	금요일(오후2시~5시)	이론과실재 병행	신장근	20만원(3개월 완성)

※ 각 과목 죄고 강사 선생님을 모십니다.
▣ 교육 장소
KTA한국전통과학아카데미교육원 전철 1호선 신설동역 5번출구 남동방향 30m
▣ 신청 및 문의처
02)929-4646 / 4643, 018-350-7150
주관 KTA한국전통과학아카데미 교육원

알립니다
산좋고 물좋고 공기좋은 아늑한 산속 기도도량입니다.
천년된 입체미륵 석불이 땅속에서 나투신 영험있는 기도도량을 준비하는 관계로 이제서야 개방함을 알립니다.
조계종스님으로 강원 및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법력10년이상된 엘리트스님 6분을 모십니다. 보시금은 최고대우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사찰음식에 자신 있으신 공양주보살님 2분도 함께 모십니다. 보시금 100만원. 또한 삼사순례 주지스님께서는 미리연락주시면 점심공양을 무료로 드립니다. 공양인원은 5백명까지 가능합니다.
기도하실 처사님, 보살님께서는 통나무 하우스에서 무료숙식 가능하오니 누구라도 기도효험을 받아 소원성취하시길 바랍니다.
나무마하반야바라밀 주지 삼밀 합장
031-884-4883
찾아오시는길 : 영동고속도로 여주인터체인지에서 좌회전 → 장호원방면으로 8km가시어 전동면 소재지에서 미륵사를 찾으십시오.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홍천 연화사
아미타 대불 성지순례
동양최대 아미타 대불
(높이:36m 아파트 12층 높이)
부처님 몸 안으로 7층까지 올라가면서 부모은중경 · 극락도 · 지옥도 · 관람
7층에 올라가면 부처님 몸안에 미타삼존불 법당이 있습니다
1층에 열두 분 부처님을 한자리에서 친견합니다.
▶ 대형주차장완비
▶ 점심공양 가능
▶ 입장료 무료
◆ 주위 명소 : 홍천온천, 천년고찰 수타사
● 찾아오시는 길


● 매월 : 초하루 및 보름 (조계사 앞 관광버스 출발)
www.yhs108.com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북방1리 664번지 연엽산 연화사
전화 : 033)433-1815. 433-2009 팩스 : 033)433-5206

눈 비를 맞아도 썩지 않는 평상

size : 1500×820 ×400 가격 150,000 할인가 130,000
1800×1030×480 가격 220,000 할인가 190,000
눈 비를 맞아도 썩지 않는 폴리프로필렌은 반영구적이며 촉감이 어린이 살결과 같은 느낌을 주며 조립식이라 이동이 간편 하고 또한 얼마든지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물이 스며 들지 않아 비온 후 바로 앉을 수 있는 평상, 그릇 씻는 다이, 채소 등등 다이로 사용할 수 있는 평상. 봄 여름 가을에 자연과 더불어 대화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연출이 가능하며 경제적인 휴식공간. 눈 비를 맞아도 썩지 않아 반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조경시설물 전문업체 지구산업
www.bangaro.com
TEL : (063) 323-3010~1
FAX : (063) 323-3012
실용신안 제0305212
의 장 제0300518
지역 대리점 모집

아이디어 라이프 / idea

산을 좋아하는 등산매니아의 꿈의 신발 …

"아이젠부착 등산화 싼스타"출시

제네바 국제발명대회 국내 최초 특상 수상

신발에 부착된 아이젠 미끄러운 곳에서 레바만 돌리면 안전



(그림1) (그림2)

눈, 비 올 때와 하산할 때 최고

등산화의 새로운 혁명이 시작되고 있다.

산을 좋아하는 매니아들은 배낭속에 아이젠(미끄럼 방지기구)을 비상용으로 항상 가지고 다닌다. 그러나 이런 이러한 불편함을 없애는 아이젠이 부착된 "등산화 싼스타"의 발명으로 등산매니아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겨울이 아닌 일반 계절에도 하산할 때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고 실족하는 경우가 빈번이 일어나고 특히 여름 산행은 갑작스런 소나기로 등산길이 대단히 미끄러워 아이젠은 등산을 하는 사람에게는 필수품이다.

아이젠 등산화 싼스타는 신발 밑창 뒷부분에 간편하게 고정되었(그림1)다가 미끄러운 곳을 지날 때에 간편하게 레바만 돌리면(그림2)눈이 있는곳이나 빙판길 또는 비올 때에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고안되었으며 아이젠을 간단히 떼었다 붙였다 할수도 있다. 세계적 권위를 가진 제네바 발명대회에서 국내 최초로 특별상을 수상했다. 이 신발은 기능성도 최고지만 최첨단 신소재가 총동원 된 등산화로, 신는 순간부터 제2심장이란 발바닥 용천을 지압해 장시간 산행에도 피곤함이 없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시켜 주는 기능성 신발 과학의 결정체로 평가하고 있다. 아이젠 등산화 싼스타를 발명하고 개발한 (주)에스더 관계자는 계절에 관계없이 등산에는 꼭 필요한 안전장비라고 강조한다. 가격 135,000원 (080)555-3080



살 빼는 신발 "스타필드"인기짱

독일 뮌헨 기능성 신발대회 대상수상



▶한국, 미국, 일본 발명 특허

다리는 힘이 없고, 운동할 시간도 없어 비만으로 고민하는 이 들에게 신기만 하면 다이어트와 운동이 되는 "스타필드" 신발이 인기를 끌고 있다. 다이어트 신발 "스타필드"는 착용자체가 근력 향상과 지압, 스트레칭 효과를 높여 결국 별도의 시간을 내서 운동하지 않아도 신고 활동하는 자체가 다이어트 효과를 극대화 시킨 아이디어가 톡톡튀는 다이어트 슈즈다. 스타필드를 신으면 자연스레 '발중심-발앞굽 보행'만이 가능해 종아리 부분의 근육과 대퇴근이 반복적으로 이완되기 때문에 근력과 지구력을 향상시켜 다이어트의 효과를 얻도록 설계된 신발이다. 또한 스타필드에 적용된 기술은 뒷굽이 없어 뒷축에 실리는 체중을 분산 시켜 뇌까지 전달되는 충격을 일반화를 착용했을 때보다 35% 까지 감소 시켜 준다. 이에 따라 스타필드를 착용해 본 이들은 스타필드의 다이어트 운동효과에 대해 한결도 반듯해 지고 있다며 다이어트에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뒤굽을 15 만큼 없앴기 때문에 스타필드는 뒷축이 3cm공중에 떠 있어 키 작아 고민하는 이들이 다이어트의 함께 3cm 커 브이는 부수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세계적인 전문성 신발 제조회사 (주) 삼덕통상에서 제작하여 전량 미국, 일본, 독일에 수출되는 이 신발은 국내 보다는 일본, 독일에서 먼저 붐이 일어나고 2003년 독일 뮌헨 기능성 신발대회에서 최고의 대상을 수상한 신발이다. 가격135,000원 (080)-555-3080

▶월 2kg 이상 감량 효과

■ 효도신발의 대명사

기능성 건강신발 '룸비니'국내최고인기

세상에서 가장 가볍고 편안한 신발로 국내시장 석권

부모님들 받고 싶은 선물로 1위
갑신년 신발 받으면 무병장수 뜻있어 불티



세상에서 이렇게 가볍고 편안한 신발이 있을까? 성불화 룸비니를 신는 순간 누구나 이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룸비니 신발 출시 2년 만에 신어본 고객의 입과 입을 통해 10시간을 걸어도 피곤치 않는 신발로 국내 시장을 석권하며 효도신발의 대명사로 브랜드를 굳히고 있다. 한국인 체형에 맞게 인체공학적이고 과학적인 설계로 오래동안 걸어도 발이 피곤하지 않게 만들어진 최고급 기능성 신발이며 천연가죽중에 최고급인 송쉬는 가죽 뉴백을 사용하고 최첨단 신소재와 몸의 균형을 반듯하게 잡아주고 눈비 올 때에 미끄럼방지 기능을 위해 밑창을 초경량 골프그립을 개발했다. 또한 관절염, 고혈압, 당뇨가 있는 분의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신발에서 음이온과 氣와 원적외선을 발산하게 만든 신발이다. 원래는 불자님들의 예불화로 개발했기에 부처님 탄생지 이름 룸비니를 브랜드로 했으나 출시 2년도 안돼 불자님들은 물론 일반인과 기신교 신자들까지도 다른 신발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가볍고 편하며 디자인도 세련돼 남녀노소 누구나 신을 수 있는 최고급 신발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에 사는 공무원 K씨는 어머니가 10년이상 관절염으로 활동도 못 하고 고생하는 것이 안타까워 하던 중, 가볍고 편안한 신발이란 신문기사를 읽고 속는 셈치고 구입 해 드린것이 지금은 1km 이상 걸을 수 있으며 활동도 한다고 한다. 서초구에 사는 P여사는 신발이 너무 가볍고 편해 1족을 구입했으나 혹시 생산이 중단되면 어떡할까 해서 평생 신으려고 3족을 더 구입했다 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신고 법기 쉽게 지프를 달았으며 가는 곳마다 복을 받는다는 ㈜ 자를 지포고리에 넣고 밀창에는 가는 곳마다 화를 좋으며, 악인을 만나지 않게 하는 금강저를 넣어 길 떠날 때에 자신감도 갖게 한 것이 특이하다. 성불화룸비니는 남녀공용으로 225mm~285mm까지 사이즈별로 제작되어 전화로 신청하면 우체국 택배로 보내 준다. 가격 88,000원 문의(080-330-7555) 농협 906-12-369914 김현석

삼고 금강저 건강밸트

험한 세상 믿음의 호신용으로 인기

삼고금강저 (金剛杵)



삼고금강저는 고대 인도에서 인드라신(神)의 밀교의식이 쓰이는 무기로 불퇴전의 강한 보리심을 상징한다.

밀교의 단다라에는 금강부의 여러 존상이 모두 금강저를 가지고 있으며 금강역사는 부처님의 물력으로 악귀와 잡귀도 물리쳤을 정도로 금강저 앞에는 대적할 상대가 없다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지혜의 무기를 뜻한다.



• 장도 튼튼!! • 허리도 튼튼!! • 승리의 수호신!!

국내 불교성구 전문업체인 관음예술원에서 불퇴전의 승리의 수호신인 삼고 금강저를 밸트에 부착하여 남자분들이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도록 축원 불공을 마치고 출시했다. 1분 앞도 모르는 험한 세상 납치, 살인, 강음, 강도, 유괴 사고등 항상 근심과 걱정속에 사는 현대인들에게 믿음의 수호신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삼고 금강저는 부처님의 법구 중 법구로서 닥쳐올 화를 미리 피하게 하고, 악한 인연을 만나지 않게 하며, 부처님의 지혜인 금강의 지혜를 받아 모든일에 승리 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부처님 성구다. 업체 관계자는 금강저 밸트에서 발산되는 氣와 원적외선은 신진대사를 촉진하며, 허리와 장이 약하신 분은 착용하면 튼튼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금강저 자동 밸트는 실용신안 및 건강밸트로 특허를 획득한 국내 밸트 중 기능성을 가진 최고급 자동 밸트로 평가 되고 있다. 출시 기념으로 여성들이 핸드백에 넣어 자신감을 갖고 다닐 수 있도록 손금도금한 삼고금강저를 선물로 증정하고 있다. 가격65,000원 문의(080-330-7555)

화제의 시계

관세음보살 수진언 복 시계

가지가지 재물과 땅속에 보물을 얻으리라



불교에서 관세음보살은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의 어려움을 해결 해 주고 각자 소원하는 소망을 성취시켜 주는 영험의 진리를 담고 있다. 불경에 입각하여 불교성구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관음예술원은 관세음보살42수진언 중에서 늠에 지니고 다니면 재물이 들어오고 땅속에 있는 보물까지도 소유하여 가진 재물의 손실을 막아주는 "관세음보살여의주보험수진언"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도록 시계로 제작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종전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거나 사업 또는 장사가 어려운 분과 가진 재물을 잃지 않도록 스님께서 불자들에게 그림으로 그려줘 몸에 지니고 다니게 했다. 일본산 고급시계로 앞면에는 관세음보살 여의주 보험수진언을 넣고 뒷면에는 부처님진언을 넣어 품위가 있고 세련되며 선물로도 영원히 남을 듯이 담긴 최고급 선물이라고 관계자는 말한다. 여성용은 75,000원과 남성용은 85,000원에 축원불공을 마치고 보급하고 있다. 문의(080-330-7555)

관세음보살 백연화 향로

네 소망이 성취되고 후손이 영화롭고 번성하리라

'소원성취 향로' 화제집중
99%청동을 만든 국보급 명작

불경에 입각한 법구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관음예술원에서 불교의 관음 신앙에 등장하는 관세음보살의 영험의 손모양과 지물을 향로로 제작해 장간불공과 축원 불공을 마치고 시판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불교에서 관세음보살은 세상 모든 중생들의 소원을 성취 시켜주는 영험을 담고 있으며, 실제로 관세음 백연화는 큰 스님들로 하여금 그림으로 그려져 어려움을 겪는 불자들에게 긴급비방으로 사용해 왔다. 출시한지 100일도 안되어 관세음보살의 성심으로 어려운 사업장이 부도 위기를 넘기고 2년간 피하기만 한 소송에서 승소를 하고, 어렵다고 생각한 아들이 S대학에 합격하고, 팔리지 않아 고민하던 부동산이 팔리는 등 관세음보살님의 영험이 나타나고 있는 소원성취 향로다. 특히 갑신년에 부처님 공양구를 가정에 모시면 삼재도 소멸되고 가족이 건강하고 화목하며 화를 좇고 꾀었던 일들이 풀린다하여 인기를 끌고 있다. 관세음보살백연화 향로는 99%청동만으로 국내에서 불경에 입각해 제작했으며 중국에서 싸게 건들어 들어오는 향로는 간들기 쉽게 합금을 하여 2~3년만 지나면 화색꽃이 피고 부식되고 변질되지만 관세음백연화 향로는 천년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으므로 가정의 번영과 안녕을 지켜주는 가보와 수호신으로 가정에서 여불식 또는 제례시 사용하다 후손에게 물려줘도 손색이 없는 국보급 향로로 인정 받고 있다. 가격295,000원 (080-330-7555)



무게2.7kg높이22cm가로17cm